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박사학위논문

근대적 발명품으로서의 도시공원 :  
19세기 후반 런던과 파리를 중심으로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황 주 영

## 국문초록

오늘날 도시공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상 공간이다. 하지만 이는 비교적 최근인 19세기 후반 유럽의 근대화 과정 중 생겨난 일종의 발명품이다. 19세기의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 인구 증가로 인한 삶의 질 악화, 그리고 주택난과 빈부 격차, 전염병 유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 도시공원이 도입되었고, 도시 구조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공원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악화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기획되고 제작되었다. 따라서 이것이 생겨난 사회, 정치, 도시적 맥락을 검토해야 함은 당연하고, 이렇게 생겨난 도시공원이 당대 도시민들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되었고, 그것에 내재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도시공원의 구성과 특징, 이용의 양상 등이 함의하는 다양한 담론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도시공원의 ‘모더니티’를 보았다. 19세기 후반은 르네상스 이래 발달한 인간 이성의 기반을 둔 진보를 확산하는 계몽주의의 교의가 정치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대도시의 발달을 통해 증명된 시기였다. 이는 서구 문명의 제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시대의 특징을 통칭하여 모더니티라 한다. 이러한 모더니티는 부르주아 모더니티로 대변되는 사회경제적 측면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났지만, 미학적 모더니티의 반 부르주아적 태도로 나타나기도 했다.

왕실의 사냥터를 뜻하던 파크는 19세기에 도시의 면적이 확장되고, 시민 사회가 도래하면서 대중에 개방되었고 오늘날의 공원으로 의미가 변화했다. 이러한 어의의 변화는 그 사회의 사상과 문화의 변화를 반영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기도 한다. 공원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도시 내의 공공 녹지의 기능을 했던 스쿼어와 산책로, 공동묘지, 위락공원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변화를 겪는다. 19세기 후반 런던과 파리 등지의 서유럽 대도시에서의 모더니티는 이 시기, 이곳에서 도시공원이라는 근대적 시설이 필요에 의해 발명되게 된 사회적, 문화적인 조건을 반영한다.

급격히 발달한 도시 환경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연의 도입, 나아가 이를 통한 진보의 보장이 도시공원의 목표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도시개발과 관련된 경제

적 목적, 보이지 않는 감시를 통한 사회 통제, 부르주아 중심의 사회적 이데올로기 주입 등이 숨어 있었다. 합리적 이성애 토대를 둔 인류의 진보를 확신했던 모더니티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발생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도시공원이라는 건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발명했다. 공원은 ‘도시의 허파’였고, 이곳에서의 활동을 통해 시민 대중의 건강뿐 아니라 교양과 도덕성도 함양해야 했다.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생겨난 도시공원은 도시 내의 배치에서뿐 아니라 그 내부 구성에서도 도시 조직의 성격을 내포한다. 근대 도시의 특성은 도시공원에서도 나타나고, 공원은 이를 재현하는 곳이자, 이를 인식하는 장이기도 했다. 도시공원이 내포하는 여러 가지 성격은 도시공원이 19세기에 형성된 근대 사회와 시민의 근대적 일상 속에서 구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둘러싼 도시와 시민의 일상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의 안정과 격변, 진보와 개발, 갈등과 긴장, 계급과 젠더의 구분 등은 도시공원이 지닌 다양한 층위를 통해 드러난다. 즉, 도시공원은 근대 사회의 다차원적인 삶의 양상을 내포한다.

도시공원은 문화화된 자연을 재현하는 장이었고, 이는 우리가 자연을 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미쳤다. 도시공원 속의 자연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자연이 아니라, 설계와 의도에 맞춰 가공되고 조정된,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상화된 자연이었다. 도시공원은 일종의 문화적 자연이자, 자연이라는 형식을 띤 문화였다.

본 논문의 배경이 된 서유럽 대도시의 19세기 후반은 근대 자본주의와 시민 민주주의가 발전하던 시기로서, 소비하는 ‘대중’이 주인공이었다. 이들이 향유한 도시공원은 플라너르를 통해 당대의 문화적 가치가 전면부에 부각되는 일상의 공간이기도 했고, 박람회 등 국가적인 자부심을 과시하는 장소의 일부이기도 했다. 혹은 급격한 도시화의 부작용과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도시공원이라는 제도와 시설을 통해 근대를 살던 사람들은 ‘바람직한 시민’이 되었고, 여기에는 다양한 권력 기제가 작동했다. 산책, 휴식, 문화 활동, 스포츠, 사교 활동 등 도시공원에서 행해진 다양한 활동의 이면에는 올바른 시민을 양성하는 제도가 ‘공중위생’과 ‘공중도덕’이라는 이름하에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시공원의 형성과 발전은 결코 양식적, 형태적 분석에 대한



연구에 한정될 단순하고 중립적인 영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도시공원은 대도시 내의 ‘자연’으로서 휴식과 여가의 장이 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함의를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공간이었다. 도시공원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도시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자연을 향유하는 장소를 표방했지만, 그 위치와 형태, 내용에서는 철저하게 부르주아적이었다. 도시공원은 근대의 특징인 계몽, 도시, 진보, 합리, 발전, 이성을 체현한 공간이었고, 이는 근대의 주인공인 부르주아가 추구한 가치였다. 공리주의적 효율성과 자본주의 경제체제,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19세기의 근대 사회를 이끌었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근대적 변용을 겪었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위생과 질서의 유지라는 기능을 수행했고, 당대의 미적 취미를 반영했다. 도시공원이라는 공간을 조성하고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19세기 후반의 모더니티의 제양상을 찾아 볼 수 있다.

도시공원의 조성과 발전의 양상을 추적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반영하는 모더니티, 그리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보았다. 도시공원은 엄밀한 계획 하에 조성된 ‘근대적 발명품’이고, 합리성과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공간이었다. 본 논문에서 논의한 19세기 후반의 서유럽의 대도시에서는 수많은 근대가 ‘발명’되었고, 도시공원도 그 중 하나이다. ‘모더니티’의 근원과 영향력, 지속성에 대한 담론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고, 이에 대한 탐색 또한 계속되어야 한다.

주요어 : 도시공원, 모더니티, 19세기, 이상적 자연, 근대 도시, 부르주아,  
파리, 런던

학번 : 2008-30687

# 목 차

##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 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	10
제 3절 선행연구의 검토 .....	14
제 4절 연구의 방법과 과정 .....	24

## 제 2장 근대 도시와 모더니티

제 1절 모더니티와 19세기 .....	29
1. 모더니티의 개념 .....	29
2. 19세기 후반의 모더니티와 도시공원 .....	38
제 2절 사회 변동과 도시화 .....	42
1. 대중의 등장 .....	42
2. 자본의 시대 .....	54
3. 대도시에서의 삶 .....	60

## 제 3장 도시공원의 형성

제 1절 공원 개념의 변화 .....	80
1. 근대 공원의 형성 .....	80
2. 시립 공원의 등장 .....	91
제 2절 녹지 공간의 구성과 전개 .....	100
1. 공원보다 작은 공원: 스퀘어 .....	100
2. 걷기 위한 공원: 산책로 .....	111
3. 죽은 이와 산 자의 공원: 공동묘지 .....	131
4. 즐거움을 위한 공원: 위락 정원 .....	138

## 제 4장 근대적 발명품 도시공원

제 1절 사회의 반영으로서의 도시공원	153
1. 도시의 재구성	153
2. 규율의 투영과 여가의 발산	162
제 2절 자연의 스펙터클로서의 도시공원	178
1. 가공된 자연	178
(1) 자연의 재현	
(2) 도시 내의 자연-시골로서의 공원	
2. 문화적 자연, 또는 자연의 문화	198
(1) 자연과 문화의 경계	
(2) 사회 질서의 공간화	
제 3절 근대적 시설로서의 도시공원	218
1. 공원과 도시 공간 구조	218
(1) 대도시와 공원	
(2) 도시 개발의 요소	
2. 근대적 인식의 장	237
(1) 근대 시민 형성의 공간	
(2) 부르주아 정체성 형성의 장	
(3) 플라너르의 영역	

## 제5장 결론 277

인용문헌	282
도판목록	302
표목록	310
Abstract	311

# 제 1장 서론

##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시공원(urban park)은 19세기 유럽의 근대화 과정 중 ‘발명’되었다. 이 시기 급격한 속도로 진행된 근대화는 다양한 분야에 자취를 남겼고, 조경도 예외는 아니었다.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은 근대의 정치와 경제 체제를 규정했고,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사회가 형성되었다. 근대 사회는 일상을 다방면에서 변화시켰고, 1830년대를 지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근대적 특성 혹은 모더니티라고 부르는 것들이 갖추어졌다.<sup>1)</sup>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19세기 근대 사회는 20세기, 그리고 오늘날 21세기 초반을 구성하는 원형이 된다.

산업혁명 이후의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 인구 증가로 인한 삶의 질 악화, 그리고 주택난과 빈부 격차, 전염병 유행 등은 이미 19세기에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산업혁명 이전 도시의 이미지가 “경관 속의 도시(city in the landscape)”였다면(도판 1-1), 19세기의 도시는 “주택의 바다 속의 섬 같은 경관(island of landscape in a sea of houses)”(도판 1-2)으로 전도되는데, 이는 급격한 도시화와 이에 따른 공간 부족에 기인한다.<sup>2)</sup> 산업화의 영향은 물리적 측면과 심리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도시의 형태와 조직을 모두 변형시켰다. 도시 내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녹지의 확보와 유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했고, 이후 도시공원은 도시 구조의 핵심적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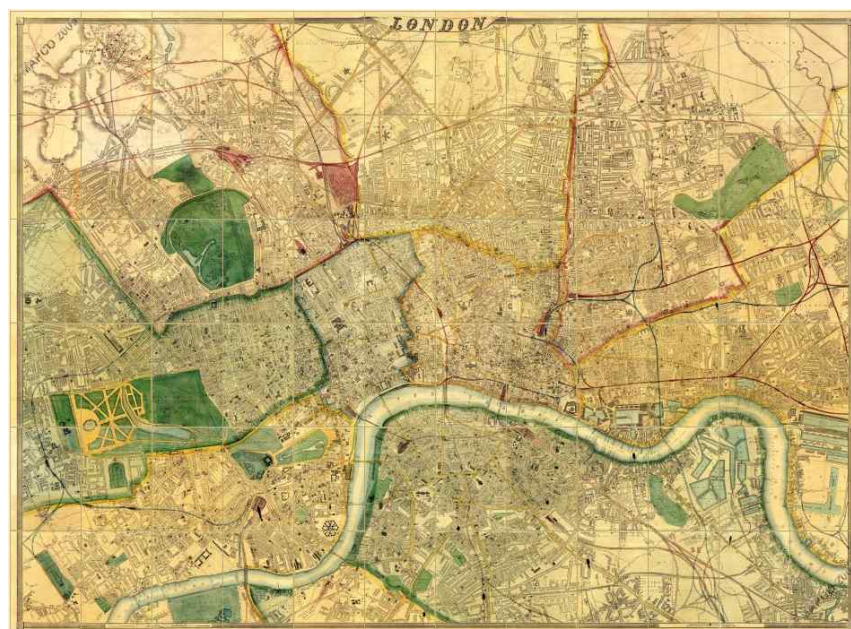
---

1) 하우저는 1830년 7월혁명 이후 19세기가 시작되고, 이 시기에 이미 19세기의 모든 특징(부르주아의 승리와 노동자계급의 투쟁, 공업화, 경제적 합리주의, 역사과학/정밀과학의 발전, 계속된 혁명의 실패와 정치적 현실주의, 낭만주의 등)이 나타난다고 본다. Arnold Hauser, *Sozialgeschichte der Kunst und Literatur*, 백낙청, 엄무웅 (공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현대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4), pp. 3-6.

2) Clemens Steenberg, “Teatro ristico: The Formal Strategy and Grammar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Modern Park Design: Recent Trends*, Martin Knuijt, Hans Ophuis and Peter Saane (eds.) (Amsterdam: Thoth, 1995), p. 120.



<도판 1-1> 브라운 & 호헨베르크, <급속도로 성장하는 영국 왕실의 도시, 런던>, 1572-1624.  
 자료: <http://www.sanderusmaps.com>



<도판 1-2> 웰러, <1868년의 런던 지도>  
 자료: <http://mapco.net/>

소로 자리 잡는다. 근대 도시의 공원은 명확한 목적 하에 기획되고 제작된, ‘근대적 발명품(modern invention)’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전략이 관여되어 있고, 이는 근대 도시공원 연구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20세기 이래 현대 조경의 중심은 공원이 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도시사, 조경사, 문화사, 미술사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정주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원에서 공원으로 조경의 중심축이 넘어가던 19세기 말의 이행기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많지 않다. 19세기 후반은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경사에서도 가장 많은 혁신과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개인 정원에서 공공 공원으로의 변화”<sup>3)</sup>는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핵심적인 개념의 변화를 배태한다. 왕이나 귀족, 성직자 같은 특권층의 사유지였던 정원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면서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녹지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교외에 자리한 정원에서 도심에 위치한 공원으로 조경 설계의 중심이 이동했다. 과거 정원이 건축물에 종속되었다면, 공원은 건축물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지위를 획득했다.<sup>4)</sup> 정원은 소유자나 제작자가 담고자 한 다양한 문학적, 정치적, 개인적 의미를 담았지만, 불특정 다수인 대중이 누리는 공원에서는 보다 대중적인 의미를 재현했다.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가드닝(landscape gardening) 혹은 플레이스 메이킹(place making)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던 조경의 명칭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로 정립되었다.<sup>5)</sup>

---

3) 조정진, “조경의 사회적 가치와 실천방향,” 도시조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과 디자인 실천전략 심포지움, 2010년 6월 10일, p. 2.

4) Hans Sedlmayr, *Verlust der Mitte: die bildende Kunst des 19. und 20. Jahrhunderts als Symptom und Symbol der Zeit*, 박래경 (역), 『중심의 상실: 19-20세기 시대 상징과 정후로서의 조형 예술』 (서울: 문예출판사, 2002), pp. 170-2.

5) 옴스테드와 보가 센트럴 파크를 조성하며 처음으로 “landscape architecture”라는 용어를 정착시켰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이미 19세기 초 영국에서 사용하던 표현이었다. 스코틀랜드의 아마추어 예술 비평가인 미즌(Gilbert Laing Meason)이 1828년 출판한 풍경화 속에서의 건축물과 경관의 관계를 다룬 『On The Landscape Architecture of the Great Painters of』

본 논문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 시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대적 의미에서의 ‘조경’의 시발점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한다.

19세기 말의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도시공원이 나타났고, 이는 동시다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 도처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근대적 현상 중 하나이다. 근대 민주주의 시민 사회와 도시 정비의 상징으로서의 도시공원에는 다양한 층위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흔히 뉴욕의 센트럴 파크(Central Park)가 예시된다. 물론, 1857년 움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와 보(Calvert Vaux)의 <그린스워드 계획(Greensward Plan)>의 당선과 수년간의 공사를 통해 1873년 완공된 센트럴 파크를 계기로 근대적 의미에서의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이 시작되었음은 주지된 사실(史實)이다. 미국 중심의 조경사 연구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며, 현대 조경의 중심지로서의 미국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기술된 근현대 서양 조경사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대부분 18세기-19세기 초기의 풍경화식/픽처레스크 정원 이후 19세기 후반 대도시에 등장한 도시공원을 다루고, 이어 20세기 전반부는 미국에서의 전개를 중심으로 논의된다.<sup>6)</sup>

---

Italy』에 처음으로 landscape architecture라는 조어가 나타났다. 이후 라우던(John Claudius Loudon)은 자신이 출판하는 정원 잡지 <Gardener's Magazine>과 저서 『The Landscape Garde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of the Late Humphry Repton, Esq, Being His Entire Works on These Subjects』(1840)의 제목과 서문에서 ‘landscape architecture’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대중화시켰다. 미국의 다우닝(Andrew Jackson Downing)은 저서 『A Treatise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Landscape Gardening, Adapted to North America』(1841)에서 ‘landscape architecture’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조경 설계가의 개념을 미국에 도입했다. 움스테드와 보가 센트럴 파크 설계 공모에서 처음으로 ‘조경가(landscape architect)’라는 직함을 사용했고, 1899년 ASLA(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가 발족하면서 전문 직종으로서의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의 명칭이 확립되었다. Jane Shoaf Turner(ed.), *The Dictionary of Art* (New Yoark: Grove's Dictionaries, 1996), s.v. “Landscape Architecture”와 상기 인용문헌.

- 6) 서양조경사 연구서의 고전인 뉴턴(Norman T. Newton)의 『Design on the Land: The Developent of Landscape Architecture』(1971)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집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대부터 출판 당시의 현대 조경을 아우르는 그의 연구에서는 영국의 공원 조성을 다

이러한 미국 편향적 경향에는 20세기 초반의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권력 질서는 미국 위주로 재편되었고, 미술과 문학, 음악 등의 예술 장르의 중심지도 미국으로 이동했다. 수많은 유럽의 예술가들이 전화를 피해 미국에 왔고, 미국은 역사가 짧고 전통이 부재하다는 신대륙의 콤플렉스를 해소하고자 정치, 경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sup>7)</sup> 이러한 커다란 헤게모니의 이동 속에서 조경도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이는 미국의 센트럴 파크에 대한 평가와 해석, 그리고 그 안에 내재한 이데올로기에도 반영된다.<sup>8)</sup> 환언하면, 전후 미국 경제의 중심지가 된 뉴욕의 중심부에

---

론 16장과 독일과 프랑스를 다룬 17장 이후 정원 도시(31장)를 제외한 근현대 조경사의 대부분이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프레질(Philip Pregill)과 볼크먼(Nancy Volkman)의 『Landscape in History: Design and Planning in the Western Tradition』(1993)은 선사시대부터 20세기까지의 내용을 다루는 전반부와 북미의 조경을 다루는 후반부로 내용이 양분되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다루는 19세기 후반 서유럽의 공원 조성은 10장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한 부분으로만 간략히 나타나, 이후의 미국 사례 연구와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하지만 Monique Mosser and Georges Teyssot, *The History of Garden Design: The Western Tradition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Day* (London: Thames and Hudson, 1991); Elizabeth Barlow Rogers, *Landscape Design: a History of Cities, Parks, and Gardens* (New York: Harry N. Abrams, 2001) 등 1990년대 이후 영미권에서 출판된 주요 조경사 관련 서적은 유럽과 동양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이후 미국은 대중문화에서는 할리우드 영화와 재즈, 디즈니를, 미술에서는 추상표현주의를 전 세계로 수출하여 미국 예술의 선도자적 위치를 공표한다.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 탈식민지 연구가 이에 내재한 정치공학적인 메커니즘과 추상표현주의를 둘러싼 신화를 폭로하고 해체하면서 활발한 논쟁이 제기되었다. 하르투니언은 이를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이라는 문화적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산업화 과정을 겪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대량생산과 속도, 기술, 새로움, 일상생활에서의 상품화 과정 등을 포괄한다. Harry D. Harootunian, *History's Disquiet: Modernity, Cultural Practice, and the Question of Everyday Life*, 윤영실, 서정은 (공역), 『역사의 요동: 근대성,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 (서울: 휴머니스트, 2006), pp. 149-51.

8) 아울러 모더니즘 조경에 대한 담론도 20세기 미국의 모더니즘 조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 19세기 말-20세기 초 비엔나와 프랑스에서 시도된 모더니즘 정원과 동시대 유럽 조경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모더니즘 조경 담론은 198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모더니즘 조경의 본질을 탐색하기보다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관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환원적인 성격을 보였고, 지속되지 못했다. 이런 담론의 부족은 이론의 부재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논의는 배정환, “이론과 실천의 접점에서,”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성남: 도서출판 조경, 2004)을 참조하라.



자리 잡은 대규모 공원이 한 도시의 중심을 넘어 현대 조경의 중심이 된 것이다.

물론 동시대 유럽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정원과 공원이 활발히 조성되었고, 도시 설계적 차원으로 진화했다.<sup>9)</sup> 그리고 이보다 앞서,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인 19세기 후반 런던과 파리 등의 서유럽 대도시에서 조성된 도시공원 또한 근현대 조경사 연구에서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시기 대도시에서 등장한 도시공원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역사적 사실의 기록과 형태적 분석, 양식적 기술에 치중되어 있고, 그 안에 내재한 다양한 의미, 특히 ‘모더니티(modernity)’와 관련된 논의는 간과되어 왔다. 이는 근현대 유럽 조경사 연구와 관련된 또 다른 질문, 즉 본 논문의 주요 논제인 ‘19세기 후반 도시공원의 모더니티’에 대한 담론이 부재한 까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모더니티는 본 논문의 중심 개념인 동시에 중요한 해석의 틀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논하는 모더니티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이것이 19세기 후반 서유럽의 대도시에서 등장한 도시공원에 재현되는 양상 등은 이후 본문에서 상세하게 전개된다. 하지만 모더니티라는 말은 적용되는 영역과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근대성’ 혹은 ‘현대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어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sup>10)</sup> 이에 우선 본

---

9) 오스만에 이어 프랑스의 도시계획을 발전시킨 포레스티에(J. C. N. Forestier)는 1908년 발표한 “대도시와 공원 체계(Grandes villes et systèmes de parcs)”에서 오스만과 알팡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그는 도시미화와 환기 체계에서의 그들의 업적을 계승해야 하고, 이의 지속적인 발전은 공지(espaces libres)와 공원, 산책로의 조성으로 병행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J. C. N. Forestier, *Grandes villes et systèmes de parcs* (Paris: Éditions Norma, 1997), pp. 49-50. 아울러 20세기 프랑스 정원사에 대한 개괄적 정리는 Hervé Brunon and Monique Mosser, *Le jardin contemporain* (Paris: Nouvelles Éditions Scala, 2011), pp. 7-13을 참조하라.

10) 하지만 이 두 번역어는 모두 모더니티가 담고 있는 복잡한 성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근대성’이라는 번역어는 산업혁명과 이성 중심주의와 관련된 특성만을 강조하고, 이를 비판하던 예술가들의 모더니티를 배제하고, 모더니티가 담고 있는 다양한 층위를 수용하지 못한다. 또한 ‘현대성’은 모더니티라는 용어가 처음 생겼을 때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동시대성(contemporariness)’과 혼용되기 쉽다. 이 둘은 모더니티가 담고 있는 다의적 성격을 모두 포괄하는 번역어가 아니기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모더니티’로 표기한다.

연구에서 논의되는 모더니티의 개념을 간략히 정리한다.

모더니티는 어원적으로 ‘지금 현재’를 뜻하는 모던(modern)에서 파생했고, 모던(modern) 것에 대한 인식 혹은 그러한 것의 표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모더니티의 개념은 16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의 ‘근대(modern times)’로 분류되는 시대에 생겨났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자연과학의 급격한 발전을 통해 전환된 세계관은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으로 발전한다. 계몽주의는 인간 이성에 기반을 둔 진보를 확신했고, 이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사상적 전환을 통해 입증된다. 본 논문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19세기 후반은 인간 이성을 통한 진보에 대한 믿음이 프랑스대혁명으로 대표되는 정치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도시의 발달을 통해 증명된 시기였고, 이는 서구 문명의 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모더니티는 사회경제적 측면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났지만, 문화와 예술운동에서의 반항적 태도로 나타나기도 했고, 두 양상이 상충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 하에서 본 논문에서 다루는 모더니티는 19세기 서유럽의 대도시에서 공원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문화적인 조건인 동시에, 이에 대한 반응과 의미까지도 아우르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는 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던 사상과 태도라는 점에서 일종의 시대정신(Zeitgeist)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원은 도시 내에서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미적 공간, 육체적, 도덕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장소, 순수한 야외 녹지 공간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오늘날 (대형) 공원에 대한 담론에서 19세기에 조성된 공원은 산업 도시의 혼란을 벗어나 평온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목가적인 풍경의 오픈 스페이스로 단순화되기도 한다.<sup>11)</sup> 하지만 19세기 도시공원의 목적을 이렇게 한정하는 태도는 그 이면에 숨은

---

11) Julia Czerniak and Geroge Hargreaves (eds.), *Large Parks*, 배정환+idla (공역), 『라지 파크: 공원 디자인의 새로운 경향과 쟁점』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10).

다양한 목적을 은폐한다. 이미 이 시기에도 공원은 도시 개발에서 매우 유용한 전략적 수단이었고, 당시의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행정적 문제를 내포하는 공간이었다. 급격한 도시화로 생겨난 열악한 주거 지역의 재개발 과정 중 공원이 조성되었고, 그 주변으로 고급 주택지가 개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고 이는 자연스럽게 부동산과 택지, 도시 개발과 맞물린다. 19세기에 도시공원은 도시의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매개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시대의 요구에 응하는 ‘다른 공원’의 역할을 고민하게 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동기와 기술적 혁신이 있었기에 공원이라는 하나의 ‘제도(institution)’가 19세기 후반 서유럽의 대도시라는 특정한 장소와 시기에 등장하여 수용되고 특정한 세계관에 따라 이상적인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공원은 근대 사회와 시대를 대변하는 제유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원의 전통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혁신의 도전을 받아왔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sup>12)</sup> 합리적 이성 토대를 둔 인류의 진보를 확신했던 모더니티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발생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도시공원이라는 건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발명했다. 공원은 ‘도시의 허파’였고, 이곳에서의 활동을 통해 시민 대중의 건강뿐 아니라 교양과 도덕성도 함양해야 했다. 이런 사회개혁적 프로그램 또한 19세기 도시공원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요소이다. 19세기는 사회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이전 시대와 구분된다. 근대 사회는 권위와 폭력에 의한 강압적 지배와 시혜가 아니라, 대중(public)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실행을 통해 통치된다.<sup>13)</sup>

12) John Dixon Hunt, *A World of Gardens* (London: Reaktion Books Ltd., 2012), p. 243.

13) 도시공원의 조성 뿐 아니라, 현대적 학문으로서의 도시계획(Urban Planning)의 시작 또한 이런 역사적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영국의 정원도시운동(Garden City Movement)과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 도시계획법(Town Planning Act) 등의 제정은 도시계획의 사회 정책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 사회통제의 기술로서의 현대의 사회 정책에

그런데 이 시기에 도입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었고, 노동자 계급과 도시 빈민 등 “위험한 계급”<sup>14)</sup>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 “순치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sup>15)</sup>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에는 공원이 당대 사람들의 일상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어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기능과 변화를 어떻게 담았고 그 이유와 상관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공원이 형성된 역사의 연대기적 서술이나 양식, 기술적 측면을 논의하는데 머물렀고, 공원이 당시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기능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모더니티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이 시기를 몸소 살아온 근대인들이 대도시에서 경험한 일상적 삶이 바로 모더니티의 토대였고 그들의 일상이 도시공원의 모더니티를 형성하는 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맥락이 배제된 채 평면적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도시공원의 조성 과정은 역사적 맥락에 놓여있고, 이러한 맥락 하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역사적 배경에서 분리된 단선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는 비역사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공원의 디자인과 시설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공원이 생겨났고, 그 맥락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공원을 어떻게 경험했는가이다.

본 연구는 19세기 후반 런던과 파리 등의 서유럽 대도시를 중심으로 등장한 도시공원의 형성 과정을 조망하고, 이를 통해 도시공원이 담고 있는 모더니티를 고찰한다.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생겨난 도시공원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도시적 담론은

---

대한 논의는 Joan Higgins, “Social Control Theories of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al Policy*, 9(1), 1980, pp. 1-23을 참조하라.

14) 산업혁명을 통해 대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를 범죄와 질병,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위험한 계급’으로 보는 관점은 이미 19세기 전반에 형성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Louis Chevalier, *Classes laborieuses et classes dangereuses à Paris pendant la première moitié du XIX<sup>e</sup> siècle* (Paris: Perrin, 2002)을 참조하라.

15) Paul Rabinow, *French Modern: Norms and Forms of the Social Environ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p. 9.

모더니티의 한 면을 형성하고, 공원과 녹지에서의 일상적 활동은 도시의 문화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대도시가 등장하기 시작한 이 시기,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중요한 일상 요소였고, 공원 형성에 필요한 계획과 정책, 재원, 인적 네트워크의 조합 또한 이전 시기와는 큰 차이를 보이며, 공원 중심의 현대 조정으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 도시 형성 과정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보고, 도시 개발의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가치, 도시에서의 일상적 삶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공원이 태어난 시기, 이를 둘러싼 담론들에 대한 고찰은 오늘날의 도시적 맥락에서 공원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제 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도시라는 장소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 이들이 형성한 문화, 가치, 규범을 토대로 하여 도시공원이라는 새로운 공간시설이 만들어졌다. 즉 하나의 공원에는 당대의 양식적 요소를 지배한 설계미학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 도시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양상의 관계가 반영된다. 즉 도시공원은 모더니티의 제 양상을 내포하고 반영한다.

본 논문은 19세기 중후반 서유럽의 대도시에 형성된 도시공원 중 주로 기존 녹지를 공원으로 전환하거나, 도시 개발과 함께 새로이 형성된 크고 작은 도시 녹지의 사례를 주로 다룬다.<sup>16)</sup> 보다 구체적으로는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 재위기

16) 지리적으로 서유럽이라는 동일한 집단 속에 포함되나, 본 논문이 다루는 국가들의 도시공원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19세기 말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국가(nation-state)의 형성이 완성되던 시기였고, 각기 다른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있었다. 웨일즈(1536), 스코틀랜드(1707), 아일랜드(1801)가 잉글랜드와 결합된 연합왕국(United Kingdom)이 된 영국은 이미 중세에 시작된 의회정치와 왕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프랑스는 비교적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다. 한편 독일은 39개의 군소국가로 분리되어 있었고, 1871년에 비스마르크가

(1837-1901)의 런던<sup>17)</sup>과 제 2제정(1852-1870) 시기의 파리가 중심이 된다. 구체제(Ancien Régime) 하에서 왕이나 귀족, 종교 시설의 사유 녹지였던 정원은 프랑스대 혁명(1789) 이후 공공 공간이 되었고, 영국이나 독일처럼 혁명을 겪지 않은 국가에서도 점차 대중에 개방되었다. 파리에서는 나폴레옹 3세(Napoléon III, Louis-Napoléon Bonaparte, 재위 1852-1870)와 쉐 지사(Préfet de Seine) 오스만(Georges-Eugène Haussmann, 임기 1853-1870)의 파리 개조를 통해 크고 작은 스퀘어와 가로수가 심긴 대로, 공동묘지, 외곽 지역의 대규모 공원 등이 조성되었다. 런던에서도 점진적인 도시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스퀘어(square), 위락 정원(pleasure ground), 공용지 커먼(common) 등이 공원으로 전환되었고, 시민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공원이 조성되었다.<sup>18)</sup> 본 논문은 각 나라별로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된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련된 담론의 형성과 그 실천이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진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근대적 발명품’으로서의 도시공원의 특성과 성격을 규명한다.

---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이후 독일제국을 선포하며 이를 통일했다. 국민국가라는 시공간 속에서 근대적 개인의 정체성이 확보되었고, 여러 집단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 국가를 형성하고자 했다. 국민문화제도의 형성 과정에서 도입된 의무교육은 문맹률을 낮추고, 하나의 지방어를 표준어로 지정하여 국민국가 전역에서 사용되는 지배적인 의사소통 매체로 일반화시키며, 동질적인 문화를 ‘발명’했다. 근대국가라는 영토적 공간과 집단적 기억을 통해 하나의 국민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의 공동체를 성립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는 이후 제국주의가 출현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C. A. Bayly, *The Birth of the Modern World, 1780-1914* (Malden, MA: Blackwell, 2004); François Furet and Jacques Ozouf, *Lire et écrire: l’alphabétisation des Français de Calvin à Jules Ferry* (Paris: Éditions de Minuit, 1977); Pierre Nora, *Les lieux de mémoire*, 김인중, 유희수 외 (공역), 『기억의 장소』 (과주: 나남, 2010); Eric J. Hobsbawm, *The Invention of Tradition*, 박지향, 장문석 (공역), 『만들어진 전통』 (서울: 휴머니스트, 2004) 등을 참조하라.

17) 본 논문에서 다루는 시기의 런던은 아직 통합된 지자체가 아니었다. 1888년 런던 시의회(London City Council)가 조직되기 이전의 런던은 중심부의 시티와 웨스트민스터, 서더크(Southwark) 자치구 등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18)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공국 체제였던 독일에서도 여러 이론서의 영향으로 국민정원(Volksgarten) 개념이 소개되고, 계몽 군주와 지식인들에 의한 공원운동이 시작되었다. C. C. L. Hirschfeld, *Theorie der Gartenkunst*, Linda B. Parshall (ed. and trans.), *Theory of Garden Ar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1).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도시공원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공원, 즉 퍼블릭 파크(public park)에 한정되지 않는다. III장에서 상술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공원은 19세기 후반 대도시에서 나타난 새로운 범주의 공공 녹지 공간이었고, 기존의 스퀘어와 산책로, 위락 정원, 커먼 등의 다양한 녹지 공간은 공원에 앞서 공원의 기능을 수행했다. 오늘날 공원과 정원, 도시의 여러 식재된 공간의 집합을 지칭하는 용어인 녹지 공간(green space)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통용되기 시작한 표현이다.<sup>19)</sup> 19세기 후반에는 영국에서는 ‘공공보행로선정위원회(Select Committee of Public Walks)’가, 프랑스에서는 ‘파리 산책로와 식재 부서(Service des promenades et des plantations de Paris)’가 공원의 조성을 총괄했고 공원과 기타 녹지 공간의 범주가 분화되지 않았다. 도시공원이 등장한 19세기 후반에도 공원 외의 다양한 녹지 공간은 도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공원과 같은 곳이었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19세기 후반의 대도시에서 공원의 기능을 수행한 스퀘어와 산책로, 공동묘지, 위락 정원 등의 도시 내 녹지 공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본 논문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19세기 후반의 서유럽 대도시에서 나타난 근대적 시설의 하나로서의 공원의 제 양상을 조망한다.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겪으며 근대 사회로 나아간 서유럽에는 새로운 시설과 제도가 여럿 등장했다. 무계획적인 도시의 확장에 따른 보건과 도덕, 여가, 도시 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 제시된 도시공원은 당시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해답을 제시했지만, 또 다른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이는 또한 도시개발과 공간 지배의 전략적 수단으로의 전용이나 사회 통합을 아우르는 정치공학적·기술적 측면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과정을 통해 도시공원의 모더니티를 둘러싼 논의의 범

---

19) Pierre Merlin and Françoise Choay (eds.), *Dictionnaire de l'urbanisme et de l'aménagement* (Paris: PUF, 2009), s.v. "espace vert."

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파크(park)는 흔히 공원(公園)으로 번역되지만, 본래 이는 성이나 저택의 정원 바깥쪽에 위치한 사냥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 넓은 숲 지역을 지칭한다. 기존의 파크가 도시를 벗어난 교외나 시골에 위치한 사적인 공간이었다면, 도시공원은 이와 반대되는, 즉 도시 내의 공공 공간으로 개념이 전환되었다. 개인의 사냥터로서의 ‘파크,’ 본고에서 다루는 19세기 중반 이후 형성된 ‘퍼블릭 파크(public park),’ 그리고 우리말 ‘공원’ 사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원래 의미에서의 파크를 ‘파크’로 표기한다.<sup>20)</sup> 또한 하이드 파크(Hyde Park)나 그린 파크(Green Park)처럼 과거부터 이어진 명칭이 고유명사화 된 공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파크로 표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부터 사용된 파크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가 바뀌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상황과 맥락, 그리고 그 의미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세습적 계급 사회를 벗어나 부르주아 중산층이 지배적인 민주주의 대중사회로 진입하던 이 시기, 공원은 근대의 일반 시민을 형성한 부르주아 중산층과 노동자 계급, 상류층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평등의 장을 목표로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보이지 않는 구분이 나타났고, 대부분의 공원은 상류층과 부르주아가 전용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런 과정의 추적을 통해 근대 도시에서의 새로운, 보이지 않는 계급투쟁을 유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서유럽의 대도시에 등장한 도시공원이 이후 전 지구적 도시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

20) ‘공원’이라는 말은 우리보다 앞서 19세기 중반부터 서양 문물을 도입한 일본이나 중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메이지6년(1873년) 공포된 <태정관포달(太政官布達)>을 통해 공원 제도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지만 20세기 초 후쿠바(福羽逸人)가 park를 공원(公苑)으로, public garden을 공원(公園)으로 번역하여 그 차이를 명시했다. 우리나라에 공원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과 일본이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맺은 1876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황기원, “서울 20세기 공원·녹지의 변천,”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pp. 385, 438; 이시카와 미키코, 『都市と緑地』, 이용태 (역), 『도시와 녹지』 (서울: 현진기획, 2004), pp. 198-215를 참조하라.



보면, 이를 통해 도시공원이 도시화, 서구화된 사회에 나타난 근대적 현상, 즉 모더니티의 산물임을 파악할 수 있다.

당대의 문화적 규범과 가치, 도시적 상황,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그 문화를 통합하는데 큰 역할을 한 일종의 사회적 인공물(social artifacts)로서의 공원을 이해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늘날 도시공원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그것의 체계가 확립된 뿌리로 돌아가 보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본 논문은 도시공원의 특성과 그것이 근대적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양상을 밝히고, 도시공원의 생성에 내재한 사회적 함의와 그것이 변동을 검토한다. 하지만 도시공원 시발의 전후 상황과 관련된 이론적 자료의 검토를 제외하면, 본 논문의 공간적·시간적 범위는 19세기 후반의 서유럽의 대도시로 한정된다.

### 제 3절 선행 연구의 검토

도시공원을 포함한 조경 작품뿐 아니라 (대)도시 자체도 단번에 완성되어 영구불변하는 곳이 아니고, 그곳에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고 형성된 수많은 지층이 온축된다. 공원을 포함한 도시 내의 녹지는 인간의 정주와 함께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든, 도시계획이나 설계를 통해 조성된 것이든 간에 도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본 절에서는 논문의 중심 주제인 19세기 후반기 유럽 대도시의 도시공원과 관련한 연구를 둘러싼 이론적 근간을 살펴본다.

근대 대도시에 도시공원이라는 시설이 도입된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조경사와 도시계획사 관련 서적에서 기술하고 있고, 각 분야를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논거가 교차된다. 19세기와 20세기 도시 녹지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채드윅(George F. Chadwick)의 『공원과 도시(The Park and the Town, 1966)』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서유럽 도시공원의 형성기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서술한다.<sup>21)</sup> 여기에서 채드윅은 환경설계에 대한 영국의 4대 기여라고 하는 풍경화식 정원, 주택 스퀘어, 공원, 정원 도시(Garden City)<sup>22)</sup>가 연속된 발전 선상에 있다고 보고 그 과정을 추적한다. 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영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그는 집필 당시 진지한 학문적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던 섭정기(Regency, 1811-20)부터 빅토리아 여왕 재위기 사이의 소위 빅토리아 양식의 공원과 정원의 중요성을 옹변하고, 대상지의 형태와 맥락을 간과한 출판 당시의 공원 설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또한 공원 구성에 내재한 산업혁명 이후의 기술적 진보와 사회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와 기술적인 양상뿐 아니라 이에 내재한 예술 제 분야의 미적 발전도 함께 살펴보고자 했다. 한편 책의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유럽의 다른 도시의 발전에 대해서는 영국에서만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더니티와 관련된 문화사적 맥락은 거의 검토되고 있지 않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시립 공원(Victorian municipal parks)에 대한 연구를 해온 콘웨이(Hazel Conway)는 저서 『국민의 공원(People's Park, 1991)』에서 영국 도시공원 발전의 한 축을 이룬 시립 공원의 발전상을 상술했다.<sup>23)</sup> 그녀는

21) George F. Chadwick, *The Park and the Town: Public Landscape in the 19<sup>th</sup> and 20<sup>th</sup> Centuries* (London: The Architectural Press, 1966).

22) Garden City는 흔히 '전원도시(田園都市)'로 번역되지만, 이는 20세기 초 일본의 번역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고 원어의 개념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정원 도시'라는 용어를 채택한다. 하워드(Ebenezer Howard)가 1902년 출판한 『Garden Cities of To-morrow』(1898년에 발표한 『To-Morrow: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의 개정판)가 일본에 소개되었고, 1907년 일본 내무성 지방국이 이를 『전원도시』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것이 이 용어가 생겨난 계기가 되었다.

23) Hazel Conway, *People's Parks: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Victorian Parks in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특히 1990년대 영국에서는 19세기 후반 조성된 도시공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 전역에서의 공원 조성 붐에 대해서는 Harriet Jordan, "Public Parks, 1885-1914," *Garden History*, 22(1), 1994, pp. 85-113; Hilary A. Taylor, "Urban Public Parks, 1840-1900: Design and Meaning," *Garden History*, 23(2), 1995, pp. 201-221을 참조하라. 대표적인 공업도시인 맨체스터에서 도시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이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공원을 조성한 과정

공공보행로선정위원회의 설립과 이를 통한 공공 녹지의 조성 등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며, 그 과정에서의 사회 구조와 실제 설계 사이의 상호 작용을 추적한다. 이어 시민적 덕성의 함양과 교육을 강조한 당시의 공원 설계에는 이전 시기 런던 등의 대도시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위락 정원(pleasure garden)에 대한 반명제적 성격도 내포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다른 조경사나 도시설계사/도시계획사의 이론서에서 19세기 말의 유럽 대도시의 도시공원은 도시화에 따른 제반 문제의 해결로서 도시 내 공원이 조성되었다는 요지의 내용을 한두 장을 할애해 서술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통합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는 부족하다. 개별 공원 사례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연대기적 기술 위주가 대부분이었고, 각 공원의 문화적인 측면이나 이를 이용하는 이들의 반응과 행태 등에 대한 역사적 논의는 담보 상태이다. 미국에서도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공원 조성과 관리가 침체되었으나, 도시공원과 녹지가 다시금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은 1980년대를 전후하여 조성과 이를 둘러싼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런데 이 시기 대도시에 등장한 도시공원에 대해 여러 책에서 공통적으로 ‘발명(inven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sup>24)</sup> 이는 파크(park)라는 오래 전부터 있어 온 단어가 대도시 속의 녹지 공간을 지칭하는 말로 전용되면서 기존의 맥락을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 것을 암시한다. 이런 한 단어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

---

에 대해서는 Hazel Conway, “The Manchester/Salford Parks: Their Design and Development,” *The Journal of Garden History*, 5(3), pp. 231-260; Theresa Wybon, “Parks for the People: the Development of Public Parks in Victorian Manchester,” *Manchester Region Study Review*, 9, 1995, pp. 3-14; Peter Gurney,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in Manchester, 1896-1919,” *Manchester Region Study Review*, 11, 1997, pp. 12-23 등을 참조하라.

24) 한편 20세기 후반 이후의 도시공원 조성 그 다변화에 대한 논의에서는 ‘재발명(reinvention)’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된다. 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대상지를 설계대상으로 삼는 현대조경의 양상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19세기 후반 조성된 도시공원의 형태와 개념을 새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재발명’이기도 하다.

도 본 논문의 이론적 토대의 하나가 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진행된 사회과학과 도시 이론, 예술사, 문학과 철학 등의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사이의 학제 간 연구에서는 19세기 말 근대의 대도시를 둘러싼 제 문제가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근대를 특징짓는 문제 중 하나인 시각중심성(ocularcentrism)과 ‘보는 방식’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는 이미 1950-60년대 시작된 시각문화와 그것이 하나의 환경으로서 대도시에서의 일상생활의 형성하던 방식에 대한 논의를 계승하면서도, 당대의 새로운 패러다임[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 이를 심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진의 발명과 함께 나타난 대도시 경관의 재현, 대중문화, 시각 등에 대한 논의도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공원은 조용하고 공기가 맑은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 속의 자연’이기도 했지만, 멋지게 차려입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는’ 사교의 장이기도 했다. 이는 이미 이전 시기부터 산책을 위해 도시 내에 특별히 조성된 장소인 산책로(promenade)를 통해 형성된 문화였고, 19세기 후반에 신분과 경제력,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생겨나면서 대중화되었다.<sup>25)</sup>

‘19세기의 수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큰 변화와 발전을 겪은 파리의 오스만 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학자 핑크니(David Pinkney)는 『나폴레옹 3세와 파리의 재건(Napoléon III and the Rebuilding of Paris, 1958)』에서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치하에서의 도시 경관의 물리적 변화를 상술한다.<sup>26)</sup> 여기에서 그는 공공 인프라스트럭처(가로, 하수도, 수도, 건물, 공원 등) 조성

25) 황주영, “파리 산책로의 역사적 연원에 대한 소고,” 『한국프랑스학논집』 81, 2013, pp. 377-8.

26) David H. Pinkney, *Napoleon III and the Rebuilding of Pari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8). 한편 프랑스 학계에서는 핑크니의 저서가 전형적인 영미권 연구자의 방식으로 집필되었고, 프랑스 사학자 지라르(Louis Girard)가 1951년에 출간한 『제 2제

사업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핑크니는 이 시기 도시 곳곳에 조성된 공원과 스퀘어가 훌륭한 사회적 기반이 되었다고 상찬하지만, 그것이 당대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점에서 근대적이었는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조던(David P. Jordan)과 카르모나(Michel Carmona)는 나폴레옹 3세보다는 오스만의 성격과 비전이 오스만화의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보며 그의 생애를 중심으로 오스만화를 탐색한다.<sup>27)</sup> 이들의 세밀한 조사는 본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지만, 오스만의 업적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긍정적으로만 보는 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다.<sup>28)</sup>

구축된 공간이 당대 사회의 사상과 미적 취미, 정치사회적 맥락을 반영한다는 주장은 주로 정원사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정원의 문화적 의미를 탐색해온 헌트(John Dixon Hunt)는 18세기의 영국 풍경화식 정원 양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원 디자인과 당대의 예술과 문학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논증했고, 나아가 공원의 형성기인 초기 근대 시기의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탐색했다. 헌트는 정원이 그것이 생겨난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다고 보았고, 공원이라는 ‘근대적 발명품’이 생겨난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9)</sup> 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쉰커(Heath Schenker)는 19세기의 공원은 공원 이용자들이 사회적 위상을 전시하는

---

정의 공공사업 정책(La politique des travaux publics du Second Empire)』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평한바 있다. François Boudon, “L’architecture à Paris de 1850 à 1940, Revue des publication récentes,” *Revue de l’art*, 29, 1975, p. 107.

27) David P. Jordan, *Transforming Paris: The Life and Labors of Baron Haussmann* (New York: The Free Press, 1995); Michel Carmona, *Haussmann: His Life and Times, and the Making of Modern Paris*, Patrick Camiller (trans.) (Chicago: Ivan R. Dee, 2002).

28) 제 2제정기의 업적과 오스만에 대한 평가는 최근까지도 양극단에 놓여있었다. 오스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Nicolas Chaudun, *Haussmann au crible* (Paris: Editions des Syrtes, 2000)을 보라. 20세기 말부터 이 시기를 균형 잡힌 관점에서 재평가하거나, 18세기부터 지속되어 온 파리 도시 개발의 맥락에서 보는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9) John Dixon Hunt, *Gardens and the Picturesque: Studies in the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Boston: MIT Press, 1992); “Reinventing the Parisian park,” in *Tradition and Innovation in French Garden Art*, John Dixon Hunt and Michel Conan (eds.),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John Dixon Hunt, *A World of Gardens* (London: Reaktion Books Ltd, 2012).

일종의 무대와 같은 기능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sup>30)</sup> 즉 공원은 도시 내에 자연을 재창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무대장치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녀는 공원을 조성한 이들과 대중들의 행동 방식을 논한다.

프랑스의 도시이론가 쇼에(Françoise Choay)가 1975년 발표한 “오스만과 파리의 녹지 공간 체계(Haussmann et le système des espaces verts parisiens)”<sup>31)</sup>는 당시 영국의 모방으로만 평가되던 19세기 후반 파리의 녹지 조성 과정의 독창성과 새로움을 밝혀낸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를 벗어나 쇼에는 2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파리가 ‘근대의 수도’로 탈바꿈할 수 있던 것은 런던을 능가하는 녹지를 파리에 만들겠다는 의지를 지닌 통치자(나폴레옹 3세)와 실무에 능한 야심찬 행정가(오스만),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조경가(알팡)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다양한 사료를 통해 논증한다.

리미도(Louisa Limido)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제 2제정 시기 파리의 녹지 공간의 발전에 접근하고 있다.<sup>32)</sup> 리미도는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을 중심으로 전개된 기존의 연구를 벗어나, 조경가 알팡(Adolphe Alphand)과 원예가 바리에-데상(Jean-Pierre Barillet-Deschamps)의 작업을 중심으로 19세기 후반 파리의 공원과 스퀘어의 조성 과정을 탐색한다. 파리의 녹지는 소비 지향적 부르주아 사회의 산물이고, 이의 조성을 통해 부르주아적 취향과 가치가 주입되었다. 리미도의 논지에 의하면, 제 2제정기 조성된 공원과 스퀘어는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당대 사회의 모습과 그 모습까지도 모두 반영한다.

---

30) Heath Schenker, *Melodramatic Landscapes: Urban Parks in the Nineteenth Century*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9).

31) Françoise Choay, “Haussmann et le système des espaces verts parisiens,” *Revue de l'art*, 29, 1975, pp. 83-99.

32) Louisa Limido, *L'Art de jardins sous le Second Empire: Jean-Pierre Barillet-Deschamps, 1824-1873* (Seyssel: Champ Vallon, 2002).

한편 현대/탈현대 논쟁의 여진 속에서 본격적으로 조경에서의 모더니티를 다루기 시작한 상징적 전기로는 1994년 『보이지 않는 정원(Invisible Gardens)』의 출판과 이를 둘러싼 논쟁을 들 수 있다.<sup>33)</sup> 모더니즘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까지의 문학과 미술, 건축 등 타 예술 분야에는 넓고 깊은 족적을 남겼지만, 유독 조경에서의 모더니즘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위커(Peter Walker) 등의 저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조경 실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평가와 담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에 ‘보이지 않게(invisible)’ 되었다는 문제의식 하에 논의를 전개한다. 하지만 이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에서 19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경가들의 설계 작업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어, 본 논문과는 공간적·시간적 범주에서 차이를 보인다.

오스만 하에서의 공공 사업 자체보다는 이를 통한 도시공간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보다 폭 넓게 고찰한 하비(David Harvey)와 클라크(T. J. Clark)의 연구가 본 논문과 관련해 살펴볼만하다. 『파리: 모더니티의 수도(Paris: Capital of Modernity, 2003)』에서 하비는 모더니티가 집약되어 반영된 공간인 파리에서 제 2제정 시기 동안 도시공간이 상업화되고, 거래되고,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한다.<sup>34)</sup> 하비는 이런 대규모 변화를 통해 지리적 분화와 계급적 분리가 강화되었다고 본다. 기존의 구역이 사라지고 계급에 따른 커뮤니티가 생겨나면서 생겨난 갈등이 누적되어 파리 코뮌(Commune de Paris, 1871)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도시의 변화가 하나의 단절이나 전환점이 되었다고 본 핑크니와 달리, 하비는 전근대와 단절한 모더니티의 신화는 모두 허구이고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본다.<sup>35)</sup> 그에게 있어 이는 자

33) Peter Walker and Melanie Simo, *Invisible Gardens: The Search for Modernism in the American Landscape* (Cambridge, Mass.: MIT Press, 1994).

34) David Harvey, *Paris, Capital of Modernity*, 김병화 (역),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서울: 생각의 나무, 2005).

35) 파리의 도시 개발에 대한 연구에서 파파야니스 또한 19세기 중반의 도시계획의 사상적 근

본에 의한 보다 큰 규모의 사회 재조직과 부르주아의 도시 공간 지배 과정의 일환이었다. 즉, 자본주의가 공간적으로 현신한 것이 근대 대도시라면, 파리는 이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 ‘모더니티의 수도’라는 것이 그의 논지이다. 이와 유사한 관점 하에 클라크는 『근대 생활의 회화(The Paining of Modern Life, 1984)』에서 동시대의 인상주의 미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광대한 자본주의가 도시 공간을 왜곡했고, 기존의 계급과 사회적 위계 질서를 파괴했다는 논지를 전개했다.<sup>36)</sup> 오스만화는 명료하게 분리되어 있던 기존의 계급적 공간을 사라지게 했고 부르주아 기득권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인상주의 미술에 나타난 당대의 모습을 분석했다. 클라크의 다소 기호학적인 접근은 하비의 방식과 차이를 보이지만, 이 둘은 모두 19세기 중후반의 자본주의가 도시의 공간과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또한 본 논문과 관련하여, 도시 내의 자연으로서의 공원의 사회성과 역사성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그린(Nicolas Green)은 『자연의 스펙터클(The Spectacle of Nature, 1990)』에서 공간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자연-인공’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대립 관계를 넘어서고자 한다.<sup>37)</sup> 문학과 예술에서 재현된 부르주아의 문화적 재현 분석에 토대를 둔 연구에서 그는 이 시기에 자연에 대한 대도시적 감수성(향수)이 발달했고, 이와 아울러 이런 자연의 감상과 향유 또한 일종의 상품이 되어 새로이 부상한 부르주아 계급의 권력 획득 수단이 되었다는 다소 급진적인 논지를 제기한다. 설계가 뿐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이들조차도 공원 내에서 향유하는 자

---

원을 18-19세기 초의 유토피아 사회주의 철학과 오스만이 센 지사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효율성 추구 경향에서 찾고 있다. Nicolas Papayanis, *Planning Before Haussmann* (Baltimore;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4).

36) T. J. Clark, *The Painting of Modern Life: Painting in the Art of Manet and His Followers*, rev. e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37) Nicolas Green, *The Spectacle of Nature: Landscape and Bourgeois Culture in Nineteenth Century Franc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0a).



연과 일반적인 의미의 자연을 다르게 보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공원 내의 자연은 제작되었다. 그는 도시의 공공녹지 공간을 “제작된 자연(engineered nature),” 나아가 인간의 거주지(human habitat)로 보았으며, 이를 이용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었다.

최근에는 19세기 대도시에서의 여성의 문제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이 중 톰슨(Victoria Thompson)은 도시 공간 내에서의 젠더 문제를 중점적으로 고려한다.<sup>38)</sup> 『정숙한 시장(A Virtuous Marketplace, 2000)』에서 그녀는 7월 왕정부터 제 2제정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회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투기 열풍이 불면서 경제 능력과 도시 공간 이용에서의 성별 차이가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이 시기 여성의 사회 활동은 제약받았고, 이는 공원을 비롯한 도시 공공 공간의 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sup>39)</sup> 본 논문은 젠더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젠더와 경제, 정치, 도시 공간에 대한 그녀의 논의는 도시공원을 포함한 도시 내 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한 논의를 풍성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도시공원이 함의하는 모더니티와 그 논리에 대한 조경사적 연구는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전술했듯, 조경에서의 모더니티 논의는 모더니즘 조경 연구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다른 예술 사조에서처럼 일종의 선언적 사건(manifesto)이나 계기도 거의 없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근대 공원 형성기에 공원 조성의 목적은 예술(fine arts)보다는 실용적, 사회적, 기술적(technē) 측면이 강했는데, 이런 성격에서도 당시 사회의 모더니티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산

---

38) Victoria E. Thompson, *The Virtuous Marketplace: Women and Men, Money and Politics in Paris, 1830-1870*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0).

39) 크란츠는 20세기 초 미국 도시공원 내에서의 여성의 기대역할과 활동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시기별로 분류하여 논한 바 있다. 여기에서 그녀는 시기에 따라 공원의 성격은 변화하지만, 공원 내에서의 여성의 활동은 사회 통념의 영향으로 계속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Galen Cranz, “Women in Urban Parks,” *Signs*, 5(3): 1980, pp. 79-95.

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겪은 서유럽의 대도시는 유례 없는 규모의 발전을 거듭했지만, 갑작스러운 대규모의 인구 유입으로 도시 내 삶의 질은 악화되었다. 산업혁명의 발원지인 영국에서는 여러 사상가들과 사회운동가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박애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공원조성위원회들의 공원 조성 운동이 나타났다.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로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발생한 전염병의 무차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공원을 포함한 구역의 개발을 통해 부동산 가치 상승을 의도한 지배층의 목적이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쿠데타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남작의 계획 하에, 여전히 중세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던 파리의 대규모 개조 공사가 진행된다. 각종 공공시설과 상하수도망, 도로망 등의 사회 기반 시설 뿐 아니라, 공원과 숲, 스퀘어, 가로수가 심겨진 가로 등의 녹지 공간도 크게 확충되었다. 이를 통해 도시 내의 구조와 이를 둘러싼 다양한 양상이 변화했고, 이는 도시민들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도시공원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대도시의 성장과 결부된 서구 현대사회의 형성과 사회개혁에의 요구를 공유한다. 하지만 풍부한 논의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후반의 도시공원은 조경사 뿐 아니라 관련 학문 분야에서도 주변에 머물러왔다. 도시공원은 근대와 함께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사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고, 조성을 둘러싼 근대적 측면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가 형성되던 19세기의 서유럽의 도시에서의 공원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과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모더니티에 중점을 두는 본 연구는 그동안 현대 조경사의 큰 흐름 속에서 잊혀졌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조경이 시작된 시기를 복구하고 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 제 4절 연구의 방법과 과정

본 논문은 19세기 후반 서유럽의 대도시에서 나타난 도시공원이 현대 조경의 원형이 되었고, 이것이 형성될 때 영향을 미친 요소와 그 담론이 여전히 유효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시기에 도시공원이 조성될 때의 상황과 이에 기여한 다양한 양상들을 조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도시공원이 도시의 개발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행되었는가, 당시의 사람들은 도시에 살면서 도시공원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초점을 둔다.

역사적 상황과 사건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기에 본 논문은 관련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역사적 연구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조경학, 서양사학, 건축학, 도시설계학, 문학, 미술사학, 지리학 등에서 다루고 있는 19세기 도시공원에 대한 다양한 서술과 담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본 논문은 과거 19세기의 역사를 다루기에 회고적인 성격을 떨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양한 문헌을 통한 자료의 분석 및 고증과 함께 현장 답사를 병행하여 논의를 보다 생생하고 풍성하게 하였다.

문헌 자료로는 당시 도시공원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나 단체가 남긴 기록 문서와 회고록, 저서, 지도, 보고서 등을 1차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파리의 경우는 파리 코뮌 당시 시청이 불타면서 많은 기록 자료가 소실되었지만, 회의록, 회고록, 신문, 개인 기록 등의 다양한 자료에서 공원을 다루고 있다. 특히 ‘오스만화(Haussmannisation)’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정부가 강력하게 도시 정비를 주도했고, 그 일환으로 도시공원이 조성된 프랑스의 사례 연구에서는 오스만 남작의 『회고록(Mémoires, 1890)』과 조원가 알팡의 저서 『파리의 산책로(Promenade de Paris, 1867-1873)』, 에르누(Alfred Auguste Ernouft)와 알팡의 『정원 예술: 공원,

정원, 산책로(L'Art des jardin: parcs, jardins, promenades, 1886)』 등의 당대 문헌 연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일상적 삶의 모습이 생생하게 반영된 문학 작품, 개인의 기록, 미술 작품 등도 활용한다. 왜냐하면 예술가는 “상상에 정신이 팔려있는 듯 보이며서도, 역사라는 영광된 이름의 허구보다도 진실에 더 가까운 그림을 그려 보이는”<sup>40)</sup> 시대의 기록자이기 때문이다. 즉 예술은 새로운 지각과 반응을 통해 사회가 인식하지 못하는 요소를 창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를 반영하며 사회의 성격을 경험 속에서 현실감 있게 전개한다.<sup>41)</sup> 특히 졸라(Émile Zola)의 <루공 마카르 총서(Les Rougon-Macquart)> 등의 19세기 자연주의 소설과 인상주의 회화에 묘사된 근대 파리의 공간은 당시의 사회상, 문화, 풍속을 아우르는 다양한 미시 담론을 통해 당대 사회의 변화상을 첨예하게 반영한다.

본 논문이 논의의 사료로 활용하는 도시공원으로는 대표성을 띠는 사례를 선정했다. 논문의 대상이 되는 서유럽 대도시의 공원은 지역, 시기, 생성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지닌다. 이 중 19세기 후반 조성된 도시공원의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와 아울러 이 시기의 도시공원의 연구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사례를 선별했다. 이는 새로운 대상을 배제하거나 통념적인 해석을 그대로 추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기존에 논의된 사례들을 배제한다면 이미 수립된 조경사의 중심 줄기를 논의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전제하게 된다. 도시공원이 ‘발명’된 시기와 해당 공원,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양상의 재고찰은 오늘날의 도시에서의 도시공원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 한 번 숙고하고 확인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일 것이

---

40) Louis-Sébastien Mercier, *Mon bonnet de nuit*, N°2 (Meuchâtel: Imprimerie de la Société typographique, 1784), pp. 329-330, 류선정, “19세기 후반 프랑스 문학작품에 나타난 파리의 일상 공간,” 『프랑스학연구』, 46, 2008, p. 100에서 재인용.

41) Raymond Williams, *The Long Revolution*, 성은애 (역), 『기나긴 혁명』 (과주: 문학동네, 2007), pp. 122.

다.

도시공원의 형태에 대한 분석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선택된 사례의 도면(평면도)과 현장 답사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 도면들은 각 국의 도서관과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고, 최근 진행된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접근이 용이해졌다. 또한 빈번히 인용되는 것들은 여러 2차 문헌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 인용된 사례들은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자 했고 출처를 명기했다.

2013년 6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70여 일간 런던과 리버풀, 파리, 코펜하겐 등지에서 진행된 현장 답사는 19세기 말 조성된 다양한 도시공원과 숲, 스퀘어와 산책로, 위락 정원, 가로 등의 물리적 형태와 역사적 의미, 도시 구조내의 맥락, 공원 문화를 체험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프랑스 국립도서관(BnF)과 국립미술사연구소(INHA) 도서관, 파리지 역사도서관(Bibliothèque Historique de la Ville de Paris), 파리 기록보관소(Archives de Paris), 파리 도시설계와 건축정보자료센터인 파비용 드 라르스날(Pavillon de l'Arsenal)의 아카이브에 소장된 자료 또한 보다 풍성한 문헌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sup>42)</sup>

본 논문은 크게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도시공원이 등장한 19세기 근대 사회의 시대적 배경을 널리 조망하여 연구의 기반을 다지고 이론적 자원을 마련한다. 1절에서는 본고의 중요 개념인 ‘모더니티’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주요 이론을 정리한다. 이어 이러한 모더니티가 19세기의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함의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다. 이를 상술

---

42) 그러나 각종 고문서의 복사와 촬영, 스캔 등의 복제는 규정상 금지되어 있고, 여러 부서의 서류에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사료를 단 기간에 하나의 일관된 줄기로 정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1차 자료의 현장 수집은 목적인 바에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프랑스의 건축과 도시설계, 유산과 관련된 주요자료가 소장된 건축과 문화재 박물관(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도서관의 휴관 또한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디지털화된 1차 문헌과 도면은 프랑스 국립도서관([www.bnf.fr](http://www.bnf.fr))과 국립미술사연구소([www.inha.fr](http://www.inha.fr)), 미국의 비영리 재단인 아카이브([www.archive.org](http://www.archive.org))의 사이트를 주로 참조했다.

하기 위해 2절에서는 공원이라는 근대적 공공 시설이 도시 환경에 필요하게 된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을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근대 대도시의 형성 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이는 도시공원이라는 근대적 시설이 조성되게 된 맥락을 폭넓게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III장에서는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19세기 서유럽에서 도시공원이 조성된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여기에서는 이론적이고 분석적인 검토와 역사적 기술이 혼재하고, 형성 방식에 따라 지역과 시기를 재구성한다. 대표적인 도시 공공 녹지 공간인 공원(park)의 어의의 변천, 즉 왕실의 사냥터를 뜻하던 파크가 대표적인 도시 내 공공 녹지 공간으로 의미가 바뀌는 과정을 다룬다. 이어 공원적 속성을 지닌 도시 공공 녹지 공간인 스퀘어와 산책로, 공동묘지, 위락 정원 등의 명칭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것이 형성된 방식을 밝힌다. 이는 도시의 다양한 공공 녹지 공간의 특성과 공통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이 시기 조성된 공원의 조경사적 연속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IV장에서는 도시공원이 도시의 근대적 사회 조건과 맺고 있는 연관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1절의 1항에서는 공간적 특성을 도시적 맥락에서 검토한다. 비단 영국뿐 아니라 이 시기에 서유럽 대도시에 조성된 도시공원이 대부분 풍경화식 정원 양식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사상적 상황과 연결시켜 살펴본다. 2항에서는 평등한 이용을 전제로 한 도시공원이 실제로는 당시의 실질적 지배 세력인 부르주아의 공간이었음을 밝히고, 이것이 나타난 양상을 다각도로 본다. 2절에서는 공원 등의 녹지 공간이 도심 공간에서 재현하는 ‘자연’을 인식하는 측면이 서구 현대성의 인식틀과 연관되어 있음을 부각한다. 기술의 발달과 대중 여가의 발달을 통해 경관과 자연을 보는 근대적 관점이 형성되었고, 이는 도시 속의 자연으로서의 공원을 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고찰한다. 3절

은 ‘근대적 발명품’으로서의 도시공원에 내재한 모더니티의 양상을 종합한다. 1항에서는 도시 속에서 자연을 재현함과 동시에, 도시와의 연결을 통해 도시성(urbanity)을 표현하는 도시공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공원 등의 녹지 공간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도시에서 ‘도시의 허파’의 기능을 하고 나아가 녹지축의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도시 구조를 파괴하는 부동산 개발을 미화하고 은폐하는 포장재로 전용되기도 했음을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2항에서는 공원이 함의하는 모더니티를 부르주아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살펴보고 이의 다양한 양상을 조망한다. 도시 공간 내 공원의 배치와 이를 이용하는 방식이 계급 간의 (비)가시적 경계를 인식하게 만들고, 이는 부르주아 자본주의로 이행하던 19세기 후반 서유럽 대도시의 모더니티를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도시공원의 시작과 이를 둘러싼 논의 연구에서 제기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향후의 과제 등을 제안한다.

## 제 2장 근대 도시와 모더니티

### 제 1절 모더니티와 19세기

#### 1. 모더니티의 개념

본고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19세기 후반에 대한 이론적 담론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은 ‘모더니티(modernity)’이다. 일반적으로 ‘근대성’으로 번역되는 모더니티는 모던(modern) 것에 대한 인식 혹은 그러한 것의 표상으로 여겨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인다. 혹은 서양사의 시대 구분에서 ‘근대(modern times)’로 규정되는 시기인, 사유의 중심축이 신학 중심에서 인간 이성 중심으로 이동한 르네상스 이래의 서구 사회의 여러 특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sup>1)</sup> 문학과 예술의 전통에서 모던은 시대별로, 분야별로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sup>2)</sup> 혹은 이렇게 다양한 근대 개념을 포괄하는 성격을 모더니티라 하기도 한다.

모더니티라는 말은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중첩되어 사용되어 때로

---

1) 유럽사에서도 근대의 시기 구분에 대한 의견은 모더니티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다양하다. 근대의 시작을 1500년대로 파악하는 것은 18세기의 일이다.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단선적 시간관에 따라 과거를 소급적으로 설정(혹은 구성)하는 작업은 ‘역사’ 개념의 형성과 연관되어 있다. Jürgen Habermas,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이진우 (역),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5), p. 24. 버만은 유럽의 근대를 근대적 삶을 경험하기 시작한 르네상스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와 혁명을 통해 근대적 대중이 등장하고,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 두 번째 단계, 그리고 20세기 이후의 세 번째 단계로 구분한다. Marshall Berman,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윤호병, 이만식 (공역), 『현대성의 경험: 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버린다』 (서울: 현대미학사, 2004), pp. 14-15. 한편 코젤렉은 19세기의 유럽문명에서 시간인식의 전환이 나타났고, 이를 반영하는 키워드로 “근대(Neuzeit)”와 “역사(Geschichte)”를 설정했다. 역사는 이제 단순한 사건의 기록의 축적(Historie)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에 따라 시간 속에 배열된 서사구조로 인식된다. Reinhart Koselleck, *Vergangene Zukunft*, 한철 (역), 『지나간 미래』 (서울: 문학동네, 1996), pp. 336-87.

2) 야우스는 모던 개념이 중세에 처음 등장하여 보들레르에 이르기까지 일곱 번의 의미 변화를 겪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Hans Robert Jauss, *Literaturgeschichte als Provokation*, 장영태 (역),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3), pp. 16-67을 참조하라.



는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인상주의부터 추상표현주의에 이르는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20세기 초반의 모더니즘 미술이나,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모더니즘 건축 등의 타 예술 분야에서의 사용은 용어의 정의와 범주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sup>3)</sup>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모더니티가 모던이라는 형용사의 명사가 아니고, 완전히 다르고 근본적으로는 대립되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sup>4)</sup> 그리하여 모더니티의 의미와 개념은 공통적인 내용이 교차하고 중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했다. 모더니티 개념이 이처럼 복잡하고 다의적이기에, 본 논문에서 19세기 후반 도시공원이 형성된 시기의 제 상황을 논함에 있어 우선 모더니티와 이와 관련된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논의되는 19세기 도시공원 형성의 맥락에서의 모더니티의 개념을 논하기에 앞서 모더니티 개념의 어근이 되는 ‘모던’이라는 말의 의미 형성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층위의 의미로 요약된다. 우선, 어원적으로 보면 모던(modern)이라는 말은 ‘바로 지금(just now)’을 뜻하는 라틴어 모도(modus)가 프랑스어 모데른(moderne)을 거쳐 영어에 유입된 것이다.<sup>5)</sup> 초기에는 ‘현

3) 그러나 두 개념 모두 ‘모던’이라는 형용사에서 파생되었다 하더라도, 모더니티와 모더니즘은 구별되어야 한다. 보통 대문자로 표기되는 예술에서의 모더니즘(Modernism)은 19세기말부터 2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의 예술을 규정하는 예술 사조로서, 사실주의와 낭만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고, 전통적인 재현에 대한 반발과 거부를 특징으로 한다.

4) 이는 특히 보들레르의 모더니티 개념 해석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보들레르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19세기 후반의 파리에 살면서 급변하며 생성하던 도시의 시간적, 공간적 특수성과 새로운 당대의 예술의 자기 정의의 관계를 성찰한 바 있다. 1863년 출판된 <현대 생활의 화가>에 제시된 그의 모더니티 개념은 하나의 예술론이기도 하지만, 당대의 모던한 사회에서의 미학적 삶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Henri Meschonnic, *Modernité Modernité*, 김다운 (역), 『모데르니테 모데르니테』 (서울: 동문선, 1999)를 참조하라.

5) “modern,” <http://www.etymonline.com> (검색일: 2013년 2월 6일). 우리가 영어 modern을 ‘근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은 20세기 초 일본에서 번역된 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여기에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종의 정신상태”로 서양의 근대를 보는 일본인들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지역과 시대적 맥락이 다른 서양사의 용어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이것을 하나의 용례로 정착시키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야나부 아키라(柳父章), 『翻譯語成立事情』, 서혜영 (역), 『번역어성립사정』 (서울: 일빛, 2003), pp. 54-72를

재의,’ ‘지금의’라는 뜻으로 쓰여 오늘날의 ‘contemporary’와 유사했다. 이어 근대를 규정하는 여러 개의 틀 중 다른 시기와의 비교를 통해 정의되는, (옛것과 반대되는) ‘새로운 것’이라는 시간적·역사적 개념으로서의 근대가 16세기 말부터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실 ‘모던’이라는 용어는 이보다 앞서 5세기경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확립하면서 과거와 단절되었음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즉, 다일신을 믿던 이교도 집단인 과거의 사람들과, 유일신을 믿는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해 고안한 용어가 바로 ‘모던’이라는 것이다. 이때 모도에서 파생된 모데르누스(modernus)는 과거를 의미하는 안티쿠스(anticus)와 대비되어 사용되었고, 이 때 모던은 과거와 다른 지금 현재를 뜻했다.<sup>6)</sup> 세 번째로 19세기부터 모더니티는 명확히 한정된 과거가 아니라 불확실한 영원의 개념에 반대되는 일시적인 것, 덧없는 것을 함축한다. 이와 같은 지금, 새로운 것, 일시적인 것이라는 모던의 세 가지 의미는 각각의 층위에서 현재를 강조한다. 이때 모더니티는 과거와 다르고, 전통과 단절하고 이를 거부하며, 미래를 향하는 특정한 성질을 현재에 부여한다.<sup>7)</sup>

---

참조하라. 또한 메이지 유신 이후 압축적 근대화에 따른 일본 사회의 괴로와 “신경쇠약” 증상에 대한 당대의 논의에 대해서는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漱石全集 13: 評論・雜篇』, 황지현 (역), 「현대 일본의 개화(1911)」, 『(나쓰메 소세키) 문명론』 (서울: 소명, 2004), pp. 106-7을 참조하라. 근대라는 말이 처음 도입되던 19세기말-20세기 초반과 많은 점을 공유하면서도 차이를 보이는 20세기 후반, 특히 양차 세계대전 이래의 시기를 ‘현대’라고 부른다. 이는 이 시기에 성립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서의 차이점과 오늘날과의 동질성과 영향을 반영한다.

6) Jauss, 앞의 책, pp. 21-23, 30-42.

7) 특히 17세기 이후 급속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과거와는 다른 성격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식이 생겨남에 따라 모던이라는 용어가 더욱 중요해졌다. 17-18세기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자연과학의 급격한 발전을 통해 서구인들이 종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전통사회에서 분리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모더니티가 중시하는 계몽주의적 합리성은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에서 시작해 뉴턴(Sir Isaac Newton)에서 정점에 오른 자연과학의 발전, 이성적 방법의 확신을 이론적으로 정당화·체계화한 데카르트(René Descartes)와 베이컨(Francis Bacon)의 경험주의적 과학적 탐구, 로크(John Locke)의 인식론 등을 토대로 한다. 보편적 인간 이성을 중시하는 근대철학은 중세의 신학적 세계관을 탈피한 근대적 사유 체계를 낳았고, 이를 통해 인류는 진보를 긍정하고 전망할 수 있게 되었다. Edward McNall Burns, Robert E. Lerner and Standish Meacham, *Western Civilizations*, 손세호 (역) 『서양 문명의 역사 III: 근대에서 산업혁명까지』 (서울: 소나무, 1996), pp. 761-787.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 인간 이성을 통한 진보에의 확신을 토대로 한 모더니티는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에 기원을 둔다. 이 시기 유럽 사회는 단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사상적으로 큰 전환을 경험한다. 정치적으로는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으로 상징되는 변혁 속에서 시민의 보편적 주권이 선언되었고, 사회적으로는 봉건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가 시작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무역을 근간으로 하는 상업자본주의에서 생산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자본주의로 자본주의의 축이 이행했고, 사상적으로는 인권과 무한진보의 기반으로서의 보편 이성이 강조되었다. 근대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 급격한 발전은 이 시대에 시작되었고,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가치 체계도 급변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반의 변화를 목도한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당대의 ‘새로움’에 큰 의미를 두었다.

지금의 우리 시대가 새로운 앞날을 지향하는 탄생의 시대이며 또한 과도기적인 전환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란 어렵지 않다. 인간 정신이 이제는 기존의 질서와 사유 형태에 결별을 고하고 그 모두를 과거의 유물로 돌려버릴 찰나에 다다름으로써 바야흐로 변혁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 . . . 새로운 정신의 시원(始原)이란 오직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자기 형성이 뒷받침된 폭넓은 변혁의 산물이며 첩첩이 뒤엉킨 발전 경로와 또한 여기에 잇단 각고의 노력의 대가로서만 그 실마리가 열린다고 하겠다.<sup>8)</sup>

프랑스대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사회의 실질적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부르주아의 가치관과 윤리관은 당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기술발달을 통한 물질적 풍요는

---

8)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임석진 (역), 『정신현상학』 (서울: 지식산업사, 1989), pp. 68-9.

삶의 질과 모습을 바꾸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과거와 다른 방식임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앞서 보았듯 모더니티는 지금 여기(here and now), 즉 과거와는 다른 현재를 의미하는 모던의 특성을 뜻한다. 서구문명사의 한 단계로서의 모더니티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 산업혁명, 자본주의에 의해 야기된 도시화와 인구 증가, 관료제의 등장, 민족 국가의 등장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의미한다.<sup>9)</sup> 이때의 모더니티는 이성 중심적이고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향한 진보를 추구하는 부르주아 이념의 표상으로서의 모더니티를 일컫는다. 과거와 전통은 이제 더 이상 전범이 아니고, 현재만이 창조와 영감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모더니티의 경험은 사회경제적 방식을 다루는 객관적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문화와 예술 운동에서의 주관적 대응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두 가지 모더니티의 관계는 서로 분리되어 대립하는 양태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칼리네스쿠(Matei Calinescu)는 이를 “부르주아 모더니티(bourgeois modernity)”와 “미적 모더니티(aesthetic modernity)”<sup>10)</sup>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다.

확실한 것은 19세기 전반의 한 시점에서 서구 문명사의 한 단계에 속하는  
모더니티-과학과 기술의 진보, 산업혁명, 그리고 자본주의에 의해 야기된

9) Berman, 앞의 책, pp. 12-4.

10) 미적 모더니티(aesthetic modernity)는 부르주아적 가치 척도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되고, 이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이를 지향하는 이들은 나쁜 취향이 지배하는 세속적이고 인습적인 세계에 대항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거부감을 드러냈다. 대부분 예술가들인 이들은 부르주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부르주아의 모든 행태에 반기를 들었으며, 이들의 예술은 자율적이고, 유용하지 않으며, 동기 없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부르주아 모더니티와 미적 모더니티는 대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적 모더니티는 끊임없이 주변의 변화를 포착하고, 그 과정에서 예술을 통해 현재를 비판하는 미적 모더니티의 양상을 흡수한다. 이리하여 미적 모더니티가 초기의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역사적 모더니티에 흡수되면, 이는 다시 새로운 형식으로 비판적 기능을 되살리고자 한다. 부르주아 모더니티와 미적 모더니티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순환적으로 반복되고, 이들이 형성하는 일종의 변증법은 지난 백여 년간의 미술사를 통해 입증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Antoine Compagnon, *Les cinq paradoxes de la modernité*, 이재룡 (역), 『모더니티의 다섯 개 역설』 (서울: 현대문학, 2008)을 참조하라.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변화의 산물인 -와 미적 개념으로서의 모더니티 사이에 역전 불가능한 균열이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그 이후 이 두 모더니티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적대적이 되었다. 물론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걱정 속에서 상호간의 다양한 영향 주고받기를 허용하거나 심지어는 고무하는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sup>11)</sup>

모더니티를 이렇게 상반된 시선으로 보게 된 까닭은 근대화(modernization)의 토대가 된 계몽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일 것이다. 계몽주의와 관련된 모더니티는 사회의 점진적 분화와 평등한 개인으로 구성된 시민 사회의 등장, 혁신과 변화의 결과로서의 전통으로부터의 개인의 해방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또한 자아가 있는 주체의 등장과 이성, 자연의 지배로도 나타난다. 제도적 차원에서 모더니티는 자본주의의 성장, 산업화, 도시화, 세속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를 포괄하며, 규범적 차원에서는 물질적 진보와 정치적 권력 측면에서의 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한다.<sup>12)</sup> 합리적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된 계몽주의는 이를 활용한 산업화를 장려했고, 그 결과 세계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안한 곳이 되었다. 기술의 발달은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신념을 낳았고, 이는 진보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진다. 기술의 진보를 통한 경제적 이윤 추구는 무한해 보였고, 청교도주의(Puritanism)는 이러한 이윤추구를 신이 내린 소명으로 합리화하기도 했다.<sup>13)</sup> 부르주아로 대변되는

11) Matei Calinescu, *Five Faces of Modernity: Modernism, Avant-garde, Decadence, Kitsch, Postmodernism*, 이영욱 외 (공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모더니티, 아방가르드, 데카당스, 키치,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시각과언어, 1994), p. 53.

12) Barbara L. Marshall, "Critical Theory, Feminist Theory, and Technological Studies," in *Modernity and Technology*, Thomas J. Misa, Philip Brey and Andrew Feenberg (eds.) (Cambridge, Mass.: MIT Press, 2003), p. 107.

13) 특히 베버(Max Weber)는 부르주아의 이윤추구가 어떻게 근대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는지를 통찰한다. 칼뱅주의적 청교도주의에 토대를 둔 그는 목적으로서의 부의 추구는 최악이지만, 소명(calling)으로서의 직업 활동을 통한 부의 획득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을 확신하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검약과 절제, 성실한 노동은 구원의 조건이 되고, 이를 통한 자본축적과 초과 이윤, 정당한 이윤추구는 결과적으로 근대적 자본형성의 토대가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유산계급은 이러한 삶의 방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진보의 원리와 그 토대가 되는 이성을 숭배했다.

부르주아의 모더니티 관념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대체로 근대적 관념의 역사에서 초기에 두드러진 전통들을 계승한다. 진보의 원리, 과학과 기술의 유용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신뢰, 시간(측정할 수 있는 시간, 사고할 수 있는, 따라서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돈으로 계산 가능한 등가물인 시간)에 대한 관심, 이성숭배, 그리고 추상적 인본주의의 틀 안에서 정의된, 그러나 동시에 실용주의 내지는 행동과 성공의 숭배를 지향하는 자유의 이상, 이들 모두는 다양한 정도로 근대를 위한 투쟁에 연루되어 왔으며 중산층에 의해 수립된 승승장구하는 문명의 핵심적인 가치로 보존되고 증진되어 왔다.<sup>14)</sup>

이러한 모더니티 개념은 이를 일종의 진보와 해방의 기획(project)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상통한다. 여기에서 모더니티는 이전 시대와 구분되는 현재이고, 새로운 것이다. 이런 개념의 대표적인 옹호자인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모더니티를 “미완의 기획(incomplete project)”이라 하며 미래를 형성하는 현재의 이상의 측면에서 보고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다.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공식화했던 모더니티의 기획은 각각의 내부적 논리에 따르는 객관적 과학, 보편적 도덕과 법률, 그리고 자율적 예술을 부단히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기획은 은밀한 형식에서 각 영역의 객관적 잠재력을 해방시키려 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일상생활을 풍부하게 하고자, 즉 사회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자 이런 전문화된 문화의 축적을 이용하려 했다.<sup>15)</sup>

---

김덕영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길, 2010)을 참조하라.  
14) Calinescu, 앞의 책, p. 53.

하버마스는 베버를 언급하며 모더니티의 특징으로 과학과 예술, 도덕에 영역에서 출현한 내적 논리에 따라 발전되어야 하는 자율성을 지적한다. 한편 모더니티는 하나의 기획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그것의 실천 목적은 실천, 즉 일상의 합리적 조직화를 위한 잠재적 사용과 관련되어, 합리성은 효율성과 동일어가 된다. 또한 그는 계몽주의 이래의 합리성을 도구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으로 구분해 보았다. 이때 도구적 합리성은 교환과 통제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 속하며, 사회적 합리성은 의사 전달 행위의 기반이 된다. 하지만 계몽주의 이래 도구적 합리성만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과학과 기술, 경제와 국가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사회적 합리성은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고, 근대성은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기획”으로 남았다는 것이 그의 논지이다.

보들레르는 이를 모더니티가 출현하던 19세기 후반 당시에 직관적으로 인식했다. “모더니티, 그것은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우연한 것으로 예술의 반을 이루고, 나머지 반은 영원한 것, 불변의 것이다”<sup>16)</sup>라는 그의 모더니티 개념은 현대 미술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후 모더니티 담론에서 보들레르의 모더니티 개념은 반드시 논의된다.

보들레르는 미술비평을 통해 현대 세계와 새로운 삶의 표현을 역설했고, 이를 통해 모더니티 개념을 완성한다. 그의 모더니티 개념은 <1846년의 살롱: 현대 생활의 영웅주의에 대하여(Le Salon de 1846: de l'Héroïsme de la vie moderne)>, 『악의 꽃(Le fleurs du mal, 1857)』과 『파리의 우울(Le spleen de Paris, 1869)』에서 언급되고, <현대 생활의 화가(Le peintre de la vie moderne)>에서 이론화된다.<sup>17)</sup> 여

15) Jürgen Habermas, “Modernity: An Unfinished Project,” in *Habermas and the Unfinished Project of Modernity: Critical Essays on The Philosophical Discourse of Modernity*, Maurizio Passerin d'Entrèves and Seyla Benhabib (eds.) (MA: MIT Press, 1997), p. 45.

16) Charles Baudelaire, “Le Peinture de la vie moderne” in *Oeuvres complètes* (Paris: Gallimard, 1961), p. 1163.



<도판 2-1> 기스, <아브뉴 샹젤리제의 랑도 마차와 산책자들>, 1850.  
자료: 파리 프티 팔레 미술관

기에서 그는 화가 기스(Constantin Guys)의 도판을 통해 당대 생활을 보고, 이를 통해 모더니티 개념을 밝혔다(도판 2-1). 보들레르의 <현대 생활의 화가>는 19세기 사회와 미술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텍스트 중 하나이고, 당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시대의 목격자로서 보들레르는 도시 공간과 모더니티의 관계에 주목했고, 오스만화 이후 급격하게 변모하는 파리의 모습을 모더니티의 재현으로 파악했다. 보들레르 이후 모더니티와 근대 사회의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의 관계는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될 정도이다.<sup>18)</sup>

17) 1863년 11월 26일, 27일, 28일, 12월 3일 4회에 걸쳐 <르 피가로(Le Figaro)>지에 게재되었고 총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의 제목은 1. 아름다움, 유행, 행복(Le Beau, la Mode et le Bonheur), 2. 풍속 스케치(Le Croquis de mœurs), 3. 예술가, 신사, 군중 속의 사람, 어린이(L'Artiste, homme du monde, homme des foules et enfant), 4. 모더니티(La Modernité), 5. 기억술(L'Art mnémonique), 6. 전쟁 연보(Les Annales de la guerre), 7. 허세과 점잔빼기(Pompes et Solennités), 8. 군인(Le Militaire), 9. 댄디(Le Dandy), 10. 여성(La Femme), 11. 화장예찬(Éloge du maquillage), 12. 여성과 소녀들(Les Femmes et les Filles), 13. 자동차(Les Voitures)이다.

18) 한편 벤야민(Walter Benjamin)은 파리로 대표되는 근대 도시가 자본주의 소비사회의 구조



자신의 표현대로 도시의 “완벽한 플라너르(le parfait flâneur),” “열정적인 관찰자(l’observateur passionné)”<sup>19)</sup>이던 보들레르에게 제 2제정기의 파리는 일상의 세속과 시가 공존하는, 하버마스의 표현을 빌면 심미적 경험과 모더니티의 역사적 경험이 융합된 공간이었다. 비평가 프루아드보(Gérard Froidevaux)는 보들레르의 모더니티의 특징을 ‘모던한’이라는 말에 있는 ‘옛 것과 반대되는 새로움’이라는 의미에 변화를 거부하는 절대적인 것에 반대되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이라고 보았다.<sup>20)</sup> “모더니티, 이는 역사적인 것 안에 시적인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유행에서 끌어내는 것이다”<sup>21)</sup>라는 그의 언술이 말해주듯 보들레르는 옛 것과 현대 사이의 논쟁이라는 틀에 박힌 방식을 벗어나 고전주의의 변치 않는 부분과, 순간적이고 변화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예술의 이상 속에서 연결하는 방식을 탐색했다. 보들레르에게 있어 모더니티는 대도시의 모습과 그곳에서의 삶의 특징을 포착해 내는 것이기도 하고, 이러한 삶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sup>22)</sup>

## 2. 19세기 후반의 모더니티와 도시공원

위에서 살펴보았듯 모던, 그리고 모더니티라는 용어는 조경학뿐 아니라 타 학문

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보았다.

19) Baudelaire, 앞의 책, p. 1160.

20) Gérard Froidevaux, *Baudelaire, Représentation et modernité* (Paris: J. Corti, 1989), pp. 10-1.

21) Baudelaire, 앞의 책, p. 1163.

22) 같은 맥락에서 버만(Marshall Berman)은 현대적인 삶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으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모더니즘에 전념하는 이들은 모더니즘을 예술적이면서도 지성적인 일종의 순수한 정신으로 파악하고, 다른 이들은 물질적 구조와 복잡한 과정이라는 ‘현대화’의 궤도 내에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버만은 오늘날의 문화에서 오용되고 있는 이런 이원론은 물질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의 혼합, 근대적 자아와 정신적인 환경의 긴밀한 통일성으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킨다고 보았다. Marshall Berman,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윤호병, 이만식 (공역), 『현대성의 경험: 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버린다』 (서울: 현대미학사, 1998), pp. 199-201.

분야에서도 통일된 용어 정립이 되지 않은, 널리 사용되어 상투어가 되었지만 여전히 명확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용어 중 하나이다. 이는 명료하게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고, 모호하며, 때로는 상이하게 해석될 때도 있다. 가령 산업혁명 이후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변화된 양상을 포착해 내는 것이 모더니티라고 보는 입장(부르주아 모더니티)이 있는 반면, 이러한 삶이 초래한 부정적인 결과물을 비판하는 것을 모더니티라고 보는 입장(미적 모더니티)도 있다. 그리고 19세기 전반의 어느 시점에서 이 둘 사이에 발생한 균열의 간극은 더욱 벌어졌다.

이러한 19세기의 시대적 맥락 하에서 도시공원의 모더니티를 조망해 보아야 한다. 이때의 모더니티는 19세기 서유럽의 대도시에서 공원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문화적 조건을 말하는 동시에 그 조건들에 대한 태도와 반사적 양상까지도 포괄한다. 물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던 이 시대의 유럽 사회를 모더니티라는 말로 축약하는 일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족 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했고, 사회적으로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경제적 계층에 의한 계급 갈등이 부상했으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과학상의 발견과 발명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고, 유물론과 실증주의에 기반을 둔 사고는 진보를 확신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혼란의 시기였다. 이러한 복잡다단하고 때로는 상이한 태도와 경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차하는 시대를 묶는 용어가 바로 모더니티이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모더니티를 규정할 때 나타난 혼란은 바로 이 시대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증명하고, 나아가 이러한 모순과 혼란이 바로 모더니티의 또 다른 특성이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 계몽주의 철학의 영향 하에 인간의 이성에 토대를 둔 진보와 자유, 혁신 등이 생겨났고,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는 이를 더욱 확고하게 했다.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모더니티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적

으로는 시민사회를 지향한다. 그렇다면 본 논문의 주제인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모더니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앞서 살펴보았듯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추구한 모더니티 프로젝트는 객관적 과학과 보편적 도덕률, 자율적인 예술을 내적 논리에 따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을 과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합리적 사회 조직과 사고의 발전을 통해 신화와 종교, 미신의 비합리성에서 해방되고,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 및 권력의 자의적 전횡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sup>23)</sup> 인간이 통제할 수 있게 된 자연은 더 이상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 아니고,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된다. 서양 사상사에서 자연은 고대부터 지속되어온 중요한 관념의 하나이지만, 르네상스부터 계몽주의에 이르는 시기 동안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인간의 이상으로 자연을 통제할 수 있게 된 사건 또한 모더니티의 중요한 특징이 되고, 이때 모더니티에 대한 논쟁은 관념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실천적 양상으로 인간의 삶의 반영되어 나타나고 구체화된다. 이 문제는 이미 예술과 철학, 사회사상 등을 통해 도출되었고,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공원에서도 그 양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도시공원 또한 근대의 양상을 모두 반영하고 또 아우르는 근대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도시 공간에 공원이라는 ‘자연’을 도입하는 방식이 고안되었다. 이는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미래를 살펴보며,” “거대한 세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는 변화의 궤도를 영구히 회전시키는” 진보를 신뢰한 19세기의 낙관적인 태도를 반영한다.<sup>24)</sup> 또한

---

23)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 of Cultural Change* (Cambridge, Mass: Basil Blackwell, 1990), p. 12.

24) Alfred Lord Tennyson(1835). “Locksley Hall,” in *Poems of Tennyson*, ed. by Jerome Hamilton Buckley (Boston: Houghton Mifflin, 1958), pp. 104-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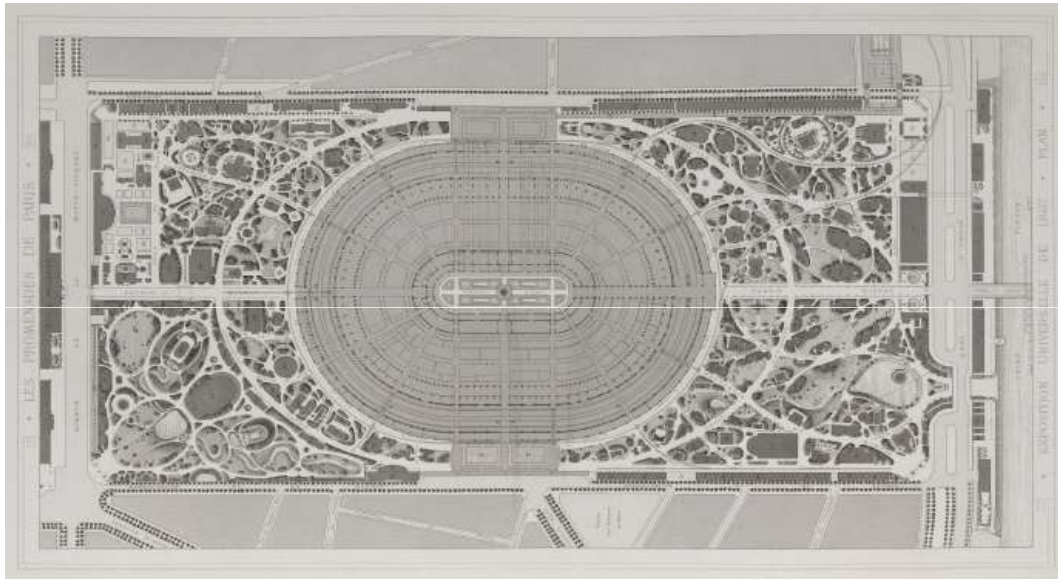
전근대사회 왕족이나 귀족 등의 지배층이 소유한 파크가 시민 대중이 향유하는 공원으로 바뀌는 과정 자체 또한 근대화의 한 사례가 된다. 공원은 사적 공간이 공적 영역으로 전환되는, 즉 민주주의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을 포괄하는 실천의 장이다. 또한 조성된 건조 환경으로서의 공원의 양상과 이를 향유하는 도시민의 미적 태도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이 인식하는 자연은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었고, 목가적이고 이상적인 자연을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공원은 19세기 후반 사회의 실질적 세력인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하는 계층적 영역화의 장이 되기도 했다. 공원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도시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자연을 향유하는 장소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지만, 그 위치와 형태, 내용, 시간 등에서는 철저하게 부르주아적이었다. 아울러 19세기 민족 국가 형성기에 도시공원은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도 일조했다. 도시 안에 아름답게 조성된 공원과 공공정원은 유럽 각지에서 명성을 떨치는 명소가 되었다.<sup>25)</sup> 특히 박람회 등의 국가적 행사는 자국의 예술과 기술적 진보를 과시하는 장이 되었고, 이를 위해 공원이나 공공정원이 조성되기도 했다(도판 2-2).

모더니티는 근대화되던 시대의 특징인 진보와 인간 이성, 과학 기술의 가능성, 수치적으로 환산 가능한 시간의 가치, 자본주의, 자유, 실용주의적 태도 등을 체현했다. 이는 근대의 주인공인 부르주아가 추구한 가치이다. 이들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이성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도시공원이라는 녹지 공간이 ‘발명’되었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위생과 정책이라는 기능을 수행했을뿐 아니라, 당대의 철학과 취미(taste)가 반영된 문화적 예술적

---

25) 일레로 알팡(Adolphe Alphand)의 <파리의 산책로(Promenade de Paris)>에는 이 책을 받은 이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12쪽에 달하는 3개의 명단에는 프랑스의 황제를 위시하여 유럽 각국의 왕과 황제,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의 대표자와 주요 도서관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유례 없는 배포 또한 도시 미화와 공원 등의 공공 녹지 조성에 대한 당대 프랑스의 자부심을 반증한다.



<도판 2-2> 파리 만국박람회 도면, 1867.  
 자료: Alphand, *Promenade de Paris (planches)*, p. 124.

활동의 소산이었다. 이러한 공간을 조성하고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19세기 후반의  
 모더니티의 제 양상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 제 2절 사회 변동과 도시화

### 1. 대중의 등장

19세기에 조성된 도시공원을 하나의 ‘발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이전의 파크와 달리 일반 시민 전체에게 무료로 개방된 곳이기  
 때문이다. 공원(公園), 즉 ‘public’ park가 발명되었다면 무엇이 ‘public’인가, 그리고  
 ‘public’한 ‘park’가 생겨난 상황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논의와 개념의 정리가 우선되  
 어야 한다.

공공이라는 의미에서의 public은 오래 전부터 있던 개념이다.<sup>26)</sup> 이는 고대 로마

의 시민체(populus)의 속성을 나타내는 개념에서 시작해서 노예도 귀족도 아닌 자유로운 신분의 보통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오늘날처럼 공공의 개념으로 쓰이게 된 것은 이런 속성을 지닌 집단이 생겨나면서부터이다. 즉 이는 일반 시민 대중 계급이 나타난 뒤의 일이고, 시민혁명을 통해 다시금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정치적 공공장(public sphere)을 이론화한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는 국가와 사회가 통합되어 있던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볼 수 없던 정치 질서의 조직 원리이고, 따라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다.

19세기 서구 사회가 겪은 급격하고 광범위한 변화는 18세기 말에 일어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결과이다. 시민혁명은 계몽주의 철학이 일군 이성적 사고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유권을 주장하며 일어난 프랑스대혁명(1789)과 일군의 혁명을 말한다. 그리고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 촉발된 산업의 급진적 발달을 말한다. 산업혁명은 시기적으로는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반, 장소로는 영국을 그 시발점으로 삼는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이 두 혁명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전개 양상도 상이했다. 명예혁명(1688) 이후 입헌군주 체제를 택한 영국에서는 프랑스대혁명처럼 극단적인 사건이 없었고, 프랑스에서는 본격적인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럽의 보편적인 혁명으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두 혁명은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와 경제 체제를 규정하는 혁명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자본주의 경제를 낳았다면 프랑스 대혁명은 자본주의 정

---

26) 공공(public)은 인민을 뜻하는 라틴어 푸블리쿠스(publicus)의 역어로서, 귀족이 아닌 평민 일반을 일컫는 말이었다. 사적인 것과 반대 되는 공적 문제나 공동의 부를 가리키는 말인 *res publica*는 공화정(republic)의 어원이 되었고, 귀족이나 명문가 출신이 아닌 평민의 정치 투쟁 과정 속에서 성립된 기원전 4-5세기 로마의 공화정 정치체제를 뜻한다. “public,” <http://www.etymonline.com> (검색일: 2013년 9월 30일).

치를 낳았다 . . . . 홉스봄은 두 혁명이 서로 별개의 혁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를 규정하는 통합적인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두 혁명은 각각 영국과 프랑스에서 나타났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의 전형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사적이고 보편적인 혁명이었다고 설명한다.<sup>27)</sup>

이 두 혁명의 결과는 이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런 점에서도 이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겨난 새로운 삶의 양식과 경험, 인식,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의 대응을 통해 서구 사회는 근대 사회로 나아간다.

계몽사상은 인권과 시민권을 강조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혁명이 발생했다.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은 시민혁명을 대표하는 혁명이었고,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시민혁명이었다. 홉스봄(E. J. Hobsbawm)은 프랑스대혁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했다.

첫째, 프랑스 혁명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강력하고 인구가 많은 유럽국가에서 발생했다. 1780년에는 유럽인 다섯 중 대략 한 명이 프랑스인이었다. 둘째, 프랑스 혁명은 그 이전이나 이후의 모든 혁명 중에서 유일한 대중사회 혁명이었으며, 이에 비견될만한 어떠한 격변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 셋째, 동시대의 모든 혁명들 가운데 프랑스 혁명만이 보편적이다. 프랑스의 군대는 세계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출발했으며, 프랑스의 사상은 실제로 세계혁명을 일으켰다.<sup>28)</sup>

프랑스대혁명을 기점으로 서구사회는 부르주아 시민계급사회로 전환했다. 이들은

---

27) 김동택, “이중 혁명과 자본주의 세계의 형성,” E. J. Hobsbawm, *The Age of Revolution*, 정도영, 차명수 (공역), 『혁명의 시대』 (파주: 한길사, 1998), p. 41.

28) E. J. Hobsbawm, 정도영, 차명수 (공역), *The Age of Revolution*, 『혁명의 시대』 (파주: 한길사, 1998), p. 147.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보편인권과 시민권을 추구했다. 또한 생산의 증가로 얻은 경제력과 보통교육의 확대로 자율성을 획득했다. 이러한 자율성의 획득은 이 시기 시민의 변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up>29)</sup> 게다가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이 발발한지 2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혁명이 남긴 유산은 남아 있다. 민주주의의 동력은 각 개인의 의지로 이루어진 정체에 기반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1789년의 세계, 혹은 당시에 제기된 문제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sup>30)</sup>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부터 1968년의 5월혁명에 이르기까지의 프랑스의 역사는 왕정과 공화정, 그리고 혁명으로 점철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대혁명으로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심지어 국왕 루이 16세(Louis XVI, 재위 1774-1792)조차도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 이후의 혼란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나폴레옹(Napoléon Bonaparte)은 스스로 황제가 되고, 유럽 전역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지만 몇 번의 결정적인 패배로 실각하여 생애의 마지막 6년은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나폴레옹의 하야 이후 루이 16세의 동생인 루이 18세(Louis XVIII, 재위 1814-1824), 이어 샤를 10세(Charles X, 재위 1824-1830)를 내세운 부르봉 왕조가 돌아왔고, 이에 시민들은 격분했다. 이에 발발한 7월혁명(1830)을 통해 불과 사흘 만에 복고왕정이 물러났고(도판 2-3), ‘프랑스의 왕’이 아니라 ‘프랑스인들의 왕(roi des Français)’인 루이 필립(Louis-Philippe 1er)의 입헌군주정이 들어섰다. 이 시기 프랑스의 정치 세력은 크게 왕당파와 공화주의자, 입헌군주제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귀족들은 여전히 왕정을 지지했고, 노동자와 하층 부르주아지들은 공화주의

---

29) Hauser, 앞의 책, pp. 4-6.

30) François Furet, “Transformations in the Historiography of the Revolution,” in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Birth of Modernity*, Ferenc Fehér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pp. 276-7.





<도판 2-3>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1830.

자료: 루브르 박물관

1830년 7월혁명의 격렬한 시가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바라케이드 조각이 흩어져 있고, 먼지와 포성이 가득한 거리에서 프랑스를 상징하는 알레고리인 마리안느(Marianne)가 자유와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삼색기를 들고 민중을 이끈다.

자들이었다. 그리고 금융과 수공업을 통해 재빨리 부를 쌓은 상층 부르주아들은 입헌군주제를 지지했고,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루이 필립은 프랑스의 마지막 왕이 될 수 있었다.<sup>31)</sup>

루이 필립의 통치 기간은 산업혁명의 물결이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친 시기이기도 하다. 도시로 몰려든 농촌 출신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 조건과 저임금, 도시

31) André Maurois, *L'Histoire de la France*, 신용석 (역), 『프랑스사』 (서울: 기린원, 1997), pp. 293-418; Burns, 앞의 책, pp. 812-55.

에서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와 맞닥트렸다. 산업혁명을 통해 자본을 소유한 부르주아는 더욱 더 부유해졌지만, 임금 노동자들은 생존 자체가 위협 받을 정도의 조건에서 고통 받았다. ‘시민 왕(roi-citoyen)’ 루이 필립은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삼색기를 국기로 제정할 정도로 진보적인 면도 있었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사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고 전반적으로는 보수적이었다. 정치적으로는 부유한 부르주아의 이해관계를 대변했기에 민주주의 확대에 미온적이었고, 선거권을 소수의 부유층 남성층에만 부여했다. 루이 필립의 7월왕정은 표면적으로는 법 앞에 평등하고 개방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거래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회사 같은”<sup>32)</sup> 상층 부르주아 소집단에 의한 과두정에 다름없었다(도판 2-4). 열악한 노동 조건과 극심한 빈부격차로 양산된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sup>33)</sup> 즉 하층 부르주아와 노동자들은 빈번하게 폭동을 일으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고, 루이 필립은 이를 가혹하게 탄압했다(도판 2-5).

선거권 확대 요구에서 시작한 1848년의 2월혁명으로 7월왕정이 붕괴되고 제 2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3월 2일의 법령을 통해 선거와 피선거 자격에 필요한 납입금이 폐지되고,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보통 선거제가 확립되었다.<sup>34)</sup> 새로운 공화정을 구성하는 인물들은 자유주의를 표방했지만 사실은 대부분 보수적인 상층 부르주아였고, 혁명을 일으킨 민중들이 요구하는 생존권과 노동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들이 일으킨 폭동은 다시금 무자비하게

32) Alexis de Tocqueville, *The Recollections of Alexis de Tocqueville* (New York: Macmillan, 1896), p. 6, <https://archive.org/details/recollectionsal00mattgoog> (검색일: 2013년 12월 3일).

33) 프랑스 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말이다. 위고(Victor Hugo)는 1832년의 6월 4일과 6일에 걸쳐 군주제 폐지를 기치로 일어났으나 가혹하게 진압당한 항쟁인 파리봉기를 목격하고 이를 바탕으로 <레 미제라블>(1862)을 집필했다.

34) Jean Garrigues, *La France du 1848 à 1870*, 2<sup>nd</sup> ed. (Paris: Armand Colin, 2007), pp. 14-19.



<도판 2-4> 도미에, <가르강튀아>, 1831.

도미에는 라블레(François Rabelais)의 소설에 등장하는 거인 대식가 '가르강튀아(Gargantua)'의 이미지를 빌어 루이 필립의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정권을 풍자했다.



<도판 2-5> 도미에, <트랑스노냉 가, 1834년 4월 15일>, 1834.

루이 필립은 노동자 거주 구역에서 발생한 폭동과 봉기를 잔인하게 제압했다. 정부군은 폭동의 근원지로 추정된 파리 마레 지구의 트랑스노냉 가를 새벽녘에 급습하여, 한 건물에 살고 있던 주민의 대부분을 살해했다. 도미에는 이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이 석판화를 제작했다.

진압되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들과 생활수준에서 별 차이가 없던 소시민들조차 국민방위대(la Garde Nationale)로 나서 노동자들의 봉기를 진압하는데 협조했는데, 노동자봉기의 토대가 되는 사회주의 사상이 궁극적으로 사유재산을 부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혁명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이 쇠퇴하고 점점 더 보수화되어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Charles Louis Napoléon Bonaparte)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는 노동자 계급을 위협한 계급으로 본 부르주아가 사회 안정을 위해 보다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원했음을 반증한다. 그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황제가 되어 제 2제정을 수립했다. 황제로 즉위한 루이 나폴레옹, 즉 나폴레옹 3세는 집권 초기에는 황제의 행정권으로 입법권을 강하게 통제하고, 검열과 탄압을 강화하는 권위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영국과 화해하여 국제적인 면에서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경제교류를 증진시켜 프랑스의 산업화를 가속화하는 등 대외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의 하나인 생시몽주의를 수용하여 이를 산업화를 위한 합리적인 이데올로기로 활용했다.<sup>35)</sup> 제 2제정 초기의 정권은 보수적인 농민과 부르주아, 가톨릭, 그리고 산업 세력의 지지 속에 안정을 얻었다. 이런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그는 수도 파리의 모습을 일신하고자 했고, 다양한 도시 정비 활동이 이루어진다.

---

35) 공상적 사회주의자인 생시몽(Claude Henri de Rouvroy, comte de Saint-Simon)의 사상을 일컫는다. 그는 당시의 자유방임주의를 비판했고, 상속재산을 폐지하고 생산과 분배의 사회적 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능력에 따른 노동과 이에 따른 취득 등을 주장했다. 그의 초기적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사상(utopian socialism)은 이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주의 이념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나폴레옹 3세 또한 초기에는 생시몽주의자였고, 노동자 계급을 배려하는 온건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담은 『빈곤의 종식(L'extinction du paupérisme, 1844)』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는 그의 통치 초기의 사회복지 제도의 이론적 토대가 되어, 노동자 주택 단지인 나폴레옹 주택단지(Cité Napoléon) 등이 조성되었다. Garrigues(2007), p. 96; Philippe Ariès and Georges Duby(eds.), *Histoire de la vie privée*, 주명철 외 (공역), 『사생활의 역사 4: 프랑스 혁명부터 제1차세계대전까지』 (서울: 새물결, 2002 -2006), pp. 515-6.

이에 비해 영국은 보다 온건한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형성해 나갔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은 다른 대륙의 국가들보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명예혁명으로 자유주의적인 의회제정부가 세워졌고, 혁명보다는 개혁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시기 영국의 상황 또한 현대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에게는 참정권이 없었고, 재산권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했기에 정치적 불평등도 심했다. 그 결과 19세기 초 영국은 귀족과 상층 부르주아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치되었다. 이들의 근거지인 의회는 양당제였는데, 그 분류도 계급보다는 가치와 정치적 이념에 따라 구분되었다.<sup>36)</sup>

19세기 중엽 영국 또한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지만, 이 역시 자유주의 전통에 기반을 둔 부르주아적 개혁이었다. 러다이트 운동(The Luddites, 1811-7)과 피털루 대학살(the Peterloo Massacre, 1819)(도판 2-6)로 대표되는 세기 초의 격렬한 개혁론자와 혁명론자의 소요를 겪은 상층집단은 사회 안정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느꼈고, 여러 개혁 정책을 시행했다. 예를 들어 구교도 해방령(The Catholic Emancipation Act, 1829)의 시행으로 오랫동안 정치적 탄압을 받던 구교도에게 자유와 동등한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1832년에 이루어진 선거법개혁(the Reform Bill)은 산업혁명에 따른 인구이동의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부패선거구를 폐지하고 신흥공업도시에 선거구를 배정했다. 도시정부개혁법(Municipal Corporations Act, 1835)에서는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 되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모든 남성에게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권을 부여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와 구성을 재조정하여 근대적 지방 자치의 기초를 세웠다. 이런 일련의 개혁을 통해 선거권이 확대

---

36) 영국의 정당은 의회파인 휘그(the Whigs)와 왕당파인 토리(the Tories)로 구분된다.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초기의 이러한 구분을 점차 흐릿해졌고, 19세기 중반 이 두 당은 자유당(Liberal Party)과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이 되었다. 20세기 초 노동당(Labor Party)이 공식출범하여 제 1야당의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양당 체제가 유지되었다.





<도판 2-6> 크뤼크샹크, <맨체스터의 영웅들>, 1819.

자료: 영국박물관.

보통 선거권을 주장하는 노동운동 지도자 헌트(Henry Hunt)의 연설을 듣고자 맨체스터의 세인트 피터스 필드(St. Peter's Field)에 모인 6만 여명의 시민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헌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11명이 사망하고, 4백여 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이후 '피털루 대학살'로 알려졌다.

되었지만, 이는 여전히 산업자본가들을 위한 것이었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다.<sup>37)</sup> 이는 1830-40년대의 노동자들의 정치적 운동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고, 성년 남자의 보통 선거권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들의 운동 조직은 정부의 강력한 탄압과 내부 세력 분열로 약화되고, 1848년 혁명에서 실현되지 못하면서 쇠퇴했다. 하지만 이는 노동조합운동의 맹아가 되었고, 여러 번에 걸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들의 요구는 점차 수용되었다.

37) 김병준, 『지방자치론』 (과주: 법문사, 2011), pp. 51-2.

19세기 사회의 주체였던 시민계급은 과거 특권층(왕실, 귀족 계층, 성직자 등)이 전용하던 공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그 결과 새로운 공공 건축물과 제도, 시설이 등장했다. 이는 기존의 사적인 공간을 공공화한 것이기도 했고, 새로이 도입된 것도 있었다. 극장과 박물관, 학교, 병원, 기차역 등의 근대 시설이 대중 사회의 일상에 등장했고, 절대 군주의 통치가 아니라 법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면서 새로운 사회 질서 체계에 부합하는 행정 시설인 시청과 의회, 법원, 감옥 등이 나타났다.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요구에 따라 공장이나 박람회, 백화점, 증권거래소 등의 산업·상업 시설도 등장한다. 시민 계급의 중요한 가치였던 평등과 보편인권의 보장과 실현은 공공 의료와 공공 교육의 장인 병원과 공립 학교를 통해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공원과 공공 정원 등도 이런 맥락을 함께 한다.<sup>38)</sup> 이는 대도시에서 만인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의 기능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확장한 도시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또한 시민계급의 문화는 새로운 시설에 대한 수요를 창출했고, 그 결과 조성된 시설은 근대적 삶을 실천하고 반영하는 모더니티의 공간이 된다.

19세기 사회의 정치와 경제, 문화 등을 주도한 시민 계급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대중문화(popular culture)를 처음으로 향유한 이들이기도 하다. 여러 사람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종교적·세속적 축제를 즐기는 것은 과거에도 있던 일이었다. 하지만 대도시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익명의 개인의 집합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대중은 이 시대에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처음으로 상품으로서의 문화를 체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

38) 공원의 평등한 이용과 시민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사례로는 1866년 하이드 파크에서의 시위를 들 수 있다. 당국은 하이드 파크를 “대중의 여가를 위한 왕실의 선물”이라 보았지만, 시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공원의 자유로운 이용과 집회의 자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Raymond Williams, “A Hundred Years of Culture and Anarchy,” *Problems in Materialism and Culture* (London: Williams, 1980), pp. 3-5를 참조하라.

대중문화란 대체로 19세기 중엽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본격화된 일련의 문화 산물들, 특히 교환되고 소비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당대 사회의 대부분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공유된 가치와 의미들의 체계, 자질, 태도들의 실질적인 체현물이었던 회화, 연극, 책, 노래, 여가문화 등의 산물들을 말한다.<sup>39)</sup>

인쇄술의 발달로 1840년대부터 다양한 신문과 잡지, 엽가 소설들이 널리 보급되었고, 철도의 붐은 새로운 독서 수요와 유통거점을 동시에 창출했다. 다양한 대중간행물은 도덕과 가정의 개선을 추구하는 대중교양잡지에서부터 디킨스(Charles Dickens)와 새커리(William Makepeace Thackeray)의 소설, 기차에서 가볍게 읽을 소설부터 불법으로 생산 유통되는 포르노그래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sup>40)</sup> 영국에서는 박물관(1845년의 제한적 법안), 공공 도서관(1850년의 제한적 법안), 극장 독점제(Patent Theater)의 종식(1843년) 이후 속속 들어선 대중 극장, 뮤직홀(1849년) 등이 조성되어 대중적 소비 욕구를 충족시켰고, 이러한 상품으로서의 대중문화에 대한 욕구와 그 충족은 만국박람회(1851)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 시기 대도시 내의 새로운 시설로 등장한 공원 안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행사를 유치한 것 또한 새롭게 등장한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이는 지배층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도입하여 교화하려는 것과는 깊이 얽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세기 후반 대도시에 산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체험하고 향유하며 일상의 일부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

39) 김문환 외, 『19세기 문화의 상품화와 물신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pp. 118-9.

40) Williams(2007), pp. 101-5.



## 2. 자본의 시대

모더니티를 촉발한 사회적 변화로 시민혁명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격변과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이 혁명을 통한 새로운 역사적 전환은 나아가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 같은 문화적 변화까지도 야기했다. 특히 자본주의는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된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산업주의에 앞서지만, 산업혁명을 통한 상업자본주의로부터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은 근대의 급격한 변화의 동인이 된다.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과 관련된 산업주의와 시장을 통한 경쟁과 노동력의 상품화를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19세기 이래 근대화의 중요한 축이었다. 19세기 이래 자본주의와 산업주의는 공고히 결속되었다. 이는 삶의 질을 격상시켰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간의 노동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sup>41)</sup>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해 생겨났지만 이는 공학적 발달에 한정되지 않는다. 슈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를 위시한 기술경제학자들은 산업혁명기의 기술혁신을 단순한 공학적 기계의 발명에 한정하지 않고 이에 따른 새로운 생산방식,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원자재 공급원의 발굴,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업 조직의 개척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sup>42)</sup>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기계의 발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생산방식과 이윤추구 행태를 바꾸고, 사회의 문제 해결 방식의 기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야기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새로

---

41) Anthony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p. 61.

42) Joseph Alois Schumpeter,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Redvers Opie (trans.),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34), p. 66.

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촉발하여 전반적인 사회변화의 동인이 된다.<sup>43)</sup>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정확한 시기와 계기적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체로 증기기관의 사용으로 촉발된 생산력의 강화와, 정치적, 경제적 상황, 시장의 크기 확대, 풍부한 자원 등을 산업혁명의 동기로 보고 있다.<sup>44)</sup> 빅토리아 여왕 재위기(1837-1901)는 영국의 전성기였다. 이 시대는 급격한 변화를 겪은 시대이기도 했고, 대부분의 변화는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빅토리아 여왕 통치 초기, 증기기관이 산업 생산을 바꾸면서 영국은 “세계의 공장(Workshop of the World)”이 되었다. 산업혁명을 통해 생겨난 과거와는 다른 생산 양식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었다.

‘산업혁명이 발발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1780년대의 어느 시점에서 인간 역사상 최초로 인간사회의 생산력을 속박했던 굴레가 벗겨지고 그 후 인간과 재화 및 용역을 끊임없이, 신속하게 그리고 현재까지는 무한하게 증식시킬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오늘날 경제학자들의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다면 ‘자립적 성장으로의 도약’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의 사회는 前산업적 사회구조와 불완전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발생했던 주기적 붕괴, 기근 및 죽음 등이 생산에 부여했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sup>4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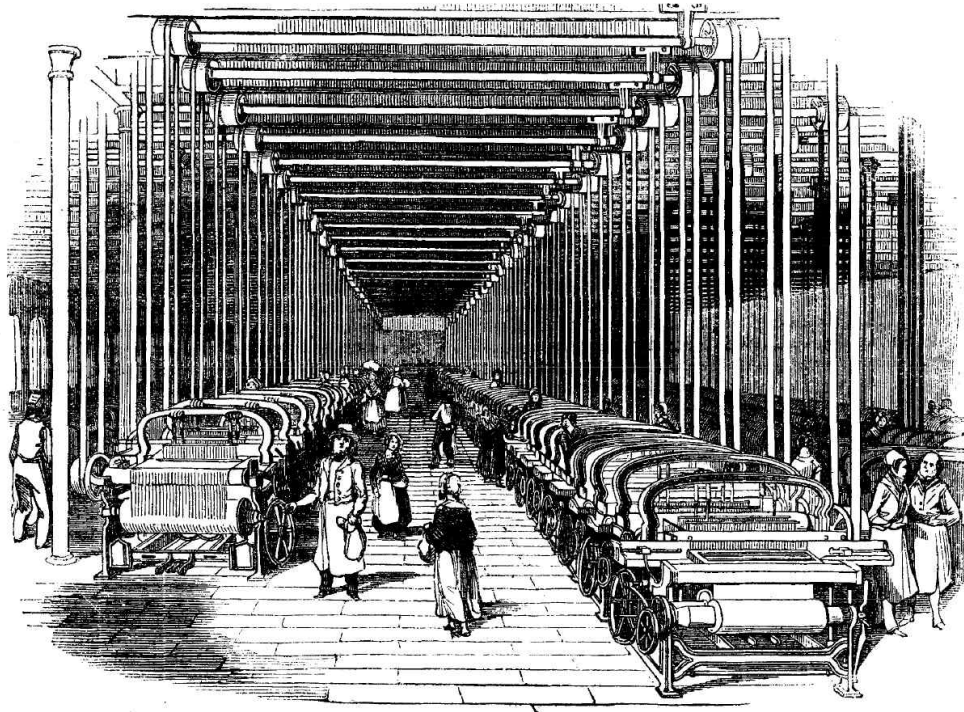
기계에 의한 생산 양식은 과거의 것과는 전혀 다른 체계였다. 시민혁명을 통해 정치적 자율성을 획득했듯, 인류는 산업혁명을 통해 생산력에서의 자율성을 획득했

---

43) 김영철, “산업혁명기의 기술혁신과 대외무역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자본, 제국, 이데올로기』 (서울: 도서출판 해안, 2005), pp. 110-3.

44) 석탄과 증기기관은 빅토리아조 산업의 기반이었다. 1830년에서 1870년 사이 영국의 석탄의 채광량은 1년에 1,700만 톤에서 1억 2,130만 톤으로 급증했다. 이는 대부분 제철에 쓰였고, 1830년에 74만 톤이던 철강 제품의 연간생산량은 1870년에 637만 8천 톤이 되었다. Michael St John Parker, *Life in Victorian Britain* (Hampshire: Pitkin Publishing, 1999), pp. 4-5.

45) Hobsbawn(1998), p. 107.



<도판 2-7> "면직 공장에서의 하루", <페니 매거진>, 1843년 6월.  
 자료: Edwards & Wood, *Art & Visual Culture 1850-2010*, p. 69.

다. 이는 자연의 시간에 따라 생산을 할 때의 생산의 제약을 벗어남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자연의 시간에 따라 인간의 힘으로 생산을 했지만, 이제는 자연의 구속을 받지 않는 기계가 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자연적 시간의 제약을 벗어난 기계적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생산력은 공장으로 대표된다(도판 2-7).

공장은 생산 자본의 유무에 따른 신분 계급을 만들었고,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새로운 생활 양식도 만들었다.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난 영국의 경우, 1760년과 1830년 사이에 인구 증가, 산업주의, 인클로저의 결합에 의해 나타난 세 변화는 매우 근본적인 것이었다. 즉 일반민중의 동질성 자체가 변화되며, 이것은 새로운 어휘의 창조에

의해 가장 뚜렷이 표현된다. 예컨대, 1780년대에는 신분, 지위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일반민중은 ‘낮은 신분’또는 ‘근로 빈민(the industrious poor)’으로 불리다가, 그 후 이 용어는 점차 ‘계급’이란 말로 대체되면서, 1830년대에는 ‘노동계급들(the working classes)’ 또는 ‘중산계급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된다. 언어의 이러한 변화는 사회계층 내에 새로운 ‘이해관계의 분화’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에 따른 전면적인 생활양식의 재편도 의미하게 된다.<sup>46)</sup>

이는 농업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뒤흔들었고, 나아가 공동체의 생활방식도 변화시킨다. 교구(parish)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일체성은 점점 사라지고, 경제적 이윤이 우선시되었다. 서구의 근대적 시민사회의 중심은 시민을 일컫는 부르주아(bourgeois)<sup>47)</sup>는 도시의 상공업자 계급을 토대로 생겨났다. 이들은 전통적인 생산방식인 농업 대신 주로 상업이나 경공업에 종사했고, 자본을 축적하고 합리적인 사회의식을 발달시켰다. 이들의 성장은 봉건사회의 해체와 자본주의 근대 사회의 성립에 큰 기여를 했다. 즉 이의 토대가 된 합리적 사고와 자본주의, 개인주의는 도시의 산물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산업혁명을 통해 자본주의가 발달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본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사유 재산을 바탕으로 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로서, 이윤추구를 그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지만 근대 유럽을, 나아가 오늘날의 세계를 이끈 경제 체제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근대 유럽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전은 사회경제사 연구에서 꾸준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자 논쟁점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

46) 박재환, 김문겸 (공저), 『근대사회의 여가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 13.

47) 오늘날 중산층이나 자본가를 일컫는 ‘부르주아’라는 말은 본래 중세 유럽 도시에서 성곽(bourg)으로 둘러싸인 성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town dweller)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들은 주로 상업이나 경공업에 종사하여 전통적인 귀족이나 왕족, 성직자 계급과 차이를 보였고, 또 성 밖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도 구분되었다.

므로 19세기 후반 부르주아 사회의 형성과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본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사용하는 생산방식이기도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발전한 특정한 사회 경제 체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본주의는 크게 합리성에 근거를 둔 이윤 추구와 이를 위한 생산, 노동력의 상품화, 시장 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sup>48)</sup> 이윤 추구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합리적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태도는 근대 유럽에서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다. 자본주의적 기업 활동을 통해 자급자족적인 과거의 생활 방식을 탈피했고, 시장 경제를 매개로 나타난 임금 노동 생산 체계가 보편화 되었다.

한편 이윤 추구의 최대화를 추구한 산업혁명 초기의 혹독한 노동은 역설적이게도 이후 근대적 여가 문화가 생겨나는 계기가 된다. 이 시대의 공장 노동과 그것이 노동자들의 정신에 미치는 악영향을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기계에 대한 감독, 끊어진 실을 잇는 작업은 노동자들의 사고능력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다. 동시에 그것은 작업 중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이다 . . . . 노동자들은 이처럼 극한적인 단조로움 속에서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타락시키도록 운명 지어졌다 . . . . 노동자들에게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와 함께 평생을 공장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 정말 지독한 고문이다. 결국 이러한 노동은 그들의 정신과 육체를 극도로 피곤하게 한다. 노동자들의 지적인 능력을 감퇴시키는데 공장노동보다 더 좋은 수단은 없다 . . . . 그리고 이러한 부르주아지에 대한 분노가 노동자들의 가슴에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음주와 일반적인 도덕적 타락을 귀결될 것이다 . . . . 모든 노동자들을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요인 외에도 정신적인 피로에 의해 노동자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 그러므로 내가 앞에서 언급한 음주와 성적인 방종이 특히 공장도시에서 절정에 달한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sup>49)</sup>

48) 서구의 자본주의 성립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 양동휴, “서양사에서의 자본주의 성립시기 논의,” 『미국 경제사 탐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를 참고하라.

49) Friedrich Engels,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박준식, 전병유, 조효래 (공역),



<도판 2-8> 헨셀, <펍>, 1883.

자료: Edwards & Wood, *Art & Visual Culture 1850-2010*, p. 59.

바의 카운터를 따라 늘어서 있는 고객들은 화면의 오른쪽부터 노동자부터 신사까지, 품안에 있는 아기를 진으로 달래는 젊은 어머니와 얼굴도 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도 술병을 들고 있는 소년, 유대인 노인, 술에 취한 아버지를 모시러 온 아들, 여점원을 유혹하는 남자, 구석에서 시시덕대는 남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부르주아와 달리 노동자 계급에게는 문화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고, 교양과 여가에 지출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도 없었다. 이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은 펍(public house, 도판 2-8)<sup>50)</sup>에서 술을 먹으며 왁자지껄하게 노는 것이었고, 여기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는 부르주아 기득권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노동자 계급이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여가를 보내게 하기 위해 카페나 당구, 춤, 자전거나 스포츠 같은 새로운 오락거리가 널리 보급되었고, 산책로나 공원을 산책하는 일 또한 바람직한 여가 활동으로 권장되었다.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서울: 두리, 1988), pp. 217-8.

50) 펍은 음식과 술을 파는 간이식당인 public house의 약어이다. 이 말이 처음 생긴 16세기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대중(public)에게 개방된 건물(house)이라는 뜻이었고, 17세기부터 음식과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여관을 지칭했다. “pub,” etymonline.com (검색일: 2013년 12월 4일).

### 3. 대도시에서의 삶

인류가 정주 생활을 하면서 시작된 도시의 역사는 끊임없는 변동의 역사이지만, 특히 19세기의 서유럽은 큰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인류 문명의 발달은 대도시(metropolis)를 중심으로 한 발전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도시는 산업사회의 지평을 드러낸다.<sup>51)</sup> 하지만 19세기의 급격한 도시 팽창은 전 세기의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8세기 영국은 크롬웰(Oliver Cromwell) 시대에 항해법(Navigation Act)이 제정된 이후 네덜란드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해외 무역의 주도권을 차지한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대의 상선대를 보유하고, 다양한 무역을 통해 세계 최대의 시장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영국은 대규모의 해외시장과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수도 런던 또한 변영하여 “경이로운 도시가 되었다(London became the wonder city).”<sup>52)</sup>

이는 인구 증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1700년 57만 5천명이던 런던의 인구는 1801년에는 90만으로 증가하여 서유럽 최대의 도시가 되었다. 영국 전체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650년 7%에서 1750년 11%로 높아졌는데, 이 시기 파리에 거주하는 프랑스 인구가 2.5%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면 도시의 발달 면에서 런던이 크게 앞섰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53)</sup> 하지만 이런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런던의 외양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도시의 물리적 경계가 확장되며 도시의 면적이 팽창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의 일이었다(도판 2-9). 인구가 밀집한 도심은 좁고 더럽고, 위험했으며, 도심을 벗어나면 빈민층의 슬럼가가 밀집했다.<sup>54)</sup>

51) Françoise Choay, *L'Urbanisme, utopies et réalités: une anthologie* (Paris: Éditions du Seuil, 1965), p. 7.

52) Roy Porter, *London, A Social History* (London: Hamish Hamilton, 1994), pp. 93, 131, Miles Ogborn, *Spaces of Modernity: London's Geographies 1680-1780*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8), p. 33에서 재인용.

53) Ogborn(1998), p. 33

54) 슬럼(slum)이라는 말은 1820년대에 처음 사용되었는데, ‘물기가 있는 수렁(wet mire)’이라는



<도판 2-9> 폴라드, <하이버리와 캐넌버리 광장의 북쪽 풍경>, 1787년.  
자료: 영국 국립 미술품 소장품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영국에서는 18세기 이후 유례 없는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도시가 발달하고 성장한 일이 19세기에 처음 있던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속도는 도시와 시골의 관계를 완전히 전도할 정도가 되었고, 마침내 도시화와 산업화가 결합되었다.<sup>55)</sup> 증기기관과 철도의 발명 이후 석탄과 원료의 수송이 용이하

뜻을 지닌 옛날 방언 ‘슬럼프(slump)’라는 말에서 나왔다. 저지대 독일어, 덴마크어, 스웨덴어 등에서 ‘슬람(slam)’은 수렁을 뜻한다. 그리고 대체로 배수가 되지 않는 지대에 있는 거리와 집 마당의 지독한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슬럼이라는 말은 단순히 역겨운 거리나 마당 뿐 아니라 주거의 특정한 속성(질)도 표시한다. William George Hoskins, *The Making of the English Landscape*, 이영석 (역), 『잉글랜드 풍경의 형성』 (파주: 한길사, 2007), pp. 320-1.

55) Marcel Roncayolo, “logiques urbaines,” in *Histoire de la France urbaine, tome 4. La Ville de l'âge industriel: le cycle haussmannien*, Georges Duby (ed.), (Paris: Seuil, 1980-1985), p. 18.



고 노동력이 풍부한 도시와 근교에 공장이 대규모로 생겨났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었다. 기존의 도시들은 산업화를 통해 대도시로 변모했고, 새로운 산업 도시들이 생겨났다. 특히 산업 도시와 광업 도시는 이민과 내적 인구 증가를 통해 급속도로 성장했다. 19세기 전반에 상공업 도시가 증가했고, 그 결과 1851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도시 인구 중 1/4이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는 양상을 보인다.<sup>56)</sup> 수도 런던의 인구는 1801년에는 90만 명 정도였지만, 1841년에는 187만 명, 1891년에는 423만 명에 달했다. 한 세기도 되지 않아 런던의 인구는 다섯 배가 넘게 증가했다. 또한 1850년경 영국의 인구의 절반이 주민수가 1만 명이 넘는 도시에 거주했는데, 이는 유럽의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것이었다.<sup>57)</sup>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런던은 단순히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거래와 주식, 무역의 중심지인 “세계의 은행,”<sup>58)</sup> “세상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위대한 도시,”<sup>59)</sup> 고대 로마제국 이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도시였다. 1851년에 출판된 『나이트의 런던 백과사전(Knight's Cyclopedia of London)』은 이러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몇 년 전 스레드니들 스트리트(Threadneedle Street)에 있는 프랑스 교회를  
철거할 때 모자이크 포장도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최소한 14세기 전에

56) 이영석, 『(역사가가 그린)근대의 풍경』 (서울: 푸른역사, 2003), p. 101.

57) 1801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인구 890만 명 중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34.8%, 시골에 거주하는 비율은 65.2%였다. 1851년의 인구는 1,790만 명으로 증가했고, 도시 인구 비율은 59.2%, 시골은 49.8%로 도시 인구의 비율이 더 커졌다. 1881년 2,600만 명의 인구 중 67.9%가 도시에 거주하여 19세기 초의 도시와 시골의 비율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1901년의 인구는 3,250명이었고, 도시 인구는 77%, 시골은 23%였다. David Coleman and John Salt, *The British Population: Patterns, Trends and Proces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 41.

58) Charles Knight, *Knight's Cyclopaedia of London* (London: Charles Knight, 1851), p. 640, <https://archive.org/details/knightscyclopaee00kniggoog>, (검색일: 2013년 11월 22일).

59) Joseph Conrad(1899), *Heart of Darkness: A Case Study in Contemporary Criticism*, Ross C. Murfin(ed.),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9), p. 17.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로 로마인들이 걷던 곳이다. 바로 이웃한 지역은 아마도 로마 시대 런던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로마보다 더욱 강력한 권력, 구세계의 지배자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최고의 권력이 바로 이곳을 통치하고 있다.<sup>60)</sup>

19세기 동안 도시와 시골의 인구 구성은 급속도로 변화하여, 1800년에서 1895년 사이에 영국에서 인구가 10만을 넘는 도시는 2개에서 30개로 증가했다.<sup>61)</sup> 도시화는 생산 노동력의 분포 변화와 관련된다. 산업의 확장은 새로운 일자리와 자본을 창출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을 야기하기도 했다. 새로이 공장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농촌에서의 비참한 삶을 피해 온 사람들이었다(도판 2-10).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경지 구획화(Enclosure, 도판 2-11)의 결과 이전에 공유지였던 토지의 많은 부분이 개인(부유한 지주)의 소유가 되었고,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행위가 되었다. 경작할 토지와 삶을 잃은 농민들은 산업혁명이 한창인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의 하층 노동자로 전락했다.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고 “노동자가 집에서 공장까지 오는데 한 시간이 걸리든 30분이 걸리든 그것은 고용주의 관심 밖”이었기에 노동자들은 “아침 5시 30분까지” 공장에 출근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해야 했다.<sup>62)</sup> 공장 지대 주변에는 이들을 위한 싸구려 자재로 지은 불량 주택이 혼란스럽게 들어섰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과밀했고, 환경은 비위생적이었다. 그 결과 공업 도시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빈부 격차가 심해져, 교외에는 벼락부자들의 화려한 주택이, 공장 지대 근처에는 급증한 노동자들을 수용하는 빈민가 주택이 들어섰다(도판

---

60) Knight(1851), p. 640.

61) Choay(1965), p. 10. 이러한 극적인 인구변동은 영국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비엔나의 1846년 인구는 40만이었으나 1880년에는 70만에 달했고, 베를린의 1849년 인구는 37만이었으나 1875년에는 100만이 넘었다. Eric Hobsbawm, *The Age of Capital 1848-1875*, 정도영 (역), 『자본의 시대』 (과주: 한길사, 1998), pp. 3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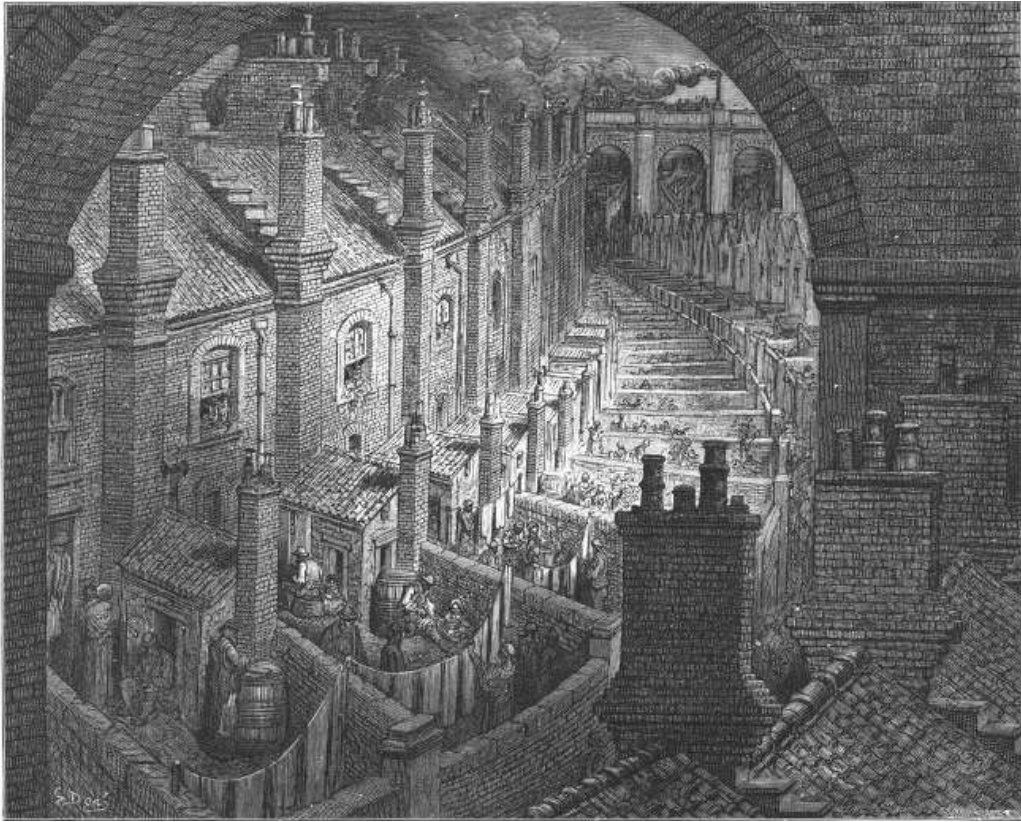
62) Engels(1988), pp. 218-9.



<도판 2-10> 레드그레이브, <마지막으로 고향을 보는 이민자들>, 1858.  
자료: 테이트 브리튼



<도판 2-11> 게인즈버러, <앤드류스 부부>, 1750년경.  
자료: 런던 내셔널 갤러리



<도판 2-12> 귀스타브 도레, <런던: 순례여행> 중 <기차를 타고 보는 런던>, 1872.

2-12).<sup>63)</sup>

이러한 슬럼가는 영국의 모든 대도시에서 상당히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며 도시의 가장 열악한 지역에 가장 허름한 집들이 들어 서 있다. 대개 일층 내지 이층의 작은 집들이 줄지어 있으며 주거에 이용되는 지하실이 있고 거의 대부분 불규칙하게 지어져 있다. 3-4개의 방과 하나의 부엌이 있는 이런

63) 한편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런던의 좁은 도심은 인구 과밀을 감내하지 못하게 되었다. 시티의 상인들은 도심을 떠나 교외에 거주를 위한 집을 짓기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간선도로가 확장되었다. 최초의 교외 개발은 복음운동의 영향을 받아 가정의 중요성을 새롭게 절감한 상인들이 시도했고, 교외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Robert Fishman, *Bourgeois Utopias: The Rise and Fall of Suburbia*, 박영한, 구동회 (공역), 『부르주아 유토피아: 교외의 사회사』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0)의 1-3장을 참조하라.

집이 전 영국의 노동자계급의 일반적인 거주 형태이다. 도로는 대개 포장되어 있지 않고 험하고 더러우며 건축 방법 때문에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밀집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들이 사는 지역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바로 상상할 수 있다.<sup>64)</sup>

사실 도시 내 노동자 계급의 거주 상황은 이전 시골에서의 생활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악화된 것은 아니었다. 집은 좁았고, 위생 수준은 시골에서나 도시에서나 열악하고 원시적이었다.<sup>65)</sup> 그러나 시골에서는 집들이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있어 뒤뜰 웅덩이나 골목 등에 버려진 각종 오물을 처리할 수 있었고, 주기적으로 분노 수거꾼이 이를 수거하여 비료나 가축의 먹이로 활용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한 도시의 노동자 주택구역에는 이런 공간이 없었고,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가 거의 불가능했다. 과밀하고 불결한 환경은 수시로 전염병을 유행시켜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이는 엥겔스가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한 바 있다.

폐병은 이러한 상태의 필연적인 귀결이며 이런 종류의 병을 불공평하게도 노동자계급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런던의 오염된 대기, 특히 노동자 거주지역의 오염된 나쁜 공기가 폐병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불그레한 얼굴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 . . . 폐렴은 북부지방의 공장도시에서 매년 엄청난 희생자를 내고 있다. 폐렴에 못지 않은 병으로 성홍열은 말할 것도 없고 티푸스가 있다. 이 질병은 노동자계급 전체를 황폐화시키는 무시무시한 병이다. 일반적으로 재난을 확산시키는 티푸스라는 병은 노동자계급의 위생 상태에 관한 공식적인 보고서에 의하면 환기, 배수, 청결 등의 문제에 있어 거주지의 열악한 상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up>66)</sup>

---

64) Engels(1988), p. 60.

65) 농가의 열악한 위생 상황과 주택 상태에 대해서는 Ariès and (eds.)(2002), pp. 500-510을 참조하라.

66) Engels(1988), pp. 134-5.

여러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도시는 계속 증가하고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질병과 범죄, 사회 불안 같은 문제도 함께 늘어났지만, 산업혁명 초기의 비인간적인 조건은 이후 국가적으로 상하수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건축을 규제하고,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점차 개선되었다. 여기에는 사회개혁자들의 운동이 크게 기여했는데, 이들의 동기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종교적·박애적 동정이기도 했고,<sup>67)</sup> 사회무질서에 대한 공포 때문이기도 했다. 골디(Enid Gauldie)는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의 개선을 촉구한 이들이 이의 실질적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아니라, 중간계급 출신의 사회개혁자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녀는 이를 노동자들에 대한 중간계급의 공포, 즉 노동자 구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자신들의 안정과 기득권을 위협하리라는 공포에서 유래한다고 보았다.<sup>68)</sup> “도시의 부패가 개혁가들의 관심을 끌었다면, 이는 단지 악취 때문”<sup>69)</sup>이었는데, 즉 노동자 주거지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확산된다면 모든 계층이 감염 될 수 있기에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관심을 얻었다. 또한 많은 노동자들의 조기 사망은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려되었다. 나아가 이들은 슬럼을 악과 범죄, 정치적 급진주의의 온상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여 타파하고자 했다. 그의 일환으로 주택의 질적 측면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sup>70)</sup>

67) 당시의 일부 부르주아 박애주의자들은 미적 교화를 통해 빈민층의 물질적, 정신적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 “선교 유태주의자(missionary aesthete)”의 활동과 사상에 대한 연구는 Diana Maltz, *British Aestheticism and the Urban Working Class, 1870-1900*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6)을 참조하라.

68) Enid Gauldie, *Cruel Habitations: A History of Working-Class Housing 1780-1918* (London: Allen & Unwin, 1974), pp. 16-7.

69) Gauldie(1974), p. 21.

70) 신축주택에 대한 최소 면적기준을 설정하고,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주택을 정부가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공중위생법>이 1848년에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노동자계급주택법(Labouring Classes Houses Act)>이 1866년에 제정되었다. 부스(Charles Booth)가 1887년에 런던 동부 빈민가에 대한 최초의 근대적 사회조사를 시행했고, 1890년에는 노동자주택의 위생 상태와 저소득층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택건설책임을 법제화한 <노동자주택법(the Housing of the Working Classes Act)>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영국에서는 정

이 시기 처음으로 공중위생(Public Sanitation)의 개념이 등장했다. 깨끗한 수도물을 제공하거나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등의 위생 행위를 통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위생은 다른 의학적 발견처럼 기술적으로 큰 인상을 주는 분야는 아니다. 하지만 공중위생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학적 진보이고, 한 번 갖추어지면 많은 질병을 초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sup>71)</sup> 콜레라나 인플루엔자 등의 유행성 질병의 발병 원인을 밝히기 위한 과학적 역학 조사가 시행되었고,<sup>72)</sup> 다른 한편으로는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빈법 등의 법적, 행정적 조치가 등장했다.<sup>73)</sup>

한편 19세기 초 파리에서도 도시의 물리적 틀은 거의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sup>74)</sup> 1835년에 즈음하여 프랑스에서 ‘산업혁명’이, 적어도 경제 성장의 주요한 발전이 나타났고, 그 결과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이행하게 된다. 산업시대의 도시의 모습은 프랑스에서는 1840년 즈음부터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구불구불하고 좁은 골목길, 막다른길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상하수도

---

부적 차원에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했다.

71) Jon Queijo, *Breakthrough!: How the 10 Greatest Discoveries in Medicine Saved Millions and Changed Our View of the World* (Upper Saddle River, N.J.: FT Press Science, 2010), p. 31.

72) 스노우(John Snow)의 수십 년간의 콜레라 역학 조사에 대한 내용은 Queijo(2010), pp. 32-8을 참조하라. 그는 유기체가 분해될 때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기운(miasma)을 들이마셔 병이 걸린다는 기존의 이론을 부정하고, 콜레라가 어떤 종류의 살아있는 생명체를 통해 전염되는 것이고, 스스로 재생산될 수 있는 속성과 세포 같은 구조를 지녔다고 하여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세균의 개념을 천명했다.

73) 1842년 채드윅(Edwin Chadwick)이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영국의 노동인구의 위생 상태에 대하여(On the Sanitary Condition of the Labouring Population of Great Britain)>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콜레라의 연관 관계를 밝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하수 설계를 통한 공중보건운동을 제시했다. 이어 1848년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이 제정되면서 중앙 행정이 관할하는 위생서비스를 토대로 하는 근대적 공중보건의 시작되었다. Queijo(2010), pp. 38-43.

74) 파리의 도시 구역은 7월왕정 시기에 티에르 방벽(Thiers fortification)으로 규정되었고, 이후 1860년에 주변을 병합하며 확장되었다. 1821년에서 1846년 사이의 인구증가율은 47.6%에 달한다. André Armengaud et al., *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de la France III: L'avènement de l'ère industrielle* (Paris: PUF, 1993), p.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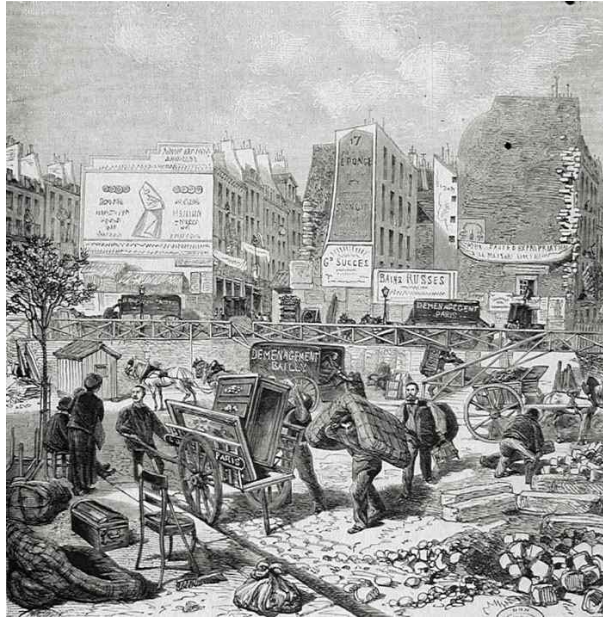


<도판 2-13> 마르빌, <트루아 카네트 거리>, 1865-1868.  
자료: 프랑스 국립도서관

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불결한 모습이었다(도판 2-13). 이러한 도시의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시도는 계속 되었지만,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모리제(André Morize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세기 전반의 파리는 프랑스대혁명 때의 파리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나폴레옹 1세는 루브르에 페 가(rue de la Paix)와 리볼리 가(rue de Rivoli), 콩코르드 가(rue de la Concorde)를 만들었다. 루이 필립은 랑뷔토 가(rue Rambuteau)를 뚫었다. 몇몇 기념물이 세워졌지만, 전체적으로 도시는 그대로였다 . . . . 아니 세부적으로 보면 루이 14세의 파리와 다를 바 없었





<도판 2-14> 작자 미상, <오페라 아브뉴의 연장을 위한 뷔트-데-몰랭 주민 이주>  
자료: 프랑스 국립도서관

다.<sup>75)</sup>

“도시의 형태가 바뀐 순간”<sup>76)</sup>이라고 평가되는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의 파리 개조는 수도의 근대화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이들의 도시 정비는 세기 초부터 도시를 불안하게 만들어온 여러 가지 압박에 기인한다. 산업혁명과 철도의 발달로 도시 유입 인구가 급증했고, 이는 도시 내 주거 문제를 악화시켰다.<sup>77)</sup> 특히 1850년대 초는 오스만의 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많은 주택이 철거되었지만, 아직 이

75) André Morizet, *Du vieux Paris au Paris moderne. Haussmann et ses prédécesseurs* (Paris: Hachette, 1932), p. 13.

76) Marcel Roncaylo, “La production de la ville,” in *Histoire de la France urbaine, tome 4. La Ville de l'âge industriel: le cycle haussmannien*, Georges Duby (ed.), (Paris: Seuil, 1980-1985), p. 74.

77) 1850년대 파리 중심부의 평균 인구밀도는 1헥타르 당 850명(1인당 12㎡), 노동자 밀집구역의 인구밀도는 1헥타르 당 960명에 달했다. Pierre Lavedan, *Histoire de Paris*, (Paris: PUF, 1977), p. 81.

를 대체하는 주거 시설은 건설 중이었고 도시에는 인구가 급증하여 주택난이 극심했다(도판 2-14). 이런 상황에서 주택의 임대료는 급증하여 1852년에서 62년 사이의 파리의 주택 임대료는 42% 증가했다.<sup>78)</sup> 불결하고 채광과 환기가 되지 않으며, 상수도 설비도 없는 싸구려 임대 주택이 곳곳에 들어섰고, 지하실이 셋방으로 개조되기도 했다(도판 2-15). 이런 비참한 환경은 위고나 발작(Honoré de Balzac), 수(Eugène Sue) 등의 작품에서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창틀은 남아있고, 그나마 유리창도 몇 개 없는 진창 색깔의 집들이 좁은 길을 두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어둡고 더러운 길들은 더 어둡고 더 더러운 계단으로 이어지는데, 너무나 가팔라서 축축한 벽에 달린 밧줄을 잡고서야 겨우 올라갈 정도였다. 몇몇 집의 1층에는 숯가게나 푸줏간, 질 나쁜 고기를 되파는 집이 있었다. 상품의 질은 별로였지만, 주인들이 이 구역의 대담한 도둑들을 두려워했기에, 이들 가련한 가게의 진열장에는 대부분 철창살이 쳐져 있었다.<sup>79)</sup>

질병과 사회적 공포, 콜레라와 폭동은 이 시대의 도시문제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었다. 산업혁명과 철도의 발달로 도시에 몰려든 사람들은 불안한 고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위고가 “불쌍한 사람들(les misérables)”이라고 부른 이들은 지배층에게는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계층으로 여겨졌다. 가난한 이들이 사는 구역의 위생 상태는 열악했고, 콜레라 등의 전염병이 자주 발생했다. 내무장관 페리에(Casimir Pierre Perier)가 왕 루이 필립과 함께 환자들이 수용된 병원을 방문한 뒤 콜레라에 감염되어

78) Nicholas Bullock and James Read, *The Movement for Housing Reform in Germany and France, 1840-19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 301.

79) Eugène Sue, *Les mystères de Paris* (Paris: C. Gosselin, 1843), p. 2, <http://archive.org/details/lesmystresdepar00suegoog> (검색일: 2013년 10월 15일). 소설에 묘사된 1830-40년대의 파리의 생활상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Judith Lyon-Caen, *La Lecture et la Vie: Les usages du roman au temps de Balzac* (Paris: Tallandier, 2006)을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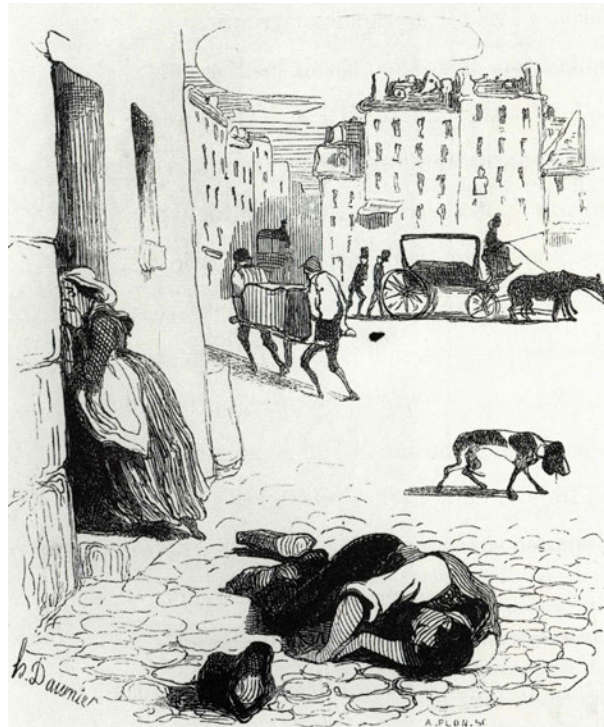


<도판 2-15> 도미에, <지하에 세든 사람들만 누리는 멋진 풍경>, 1856.  
자료: 카르나발레 미술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계층은 콜레라를 사회적 불평등과 동일시했다. 졸라가 소설 <목로주점(L'Assommoir, 1877)>에서 말했듯, “빈곤한 노동자들끼리 아래위로 겹겹이 살아가는 초라한 공동주택에서의 삶은 불행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콜레라 같은 가난에 전염되고 마는 것이다.”<sup>80)</sup> 제 2제정 이전에도 “병든 도시”<sup>81)</sup>를 치료하고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동원되었으나, 효과적이지는 못

80) Emile Zola, *L'Assommoir*, 박명숙 (역). 『목로주점 2』 (과주: 문학동네, 2011), p. 308.

81) 이 시기 도시문제를 도시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한다. 19세기의 도시문제는 일종의 질병으로 은유하고, 이를 치료 대상으로 보는, 일종의 유기체적 관점을 보인다. 가령 쇼에는 “대도시를 질병의 과정으로 보고, 암과 무사마귀의 은유를 사용해 이를 지칭한다”고 했다. Choay, 앞의 책, pp. 12-3. 라브당 또한 파리의 도시사를 다룬 저서에서 1850년대의 파리는 물리적, 도덕적, 사회적인 면에서 모두 병든 도시였고,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이 의사처럼 도시를 근원에서부터 변모시키는 처방전을 내놓았다고 한 바 있다.



<도판 2-16> 도미에, <치명적인 콜레라의 기억>, 1840.  
 자료: Honoré Daumier, *Daumier 1808-1879*, fig. 62.

했다.

1831년에 유행한 콜레라는 파리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이는 공중위생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도판 2-16). 콜레라의 발생을 계기로 1831년 말경, 파리에서는 처음으로 주택의 위생 문제가 쟁점화 된다. 파리에서만 1만 8천명이 넘는 콜레라 희생자가 나온 1832년의 공식 조사는 이를 촉진했는데, 일반 지역에서는 콜레라 사망률이 19.25%에 그쳤던 데 비해 가장 협소하고 불결한 거리의 사망률은 33.87%에 달했기 때문이다.<sup>82)</sup> 위생위원회(Commissions Sanitaires)는 비위생적인 주거지와 전염병의 확산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고, 건물의 높이와 채광, 상하수도, 환기 등의

Lavedan(1977), pp. 81, 86.

82) Ariès and Duby (eds.)(2002), p. 511.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나아가 1846-48년에는 주택 외부의 위생까지 규제하는 칙령이 내려졌다.<sup>83)</sup>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개선을 다루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대도시 내에서의 주거지 위생 문제를 제도화하기 시작했다는 의의가 있다.

나폴레옹 3세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가장 먼저 착수한 일 중 하나는 수도 파리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었다. 19세기의 급속한 도시화는 주택문제나 노동빈민 등의 문제를 부각시킨다. 이런 사회문제는 전 근대 사회에서와 달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다. 이는 강압적인 통치나 시혜가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과 계획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근대적 도시 체계가 생겨났다. 오스만은 회고록에서 센 지사로 임명되어 처음 황제를 알현하는 자리에서 “황제는 나에게 서둘러 파리의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그 위에는 그분이 구상하신 새로운 도로들이 시급함의 정도에 따라 파란색과 붉은 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sup>84)</sup>라고 했다(도판 2-17). 여기에서 알 수 있듯 나폴레옹 3세는 오스만을 센 지사로 임명하기 이전부터 새로운 길을 내고, 상하수도과 가스 등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조성하고, 거주 구역을 (재)개발하며, 공공건물을 정비하고, 공원과 공공정원, 산책로를 조성하는 일 등을 구상했다. 규격화된 도시 조직 형성을 통해 도시의 순환과 위생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러한 종합적 프로젝트를 통해 파리는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도시의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요구에 응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전제적인 정책과 새로운 기술을 도

83) Arthur Raffalovich, *Le logement de l'ouvrier et du pauvre* (Paris: Guillaumin, 1887), pp. 214-5, <https://archive.org/details/lelogementdelou00raffgoog> (검색일 2013년 11월 2일).

84) Georges Eugène Haussmann, *Mémoires du Baron Haussmann, tome II, Préfecture de la Seine* (Paris: Victor-Havard, 1890), <http://archive.org/details/mmoiresdubaronh00hausgoog> (검색일 2013년 10월 15일), p. 53. 이 지도는 1871년 파리 코뮌 당시 파리 시청의 화재로 소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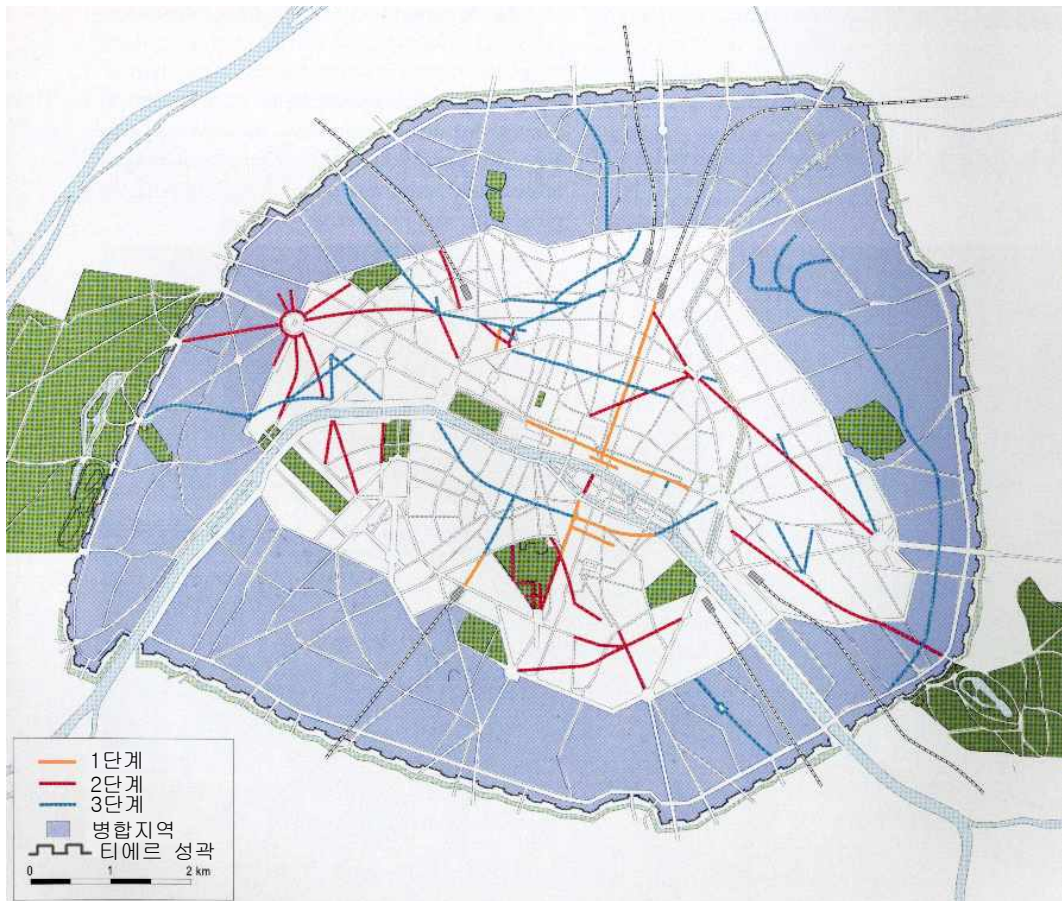




<도판 2-17> 이봉, <1859년 2월 16일 오스만 남작에게 주변 코뮌 병합 칙령을 내리는 나폴레옹 3세>, 1859.  
자료: 카르나발레 미술관

입한 것이기도 하다.

오스만은 파리의 대역사의 단계를 세 개의 망(réseaux)으로 구분했다(도판 2-18). 첫 번째는 루브르의 완공과 레 알(Le Halle de Paris) 시장의 재건축, 불로뉴 숲 정비, 대 교차(Grande Croisée)라는 별칭이 붙은 도심의 동서축과 남북축을 아우르는 파리의 주요 도로의 건설, 두 번째는 전 단계에 건설한 도로의 연장 혹은 새로운 도로의 건설, 교외와 시내를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로와 광장, 역의 건설, 세 번째는 주요 도로의 연장, 근교 지역의 18개의 코뮌 병합을 통한 20개 구 체제



<도판 2-18> 오스만화의 3단계: 주황색은 1단계에 건설된 주요 도로, 붉은색은 2단계, 파란색은 3단계에 건설된 주요 도로를 나타낸다. 바깥쪽은 제 2제정 시기 새로 파리에 병합된 지역을, 외곽의 성벽은 티에르 성곽의 경계이다.

자료: Pinon, *Atlas du Paris haussmannien*, p. 63: 필자 재작성.

확립, 상하수도 설비의 확충, 상수도 수원지 변경 등을 포괄한다.<sup>85)</sup> 1853년부터 69년 사이에 3단계에 걸쳐 시행된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의 계획에는 크게 네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근대의 파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전염병의 근원이 되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직선대로로 개선하여 도시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름답고 기념비적인 도시를 만들뿐 아니

85) Garrigues(2007), pp. 99-100.



<도판 2-19> 티보, <1848년 6월 25일 일요일, 라모시에르 장군 부대의 공격전의 생-모-포앵쿠르 가의 바리케이드>, 1848.  
자료: 오르세 미술관



<도판 2-20> 메소니에, <1848년 6월 모르텔리리 가의 바리케이드>, 1850.  
자료: 루브르 박물관

라, 시가지에서의 군대 이동을 원활히 하여 반동 세력을 신속하게 제압하기 위함이 었다.<sup>86)</sup> 1830년에서 48년 사이의 혼란기, 파리 시내 곳곳의 좁은 골목길은 쉽게 바 리케이드를 쌓아올릴 수 있고, 길에서 뜯어낸 포석은 방어와 공격에 모두 사용되었 다(도판 2-19, 2-20).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주민의 유입, 위생 문제, 정치적 소요 등의 도시 문제는 예전에도, 비단 파리 뿐 아니라 여러 대도시에서도 있어 온 문제였다. 중요한 점은 제 2제정 시기의 도시의 변화의 동기가 되고, 이를 준비하고,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인, 즉 오스만화가 기존의 파리 도시 정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이다.

1852년에서 69년 사이, 파리에 71마일의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었고, (병합 된 코뮌을 제외한) 도시의 평균 도로 폭은 2배가 되었다. 400마일이 넘는 도 로가 포장되었다. 가로를 따라 심겨진 나무의 수는 두 배가 되었고 10만 그

86) Sigfried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The Growth of a New Tradition*, 김경준 (역), 『공간·시간·건축』 (서울: 시공문화사, 1998).



루에 달한다. 260마일의 하수도가 준설되었고, 기존 92마일 중 9마일이 다시 놓였다. 1852년 파리에서는 11만 2천 세제곱미터의 물을 사용했고, 수질에는 무관심했다. 1869년에는 기존의 수원지로부터의 31만 1천 세제곱미터에 더해 뒤(Dhuys) 수원지에서 2만4천-3만 세제곱미터, 반느(Vanne) 수원지에서 10만 세제곱미터의 맑은 생활용수를 공급받았다. 네 개의 다리가 건설되었고, 10개가 재건되었다. 2만 7천 5백여 채의 집이 파괴되었고, 10만 2천 5백여 채가 건축되거나 재건축되었다. 게다가 13개의 새로운 교회와 2개의 시나고그, 5개의 시청, 6개의 막사, 5개의 극장, 여러 개의 시장, 도살장, 학교가 구시가지와 새로 파리에 병합된 지역에 마련되었다.<sup>87)</sup>

오스만화는 도시의 ‘근대화(modernization)’를 목적으로 하는 변화 과정이었다. 그 개념과 체제가 제 2제정 이후 사라졌다 하더라도, 오스만화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이는 산업혁명으로 변화한 사회가 요구되는 도시의 변화에 부응한다. 또한 이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당시의 도시와 관련된 개념과 연관된다. 물론 오스만의 도시 정비 이전에도 도시 정비는 수차례 있었다. 오스만화는 이를 재생산하고, 완벽하게 만들었으며, 체계화한 사업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건축적, 도시적 요소, 어떤 형태의 개입과 협력을 통해 오스만화는 자신의 목적을 재생산하고 완벽하게 만들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는가가 중요하다.

오스만의 정비 사업을 통해 파리는 르네상스부터 구체제에 이르는 시기의 고전적 도시에서 산업시대의 도시로, 나아가 벤야민의 말을 빌면 “19세기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었다. 오스만의 목표와 방법, 양식은 종종 지방이나 다른 국가에서 모방되었고, 그의 작업의 영향은 그가 권력을 잃은 뒤에도 영향을 계속 미쳤다. 건축 비평가 달리(César Daly)는 <나폴레옹 3세 하의 19세기 개인 건축물(L’architecture privée au XIXe siècle, sous Napoléon III)>의 권두언을 오스만에게 헌정하며 제 2

---

87) J. M. and Brian Chapman, *The Life and Times of Baron Haussmann: Paris in the Second Empir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57), p. 237.

제정의 도시 정비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파리는 이곳을 “우주의 수도”로 만들고자한 나폴레옹 제국의 수장[나폴레옹 1세]의 소원을 실현하면서, 지방에 매우 감동적이고 매우 호소력 있는 사례가 되었다. 동시에 행정기관과 정부는 그가 “진정한 로마 제국”으로 만들고자한 프랑스 전체와 관련하여 그가 표명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많은 것을 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파리 시민들은 건축물의 장관 속에서 살았다. 유럽은 이에 매료되었고, 이를 훌륭하게 모방하고자하는 열망에 휩싸인 우리의 대도시들은 다투어 수도의 사례를 따라했다.<sup>88)</sup>

대도시가 형성되고 도시화가 진전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인구의 공간적 이동에 의한 도시 인구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을 초래하고 새로운 가치관이 성립되며, 이전의 도시와는 다른 새로운 인간의 정주 환경인 대도시가 나타난다. 급격한 변동과 끊임없는 사회 분화는 기존의 도시공간을 분열시켰고,<sup>89)</sup>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적 이념과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이런 근대화는 도시의 발전을 통해 더욱 가속되었다. 도시화와 근대화는 서로 대응하는 현상이고,<sup>90)</sup> 도시의 발달 속에 나타난 제 양상 또한 모더니티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

88) César Daly, *L'architecture privée au XIXe siècle, sous Napoléon III: nouvelles maisons de Paris et des environs. Tome I.* (Paris: A. Morel, 1864),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866074> (검색일 2013년 11월 19일). 오스만화의 지방·국외 전파에 대한 연구로는 *Révue de l'art*, 106: 1994의 <오스만주의(haussmannisme)> 특집호를 참조하라.

89) Leonardo Benevolo, *Le Origini dell'urbanistica moderna*, 장성수, 윤혜정 (공역), 『근대 도시계획의 기원과 유토피아』 (서울: 태림문화사, 1996), pp. 19-29.

90) Manuel Castells, *Question urbaine*, Alan Sheridan (trans.), *The Urban Question: A Marxist Approach* (Cambridge, Mass.: MIT Press, 1977), pp. 9-10, 14.

## 제 3장 도시공원의 형성

### 제 1절 공원 개념의 변화

#### 1. 근대 공원의 형성

오늘날 공원은 현대 도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 시설로 간주된다. 공원은 고도로 인공화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일상적 생업 활동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면서 삶의 재충전을 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sup>1)</sup> 도시공원은 현대 도시민들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있어온 곳 같지만, 사실 이는 19세기 중후반에 새로이 도입된 시설, 일종의 ‘발명품’이다. 물론 이전에도 도시에는 정원을 비롯한 녹지 공간이 여럿 있었지만, 이는 대부분 개인의 사적 영역이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의 장소가 아니었다.

II장에서 논의했듯, 공원(public park)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할 공공(the public)의 등장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정치사회 체계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어원이 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실천된 정치사회 체제<sup>2)</sup>와 공화정 시기의 고대 로마에는 사람들이 모여 토론과 논쟁, 선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 도심에 조성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agora)와 로마의 포룸(forum), 중세와 르네상스 도시의 광장(piazza) 등은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도시 공공 공간의 시작점이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는 포르티쿠스(porticus), 정원(horti) 등의 녹지가 조성되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들이 드리워진 공간이 되었다.<sup>3)</sup> 이의 전통

---

1) 황기원(2001), pp. 381-2.

2) 민주주의로 번역되는 영어 democracy는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를 옮긴 것으로, 민중(demos)과 지배(kratos)의 합성어이다. “democracy,” etymonline.com (검색일: 2013년 12월 22일).

3) 고대 로마의 도시 녹지 공간에 대한 역사적 연구로는 Kathryn L. Gleason, “Porticus

은 르네상스 시기 피렌체 공화국의 정원에서 계승되어, 도시 외곽의 빌라 정원은 “시민적 휴머니즘(civic humanism)”을 실현하는 장이 되었다.<sup>4)</sup> 18세기 말-19세기 초반 동안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며 시민 대중사회가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공원(public park)을 포함한 공공 공간(public space)이 나타났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19세기 후반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도시에 조성된 공공 녹지 공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고, 형태도 다양했지만,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휴식을 취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능은 유사했다. 즉, 이는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변화에 따라 생겨난 공간이고, 따라서 이런 맥락과 함께 의미와 역할을 해석해야 한다.

한편 흔히 공원을 지칭하는 ‘파크(park)’는 어원적으로 사냥을 위해 동물들을 가두어 놓는 위요된 장소를 지칭했고, 시골 저택(country house)에 속한 정원 외부에 있는 사냥터나 숲, 초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sup>5)</sup> 이곳은 사슴 등의 사냥감을 키우고, 이를 사냥하고, 저택에 거주하는 이들이 먹을 식재료를 키우는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도판 3-1).<sup>6)</sup> 이러한 파크의 초기 의미는 18세기 영국에서 정원의 소유자나

---

*Pompeiana: A New Perspective on the First Public Park of Ancient Rome,*” *Journal of Garden History*, 14(1), 1994, pp. 13-27; Maureen Carroll, “Orchards, groves and parks,” *Earthly Paradises: Ancient Gardens in History and Archaeology* (Los Angeles: J. Paul Getty Museum, 2003), pp. 50-9 등을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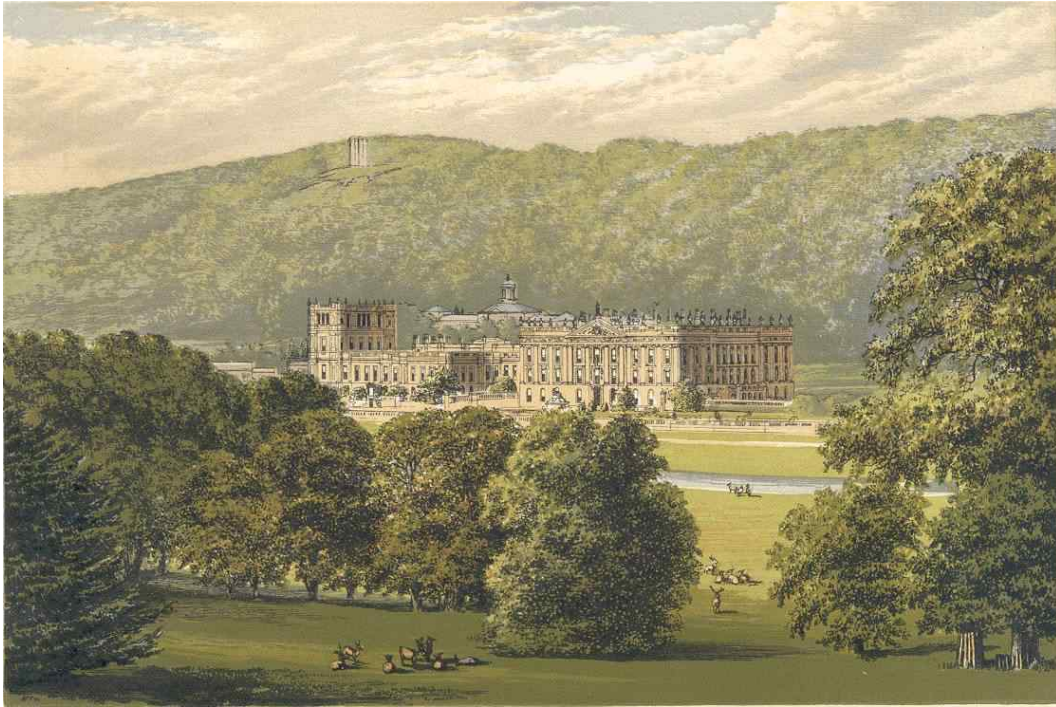
-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obert Pogue Harrison, *Gardens: An Essay on the Human Condition*, 조정진, 황주영, 김정은 (공역), 『정원을 말하다』 (과주: 나무도시, 2012)의 9장을 참조하라.
- 5) 사냥터로서의 파크는 “위요된 곳, 사냥터”라는 뜻의 중세 라틴어 파리쿠스(parriscus)에서 유래한 12세기 프랑스어 파크(parce)에서 비롯한다. parc는 “사냥터로 사용되는 위요된 숲”이라는 의미였고, 이 말이 13세기에 영어에 유입되며 park라는 단어가 형성되었다. 또 다른 어원으로는 마찬가지로 “위요된 구역”이라는 뜻의 서게르만어 parruk이 있다. 이는 울타리를 쳐놓은 들판이나 작은 방목장을 지칭하는 영어 paddock으로 파생되었다. “park,” [www.etymonline.com](http://www.etymonline.com) (검색일: 2013년 9월 2일); Anne van Erp-Houtepen, “The Etymological Origin of the Garden,” *Journal of Garden History* 6(3): 1986, p. 229.
- 6) T. Williamson, *Polite Landscapes: Gardens & Society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Baltimore: Sutton, 1995), p. 22.



<도판 3-1> 랭부르 형제, <베리 공의 매우 화려로운 기도서> 중 <12월>의 부분, 1440년경.

자료: 콩데 박물관

배경에는 주문자인 베리 공작이 태어난 뱅센느 성이 보인다. 성 주변의 파크는 제 2제정기 뱅센느 숲(Bois de Vincennes)으로 조성되어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도판 3-2> 작자미상, <남서쪽에서 본 챗워스 풍경>, 1880년경.  
 자료: Morris, *A Series of Picturesque Views of Seats*, p. 128.

방문객들에게 드문드문 활짝 트인 경관을 특징으로 하는 풍경화식 정원(landscape garden)이 유행하면서 의미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관에는 소유자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목적과, ‘자연스러워 보이는’ 풍경을 창조하고자 하는 미적인 의도가 모두 있었다. 윌리엄슨(T. Williamson)이 지적했듯 이러한 파크는 특정 계층에게는 “필수적인(sine qua non)”이기도 했지만, 또한 도시의 경관과 대비되는 개인적이고 한적한 시골의 경관을 재현하는 것이기도 했다(도판 3-2).<sup>7)</sup>

19세기 서유럽의 대도시에 조성된 공원(public park)과 공공 정원(public garden)이라는 말은 일견 모순어법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원적으로나 고전적인 의미에서 개인적 영역임을 함의하는 파크와 정원, 그리고 공적 영역을 지칭하는 수식어 ‘public’

7) Williamson(1995), p. 85.



사이의 이질감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근대 도시의 공공 영역으로서의 공원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앞 장에서 논의했듯, 공원은 19세기 후반의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적 발전과 시민혁명을 통한 정치적 민주화, 그리고 이의 결과로 생긴 도시 환경 조성의 결과물이다.

“대중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도시 안이나 인근의 위요된 부지”<sup>8)</sup>라는 의미의 공원은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도시 내 개인 녹지를 대중에 개방하기 시작한 17세기에 등장했다. 즉, 왕실이나 귀족, 종교시설 등이 소유한 정원(garden)과 파크(park)를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은 19세기 이전부터 있어온 관행이었다. 영국에서는 1637년 찰스 1세(Charles I, 재위 1625-1649)가 하이드 파크를 대중에게 개방했고,<sup>9)</sup> 1661년 찰스 2세(Charles II, 재위 1660-1685)는 세인트 제임스 파크(St. James Park)를 ‘공원(public park)’으로 선포하며 개방했다.<sup>10)</sup> 17세기부터 점진적으로 왕실의 녹지가 개방되었고, 1851년 왕실토지법령(Crown Lands Act)의 제정으로 왕실 소유의 파크가 공원으로 전환되었다(도판 3-3).<sup>11)</sup> 프랑스에서는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 왕실 재산이 국유화됨에 따라 왕실과 귀족의 소유였던 여러 정원이 대중에 개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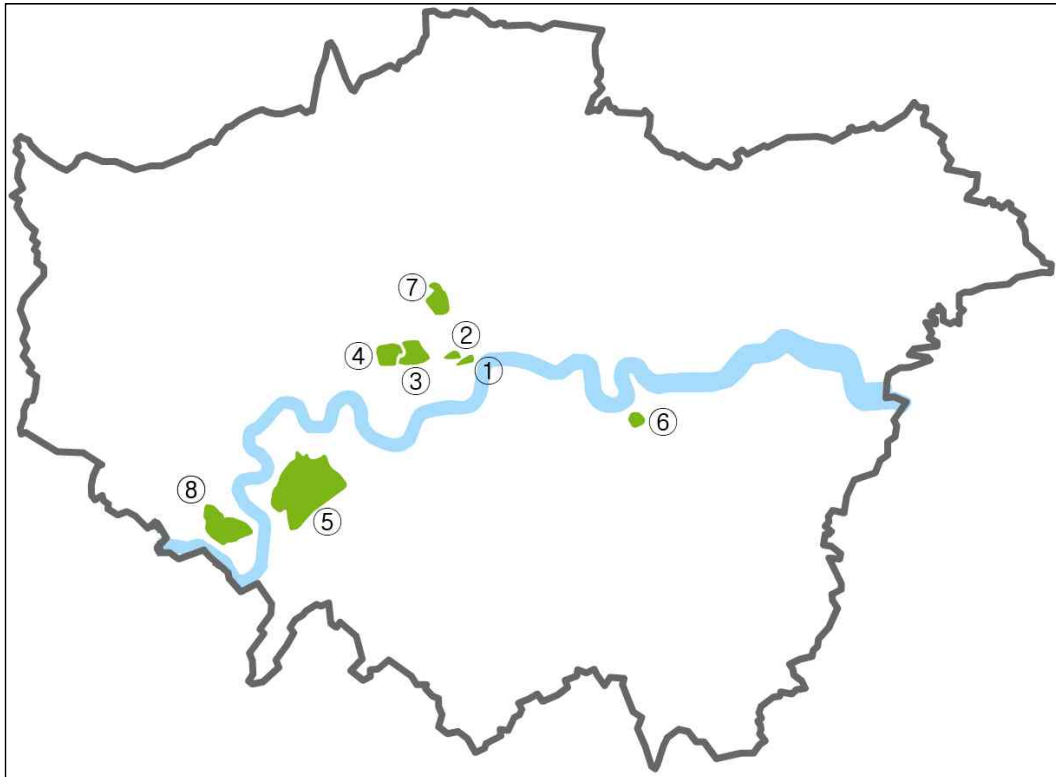
기존의 파크를 대중에게 개방하거나, 19세기 도시에서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며 도시공원이 등장했다. 새로이 조성된 도시공원의 위치와 형태, 기능은 도시적 상황에 따라 조성되고, 당대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도시적,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반영하며 때로는 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존의 왕실이나 종교 시설, 귀족의 사유 파크와 정원 등을 대중에 개방하여 위치와 형태에서는 큰

8) “park,” [www.etymonline.com](http://www.etymonline.com) (검색일: 2013년 12월 2일).

9) Porter(1994), p. 209.

10) “History and Architecture,” [www.royalparks.org.uk](http://www.royalparks.org.uk) (검색일: 2013년 12월 16일).

11) “F4 22 Duties of Commissioners of Woods, &c. in relation to royal parks, &c., and under the Acts in schedule, vested in Commissioners of Works,” <http://www.legislation.gov.uk/ukpga/Vict/14-15/42> (검색일: 2013년 12월 20일).



<도판 3-3> 런던 자치구(London Borough) 내의 왕실 공원

자료: <http://www.royalparks.org.uk/parks>: 필자 재작성.

①세인트 제임스 파크(St James's Park, 23ha), ②그린 파크(The Green Park, 19ha), ③하이드 파크(Hyde Park, 142ha), ④켄싱턴 가든(Kensington Gardens, 111ha), ⑤리치몬드 파크(Richmond Park, 955ha), ⑥그리니치 파크(Greenwich Park, 74ha), ⑦리젠트 파크 & 프림로즈 힐(Regent's Park & Promrose Hill, 166ha), ⑧부쉬 파크(Bushy Park, 445ha)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함의하는 의미와 목적은 바뀐다. 이러한 의미는 하나가 다른 것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여러 의미가 한 장소에 모두 남아 도시공원의 다양한 양상을 이룬다.

지리적으로는 모두 서유럽으로 분류되지만, 영국과 프랑스에서 조성된 도시공원의 양상은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명예혁명 이후 입헌군주제가 정착된 영국에서는 의회정치 중심의 정치체제가 발전했지만, 19세기의 후반의 프랑스는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 이후 황제정으로 복



귀했고,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었다.<sup>12)</sup> 이런 정치 체제의 차이는 이어 살피볼  
공원 조성 방식에서의 차이의 원인의 하나가 된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모두 도심과 근교에 있는 왕실의 부지를 대중에게 개방하며  
공원으로 전환할 수 있었기에, 새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부담이 덜하다는 이점  
이 있었다. 영국 왕실은 <도판 3-3>에서 볼 수 있듯, 런던 시내와 일대에 위치한  
왕실 소유 파크 8개소를 순차적으로 개방했지만, 온전히 자유로운 입장은 19세기 초  
에서야 가능했다.<sup>13)</sup> 마찬가지로 조지 시대와 빅토리아 시대의 도시설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스퀘어(square)와 크레센트(crescents)는 도시 조직 내의 녹색의 섬  
과 환기의 기능을 했지만, 일 년에 2기니 정도의 이용료를 내야 하는 열쇠가 있는  
주민과 임차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개인 부동산이었다.<sup>14)</sup>

산업혁명 이후 ‘세계의 공장’이 된 영국은 “자유무역의 천년왕국이 도래한”<sup>15)</sup> 19  
세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지만,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  
문제에도 직면했다. 앞서 살펴보았듯 영국은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유입과 이에 따  
른 주택 문제, 위생 수준 저하, 전염병의 유행, 범죄 등의 문제를 겪었고, 해결하는

---

12) 이 시기부터 프랑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었다. 리옹이나 마르세유처럼 지난 세기에  
독자적으로 발전했던 도시들은 쇠락했고, 파리는 행정과 교육, 경제의 중심지의 위상을 굳혔  
다.

13) 리젠트 파크는 1838년에 대중에게 완전히 개방되었으나, 이때에도 옷을 잘 차려입어야 한  
다는 등의 규정이 있었다. 이전에는 일반인들은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입장할 수 있었다.  
Henry W. Lawrence, *City Trees: A Historical Geography from the Renaissance through  
the Nineteenth Century* (Charlottesville;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8), p.  
182.

14) 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Walks, *Report from 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Walks, The Westminster Review*, Vol. XX. Jan-Apr (London: Robert Heward, 1834) p. 5  
02, <https://play.google.com/store/books/details?id=HYQVAQAAIAAJ>, (검색일: 2013년 11월  
20일). 기니는 파운드화가 도입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영국의 화폐단위로서, 1기니는 21실  
링에 해당한다. 당시 영국에서 숙련된 남성 노동자의 일당은 1실링 내외, 빵 1파운드의 가격  
은 3.75펜스(0.3실링) 정도였다.

15) Karl Marx, *Das Kapital*, 강신준 (역), 『자본 I-2』 (서울: 길, 2008), p. 880.

과정에서 정부가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이를 체제 안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기술이 발달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대혁명 이후 왕실과 귀족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서 기존에 있던 많은 개인 정원과 파크가 대중에 개방되었다. 룩상부르 정원(Jardin de Luxembourg)와 팔레 루아얄, 퐁르리(Tuilleries), 샹젤리제(Champs-Élysées), 롱샹(Longchamps), 몽소 공원(Parc de Monceau)와 바가텔 공원(Parc de Bagatelle)은 파리 시민들의 휴식과 만남의 장이 되었고, 식물원(Jardins des Plantes)은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켰다. 19세기 초, 파리의 공원과 공공 산책로는 광대한 야외 살롱이 되었다.

프랑스는 산업혁명과 인구증가의 측면에서는 영국에 뒤졌지만, 도시계획의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영국을 앞질렀다. 이는 파리를 유럽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했던 나폴레옹 1세와 이를 다시 추진한 나폴레옹 3세의 도시정비의 업적이다. 파리의 수많은 별칭 중 하나는 ‘19세기의 도시’이다. 이를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폴레옹와 오스만 시대의 도시’이다. 오스만화는 파리의 구조 전체를 바꾸어 놓았고, 이 시기 그가 행한 업적은 여전히 파리 시내에 남아 있다.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의 파리 재정비는 도시를 재구조화하는 작업이었고, 처음으로 대규모 공원 조성 프로그램이 도시계획 속에 포함되었다는 점이 본 논문과 관련된다. 오스만은 이 시기 가로수가 심겨진 도로와 하수시설, 공원과 산책로, 파리 전체에 흩어져 있는 40여개의 작은 공원을 조성했다(표 3-1).

오스만은 지사로 있는 동안 2개의 숲, 3개의 공원, 2개의 정원, 19개의 스퀘어를 조성했고, 5개의 큰 광장(places)과 대로에 나무를 심었다. 총 86.87헥타르, 시의 경계 안에 있는 정원 중 총 39%가 1850년에서 1970년 사이에

<표 3-1> 제 2제정 시기 새로 조성된 파리의 녹지(총 111ha)

구분	연도	이름	위치	구분	연도	이름	위치
숲(500ha 이상)	1855	볼로뉴 숲(Bois de Boulogne)	16구	소공원/스퀘어(5ha 이하)	1862	페르디낭-브뤼노 스퀘어(Square Ferdinand-Brunot)	14구
	1860	뱅센느 숲(Bois de Vincennes)	12구		1862	라마르틴 스퀘어(Square Lamartine)	16구
공원(25ha 내외)	1855	아브뉴 포슈 정원(Jardin de l'avenue Foch)	16구		1862	루이즈-르-마리악 스퀘어(Square Louise-de-Marillac)	18구
	1856	프레 카틀랑과 셰익스피어 정원(Pré Catelan et Jardin Shakespeare)	16구		1863	몽톨롱 스퀘어(Square Montholon)	9구
	1858	샹젤리제와 장-페랭 정원(Jardin des Champs-Élysées et Jean-Perrin)	8구		1863	몽세뇌르-메예 스퀘어(Square Monseigneur-Maillet)	19구
	1860	아클리마타시옹 정원(Jardin d'Acclimatation)	16구		1865	아자시오 스퀘어(Square d'Ajaccio)	7구
	1860	라늘라 공원(Parc Ranelagh)	16구		1865	루이 세즈 스퀘어(Square Louix XVI)	8구
	1861	몽소 공원(Parc Monceau)	8구		1865	상티아고-뒤-칠리(Square Santiago-du-Chili)	7구
	1864	뷔트 쇼몽 공원(Parc Buttes-Chaumont)	19구		1865	트리니테 스퀘어(Square de la Trinité)	9구
	1867	에콜 뒤 브뢰이 수목원(Arboretum de l'Ecole du Breuil)	12구		1866	메종 데 오픈랭-아프랑티-도퇴유 정원(Jardin de la maison des Orphelins-Apprentis-d'Auteuil)	16구
	1867	루아-드-롬 광장(Place du Roi-de-Rome)	16구		1866	에타-주니 스퀘어(Square des États-Unis)	16구
	1869	몽수리 공원(Parc Montsouris)	14구		1867	로베르 카블리에-드-라-살 정원(Jardin Robert Cavalier-de-la-Salle)	6구
소공원/스퀘어(5ha 이하)	1856	투르-생-자크 스퀘어(Square de la Tour-Saint-Jacques)	3구	소공원/스퀘어(5ha 이하)	1867	마르코-폴로 정원(Jardin Marco-Polo)	6구
	1857	탕플 스퀘어(Square du Temple)	3구		1867	마르셀-파놀 스퀘어(Square Marcel-Pagnol)	8구
	1857	사뮈엘-루소 스퀘어(Square Samuel-Rousseau)	7구		1867	생-뱅상-드-폴 스퀘어(Square Saint-Vincent-de-Paul)	10구
	1858	에밀-쇼탕 스퀘어(Square Emile-Chautemps)	3구		1868	폴-랑그뱅 스퀘어(Square Paul-Langevin)	5구
	1859	루부아 스퀘어(Square Louvois)	2구		1870	옵제바투아르 드 파리 정원(Jardin de l'Observatoire de Paris)	14구
	1859	베를리오 스퀘어(Square Berlioz)	9구	대로		옵제바투아르 대로(Avenue de l'Observatoire)	
	1860	주아생-뒤-베예 광장(Place Joachim-du-Bellay)	1구			앵페라트리스 대로(Avenue de l'Impératrice)	
	1862	바티뇰 스퀘어(Square des Batignolles)	17구			리샤르-르누아 대로(Boulevard Richard-Lenoir)	
	1862	제네랄-카트루 광장 정원(Jardin de la place du Général-Catroux)	17구				

자료: Sainte-Marie-Gauthier, *Les parcs et jardins dans l'urbanisme parisien XIXe-XXe siècles*, p. 83; 필자 재작성.

생겼다 . . . . 파리의 녹지 공간 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자면, 우리는 이 숫자에다 불로뉴와 뱅센느의 시 주변의 숲의 면적을 추가해야 한다 . . . . 1834.37헥타르의 녹지가 생겨났고, 이는 파리 시 전체 녹지의 88%이다. 1870년에서 1970년 사이에는 겨우 253.44헥타르가 생겼다.<sup>16)</sup>

이 중에는 프랑스대혁명 이후 국가의 소유가 된 뒤 대중에게 개방된 공원과 정원 등의 정비와 개조도 다수 포함된다.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의 최우선 목적은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것이었다. 오스만은 그의 회고록에서 파리의 공원 조성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나폴레옹 3세의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대중의 이용을 위해 특별히 산책로와 공원, 정원, 스쿼어가 조성된 일은 이번 세기의 후반부 이전에는 선례가 거의 없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 특히 건강 상태와 시민의 복지에 특히 관심이 많은 황제 나폴레옹 3세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유용한 사업을 추진하셨다 . . . . 이 풍부한 미화, 이 온갖 녹음이 우거진 공간, 위생의 배포,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증가하면서, 그 자비로운 영향이 지속되는 인간적 삶의 수호의 혜택을 입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그의 명성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sup>17)</sup>

나폴레옹 3세는 오스만의 도움을 받아 알팡이 이끄는 도시공원 정비 팀을 꾸렸다. 알팡의 지휘 하에 “잔디밭의 복구, 수목과 관목, 녹색 식물과 화분 모음에 뛰어난 수석 정원사”<sup>18)</sup> 바리에-데상, 공원 안의 다양한 건축물과 창살, 벤치, 동굴 등의

---

16) Choay(1975), p. 88.

17) Georges Eugène Haussmann, *Mémoires du Baron Haussmann, tome III, Grands Travaux de Paris*, (Paris: Victor-Havard, 1890), <https://archive.org/details/mmoiresdubaronh02hausgoog> (검색일: 2013년 10월 15일), pp. 172-3.

18) Haussmann(1890), pp. 197-9.



<도판 3-4> 제 2제정기 조성된 파리 시내의 녹지

자료: Pinon, *Atlas du Paris haussmannien*, p. 126: 필자 재정리.

①페르 라셰즈 공동묘지, ②몽마르트르 공동묘지, ③틸리리 정원, ④앵발리드 광장, ⑤상드마르스, ⑥몽파르나스 공동묘지, ⑦식물원, ⑧몽소 공원, ⑨샹젤리제 정원, ⑩뤽상부르 정원(재정비), ⑪블로뉴 숲, ⑫뱅센느 숲, ⑬뫼트 쇼몽 공원, ⑭몽수리 공원, ⑮트로카데로 정원, ⑯라느라 정원

구조물을 담당하는 건축가 다비우(Gabriel Davioud), 파리의 상하수도 책임자인 벨그랑(Eugène Belgrand)은 파리의 곳곳에 크고 작은 공원과 숲, 스퀘어, 산책로 등의 녹지 공간을 조성했다. 십여 년 사이에 블로뉴 숲(Bois de Boulogne), 뱅센느 숲(Bois de Vincennes), 몽소 공원(Parc Monceau), 뫼트 쇼몽 공원(Parc Buttes-Chaumont), 근교의 대규모 공동묘지 등이 생겼다. 물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지만, 오스만은 교묘한 방식으로 이를 조달하는데 성공했다.<sup>19)</sup> 제 2제정은 프러시아와의 전쟁, 그리고 파리 코뮌을 통해 사라졌지만, 이 시기 조성된

19) 정부는 매해 수억 프랑이 소요되는 파리 재정비의 비용을 대기 위해, 수용한 토지를 필지로 나누어 개발업자들에게 판매했다. 오스만의 회계에 대한 당대의 비판으로는 공화주의자 페리(Jules Ferry)가 1867년 출판한 팸플릿 『오스만의 환상적인 회계(Les comptes fantastique d'Haussmann)』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공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오늘날 파리의 모습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도판 3-4).

## 2. 시립 공원의 등장

제 2제정 시기 다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회귀한 프랑스와 달리 영국에서는 지방 분권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이는 공원의 조성 방식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이는 전술했듯, 대도시 시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로 사회 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커졌고, 도시민들이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장소에 대한 의식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다. 영국에서는 수도 런던뿐 아니라 버밍엄(Birmingham)이나 맨체스터(Manchester), 리버풀(Liverpool), 글래스고(Glasgow) 등의 산업 도시에서도 공원 조성 움직임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1850년경부터 파리와 런던의 여론은 대도시 공간 내에서의 도시 산책로의 필요성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라우던(John Claudius Loudon)은 그의 『정원술 백과사전(Encyclopaedia of Gardening, 1822)』에서 공원과 공공 정원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sup>20)</sup>

공원은 대도시의 매우 귀중한 부속물이다. 규모와 자유로운 공기가 주요한 필수 요건이고. . . 이러한 산책로가 광대하면, 휴식과 다과를 위한 장소가 있다. . . . 공공 정원의 목적은 아름다운 풍경을 전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유롭고 건강에 좋은 공기를 제공하고, 여름에는 그림자를 드리워 서늘하

---

20) 또한 라우던은 1829년에 출판한 『Hints for Breathing Places for the Metropolis』에서 바다에 닿을 때까지 도시와 시골/정원 구역(zone of country or gardens)이 일정하게 교차하는 동심원 형태의 도시를 구상했다. 그의 제안은 이후 하워드(Ebenezer Howard)가 69년 뒤 제시한 그린벨트 개념과 유사하다.

고, 봄과 겨울에는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아 포근한 연속된 산책로를 충분히 만들어 주는 것이다.<sup>21)</sup>

18세기부터 발달한 위락 정원(pleasure ground)은 입장료를 낼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입장이 허용되었다. 왕실 정원은 원칙적으로는 개방되어 있었지만 산책자들에게 의자나 쉼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 마차가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사실상 차단되어 있었다. 라우던은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사회개혁의 한 수단으로 지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후 1833년 영국에서 조직된 공공보행로선정위원회는 대도시 내에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 공간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다.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주요 도시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 특히 노동자 계급의 “건강, 정신, 안락, 행복을 증진할”<sup>22)</sup> 공공 산책로를 확보해야 함을 역설했다. 보고서는 공공 산책로 조성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선정위원회는 주민의 건강과 안락함을 증진하리라 추산되는 공공 산책로와 운동 장소로 사용할 오픈 스페이스를 인구가 많은 도시 주변에서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고려했다 . . . . 첫 번째로, 지난 반세기 동안 대도시의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제조업과 기계적 생산에 종사하고, 자녀가 많은 계급이 증가했다. 두 번째로,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고 건물이 연장되면서 도시 근교의 오픈 스페이스가 많이 사라졌다. 중간 계급이나 보다 보잘 것 없는 계급의 사람들이 운동이나 오락을 하기에 적합한 공공 산책로나 오픈 스페이스를 위한 장소가 거의 없다. 세 번째로, 공공 보행로나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계급의 안락, 건강, 만족에

---

21) John Claudius Loudon, *An Encyclopaedia of Gardening*, (London: Longman, Rees, Orme, Brown and Green, 1825), pp. 1028-9, <http://ia600300.us.archive.org/7/items/encyclopaediaofg00loudrich/encyclopaediaofg00loudrich.pdf> (검색일: 2013년 10월 3일).

22) 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Walks(1834), p. 499,

크게 기여할 것이다.<sup>23)</sup>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공 산책로의 구성을 “국가의 의무”로 보고 “대중의 마음속에 보잘 것 없는 계급의 복지와 관련된 진정한 관심이 증가하는 때가 왔다”고 하여 이를 촉구한다.<sup>24)</sup> 이미 몇몇 공원이 19세기 초엽에 대중에게 개방되었고, 공공보행로선정위원회의 보고서 이후 보다 많은 공원이 대중에 개방되었다. 물론 보고서가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환기하기는 했지만,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이후 대중의 여론이 커졌고, 184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공원 조성 움직임이 나타났다.

1840년부터 영국에서는 시립 공원과 정원이 조성되었고, 특히 기존의 녹지 공간이 부족한 공업 도시에서 활발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신흥 산업 도시에는 아예 공원이 없다시피 했고, 노동자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은 기껏해야 시내를 벗어나 교외로 이어지는 먼지 자욱한 길을 따라 걷는 것뿐이었다. 1844-5년에 맨체스터는 퀸즈 파크(Queen's Park)와 필 파크(Peel Park), 필립스 파크(Phillips Park)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리버풀과 마주한 버크헤드에서는 팩스턴(Joseph Paxton)이 설계한 공원이 조성되었다.<sup>25)</sup> 이 4개의 공원에는 공통적으로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크리켓, 양궁 등) 필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공채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주변 택지를 분양하여 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도 이 시기에 등장했다.

왕실 파크의 개방 뿐 아니라 독지가들의 공원 기부도 활발했는데, 이는 영국의

---

23) 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Walks(1834), p. 500.

24) 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Walks(1834), pp. 500, 514.

25) Hazel Conway, “The Manchester/Salford Parks: Their Design and Development,” *The Journal of Garden History*, 5(3), 1985, pp. 233-6.



도시공원 조성에 나타난 특징이다. 일찍이 1890년에 부시장 시먼스(James Simmons)가 캔터베리(Canterbury)에 데인 존 파크(Dane John Park)를, 기업가 스트러트(J. Strutt)는 1840년에 고향 더비(Derby)에 라우던이 설계한 수목원(Derby Arboretum)을 기부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sup>26)</sup> 이어 1844년에는 시 의회에서 프레스턴(Preston)에 있는 무어 파크(Moor Park)와 사우스햄턴(Southampton)의 공용 초지를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시립 공원(municipal park)이 되었다. 에든버러에서도 스코틀랜드 행정부(Scottish Executive)와 홀리루드 궁전(Holyrood Palace) 등이 위치한 칼튼 힐(Calton Hill)이 1805년부터 공원으로 전환되었다.

버큰헤드 시립 공원(Birkenhead municipal park)은 최초로 민자를 유치하여 조성한, 온전한 의미에서의 최초의 시립 공원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공업도시 리버풀의 교외 지역인 버큰헤드에 위치한 버큰헤드 공원은 개장과 동시에 대대적 찬사를 받으며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그림 3-5). 누구나 신분에 상관없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버큰헤드 공원은 이전에 조성된 공원이 은폐하고 있는 배타적인 경향을 벗어난 것이었다.

팩스틴(Joseph Paxton)의 설계로 조성된 버큰헤드 공원은 풍경화식 정원 양식을 받아들여 외견상 사유지를 연상시켰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그림 3-6). 버큰헤드 공원이 구현하는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이상은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의 기록과 이후의 여파를 통해 반증되었다. 1851년 봄, 친구들과 영국 북부를 여행하던 옴스테드라는 미국의 젊은 언론인은 버큰헤드에 공원이 개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을 찾았다. 이 작은 사건은 옴스테드 개인과 미국 공원, 나아가 이후 조경의 역사에 큰 변환점이 되었다. 오 분 여간 공원을 관찰한

---

26) 하지만 더비 수목원은 특정한 날에만 무료로 개방되었다는 점에서는 온전한 의미에서의 공원으로 보기 어렵다.



<도판 3-5> 1847년 3월 5일의 버크헤드 시립 공원 개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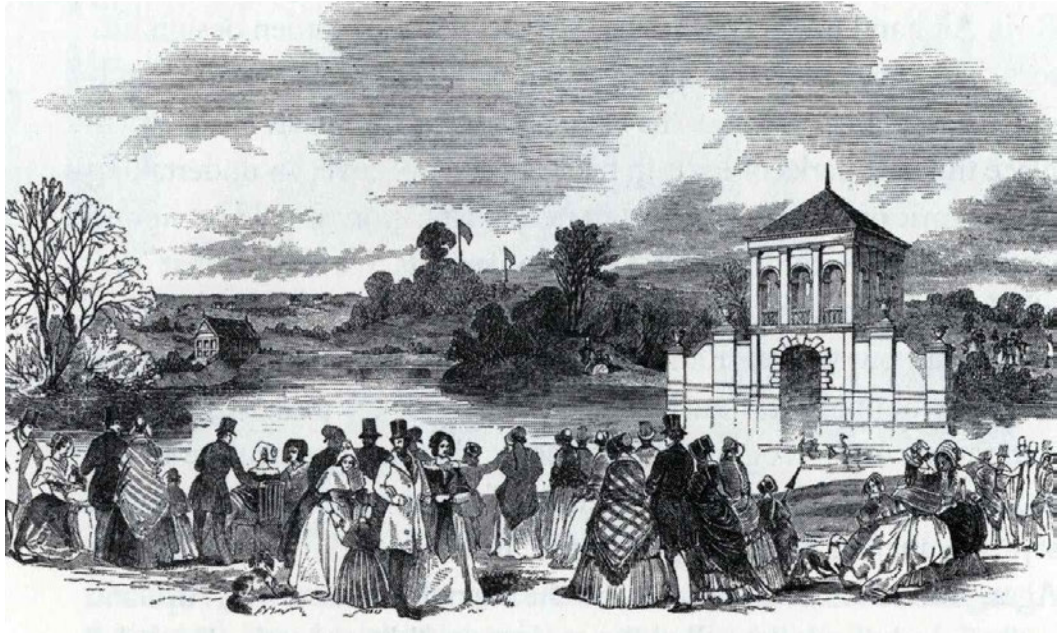
자료: Thornton, *The People's Garden: A History of Birkenhead Park*, p. 59.

움스테드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꿈꾸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조원술”<sup>27)</sup>에 경탄했다. 무엇보다도 그를 매료시킨 점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공 공간이라는 것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도 이에 비길만한 “민중의 정원(People's Garden)”<sup>28)</sup>은 없었다.

나는 거의 동등하게 모든 계급이 정원이라는 특권을 향유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 . . . 마차를 부르러 보낸 하인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계층이었고, 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건강이 나빠 고생하는 몇몇 여성은 분명히 아주 초라한 노동자의 아내였다.<sup>29)</sup>

27) Frederick Law Olmsted, *Walks and Talks of an American Farmer in England* (New York: George. P. Putnam, 1852), p. 79, <http://ia700300.us.archive.org/35/items/walkstalksofamer00olmsuoft/walkstalksofamer00olmsuoft.pdf> (검색일: 2013년 2월 19일).

28) Olmsted(1852), p. 79.



<도판 3-6> 버큰헤드 시립 공원 개장식 날의 호숫가 풍경  
 자료: Schenker, *Melodramatic Landscapes*, p. 54.



<도판 3-7> 버큰헤드 시립 공원  
 자료: 황주영(2013)

버크헤드 공원 조성에서 주목할 점은 보행로와 마차길이 분리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의 파크에서 지배 계층은 말이나 마차를 타고 이동했기에 걸을 일이 거의 없었다. 이런 이유로 파크를 개조한 공공 공원의 길은 여전히 마차 위주였고, 이는 마차를 이용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이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1833년에 조성된 공공보행로선정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리젠트 공원에는 마차길 측면에 자갈이 깔린 보행로가 마련되었지만, 3마일에 달하는 길에 앉을 장소는 4-5곳에 불과함을 지적한 바 있다. 사실상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인 리젠트 공원을 대중의 이용과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합리하고, 보다 많은 공간이 대중에게 개방해야 했다.<sup>30)</sup> 반면 버크헤드 공원의 “길은 매커덤으로 포장되었다. 마차길의 양쪽과 보행로의 양쪽에는 배수를 위한 파이프가 놓였고. . . 보행로는 우선 6인치의 가는 파석과 3인치의 석탄재로 덮은 뒤, 잘게 다진 자갈 6인치로 표면을 덮었다.”<sup>31)</sup>

공원의 시골풍의 오두막과 사원, 파빌리언, 다리,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크리켓 놀이를 하거나 양이 풀을 뜯어먹는 넓고 완만한 초지 등의 모든 요소는 특정한 계급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가장 가난한 영국의 농부가 영국의 여왕처럼 공원의 모든 부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sup>32)</sup> 풍경화식 양식을 따른 완만한 구릉과 초지, 곡선의 길과 산책로, 인도와 차로의 분리, 다양한 초목 군식과 화단, 연못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설계 형식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도시 내의 공공공간으로서의 성격에서도 버크

29) Olmsted(1852), pp. 79-80.

30) 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Walks(1834), p. 502.

31) Olmsted(1852), pp. 80-81.

32) Olmsted(1852), p. 81.



<도판 3-8> 버크헤드 시립 공원  
자료: 황주영(2013)

헤드 공원은 이후 도시공원의 하나의 전범으로 자리 잡는다(그림 3-7, 3-8).

왕실 소유의 파크를 공공에게 개방하거나, 지역의 유지가 기증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던 기존의 공원과 달리 버크헤드 공원은 최초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개발된 공원이었다. 옴스테드는 재원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미국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도 공원을 조성해야 함을 촉구한다.<sup>33)</sup>

이[버크헤드 공원]는 대단히 좋은 것이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은 누가 비용을

33) 옴스테드의 설계와 글에서 예찬되던 도시공원을 미국이 지향하던 민주주의 사회의 이상(시민의 자긍심, 훌륭한 시민의 의무,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 사이의 접촉, 미적 기준과 사회적 취향에 부합하는 상식, 시민사회)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Lawrence W. Rosenfield, "Central Park and the Celebration of Civic Virtue," in *American Rhetoric: Context and Criticism*, T. Benson (ed.),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Press, 1989), pp. 222-226을 참조하라.

됐는지를 묻는다. 정직한 소유자들, 버큰헤드 시의 가장 현명하고 훌륭한 시민들은 뉴욕 시민들이 “무덤”과 병원, (그들이 농담조로 말하듯) 거리 청소  
에 비용을 들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원 조성] 비용을 냈다.<sup>34)</sup>

프랑스에서도 1848년에 메나디에(Hippolyte Meynadier)가 출판한 『픽처레스크하고 기념비적인 관점에서 본 파리(Paris sous le point de vue pittoresque et monumental)』가 당대의 여론을 반영했다. 그는 저서에서 파리에 정원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는 “벤치가 있어 긴 산책 후 피곤한 보행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작은 광장(“푸른 스타디움[stades verts]”)을 주장했다.<sup>35)</sup>

이런 휴식처는 이후 오스만과 알팡의 작업을 통해 실현된 듯하다. 이 시기 파리의 공원과 정원은 엄밀히 말해 파리 시가 관할하는 ‘시립 공원’이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3세가 국유지였던 불로뉴 숲을 1852년에 파리 시에 증여하고, 알팡은 원예가 바리에-테상의 조언을 받으며 850헥타르의 숲을 개조하여 왕실의 거대한 사냥터였지만 폐허가 된 숲을 파리 시민이 사랑하는 휴식처로 바꾸었다. 알팡은 이와 함께 샹젤리제 구역을 정비하고 동심원적 대로 체계를 도입하여 파리의 지리를 현격하게 변화시켰다. 동쪽의 뱅센느 숲도 1860년에 파리 시에 증여되면서 공원으로 개조되기 시작했고, 이어 몽소 공원, 뷔트 쇼몽 공원, 몽수리 공원 등도 정비되었다. 하지만 당시 위고가 “파리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부다”<sup>36)</sup>라고 했을 정도로 수도 집중 현상이 강력했던 프랑스에서 국립과 시립의 경계는 모호했다. 오스

34) Olmsted(1852), p. 81.

35) Hippolyte Meynadier, *Paris sous le point de vue pittoresque et monumental, ou Éléments d'un plan général d'ensemble de ses travaux d'art et d'utilité publique* (Paris: Dauvin et Fontaine, 1843), pp. 138-40,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54679672> (검색일: 2013년 7월 11일).

36) John Grand-Carteret, *XIXe siècle (en France): classes, mœurs, usages, costumes, inventions* (Paris: Firmin-Didot, 1893), p. 721, <https://archive.org/details/xixiedixneuvi00granuoft> (검색일: 2013년 12월 18일).

만화로 대표되는 파리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파리 시내의 공원과 공공 정원의 조성은 곧 국가적인 사업이었다.

## 제 2절 녹지 공간의 구성과 전개

### 1. 공원보다 작은 공원: 스퀘어

19세기 후반 공원(public park)이 도시 공간에 등장하기에 앞서 스퀘어(square)와 산책로, 공동묘지 등의 다양한 녹지 공간이 공원의 역할을 했다. 어원적으로 “직사각형의 형태나 공간”<sup>37)</sup>이라는 뜻의 스퀘어는 17세기 후반부터 도시나 공원 속의 오픈 스페이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스퀘어는 ‘광장’으로 번역되기도 하나, 이는 영어의 플라자(plaza), 이탈리아에서 광장(piazza), 프랑스에서 플라스(place), 독일어권에서 플라츠(Platz)라고 하는 공공 오픈 스페이스에 더 가깝다. 이런 광장은 교회나 관공서 앞의 넓은 개방된 공간을 지칭하는 데에서 시작했다. 분수나 녹지가 조성되기도 했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규모 야외 녹지 공간으로서의 스퀘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sup>38)</sup> 초기의 스퀘어는 귀족들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건물로 둘러싸는 형태였고, 영국의 고유한 (공동) 주택 녹지 공간에서 비롯했다.<sup>39)</sup>

런던 최초의 스퀘어인 코벤트 가든(Convent Garden)은 1630년에 존스(Inigo Jones)의 설계로 베드포드 백작(Francis Russell, 4th Earl of Bedford)의 토지에 스

---

37) 스퀘어는 ‘사각형으로 만들다’라는 뜻의 라틴어 *exquadrare*에서 파생된 ‘사각형’이라는 뜻의 고대 프랑스어 *esquire*에서 연원했다. ‘직사각형의 형태나 공간’이라는 의미는 14세기 후반부터 사용되었고,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도시나 공원 속의 오픈 스페이스’라는 의미로는 1680년대부터 사용되었다. “square,” etymonline.com (검색일: 2013년 8월 12일).

38) 주변이 주택지로 둘러싸이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용 정원(communal garden)으로서의 스퀘어를 ‘가든 스퀘어(garden square)’라고 보다 정교하게 부르기도 한다.

39) Loudon(1825), p. 1029.



퀘어와 세 면을 감싸는 테라스 하우스와 교회를 지으면서 시작되었다(그림 3-9).<sup>40)</sup> 이는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Piazza San Marco)이나 파리의 보주 광장(Place des Vosges) 같은 유럽 대륙의 광장의 형태를 본떴고, 영국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형태였다(도판 3-10). 가운데에 (직)사각형의 스퀘어를 두고, 그 주변으로 1층에는 아케이드가 있는 통일된 양식의 건물과 교회를 배치하는 방식은 런던의 스퀘어 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수 세기 동안 런던의 주거용 부동산의 표준이 되었다.<sup>41)</sup> 이어 레스터 스퀘어(Leicester Square, 1635), 블룸스버리 스퀘어(Bloomsbury Square, 1665), 세인트제임스 스퀘어(St. James's Square, 1684), 그로스브너 스퀘어(Grosvenor Square, 1695) 등이 연달아 개발되며 런던 도시의 모습을 바꾸었고 이는 19세기까지 계속되었다.

17-8세기에 런던에 등장한 스퀘어가 항상 녹지 공간이지는 않았다. 나무가 식재되고, 기하학적으로 분절된 땅 위에 잔디나 꽃이 심겨져 있기도 했지만 단순히 포장된 공터로 남아 있기도 했다. 이러한 스퀘어가 오늘날처럼 작은 정원의 형태가 된 것은 또한 19세기에 나타난 변화이다. 19세기 말에 출판된 건축사전에서는 스퀘어를 “그 안에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 있고 공공 도로로 둘러싸여 각 측면의 주택에 접근성을 부여하는 토지의 한 구획”이라고 정의했다.<sup>42)</sup> 이는 전형적인 런던의 스퀘어를 묘사하기에 적절한데,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는 표현은 이곳이 누구에게나 개방된 곳이 아니라, 위요된 개인적인 영역임을 암시한다. 실제로 런던의 스퀘어의 대부

40) 존스는 코벤트 가든을 설계하기에 앞서 1609년에는 프랑스의 프로방스(Provence)와 보르도(Bordeaux)를, 1613-4년에는 이탈리아를 여행했다. 이 여행을 통해 그는 아케이드로 둘러싸인 스퀘어와 이탈리아식의 피아차의 다양한 형태를 익혔을 것이다. Todd Longstaffe-Gowan, *The London Square: Gardens in the Midst of Tow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pp. 26-7.

41) Francis Sheppard, *London: A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 177-9.

42) Giedion(1998), p. 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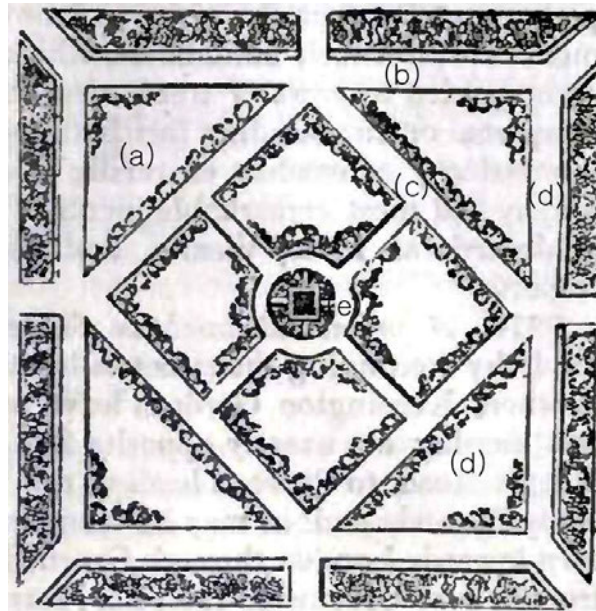




<도판 3-9> 니콜스, <코벤트 가든>, 1720년경.  
 자료: <http://en.wikipedia.org>



<도판 3-10> 랑글루아, <파리의 왕실 광장(보주 광장)>, 17세기.  
 자료: Longstaffe-Gowan, *The London Square: Gardens in the Midst of Town*, p. 27.



<도판 3-11> 라우던이 제시한 스퀘어의 모습

자료: Loudon, *An Encyclopaedia of Gardening*, fig. 733.

분은 주변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런 스퀘어는 한정된 공간 내에 최대한 연속된 산책로를 목적으로 했고, 그 속에서 주민들은 산책이나 사교 모임, 명상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었다.<sup>43)</sup>

스퀘어는 사전적 정의상으로는 사각형이지만, 다른 가로나 스퀘어, 도로 등과 접하기도 하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택의 배치에 따라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조성되기도 했다. 이는 도시 내의 작은 녹지 공간을 통칭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라우던은 <정원술 백과사전>에서 스퀘어에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보여야 한다고 했다(도판 3-11).

1. 스퀘어를 둘러싼 집의 창문에서 부모가 내다보았을 때 언제라도 아이들

43) Loudon(1825), pp. 1029-30.

이 시야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잔디밭과 산책길(walk) 같은 야외 공간(도판의 a), 2. 봄과 겨울에 별을 쬔 수 있는 야외 산책길(b), 3. 여름을 위한 그늘이 드리워지지만 공기가 잘 통하는 산책길(c), 4. 휴식 장소(d), 사방에서 거의 등거리에 있어 소나기가 내리거나 할 때 쉽게 갈 수 있는 지붕이 덮인 휴식처(e) . . . .<sup>44)</sup>

19세기 초반에 출판된 <에커먼의 보물 창고(Repository of Ackermann)>에 수록된 퀸 스퀘어(Queen Square)의 모습 당시 런던 시내 스퀘어의 모습을 잘 예시한다(도판 3-12).

블럼스버리 스퀘어(Bloomsbury Square)의 동쪽에 위치한 퀸 스퀘어는 넓은 면적에, 세 면이 멋진 저택으로 둘러 싸여 있고, 중앙에는 고(故) 스트로드 장군(General Strobe)이 기증한 샤를로트 왕비의 동상이 있는 널찍한 정원이 있다. 북쪽 면으로는 햄스테드와 하이게이트의 멋진 풍경이 보였지만, 현재는 길포드 스트리트에 가렸고, 이 도로는 사이사이가 뚫린 철창살로만 분리되어 스퀘어와 연결되지 않았다.<sup>45)</sup>

가든 스퀘어는 대부분 창살로 외부와 경계 지어진 공간에 나무와 잔디, 꽃이 심겨진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원과 유사하지만, 주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온전한 개인 정원과 다르다.<sup>46)</sup> 스퀘어를 사용할 권리는 있지

---

44) Loudon(1825), p. 1030.

45) Rudolph Ackermann, *The Repository of Arts, Literature, Commerce, Manufactures, Fashions and Politics*, vol. 8 (London: R. Ackerman, 1812) p. 156, <https://ia600407.us.archive.org/13/items/repositoryofarts812acke/repositoryofarts812acke.pdf> (검색일: 2013년 10월 25일). 19세기 초반의 출판업자이자 석판화가인 에커먼(Rudolph Ackermann)은 1809-1829년 사이에 매달 <에커먼의 보물창고(Repository of Ackermann)>라는 책자를 출판했다. 여기에 수록된 당대의 예술과 문학, 상업과 공업, 정치, 도시의 모습 등의 다양한 모습은 유행에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에는 19세기 초반의 영국 문화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46) 주택들로 둘러싸인 스퀘어가 처음부터 정원이었던 것은 아니다. 17세기에는 주변 주택에서 나오는 각종 오물을 버리는 곳으로 이용되었고, 18세기에 들어서야 정원으로 조성되기 시작



<도판 3-12> 퀸 스퀘어

자료: Ackermann, *The Repository of Arts, Literature, Commerce, Manufactures, Fashions and Politics*, plate 16.

만, 이를 개인이 전용하지 않기에 준 공공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오스만의 도시 정비를 통해 파리의 시내에 도입된 스퀘어는 영국의 선례를 본뜬 것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나폴레옹 3세는 런던 망명 시기 도심 곳곳에 위치한 스퀘어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파리에도 이와 같은 녹지 공간을 최대한 많은 곳에 넓게 조성하고자 했다. 1853년에서 69년 사이 파리 시내에는 총 24개의 스퀘어가 조성되었고, 이 중 17개는 구도심에, 7개는 새로 병합된 지역에 위치했다.

오랫동안 영국에 머무신 황제 폐하는 훌륭한 런던의 스퀘어와 노동자 가족

---

했다. 19세기의 노동자 주거지역의 공터는 여전히 이런 용도로 사용되었다. Giedion(1998), p. 663.

들이 모여 사는 누옥의 더러운 상태의 대조에 충격을 받으셨다 . . . . 파리의 모든 구에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스퀘어를 만들 부지를 마련하라는 명을 내리셨다. 이는 그들이 영국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간에 모든 가족, 모든 어린이들에게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 . . 스퀘어가 대중들의 정신에 영향력을 행사할거라는 황제 폐하의 생각에 완전히 공감하지는 않고,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고, 앞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대중들의 건강에 미친 좋은 영향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sup>47)</sup>

이에 앞서 나폴레옹 3세뿐 아니라 여러 보건 개혁가들의 운동도 도시 내 녹지 공간의 필요성을 역설한바 있다. 보건 개혁가 트레뷔셰(Adolphe Trébuchet)는 정부에 제출한 위생위원회(Conseil de Salubrité)의 보고서에서 도심 곳곳에 대중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작은 녹지 공간을 조성할 것을 주장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 삽입된 <위생 기준에 따른 주택 건설의 필요성>이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희망사항을 밝혔다. 각 구역(quartier)의 가운데에 나무가 심겨져 있고 철창으로 둘러싸인 널찍한 광장을 둔다. 그곳에서는 모든 계층의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부모의 특별한 감시 없이도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고, 모든 나이의 주민들이 햇빛을 누리고 집안보다 훨씬 맑은 공기로 숨을 쉴 수 있다. 이러한 결의는 집이나 거리, 파사주에 조성하는 정원보다도 더 시급하다.<sup>48)</sup>

도덕적으로든 건강상으로도든 도심 곳곳에 조성된 녹지 공간인 스퀘어는 공원의 역할을 했고, 또한 일상의 공간이기도 했다. 영어 단어인 스퀘어를 그대로 차용했지

47) Haussmann(1890), p. 240.

48) Conseil d'hygiène publique et de salubrité de Seine, *Rapport général sur les travaux du Conseil de salubrité, pendant des années 1829 à 1839* (Paris: Librairie de Lottin, 1840), p. 37, <http://gallica.bnf.fr/ark:/12148/cb34253921g/date> (검색일: 2013년 12월 28일).



만, 런던과 파리의 스퀘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런던의 스퀘어가 17세기 프랑스에 조성된 왕실 광장(place)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준 공공 공간이었고, 이것이 다시 프랑스에 전파되면서 성격이 바뀐 것이다. 한 공간 형태의 양식과 명칭, 도시적 맥락 내에서의 의미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 또한 흥미로울 것이다. 환언하면, 런던의 스퀘어가 주변의 주택에 사는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준 공공 공간인데 비해,<sup>49)</sup> 파리의 스퀘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일종의 근린 정원으로 조성되었다. 파리의 스퀘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녹음이 가득한 살롱(salons de verdure)”<sup>50)</sup>이었고,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었다(도판 3-13, 3-14, 3-15, 3-16).

제 2제정기 도시 곳곳에 조성된 스퀘어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었고, 이러한 민주적 성격은 역으로 당시 이를 목격한 영국인들에 의해 상찬되었다. 아일랜드 출신의 정원가 로빈슨(William Robinson)은 <파리의 공원과 정원(The Parks and Gardens of Paris, 1869, 1878)>에서 파리의 스퀘어의 장점을 런던의 스퀘어와 비교하여 부각시키고 있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런던의] 스퀘어보다 훨씬 발전했음에도, 이 아이디어가 처음에 런던에서 따왔음은 언급해야겠다. 하지만 우리 런던 사람들이 스퀘어를 여전히 스퀘어를 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소수의 주민들에게만 제한하고, 대개 형편없는 식물 장식의 흔적 밖에 없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이를 우리의 공원처럼 만들었고, 이를 매력적인 다양한 나무와 식물로 장식했다 . .

49) 스퀘어의 공공 개방에 대한 논쟁도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노동자 밀집 구역인 이스트엔드에 조성된 컬럼비아 스퀘어(Columbia Square)에 대한 디킨즈의 상찬과, 스퀘어 개방 주장에 대한 당대의 여론에 대한 내용은 Longstaffe-Gowan(2012), pp. 165-6, 점진적 개방에 대한 내용은 같은 책 pp. 175-9를 참조하라.

50) Alfred Auguste Ernouf and Adolphe Alphand, *L'Art des jardins: Parcs, jardins, promenades* (Paris: J. Rothschild, 1886), pp. 347-8, <http://www.europeana.eu/portal/record/08701/6708FA3A14CABA0068824C4B064A0E0592222000.html> (검색일: 2013년 1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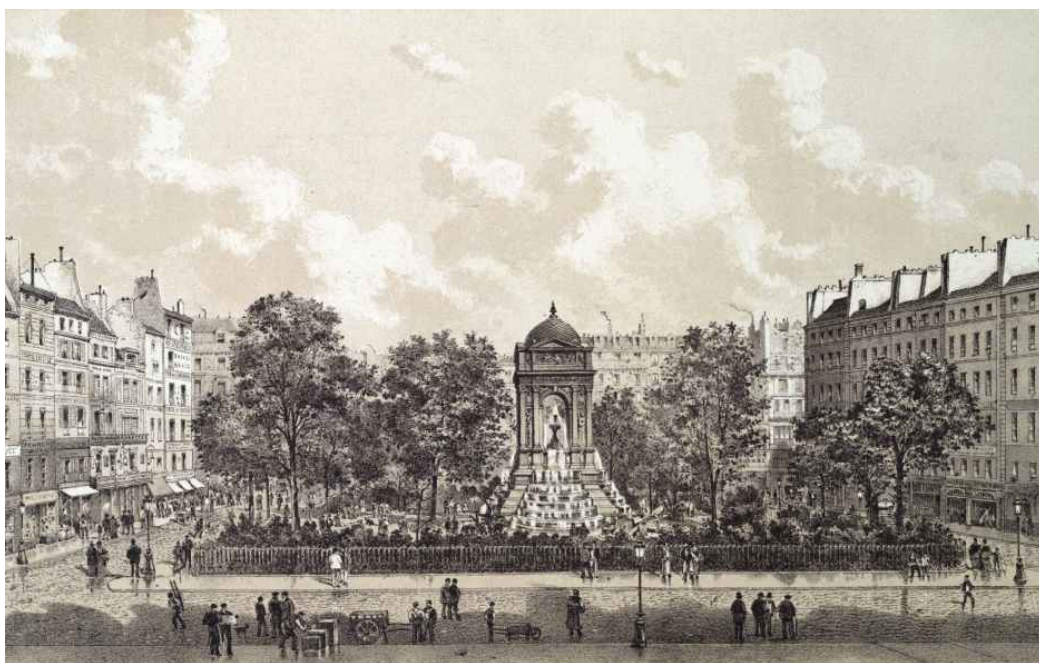
<도판 3-13> 이노상 스퀘어

자료: Alphand, *Les Promenade de Paris (planches)*, p. 110.



<도판 3-14> 생 자크 스퀘어

자료: Alphand, *Les Promenade de Paris (planches)*, p. 106.



<도판 3- 15> 오프보어(F. Hoffbauer), <이노상 스퀘어>, 1878.

자료: <http://library.brown.edu>

스퀘어가 조성되기 이전 이곳은 장터로 이용되었고, 그 이전에는 생 이노상 공동묘지가 있었다.



<도판 3- 16> 생 자크 스퀘어

자료: 황주영(2013)

오스만이 조성한 최초의 스퀘어이다. 1797년 파괴된 생 자크 드 라 부셰리 성당(L'Église Saint-Jacques de la Boucherie)의 종탑을 복원하고 주변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의 미화와 유적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다.

.. 생 자크, 라 부셰리, 생 클로틸드, 탕플, 루부아, 아르 에 메티에 스퀘어, 그리고 몽소 공원은 우리의 도시와 대적할만하다.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산된 이러한 식물 군집은 해로운 날숨을 흡수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한다.<sup>51)</sup>

그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조성된 파리의 스퀘어가 “탁월하게 사회적인 방안”이라고 보았는데, 왜냐하면 이는 “노동자 계급도 자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고, 아이

51) William Robinson, *The Parks and Gardens of Paris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Wants of Other Cities and of Public and Private Gardens*, 2<sup>nd</sup> ed. (London: Macmillan and Co., 1878), pp. 116-7, <https://archive.org/details/parksgardensofpa00robi> (검색일: 2012년 11월 11일).





<도판 3-17> 스퀘어 몽루즈의 놀이 공간  
 자료: Robinson, *The Parks and Gardens of Paris*, p. 113.

들이 “폐를 시골의 공기로 채우며” 뛰어놀며 “미래의 훌륭한 병사, 우리의 농장을 위한 좋은 일꾼, 우리의 공장을 위한 강인한 직공”으로 키우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도판 3-17). 게다가 공원들이 수 마일씩 떨어져 있고, 스퀘어는 몇몇 주민들과 이용할 수 있는 런던과 달리 “파리의 전원(Parisian Aediles)”은 툴리나 뤽상부르, 불로뉴 숲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에 조성되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sup>52)</sup> 파리 시민들의 일상의 한 부분을 차지한 스퀘어의 모습은 레알 시장 (Les Halles) 주변의 노동자 계급의 삶을 다룬 졸라의 <파리의 배(Le Ventre de Paris, 1873)>에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52) Robinson(1878), pp. 117-20.

사제 양(Mlle Saget)은 이노상 스퀘어(square des Innocents)의 단골이었다. 매일 오후마다 그녀는 한 시간 정도 그곳에서 수다를 떨며 주변 돌아가는 일을 알았다. 그곳에는 양쪽 끝에 길게 반원형으로 벤치들이 놓여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 있는 초라한 집에 숨이 막힌 가엾은 사람들이 이곳을 채웠다. 피골이 상접하고, 추위 보이고 낡은 모자를 쓴 노파들, 짧은 옷옷에 치마도 제대로 입지 않고, 모자를 쓰지 않은 맨머리에 벌써 비참함에 시들어 버린 여자들, 몇몇 남자들, 깔끔한 노인들, 기름때가 묻은 조끼를 입은 짐꾼들, 검은 모자를 쓴 수상쩍은 신사들, 소로에는 아이들이 텅굴 거리거나, 바퀴도 없는 장난감 자동차를 끌고, 양동이에 모래를 채우거나, 울고 서로 욕하고 있었다. 누더기를 걸치고 콧물을 흘리는 끔찍한 아이들이 해충들처럼 햇빛 아래 모여들었다.<sup>53)</sup>

## 2. 걷기 위한 공원: 산책로<sup>54)</sup>

도시공원의 역사에서 산책로는 일견 중요하지 않거나, 관련 없어 보이지만, 이는 온전한 의미에서의 도시공원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도시에서 공원의 역할을 하던 녹지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전적으로 “사람들이 운동과 전시, 혹은 즐거움을 위해 여유롭게 걷는 (혹은 과거에는 말을 탔던) 산책을 위한 장소”로 정의되는 산책로(promenade)라는 말은 우선 산책한다는 행동을 지칭한 뒤, 산책을 위한 공간까지 포괄하게 되었다.<sup>55)</sup>

산책로의 발달은 도시계획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포장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중세 시대의 유럽 도시에서 거리는 더럽고 위험한 곳이었

53) Émile Zola, *Le ventre de Paris* (Paris: Gallimard, 1964), p. 321.

54) 본 항은 황주영, “파리 산책로의 역사적 연원에 대한 소고,” 『한국프랑스학논집』, 2013, 81, pp. 371-92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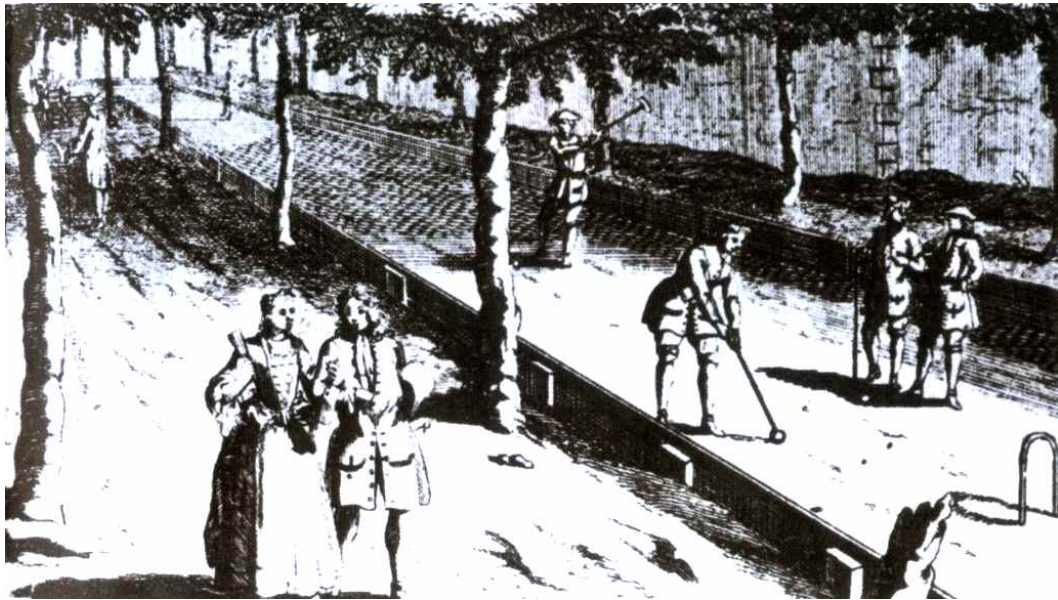
55) promenade는 단어는 16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했고, “산책하러 가다(go for a walk)”라는 뜻의 중세 프랑스어 *se promener*에서 유래했다. 산책이라는 행동을 지칭하던 promenade가 “산책을 위한 장소(place for walking)”로 의미가 확장된 것은 17세기 중반의 일이었고, 휴양이 유행한 18세기 말 영국에서는 esplanade를 지칭하는 “바닷가의 산책로”라는 의미도 포함하게 되었다. “promenade,” [www.etymonline.com](http://www.etymonline.com) (검색일: 2010-5-30).



<그림 3-18> 부알리, <통행료>, 1803.  
 자료: commons.wikimedia.org

고, 만중이 울리면 성문이 닫히고 통행이 금지되어 거리를 산책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르네상스 시대에 비로소 도로 포장상태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17세기부터 로지에(Marc-Antoine Laugier) 등의 건축 이론가들이 가로수가 식재된 넓은 대로가 환기에 미치는 순기능을 역설했지만, 도시의 가로가 산책을 즐길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안전해진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디킨스나 위고의 소설에 묘사된 것처럼 런던이나 파리 같은 대도시의 거리는 하수와 오물이 가득하고, 공기도 오염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마차사고나 구걸, 범죄가 만연해 산책에 적합하지 못했다(도판 3-18). 이를 피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특별히 조성된 널찍하고 평탄한 산책로가





<그림 3-19> 펠멜 경기장과 가로수길  
 자료: Girouard, 『도시와 인간』, p. 277.

인기를 끌었고, 이는 공원보다 앞서 생겨난 도시 녹지 공간이었다. 즉 오늘날에는 일상적인 도시를 걷는 일은 그 자체가 매우 근대적인 현상이다.

파리 시내에 산책을 위한 공간은 17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프랑스 혁명 이전 신분제가 엄격하던 시기에 왕실이나 귀족의 개인 정원이 시민에게 개방되었고, 이어 불르바르(boulevard)라고 하는 가로수가 심겨진 도심 산책로가 시 외곽 성벽이 있던 자리를 따라 생겨났다. 프랑스의 많은 도시에서는 크리켓의 원형인 펠멜(paille-maille) 경기를 위해 성벽 위나 뒤쪽에 만들어진 가로수길이 산책 장소가 되었고(도판 3-19), 이런 산책로에서의 사교는 이후 영국을 비롯한 전 유럽에서 유행했다.<sup>56)</sup> 루이 14세부터 나폴레옹 3세에 이르는 두 세기 동안 가로수가 심겨진 가로

56) 이어 더블린의 가디너스 몰처럼 개인이 투자한 산책로가 등장했고, 이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베를린에는 넓은 들판 사이로 뻗은 가로수길인 운터 덴 린텐이 만들어져 베를린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가 되었다. 암스테르담에는 습지대였던 시 동부에 니우어 플라타헤 지구를 개발했고, 두 줄의 가로수가 식재된 산책로가 있었다. Mark Girouard, *Cities and People: A Social and Architectural History*, 민유기 (역), 『도시와 인간: 중세부터 현대까



<도판 3-20> 리치, <세인트 제임스 파크의 몰의 풍경>, 1710년경.  
 자료: 워싱턴 D.C. 내셔널 갤러리

와 공공 정원은 산책로의 지리적 보급과 사회적 확장에 기여했다.<sup>57)</sup> 프랑스를 모방하던 영국의 사교계에도 쿠르 라 렌(Cours-la-Reine) 같은 산책로를 모방한 산책로를 도처에 만들었다. 세인트 제임스 공원에 있는 몰(The Mall)이나 하이드파크에 있는 링(The Ring)이 대표적인 예이다(도판 3-20).<sup>58)</sup> 몰은 처음에는 펠맬 경기장 옆에 있는 가로수길이었지만, 이후에는 런던 사교계의 산책 장소가 되었다. 18세기 영국에서 이런 곳은 몰이나 워크(walk), 퍼레이드(parade)라고 불렸고, 보행자 위주

지 서양도시문화사』 (서울: 책과함께, 2009), pp. 295-302.

57) Aurélia Rostaing, "Les promenades et les jardins publics," in *L'Urbanisme parisien au siècle des Lumières*, Michel Le Moëlle (ed), (Paris: Délégation générale à l'Action artistique de la Ville de Paris, 1997), p. 93.

58) 몰(mall)은 '펠맬'의 영국식 표기인 '폴 몰(pall-mall)'을 하는 야외의 회랑(open gallery)에서 유래했고, 1640년대에는 maill라고 표기되었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 조성된 넓고, 나무들이 길을 따라 늘어선 산책로인 The Mall에서 시작되어, 이후 '산책로로 쓰이는 그들이 드리워진 보행로'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mall," [www.etymonline.com](http://www.etymonline.com) (검색일: 2013년 12월 4일).

의 거리였다.<sup>59)</sup> 물보다 보다 서민적인 장소로 시내 외곽의 가로수길도 유행했다. 최초의 공공 산책로인 무어필드(Moorfields)는 옛 시내 성곽 바로 옆에 위치한 공용지 커먼을 산책로로 정비한 곳으로, 도심을 벗어나 공기를 쉼 산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였다.<sup>60)</sup>

17세기 파리에선 도시에 거주하는 부유한 귀족 계층을 위한 전원적 공간(가로수가 늘어선 산책로, 반쯤 개방된 정원들)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널찍한 산책로는 좁고 구불구불하고 불결한 거리와 대비되는 곳이었고, 정치나 거래 등의 업무가 행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야외 살롱이나 무도회장 같은 사교의 장소였다.

대표적인 산책로인 쿠르 라 렌(Cours-la-Reine)은 1616년 마리 드 메디시스(Marie de Médicis) 왕비에 의해 킬리리 정원 서쪽에 조성되었다(도판 3-21, 3-22). 이탈리아의 코르소(corso) 형태에 기반을 둔, 길이가 약 1.2킬로미터에 달하는 느릅나무 가로수길은 당시에는 매우 드물게 마차 6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고, 중앙에는 원형의 공터가 조성되었다. 해가 진 뒤 유행하는 옷을 잔뜩 차려입고 햇불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산책로에서 마차를 몬 다음, 중앙의 원형공간에서 춤을 추는 것은 부유한 파리 사람들의 중요한 사교 행사였다. 이곳을 1698년 방문한 영국인 리스터(Marin Lister)의 기록은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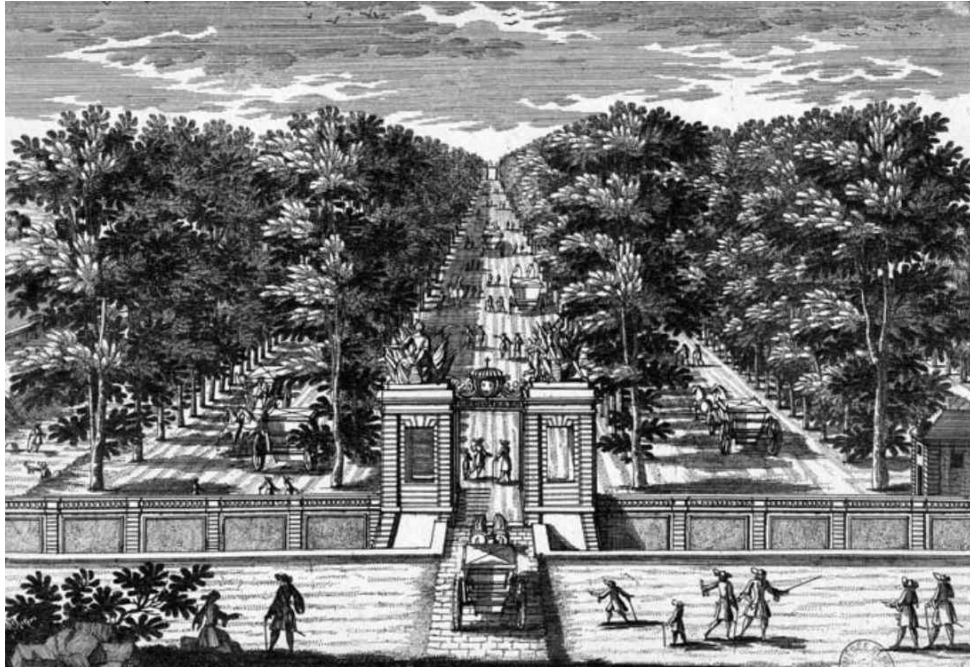
마차 방문은 상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상이다. 하지만 저녁이면 쿠르 라 렌은 사람들로 붐비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이다. 센 강가의 강둑을 따라 위치하고, 양끝에는 웅장한 문이 있으며, 중간에는 안쪽으로 향할 수 있는 아주 넓은 원이 있는 중간의 길에는 적어도 마차 네 대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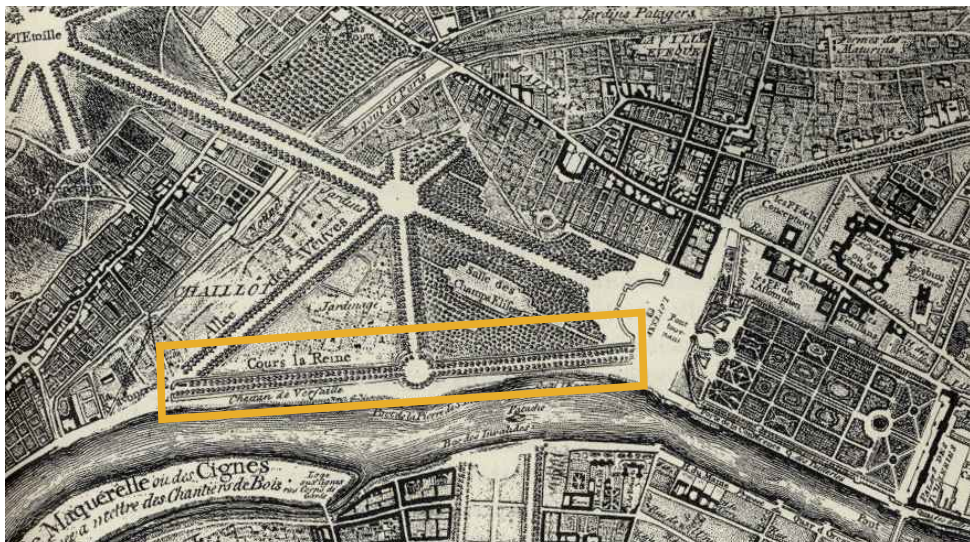
59) 세넷은 이를 ‘보행 공원(pedestrian park)’이라 칭하여 18세기에 등장한 공공 영역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공원에서의 산책을 포괄하여 논한다. Richard Sennett, *The Fall of Public Man* (New York; London: W. W. Norton, 1992), pp. 80-1, 84-6.

60) Lawrence(2008), pp. 51-2.





<도판 3-21> 아블린, <쿠르 라 렌>, 18세기 초기.  
자료: 카르나발레 미술관



<도판 3-22> 로크, <파리 지도>의 일부  
자료: Lawrence, *City Trees*, p. 35.

나란히 지나갈 수 있고, 각각의 길에는 마차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이 장소는 분명 매우 널찍하고 유쾌하다. 이 여덟 개의 길을 지나는 마차에 사람이 가득 찼을 때는 한 줄에 거의 80대의 마차가 있다고 볼 수 있고, 6-7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 . . . 6월의 8-9시에는 대부분의 마차가 쿠르에서 돌아와 툴리 정원 문에 선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서늘한 저녁 산책을 한다.<sup>61)</sup>

이들은 나무 아래의 맑은 공기와 센 강의 경치뿐 아니라, 화려함과 과장, 과시와 사교를 위해 이곳에 모였다. 가장 중요한 산책의 기능은 ‘보고 보이는’ 것이었고, 펠멜 경기장이 있는 산책로나 오페라 하우스 등도 비슷한 기능을 했다. 이를 통해 사교적 산책에 대한 파리 사람들의 애정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부자들은 걷는 산책보다 마차를 타고 하는 산책을 선호했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를 산책하는 것은 사회적 특권과 지위를 드러내는 새로운 방법이 되었다. 이를 통해 파리의 모든 계급의 사람들은 마차를 타든 아니든 걸어서든 가로수길 그늘에서 산책하는 취미를 갖게 되었다.<sup>62)</sup>

또한 이후 19세기에 크게 유행한 산책로로서의 불르바르도 이 시기에 등장한다. 프랑스어에서 군사용 성벽의 윗면을 뜻하는 용어였던 불르바르는 17세기에 들어 ‘가로수가 식재된 대로’로 의미가 확장되었고, 오늘날에는 오히려 후자의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다. 루이 14세 시기 르 노트르(André le Nôtre)의 설계로 파리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철거하고 토담에 나무를 심은 산책로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불르바르 생탕투안(Boulevard Saint-Antoine)에는 나무가 네 줄로 심어졌고, 마차가 다니는 가운데 길의 폭은 18미터, 보행자들이 다니는 측면 길의 폭은 6미터였다.<sup>63)</sup>

---

61) Henri Sauval, *Histoire et recherche des antiquités de la ville de Paris*, Vol. I. Paris, 1724, p. 671, Henry W. Lawrence(2008), p. 34에서 재인용.

62) Girouard(2009), p. 279.

63) 당시 파리는 여전히 중세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거리는 포장되어 있지





<도판 3-23> 작자미상, <틸르리를 마주한 샹젤리제의 대로>, 1750.  
자료: 파리 국립도서관

당시 파리는 방어 성벽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성벽은 치안이나 징세 면에서 유용했을 뿐 아니라 쾌적한 산책로도 제공했다.

마차를 몰 수 있는 볼르바르는 점차 인기를 얻었고, 보행자들이 다니는 길가에는 여러 가지 오락시설이 생기기까지 했다. 볼르바르 생탕투안의 성공 이후 파리 시내에는 가로수를 심은 그늘지고 잘 포장된 산책로가 여기저기에 생겨났다. 틸리 정원의 축을 연장해 쿠르 라 렌와 그 동북부를 연결하는 새로 조성된 긴 가로수길이 르 노트르에 의해 설계되어 ‘샹젤리제(Champs-Élysées)’라고 명명되었다(도판 3-23). 쿠르 라 렌보다 덜 귀족적인 이곳은 이후 파리의 대표적인 대중적인 행락지

---

않아 좁고 더러웠고, 보행자를 위한 별도의 보도도 없었다. 중심부인 팔레(palais)와 레 알(Le Halles), 샤텔레(Châtelet) 주변 거리의 건물은 대개 6-7층이었지만 길의 폭은 4-6미터에 불과했다. Girouard(2009), p. 285.

가 되었다.

이 시기 파리에는 가로수 아래에서의 비공식적 마차 나들이와 산책에서부터 정해진 시간에 화려하게 펼쳐지는 마차 행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급과 모든 경우에 맞는 산책과 산책로가 존재했다. 이런 산책은 하나의 풍습이 되었고, 당시 이를 목격한 외국인들은 “보기 위해 또는 보이기 위해 만나는 것을 이들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파리인들의 산책 애호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sup>64)</sup> 비단 파리에 서뿐만 아니라 산책을 위한 특정한 장소인 산책로는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주요 도시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용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전화나 효과적인 우편 서비스가 존재하기 이전 시대에 산책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최근 소식을 듣고, 그들이 도시에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유용한 기회였다. 그곳은 또한 보고 보이기 위해 오는 연회와 과시의 장소였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복장을 갖추고,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산책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사교계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8세기의 파리 인구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여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났을 무렵 파리는 런던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다. 이런 성장에 힘입어 파리의 대로 또한 더욱 활기를 띠었다. “고귀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 사이의 사회적 계층화에 따른 분리를 없애버리는”<sup>65)</sup> 볼르바르는 평범한 사람들도 산책을 즐기는 공공 오락의 장소가 되었고, 공공 산책로(public promenade)가 크게 유행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귀족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적당한 차림을 갖추기만 하면 뒤풀리 정원에 들어가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sup>66)</sup> 산책 문화와 산책로가 성공적으로 발

---

64) Girouard(2009), p. 270.

65) Vanessa R. Schwartz, *Spectacular Realities: Early Mass Culture in Fin-de-Siècle Paris*, 노명우, 박성일 (공역), 『구경꾼의 탄생』 (고양: 도서출판 마티, 2006), p. 67.

66)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는 건축 이론이 크게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담론의 방향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백과전서로 대표되는 계몽주의 사상가와 이론가들은 그들의 저서에서 다양



<도판 3-24> 작자미상, <정원 쪽에서 본 팔레 루아얄 투시도>, 1760.  
자료: 프랑스 국립도서관

달했던 이 시기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 고찰을 통해, 산책로라는 가로 공간의 요건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파리를 포함한 유럽의 대도시에서 18세기에 산책로가 발달한 데에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 바탕이 되었다. 18세기는 계몽주의의 발달과 혁명 등의 전 유럽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야기했던 근본적인 정치적 위기가 나타났고, 신분제의 와해되고, 대중(the public)이 등장하는 등 극적인 사회 변화가 많던 시기였다. 도시는 시민 사회 생활의 경제적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공정과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대립되는 곳이었다. 카페와 살롱, 만찬회 등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한 공론장(public sphere)에서 “대화는 비판으로, 재치 있는 농담은 논증으로”<sup>67)</sup> 전화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도시

한 논의를 전개했다. 특히 이들은 건축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개진했는데 이는 당시의 변화하던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ylvia Lavin, “Re Reading the Encyclopedia: Architectural Theory and the Formation of the Public in Late-Eighteenth-Century France,” *Th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53(2), 1994를 참조하라.

내 산책로는 다양한 지위와 출신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공론장이 되었다. 이는 프랑스대혁명 이전의 시기에 여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또한 근대적 현상의 하나이다.<sup>68)</sup>

18세기 파리의 대표적인 산책로인 팔레 루아얄(Palais Royal)은 사교의 장이기도 했지만, 정치적 회합과 토론의 장으로도 중요했다. 왕의 친척인 샤르트르 공작(Philippe Charles d'Orléans)의 시내 저택(palais) 정원을 개조해 만든 이곳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혼재되어 있었고, 다른 산책로와 비교해도 거리가 매우 짧은 곳이었다. 공식적으로 산책로라고 불린 적은 없어도 팔레 루아얄은 많은 이들이 왕래하는 산책로가 되었고, 이후의 산책로의 원형이 되었다. 왜냐하면 파리 사람들이 이곳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즉 산책로를 규정하는 것은 건축가나 계획가가 아니라, 이 공간을 채우는 산책자와 이들의 행태인 것이다.

형식주의 정원 양식으로 조성된 팔레 루아얄의 정원 중앙 산책로는 새로운 소식과 정치적인 사안에 관심 있는 이들의 회합 장소가 되었다(도판 3-24). 이곳은 왕족의 개인 사유지였기 때문에 경찰이 임의로 들어올 수 없었고, 따라서 검열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했다. 왕과 일부 귀족들만의 전유지가 된 베르사유에서 소외된 파리의 귀족과 부르주아 시민들은 팔레 루아얄을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드러내는 장으로 만들었다. ‘왕실 궁전’이라는 이름과 달리 팔레 루아얄은 프랑스 혁명의 여론을 형성한 ‘혁명의 정원’이 되었다(도판 3-25).

---

67) Jürgen Habermas,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Thomas Burger et Frederick Lawrence (tran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Mass., MIT Press, 1989), p. 31.

68)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국가와 특정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성을 누리는 공론의 장으로 보았다. 이곳에서 일반 시민들은 합리적 논쟁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이러한 공개적 논쟁과 비판적 검토를 통해 검열을 받는다. 이를 통해 근대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산책로 또한 살롱처럼 다양한 사상 교환의 장이 되었고, 당시 파리를 여행했던 여행객이 산책로를 ‘녹색의 거실(green living room)’이라고 할 정도로 산책 문화가 발달했다.



<도판 3-25> 도미에, <팔레 루아얄의 카미유 데몰랭>, 1850년경. 열렬한 공화주의자였던 도미에는 1789년 프랑스대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인 언론인 카미유 데몰랭이 팔레 루아얄에서 한 연설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제작하여 그의 정치적 경향을 드러냈다.

물론 이전 시기부터 행해진 ‘보고 보여지기 위한’ 산책도 여전히 활발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면서 산책로는 더욱 활기를 띠었고, 구경거리 정원 (jardin-spectacle)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행과 즐거움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시기 산책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행해지는 일종의 조직된 행동이었기에, 각 산책로만의 일정한 관습이 생겨났고, 이는 이후 공원과 위락 정원의 출현과도 연관된다.<sup>69)</sup>

69) Daniel Rabreau, “Urban Walks in France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in *The History of Garden Design: The Western Tradition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Day*, Monique Mosser and Georges Teyssot (eds.), (London: Thames & Hudson Ltd., 1991), p. 306.



18세기부터 이미 프랑스에는 공공 산책로가 있었고, 프랑스대혁명 이후 왕실과 귀족, 교회의 소유였던 정원들이 대중에게 개방되어 공공 산책로가 되었다. 길게 뻗은 길을 따라 가로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심겨져 있는 대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지만, 사실은 도시정비를 통해 나타난 새로운 모습이다. 오스만의 파리 정비 이전에 랑뷔토(Claude-Philibert Barthelot, comte de Rambuteau)가 센 강가 둑을 따라 나무가 심겨진 산책로를 조성한 바 있다.<sup>70)</sup> 하지만 조직적 계획 하에 가로수가 식재된 것은 제 2제정의 중요 사업 중 하나였고, 이를 통해 파리의 대로는 도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19세기 파리의 블루바르는 “사치와 돈, 방탕함과 경박함, 군중과 플라뇌르가 나란히 걷는 도시의 중심”인 동시에 “19세기 도시 문명의 승리를 알리는 일종의 알레고리, 모더니티의 거울”이었다.<sup>7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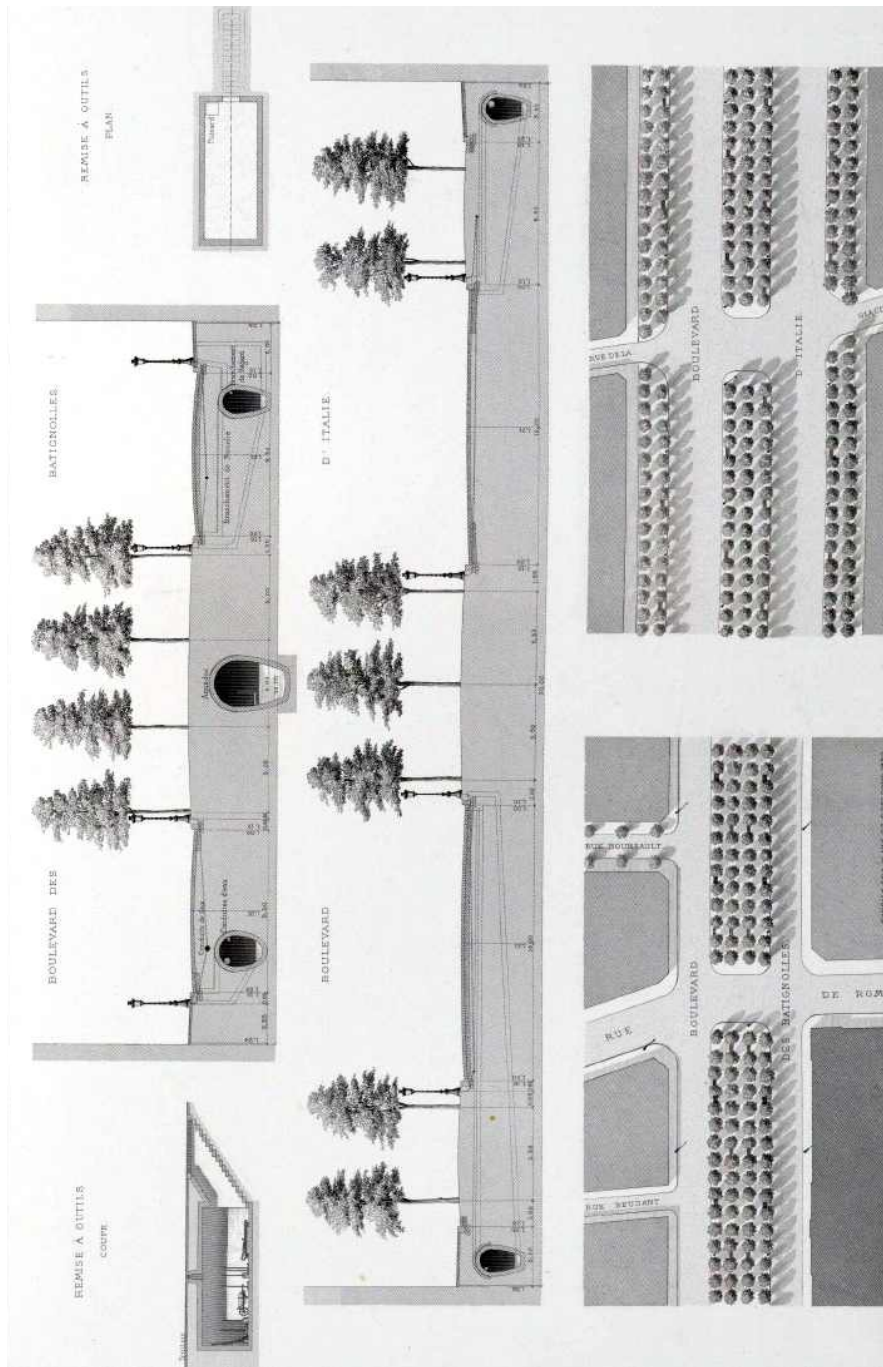
알팡의 가로수 식재로 1870년대 파리에는 80,000여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었고, 이는 1852년과 비교하면 두 배에 달했다. 폭 26미터 이상의 길에는 가로수를 양쪽으로 각 1줄, 36미터 이상이면 2줄씩 심는데 5미터 간격으로 1미터 깊이의 구덩이를 파서 나무를 심었다. 반면 폭 15미터 이하의 도로, 혹은 폭 3미터 이하의 인도에는 가로수를 심지 않았다.<sup>72)</sup> 인도 시스템(*contre-allée system*)은 도로 옆에 아스팔트나 다른 재료로 포장된 인도를 조성하고, 그 사이에 경계석을 놓아 인도와 차로를 분리한 뒤 가로수를 심는 체계였다(도판 3-26).<sup>73)</sup>

70) Spiro Kostof, *The City Assembled: the Elements of Urban Form through History* (London: Thames and Hudson, 1992), pp. 228-9.

71) Chantal Georgel, *Le paysage depuis le milieu du XIXe siècle* (Paris: NDP, 2012), p. 45.

72) Adolphe Alphand, *Les Promenades de Paris: histoire, description des embellissements, dépenses de création et d'entretien des Bois de Boulogne et de Vincennes, Champs-Élysées, parcs, squares, boulevards, places plantées: étude sur l'art des jardins et arboretum par A. Alphand* (Paris: J. Rothschild, 1867-1873), pp. 243-5, <http://bibliotheque-numerique.inha.fr/collection/13409-les-promenades-de-paris-texte/>, (검색일: 2013년 3월 24일).

73) Kostof(1992), p. 229.



<도판 3-26> 공공 도로의 단면

자료: Alphand, *Promenade de Paris (planches)*, p. 136.

이 시기 조성된 산책로 중 앵페라트리스 아브뉴(Avenue de l'Impératrice, 현 아브뉴 포쉬[Ave. Foch])는 불로뉴 숲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대한 아브뉴로, 조성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파리에서 가장 중요한 대로 중 하나이다. ‘황후의 아브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나폴레옹 3세의 부인인 외제니 황후(Impératrice Eugénie)에게 헌정되었고, 불로뉴 숲과 파리를 연결하는 기능을 했다. 에투알 개선문의 설계자인 히토르프(Hittorff)는 처음에는 폭 40미터의 대로를 구상했지만, 오스만이 이를 크게 확장했다. 이곳은 황후에게 헌정되기에 샹젤리제보다도 더 중요했고, 폭이 최소한 100미터는 되어야 했다. 중앙 도로와, 양쪽의 보행자 도로와 승마로, 정원이 배치되어 결국 폭 120미터에 길이 1.2킬로미터의 대로가 설계되었다(도판 3-27, 3-28).<sup>74)</sup> 도로의 양 옆은 호화로운 개인 주택이 늘어선 고급 주거지로 개발되었다. 알팡은 여기에서 토지의 기복을 이용하여 소관목과 희귀한 나무, 잔디밭과 꽃으로 꾸며진 영국식 정원을 조성했다. “불로뉴 숲은 . . . 파리에서 가장 부유하고, 저명한 이들이 선호하는 산책로이다. 매일 두 시에서 네 시 사이, 자연스럽게 숲의 입구가 된 아브뉴 앵페라트리스는 마차와 말을 탄 사람들로 가득 찬다”<sup>75)</sup>는 당시의 파리 여행 안내서에 나타난 구절처럼, 대로는 파리의 명사들이 모여드는 명소가 되었다(도판 3-29).

산책은 근대적 개념의 도시가 형성되던 17세기에 산책로가 조성된 이래 주요 도시 여가활동의 하나였다. 산책은 이동 방법의 하나이고, 특정한 목적 없이 여유롭게 걷는다는 무목적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며, 고대 그리스 소요학과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여가 활동 이상의, 사유와 연관된 하나의 중요한 신체 활동

74) Alphand(1867-1873), p. 237.

75) Alfred Delvau, *Les plaisirs de Paris: guide pratique et illustré* (Paris: A. Faure, 1867), p. 31,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62624b> (검색일: 2013년 10월 4일).





<도판 3-27> 앵페라트리스 아브뉴  
 자료: Alphand, *Promenade de Paris (planches)*, p. 130.  
 중앙 도로의 너비는 16미터, 양쪽 가로의 너비는 각 12미터, 양쪽 식재 공간의 너비는 각 31미터, 경계의 너비는 각 1.5미터, 주택가 가로의 너비 각 6미터, 주택 측 인도의 너비 각 1.5미터로 총 너비 120미터, 길이 1.2킬로미터의 대로였다.



<도판 3-28> 아브뉴 포쉬(구 아브뉴 앵페라트리스)  
자료: 황주영(2013).



<도판 3-29> 볼로뉴 숲으로 가는 아브뉴(아브뉴 앵페라트리스),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엽서. (황주영 소장).

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산책은 단순히 거리를 거니는 행동이 아니라, ‘보고 보이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사교 활동이자 정치적 의도도 함의된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인 산책로 또한 도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인공적인 장소이다.

17세기에 런던의 폴 몰과 파리의 쿠르 라 렌, 불르바르 같은 녹지 공간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부유한 귀족 엘리트층을 위한 전원적·사교적 공간이었다. 파리가 대도시로 확장되기 시작한 18세기 파리에서 산책로는 대중화되었고, 다양한 출신과 신분이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었다. 19세기 후반의 파리 도시 개조 사업의 일환인 다양한 녹지 정책의 결과로 수많은 공공 산책로가 새로 조성되었고, 이를 통해 이전에는 여가 활동에서 배제되어 있던 노동자 계급까지도 산책이라는 도시 내 여가 활동에 포용되었다(도판 3-30). 산책로는 공원보다 앞서 생겨난 도시 녹지 공간이었고, 오늘날에는 일상적인 도시를 걷는 일은 그 자체가 매우 근대적인 현상이다. 수세기동안 보급되고 확장된 파리의 산책로는 이곳에서의 여론 형성을 통해 정치적·사회적 투쟁의 장이 되기도 했고, 다양한 계층이 교류하는 평등한 사교의 장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계급 간의 구별은 존재하고, 더욱 뚜렷하고 정교해지기도 했다.

프랑스 사회에서 산책은 구체제(Ancien Régime) 말기부터 19세기말 영화나 스포츠 등의 다른 대중 오락거리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도시의 주요한 여가활동이었다. 일요일의 노동자 계층의 산책은 오스만 이전부터 있던 여가 활동이었고, 이들은 자기가 사는 구역 근처의 불르바르를 산책하곤 했다. 불로뉴 숲이나 샹젤리제가 인기 있는 산책로였고, 일요일이면 어릿광대나 저글러, 인형극, 볼링이나 고리 던지기, 그네, 서커스 점프 등의 여러 놀이거리가 불루바르를 따라 펼쳐져 마치 장터 축제와 같은 모습이었다(도판 3-31, 3-32). 하지만 제 2제정기 도시의 거리에서는 풍속 정





<도판 3-30> 펠코크, <파리 불르바르의 어느 여름 저녁>, 1869.  
자료: 프랑스 국립도서관



<도판 3-31> <오페르바투아르 구역에서 공놀이를 하는 사람들>, 1843.

자료: *Illustrations de Les rues de Paris ancien et moderne*, p. 86.



<도판 3-32> 도미에, <북을 치는 광대>, 1865-7.

자료: 영국박물관.



<도판 3-33> 제르벡스, <프레 카를랑에서의 저녁 모임>, 1909.  
자료: 파리 카르나발레 미술관.

화의 이유로 허가받지 않은 행사가 금지되었고, 도시 내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노동자 계층이 도시 외곽으로 이주하면서도 길거리 오락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한편 불로뉴 숲이나 샹젤리제 등지에 있는 유행하는 여가 시설들은 입장료를 올리고 복장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노동자 계급의 출입을 제한했다(도판 3-33).<sup>76)</sup>

오스만화로 대표되는 19세기 말의 파리 도심 개조 사업과 그 일환인 다양한 녹지정책은 이전까지는 도시 내 여가 활동에서 소외되었던 계층까지 포용하여, ‘공원’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모든 계

76) Robert Beck, *Histoire du dimanche: de 1700 à nos jours* (Paris: Editions de l'Atelier/Editions Ouvrières, 1997), p. 225.

층이 한데 어울려 여가를 향유했다는 일반론 이면에는 여전히 계급에 따른 공간 구분이 존재하고, 여기에는 ‘보고 보이기 위해’ 산책을 했던 전통적인 사회적 목적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책을 위해 특별히 조성된 산책로가 등장한 17세기 이래 프랑스에서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형식으로 산책을 하는 것이 한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사고 방법이였다. 이는 “공간적 실천이 사회생활을 결정하는 조건들을 은밀하게 구축한다”<sup>77)</sup>는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논의와도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환언하면, 이들은 산책이라는 활동을 통해 공간에 다층적 의미를 부여했고, 산책로는 19세기 대 도시의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근대적 의미의 공원이 등장하던 시기에 도 산책은 여전히 중요한 관습이었고, 이는 산책의 장소와 산책로의 위치, 주변 환경, 이용 행태, 산책자들의 사회적 구성 등을 통해 반증된다.

### 3. 죽은 이와 산 자의 공원: 공동묘지

19세기 초반의 런던에는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대학, 은행 등의 여러 공공건물뿐 아니라 급증한 도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교회의 건축도 활발했다. 교회건축위원회(Church Building Commission)의 관할 하에 1822년에서 37년 사이 런던에는 53개의 교회가 새로 건축되었다. 이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 분리된 교구마다 교회를 배치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도시 빈민에게 무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sup>78)</sup> 그런데, 이 시기 새로 지어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묘지 공간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79)</sup>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회가 부족했듯, 매장 공간도 협소하

77) Michel de Certeau, *L'invention du quotidien*, Steven Rendall (trans.),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 96.

78) Susan Palmer, “The Changing Face of Scharf’s London (1816-1860),” in *George Scharf from the Regency Street to the Modern Metropolis* (London: Soane Gallery, 2009), p. 48.

79) 이는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묘지와 교회는 이 둘을 지칭하는 용어가 모호

여 수 천 명의 무덤이 겹쳐 있었다. 도시 내 묘지는 과밀하고 지저분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질병의 잠재적인 원인이 된다고 여겨졌고, 외곽이나 교외 지역에 공동묘지를 만드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1832년 대도시 묘지법(Metropolitan Cemeteries Act)이 통과되면서 7개의 회사가 런던 주변에서 대규모 상업적 묘지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sup>80)</sup> 이어 1852년 대도시 매장법(Metropolitan Burials Act)이 제정되어 교구에서 선정된 지역 매장 위원회가 매장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몇몇 교구는 런던 외곽에 시립 묘지를 설립하기도 했지만, 다른 교구는 묘지 회사와 계약을 맺고 교구민들의 매장을 의뢰하기도 했다.<sup>81)</sup> 그리고 새롭게 조성된 공동묘지의 형태로는 일종의 공원과 같은 형태, 즉 묘지공원의 형태가 제시되었다.

라우던은 『묘지의 배치와 식재, 관리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묘지의 개선에 대하여(On the Laying Out, Planting, and Managing of Cemeteries: and on the Improvement of Churchyards, 1843)』에서 당시의 런던의 공동묘지의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에 비해 면적이 작은 런던의 묘지에는 시신 위에 다른 시신이 매장되고, 다음 매장을 준비하느라 덮개가 제대로 덮이지 않아 그 틈으로 시신이 부패할 때 나오는 해로운 가스가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sup>82)</sup> 그는 공공 정원으로서의 공동묘지를 권장하고, 그 이상적

---

했을 정도로 밀집했다. 성당(ecclesia)과 묘지(cimeterium)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고, “고인들의 시신이 묻혀 있는 성당”을 치메테리움(cimeterium)이라고, 묘지를 성당의 안뜰이라고 불렀다. Philippe Ariès, *L'Homme devant la mort*, 고선일 (역), 『죽음 앞의 인간』 (서울: 새물결, 2004), pp. 119-20.

80) 켄설그린(Kensal Green, 1833)과 웨스트 노우드(West Norwood, 1837), 하이게이트(Highgate, 1839), 넌헤드(Nunhead, 1840), 애브니 파크(Abney Park, 1840), 타워 햄릿(Tower Hamlets, 1841)의 7개 묘소이다.

81) “London Metropolitan Archives, Information Leaflet Number 5: Cemetery Records,” <http://www.cityoflondon.gov.uk/things-to-do/visiting-the-city/archives-and-city-history/london-metropolitan-archives/Documents/visitor-information/05-cemetery-records.pdf> (검색일: 2013년 11월 09일).

인 형태로 일종의 픽처레스크한 공원의 형태와 식재를 구상했다. 그는 묘지가 시신이 “분해되는 과정 중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거나, 감정과 의견, 편견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시신을 매장하는 곳”이지만, 더 나아가 “대중 사회 모든 계층의 도덕적 감정과 일반적인 취향을 개선하는” 기능도 있다고 보았다.<sup>83)</sup> 묘지는 공포의 장소가 아니고, 죽은 이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슬픔과 명상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sup>84)</sup> 묘비와 나무, 관목, 초본 식물 등으로 적절하게 설계된 공동묘지는 건축과 조각, 조경, 수목학, 원예의 학교가 되고,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된 문명의 증거물이 될 것임을 역설한다.<sup>85)</sup>

도시 근처에 있는 모든 매장지는 가득차면. . . 폐쇄되어야 하고, 몇 년 뒤 공공 산책로나 정원으로 개장된다. 묘비와 건축적 혹은 조각 장식의 수리비용은 시가 맡는다 . . . . 묘지의 식재는 이미 알려진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적절하다. 나무와 관목의 배치, 그리고 식재된 종류 모두 보통의 위락 정원 (common pleasure-ground)의 양식을 지나치게 따랐다. 길게 이어진 나무 (belts)나 덤불로 만든 쉼터나 그들은 묘지에서는 전혀 필요 없다. 왜냐하면 공기를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햇빛의 건조한 영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목과 길게 이어진 나무 사이에 무덤을 만드는 것은 비실용적이기 때문이다. 나무와 관목을 하나씩 흘트려 놓으면, 무덤은 이들 사이 어디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길과 보행로를 따라 나무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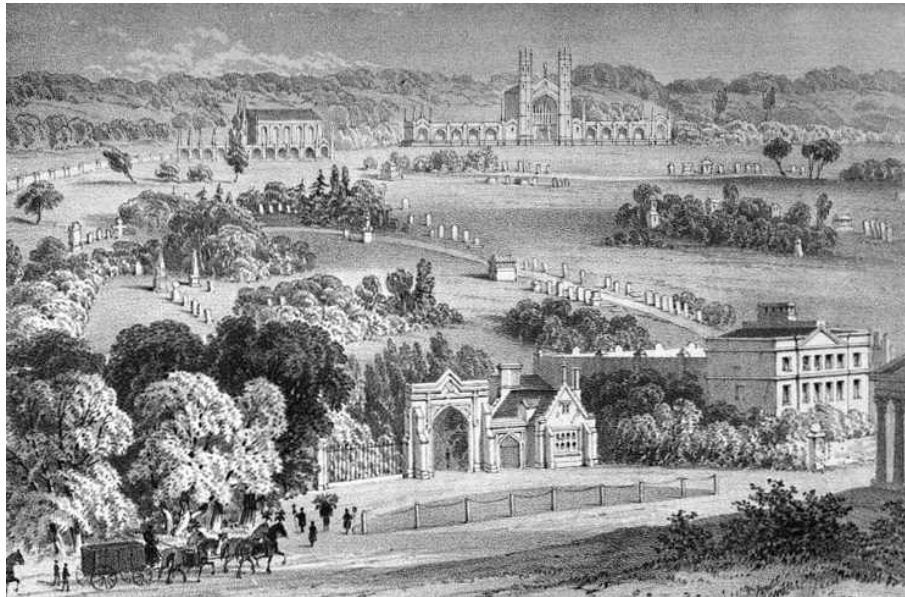
82) John Claudius Loudon, *On the Laying Out, Planting, and Managing of Cemeteries: and on the Improvement of Churchyards* (London: Longman, Brown, Green and Longmans, 1843), p. 68, <https://play.google.com/store/books/details?id=OOcCAAAAYAAJ> (검색일 2013년 10월 19일).

83) Loudon(1843), p. 1.

84) 여기에는 죽음과 애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빅토리아 시대의 특징이 반영된다. 빅토리아 여왕 자신도 남편 알버트 공의 사망 이래 줄곧 검은 상복을 입었고, 은둔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문학 작품이 많이 발표된 “애가의 시대(age of elegy)”였다. Francis O’Gorman, “The Dead,” *The Cambridge Companion to Victorian Cul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85) Loudon(1843), pp. 12-3.





<도판 3-34> 노우드 공동묘지

자료: Loudon, *On the Laying Out, Planting, and Managing of Cemeteries*, fig. 42.



<도판 3-35> 노우드 공동묘지 개선안

자료: Loudon, 위의 책, fig. 43.

라우던은 노우드 공동묘지 회사가 출판한 동판화(도판 3-35)의 중경에 이파리가 어둡고 원뿔형인 나무들을 배치하여 변화된 경관의 모습(도판 3-36)을 보여주고자 했다.

연속적으로 배치하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 너머에 있는 풍경에 대한 전경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런던 묘지의 식재는 어떠한 원칙 없이 행해진 것처럼 보인다.<sup>86)</sup>

라우던이 제시한 공동묘지는 사실상 교외 공원이거나 다를 바 없었고, 사람들도 이곳을 일종의 공원처럼 이용하기 시작했다(도판 3-34, 3-35).<sup>87)</sup>

일요일 오후면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소중했던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산책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소풍을 하러 묘지로 갔다. 탁 트인 전망과 인상적인 기념물이 있는 런던 북부의 하이게이트 공동묘지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묘지를 드나들 수 있도록 묘지 정문의 열쇠를 구입했다.<sup>88)</sup>

파리의 공동묘지는 기원은 기존의 교회 묘지를 폐쇄하고, 시 외곽에 8개의 대형 묘지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담은 1763년의 법령에서 유래한다.<sup>89)</sup>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수용 능력을 넘은 교회 부지 내에서의 장례가 문제가 되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 교회가 죽은 이들을 따듯하게 품어주는 ‘교회의 품(ecclesiae gremium)’ 으로서의 묘지의 의미는 퇴색했고, 중심부 재개발 사업 중 부지에 있던 수만 구의 유골이 도시 외곽의 카타콤으로 이장되었다(도판 3-36).<sup>90)</sup> 1804년 페르 라셰즈(Père Lachaise) 공동묘지가 도시 외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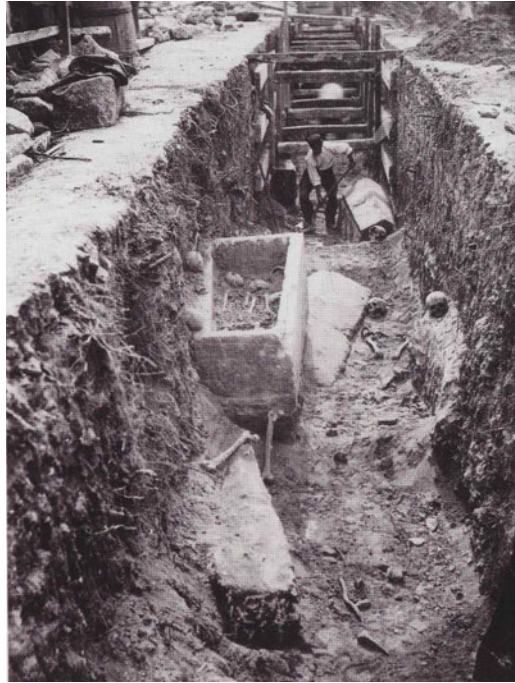
86) Loudon(1843), pp. 44, 69.

87) 이는 중세부터 17세기까지 묘지에 부여된 공공 장소의 개념이 부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묘지는 피난처이자, 만남이나 모임, 심지어 오락을 위해 만민에게 개방된 공공 장소,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Ariès(2004), pp. 137-151.

88) Bill Bryson, “The Garden,” in *At Home: A Short History of Private Life* (New York: Doubleday, 2010), p. 272.

89) Ariès(2003), p. 105.

90) 생 인노상 묘지가 있던 곳에는 수년간 2만여 구의 묘혈 발굴과 소독, 지면 고르기 등의 작업을 통해 광장이 조성되고, 파리 최초의 분수가 설치되었다. 이를 통해 죽음의 구덩이가 생명의 원천으로 바뀌었다. Ariès(2004), p. 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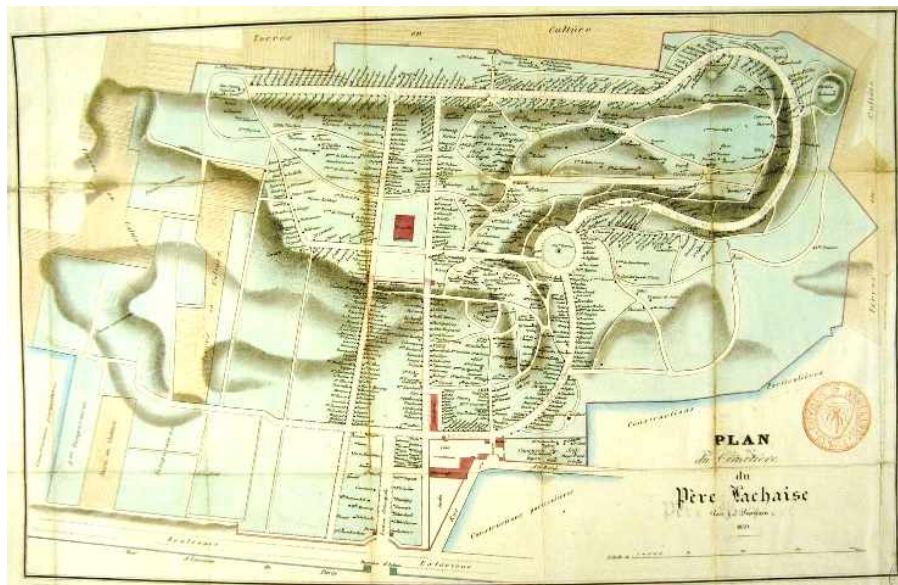
<도판 3-36> 하수도 공사를 위해 이장되는 메로빙거 시대의 묘지, 1868년경.

자료: Pinon, *Atlas du Paris haussmannien*, p. 80.

에 세워졌고, 이어 몽파르나스(Montparnasse, 1824)와 몽마르트르(Montmartre, 1825)에 묘지가 조성되었다.<sup>91)</sup>

런던에 교회가 아니라 합자 회사가 운영하는 공동묘지인 켄설 그린(Kensal Green)이 등장했던 시기, 프랑스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지역 장례 체계는 형성되지 않았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됨에 따라, 과거 교회의 안마당에 있던 공동묘지는 특정 종교와 관계없는 양식으로 설계되었다. 구불구불한 오솔길, 우거진 숲, 호수나 연못 등이 있어 마치 공원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묘지와 기념물은 풍경화식 정원 곳곳에 놓여 있던 장식적인 폴리를 대체했다(도판 3-37, 3-38, 3-39). 묘지는 시적인 정취를 자아내고, 초목이 우거진 평화로운 정경은 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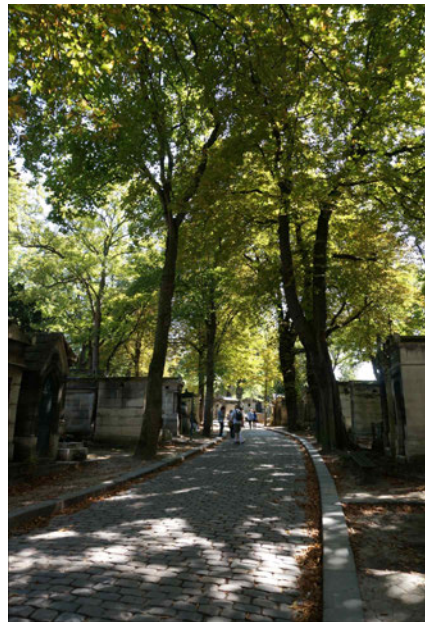
91) Chapman and Chapman(1957), pp. 126-7.



<도판 3-37> 루소, 파리 페르 라세즈 공동묘지 도면, 1839.  
 자료: <http://www.appl-lachaise.net>



<도판 3-38> 페르 라세즈 공동묘지에 있는 오스만 가족묘  
 자료: 황주영(2013).



<도판 3-39> 페르 라세즈 공동묘지  
 자료: 황주영(2013).





<도판 3-40> 푸생, <아르카디아의 목동들>, 1637-8.  
자료: 루브르 박물관

의 낙원인 엘리지언 들판이나 아르카디아를 연상케 했다(도판 3-40). 이런 공원으로  
서의 공동묘지에서 죽음은 공포와 위협이 아니라, 평온함과 위안, 휴식으로 여겨진  
다.<sup>92)</sup>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인들이 고인들의 묘를 찾아 묵상하고 위안을 찾았고, 도  
시의 공동묘지는 죽은 이와 산 자 모두를 위한 정원이 되었다.

#### 4. 즐거움을 위한 공원: 위락 정원

정원이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부터 ‘즐거움을 위한 정원(pleasure garden)’은 늘  
있어왔다. 인간의 현실 공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공간으로서의 낙원

92) Ariès(2004), pp. 74-8, 919-37.

(paradise)은 어원상으로 ‘담으로 둘러싸인 왕실의 사냥터나 공원, 과수원’ 등을 의미하는 고대 페르시아어 ‘파라데이자(paradeiza)’에 유래를 둔다.<sup>93)</sup> 그리고 정원(garden)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둘러싸인 곳’이라는 의미인 ‘gan-’과 ‘즐거움’을 뜻하는 ‘-oden’이 결합된 말이다.<sup>94)</sup> oden은 또한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sup>95)</sup>가 심겨진 에덴동산(garden of Eden)과도 연결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상 속에서 정원이 쾌락을 누리는 낙원과 동일시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인류는 고대부터 정원을 가꿈으로써 신화적인 낙원을 재창조하고자 했고, 시대에 따라 추구되는 즐거움은 다양했다.

위락 정원(pleasure ground)은 정원의 다양한 목적 중 감각적, 육체적 즐거움을 극대화했고, 따라서 유원지적 성격이 부각되었다.<sup>96)</sup> 앞서 살펴본 팔레 루아얄의 산책로는 정치적 회합의 장이기도 했지만, 도시 생활의 제약을 벗어난 일탈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정원을 둘러싼 건물의 1층의 아케이드에는 사치품 상점들이 늘어섰고, 도박과 매춘을 포함한 다양한 오락거리가 제공되었다(도판 3-41) “마치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이 런던 최고의 상점들 복스홀, 래닐러와 합

93) 이외에도 공원이나 정원을 의미하는 헤브루어 파르데스(pardes)는 계시록이나 랍비들의 성전(聖傳)에서 고결한 사람들이 죽어서 보상받는 축복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기원전 540년경 그리스의 철학자 크세노폰(Xenophon)이 페르시아의 키루스(Cyrus) 대왕의 정원을 방문한 이래 페르시아어 파이리다에자(pairidaeza)가 그리스어 파라데이소스(paradeisos)로 변형되었고, 축복받은 땅자들이 머무는 곳과 정원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게 되었다. 라틴어 파라디수스(paradisus)는 정원이나 공원(원예 정원이나 야생 동물을 가두어 놓는 곳), 천상의 낙원(천국), 지상의 낙원(에덴동산)의 뜻을 지닌다. Elizabeth Barlow Rogers, *Landscape Design: A Cultural and Architectural History* (New York: Harry N. Abrams, 2001), p. 124; Anne van Erp-Houtepen(1986), p. 229.

94) 황기원, “정원의 원형 시론,” 『환경논총』 20: 1987, pp. 94.

95) 창세기 2:9.

96) 문헌상으로는 17세기 몰레(André Mollet)의 『쾌락의 정원(Le jardin de plaisir)』의 11장 “쾌락의 정원의 장식(Des ornements du jardin de plaisir)”에서 왕실 정원의 정교한 파테르(parterre)의 즐거움을 논의한 데에 처음 등장했다. André Mollet, *Le jardin de plaisir* (Stockholme: H. Kayser, 1851),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1040005b> (검색일: 2013년 7월 22일).



<도판 3-41> 데뷔쿠르, <팔레 루아얌 갤러리 산책>, 1787.  
자료: 파리 장식미술관

쳐진 것 같은”<sup>97)</sup> 팔레 루아얌은 파리의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화려한 위락 공원이기도 했다.

오르레앙 공의 별장이었던 몽소 공원(Parc de Monceau)도 위락 공원의 성격을 띤다. 몽소 공원은 18세기 당시에는 파리의 성곽 바깥에 위치했고, 도시를 벗어나 시골에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장소였다. 화가이자 작가인 카르몽텔(Louis Carrogis Carmontelle)은 이를 당시 유행하던 영국-중국식(anglo-chinois) 양식으로 설계했고, 여러 가지 폴리를 설치하여 공원을 찾은 이들이 놀라며 즐거워하게 했다. 카르몽텔의 표현을 따르면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sup>98)</sup>를 결합시킨 정원 곳곳에는 스위스의 오두막, 네덜란드의 풍차, 탑, 피라미드, 중세의 폐허가 조성되었고, 이에 부합하는 이국적인 복장을 갖춘 하인들의 모습은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도시 속의

97) Girouard(2009), p. 320.

98) Dominique Jarrassé, *L'art des jardins parisiens* (Paris: 2002), pp. 75-6. 카르몽텔은 18장의 삽화가 포함된 『샤르트르 백작님이 소유하신 파리 인근의 몽소 정원(Jardin de Monceau, près de Paris, appartenant a son altesse sérénissime Monseigneur le Duc de Chartres, 1779)』에서 몽소 공원 조성의 목적과 개념, 폴리의 활용 등을 논했다.





<도판 3-42> 카르몽텔, <몽소 공원의 열쇠를 샤르트르 백작에게 선사하는 카르몽텔>, 1790년경.  
자료: 파리 카르나발레 미술관



<도판 3-43> 카르몽텔, <몽소 공원의 고리 놀이>, 1779.  
자료: Langlois, *Folies, tivilis et attractions*, p. 105.



자연' 이상의 체험을 제공했다(도판 3-42, 3-43).

대중 사회가 대두한 18세기 후반, 이들을 위한 위락 정원이 증가했다. 1766년 오스트리아 황제 요제프 2세(Joseph II)는 “친구가 모든 사람에게 바치는 즐거움의 정원”이라는 헌사와 함께 프라터(Prater) 정원을 유원지적 정원으로 개방하여 계몽군주의 모습을 과시했다. 이처럼 초기의 위락 정원 또한 군주나 권력자가 개인의 영지를 개방하는 형태를 띠었다. 하지만 점차 이런 유원지적 성격을 띤 공공 정원 뿐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보다 상업적인 위락 정원이 유럽 대도시에 등장해 호황을 누렸다.

특히 본격적인 위락 정원은 18세기 런던에서 이루어진 혁신이었다.<sup>99)</sup> 절대왕정 하에 수도 파리나 베르사유 근처에 집중되었던 프랑스의 귀족들과 달리, 영국의 귀족과 젠트리들은 자신의 영지와 컨트리 하우스가 있는 시골에 거주했다. 의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런던에 머물고, 나머지 기간에는 바스(Bath)등의 휴양지나 지인들을 방문하며 여행을 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적인 생활이었다. 런던에 머무는 기간 동안 이들은 최신 유행하는 양식을 포착하여 이를 자신의 시골 저택에서 모방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런던에서의 생활은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만나고, 거래를 하고, 결혼을 주선하고, 소송을 하고, 최신 소식과 유행을 접하는 사교의 장이었다. 런던 시내와 주변에는 이들을 위한 여러 위락 시설이 생겨났고, 복스홀(Vauxhall Gardens)<sup>100)</sup>과 래즐리(Ranelagh Gardens), 크레몬(Cremorne Garden), 바니게 웰스(Bagnigge Wells) 같은 위락 정원이 큰 인기를 끌었고, 신분과 상관없이 다양한 계

---

99) Girouard(2009), p. 303.

100) 프랑스 노르망디 출신의 플크 드 브레오테(Foulques de Bréauté)라는 사람이 17세기 초반 런던에 정착하여 지은 저택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Foulques-Hall이 Vauxhall로 변형되었고, 이후 위락 정원을 지칭하는 일반명사가 되었다. Gilles-Antoine Langlois, *Folies, tivolis et attractions: Les premiers parcs de loisirs parisiens* (Paris: Délégation à l'Action Artistique de la Ville de Paris, 1991), p. 74.



<도판 3-44> 레빈, <크레몬 정원의 무도회장>, 1864.  
자료: 런던 박물관

층의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 여흥을 즐길 수 있었다(도판 3-44).

18세기의 작가 버니(Fanny Burney)는 <이블라이나(Evelina or the History of a Young Lady's Entrance into the world, 1778)>에서 지방 상류층이 런던에서 행하는 사교와 여가 활동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와 켄싱턴 가든을 여러 번 가봤어도 “복스홀에 가지 않았으면 아직 런던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다”<sup>101)</sup>라는 소설 속 대화가 말해주듯, 1728년 타이어스(Jonathan Tyers)가 운영을 시작한 복스홀은 당시 런던 최고의 위락 시설이었다(도판 3-45). 템즈 강 이남 서더크(Southwark)에 위치한 복스홀은 입장료가 1790년까지 1실링에 불과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 주말에는 왕세자부터 상점 점원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데 어울렸다. 넓은 공간 배치된 다양한 장소에서는 음식과 음악을 즐길 수

101) Fanny Burney, *Evelina or the History of a Young Lady's Entrance into the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p. 187-8.



<도판 3-45> 로우렌스, <복스홀 정원>, 1810.  
 자료: <http://commons.wikimedia.org>

있었으며, 연인들은 산책로의 키 큰 나무 아래에서 밀회를 즐겼다(도판 3-46).<sup>102)</sup> 1742년 첼시의 부유한 래슬러 경(Lord Ranelagh)의 빌라가 있던 곳에 세워진 후발 주자인 래슬러 정원에는 직경 약 45미터의 로툰다(Rotunda)를 세워 복스홀과 경쟁했다(도판 3-47). 거대한 원형 건물인 로툰다 실내에는 난방장치와 오케스트라, 부유한 이들을 위한 만찬석, 산책로, 중국식 탑 등이 갖추어졌고, 런던의 날씨 덕분에 더욱 더 인기를 끌었다.

102) Christopher Hibbert, *London: The Biography of a City* (New York: Penguin Books, 1980), p. 170.



<도판 3-46> 윌러, <복스홀 정원의 조감도>, 1751.

자료: Coke, *Vauxhall Gardens: A History*, p.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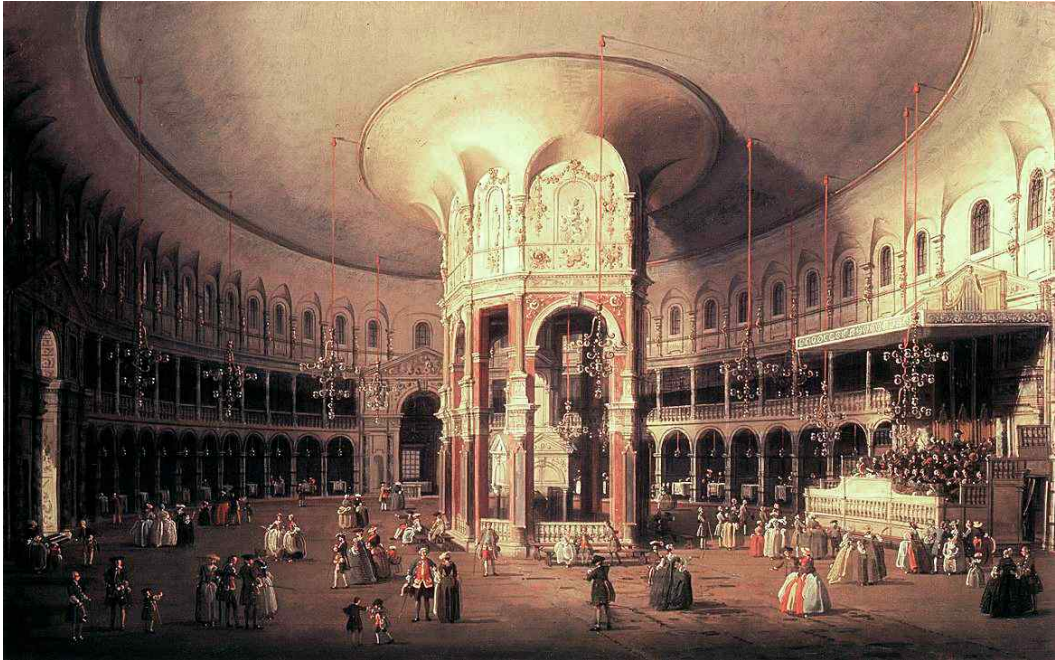
가장 뛰어난 그림과 조각, 금박으로 장식되고, 한낮의 태양에 버금가는 천개의 금빛 램프가 빛나는 레즐러는 마법에 걸린 요정의 성과 같았다. 레이스와 자수, 보석으로 변쩍이는 금은빛의 옷을 입은 위대하고, 부유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들이 가득했다. 흥에 겨운 남녀가 이 쾌락의 원을 누비거나, 분리된 자리에서 고급 차와 다른 맛있는 다과를 즐기는 동안 훌륭한 음악이 귀를 즐겁게 했다 . . . . 정말 낙원에 있는 것만 같았다.<sup>103)</sup>

기발한 건축물로 꾸며진 다양한 산책로와 음악 연주회, 다과와 여흥이 제공되었고 “도시와 거리, 공공 공간,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교 생활은 이 시기 여가의 상업화를 말해준다.<sup>104)</sup>

103) Tobias Georges Smollett(1771), *The Expedition of Humphry Clinker* (New York: The Century Co., 1904), p. 94, <https://archive.org/details/expeditionofhump00smoliala> (검색일: 2014년 1월 3일).

104) Porter(1994), p.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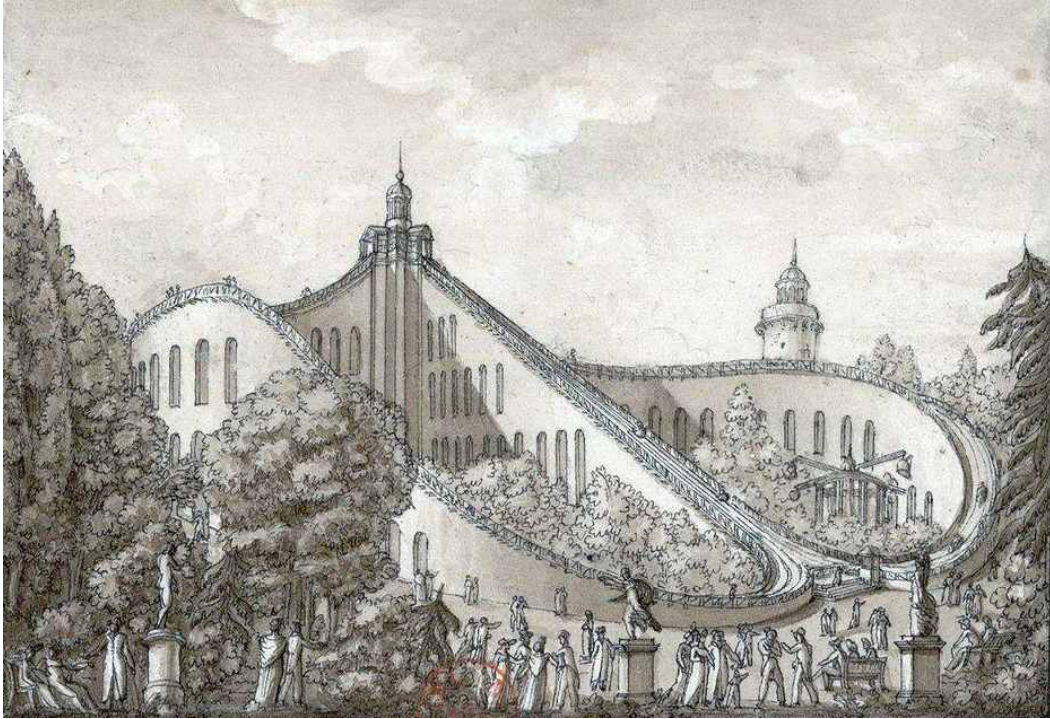




<도판 3-47> 카날레토, <런던: 래슬러의 로툰다 실내>, 1754, 캔버스에 유채, 47×75.6cm  
 자료: 런던 내셔널 갤러리

파리에도 이를 모방한 유료 위락 정원이 등장하여 화려한 스펙터클과 오락거리를 제공했다. 이탈리아의 티볼리 정원의 이름을 본뜬 티볼리(Tivoli) 정원에는 곳곳에 이용객들의 즐거움을 위한 작은 별장을 배치했고, 바위와 가짜 폐허를 조성해서 마치 시골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는 곧 파리 사교계의 유원지가 되었고 롤리코스터(montagnes russes)나 회전관람차(grande rue) 같은 놀이기구와 불꽃놀이가 도입되면서 더욱 더 인기를 끌었다(도판 3-48).<sup>105)</sup> 이 외에도 토레 (Jardins Torré, 1767), 뤼지에리(Ruggieri, 1769), 라슬라(Le Ranelagh, 1774), 보잘(Vauxhall, 1785), 폴리 부탱(Folie Boutin) 등이 파리 시내와 성벽 바깥에서 모두 성업했고, 이런 위락 정원은 이후 20세기의 테마파크의 원형이 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105) Gilbert-Antoine Langlois, *Folies, Tivolis et attractions: les premiers parcs de loisirs parisiens* (Paris: Délégation à l'Action Artistique de la Ville de Paris, 1991).



<도판 3-48> 시브통, <보종 정원의 롤러코스터>, 1829.

자료: 프랑스 국립도서관

위락 공원은 도시 내에서의 오락과 사교의 장으로서 큰 인기를 누렸고, 이는 레저의 상업화라는 측면에서는 근대 사회의 단면을 반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락 정원, 혹은 입장료를 낼 수 없는 계급이 주로 찾는 펍이나 페어(fair)에서의 방탕한 즐거움은 당대의 도덕주의자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도판 3-49).<sup>106)</sup> 이

106) 2-4주 동안 열리는 민중 축제인 페어(fair)도 한시적인 위락 정원의 역할을 했다. 피에로, 나팔수, 음악 연주, 천막극장, 밀랍 인형, 마술, 공중 곡예, 괴물이나 야생 동물, 유령의 집, 꼭두각시 인형, 관람차, 회전목마 등 온갖 종류의 흥행물이 집합한 페어에서 사람들은 여기서 먹고, 마시고, 도박하고, 싸우고, 입을 떡 벌리고 구경을 했다. 18세기까지 페어는 런던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환락의 장소였다. 점차 상류층이 기피하고 하층민들만 모이는 페어는 지배계급이 보기에 위험한 장소가 되었다. 페어가 불필요하고 심각한 부도덕의 원인이 되고, 주민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내용의 <대도시 페어법(Metropolitan Fairs Acts, 1871)>이 제정되는 등 시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19세기 전반 런던의 페어 대부분이 사라진다. 요시미 순야(吉見俊哉). 『博覽會の政治學』, 이태문 (역), 『박람회: 근대의 시선』 (서울: 논형, 2004), pp. 73-5; Porter(1994), pp. 207-8.





<도판 3-49> 호가스, <서더크 페어>, 1734.

자료: 영국박물관

호가스는 젊은 시절 서더크 페어를 즐겨 찾았고, 이를 동판화로 제작했다. 곡예사와 배우, 쇼맨, 악사, 권투 선수, 마술사 등의 인물들이 수많은 군중과 뒤섞여 있다.

에 대한 반명제로서 1833년의 공공보행로선정위원회의 보고서는 공원의 도덕적 순기능, 교화의 기능을 강조한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부자들과 부유한 중간 계급이 더욱 더 이기적이 되면서, 그리고 마을이 소도시로, 소도시가 붐비는 도시로 부풀어 오를 때까지 건물들이 ‘폭발하듯’ 솟아오르면서,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은 공개지(unenclosed lands)에서 쫓겨났다. 푸른 마을, 소도시, 도시의 젊은이들이 스포츠와 운동을 하곤 했던 들판과 오픈 스페이스에는 건물이 들어서거나 출입이 금지되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의 건강과 정신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고



건강에 유익한 휴식이 금지된 그들의 도덕은 유해한 즐거움(pernicious amusements)에 오염되었다. . . .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운을 북돋우고 신체가 활기를 띠게 할 자연의 수단을 금지하는 체계 또한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악화시킨다 . . . . 바로 지금이 정부가 소수의 재산만큼 다수의 복지와 행복을 염려해야 하는 때이다.<sup>107)</sup>

19세기 도시공원 조성에서는 노동자 계급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계급의 위안, 건강, 그리고 “순수한 즐거움(innocent amusement)”<sup>108)</sup>을 위한 공간의 확보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장료가 없어야 했는데, 아무리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이는 여러 이들의 여가 생활에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19세기 중후반 위락 정원들은 유행이 지나면서 인기를 잃고 쇠락하거나, 도시 개발 과정에서 철거되면서 점차 사라진다. 런던을 대표하는 위락 정원인 레슬러의 로튼다가 1805년 철거되었고, 이어 복스홀 정원도 1859년에 문을 닫았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크레몬 정원(Cremorne Gardens)도 1877년에 문을 닫았다. 쇠퇴한 위락 정원의 자리를 새로운 공원들이 차지했다. 우선, 기존 위락 정원에서 제공했던 여러 가지 여흥 중 춤과 음악만을 부각시킨 유흥 상업 시설이 등장했다. 카페-콩세르(Café-Concerts)와 뮤직홀(music-hall) 등은 성업했고, 다양한 계층의 고객을 끌어들였다. 다음으로는 노동자 계급이 밀집한 런던 동북부 해크니(Hackney)에 왕실의 파크를 개방한 빅토리아 공원(Victoria Park)이 조성되어 1854년에 개방되었고, 이어 배터시 공원(Battersea Park)이 1859년 문을 열었다.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공원이 건전한 여가 문화를 권장할 때,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상업화된 본격적인 위락 공원이 등장했다. 시든햄 공원(Sydenham

---

107) 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Walks(1834), p. 499.

108) 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Walks(1834), p. 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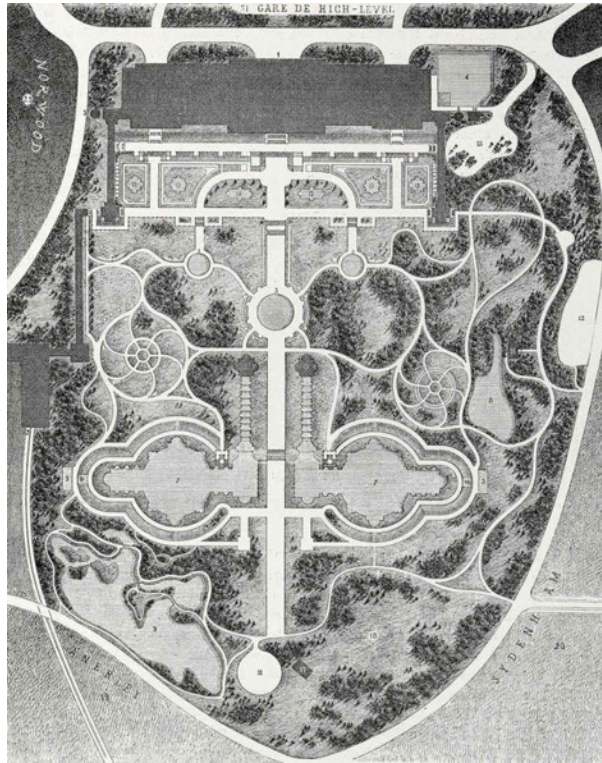


<도판 3-50> 하딩, <시든햄 파크의 수정궁과 공원 조감도>, 1854.

자료: Marshall, *City of Mud and Gold*, p. 234.

Park)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런던 만국박람회가 끝난 뒤 팩스턴은 하이드 파크에 있던 수정궁을 런던 외곽에 있는 시든햄으로 옮기고, 면적도 두 배 확대하여 베르사유를 능가하는 거대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했다(도판 3-50, 3-51). 수정궁 안에는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했고, 공원 내 뱃놀이 호수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실제 크기의 공룡들을 배치해 진화론이 등장한 당시의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했다. 이는 디즈니랜드로 대표되는 테마파크(theme park)의 원형으로 볼 수 있지만, 조성 당시에는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추구 이상을 목적으로 삼았다. 공원의 매입과 조성 과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안내서의 기록은 이를 반증한다.

1851년 만국박람회가 끝나가면서 대중의 관심은 박람회 건물의 운명에 쏠렸고, 국민의 취향 개선에 크게 기여한 건물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었다 . . . . 건물을 다른 유용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방안과 비용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열렸다 . . . . 위원들은 새로운 건축 양식의 훌륭한 최초의 사례인 건물이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답게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 . . 영국인들의 즐거움과 오락을 향상시키고, 특히 런던 시민



<도판 3-51> 시든햄 파크 일대의 도면

자료: Alphand, *Promenade de Paris (textes)*, p. XLIX.

들에게 건강에 좋은 시골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상한 예술작품과 교육적인 과학의 경이, 그리고 해롭고 천한 대도시의 오락의 비싸지 않은 대체물을 제공하고, 교육과 즐거움을 혼합하고, 견학시키고,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습관으로 이들의 취향을 촉진하고 정화시키고, 이들을 모든 나라와 모든 기후의 나무와 꽃, 식물들 속에 있기 해고, 가장 흥미로운 사례를 전시하고, 현대 기술의 업적과 기술 생산의 경이를 알려 자연 과학을 공부하도록 이끈다. 이런 것이, 이 국가적 사업을 처음 기획한 이들의 원래의 의도였다.<sup>109)</sup>

109) Samuel Phillips(1856), *Guide to the Crystal Palace and Park* (London: Crystal Palace Library and Bradbury and Evans. facsimile edition. London: Euston Grove Press, 2008), pp. 15-7.

공원 운영자들은 시든햄 파크의 목적이 새커리가 “엄청나게 더러운 것들(the Great Unwashed)”<sup>110)</sup>이라고 묘사한 노동자 계급을 교육시키고, 대중의 취향을 높여 산업 디자인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민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상업 시설임에도 대중의 계몽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 시설의 성격을 강조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sup>111)</sup>

---

110) William Makepeace Thackeray, *The History of Pendennis* (New York: Harper & Brothers, 1850), p. 298, <https://archive.org/details/historypendenni05thacgoog> (검색일: 2014년 1월 2일).

111) Nancy Rose Marshall, *City of Gold and Mud: Painting Victorian London* (New Haven, Conn.; London: Published for the Paul Mellon Centre for Studies in British Art by Yale University Press, 2012), pp. 233-4.

## 제 4장 근대적 발명품 도시공원

### 제 1절 공간적 구성과 특징

#### 1. 도시의 재구성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도시화의 물리적, 경제적 동인이 되었다면, 시민혁명은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성격을 규정했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공화정과 왕정을 오가는 정체의 혼란기 속에서 살아남은 귀족과, 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권력층이 된 부르주아가 뒤엎혀 19세기의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대두했다. 이들은 대도시라는 새로운 권력의 중심지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이를 과시하고, 또 이를 통해 다른 계급들과의 구분짓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시민민주주의사회에서의 구분짓기는 이전 봉건사회와는 다른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다. 취향의 문제가 등장했고, 예술에서는 다시 고전주의로 회귀하는 성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다양한 양식이 연이어 나타난 회화와 달리 건축에서는 신고전주의(Neo-Classicism) 양식이 19세기의 지배적인 양식이었다. 르네상스를 지나 17세기 바로크 시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전주의 건축 양식은 형식적으로는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을 두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절대주의 왕정의 강력한 권력을 은유한다. 1816년 미술 아카데미에 포함되면서 신고전주의 건축은 19세기의 지배적인 건축 양식으로 자리매김한다.<sup>1)</sup> 바로크 건축을 기본으로 하지만, 여러 다른 양식들을 장식 요소로 함께 사용하면서, 이른바 ‘보자르 건축’은 절충주의(eclecticism)적 성격을 띠게

---

1) 루이 14세가 설립한 왕립건축아카데미(Académie royale d'architecture)가 1816년에 회화와 건축 아카데미(Académie de peinture et de sculpture)와 음악 아카데미(Académie de musique)와 함께 예술 아카데미(Académie des Beaux-Arts)로 통합되었고, 1863년에 나폴레옹 3세의 칙령으로 다시 예술 학교(Ecole des Beaux-Arts)로 명칭이 바뀌었다.

된다. 기념비적인 요소가 강조되고, 국가의 지원을 독점하면서 이는 관학적인 양식으로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sup>2)</sup> 이런 보자르 양식이 오스만의 도시 개조를 통해 파리 전역에 나타났다.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크게 팽창하던 제 2제정 시기의 파리에선 공공서와 도서관, 박물관, 문서보관서, 재판소, 기차역, 학교, 병원 등의 공공건물이 세워졌다. 이 건물들은 현대성을 드러내기 위해 철골이나 유리 등의 새로운 건축 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외양은 고전적인 형상을 추구했고, 건물의 목적과 성격을 담아내고자 했다. 가령 재판소나 도서관, 박물관, 기차역 등의 공공건물에서는 현대 문명의 승리와 근대의 사원이 지녀야하는 장중함을 표현하기 위해 바로크 양식이 적용되었다(도판 4-1, 4-2). 한편, 시민적 성격을 강조하는 시청에는 초기 르네상스 양식이(도판 4-3, 4-4), 성당은 비잔틴이나 “조상들과 동일한 지형, 기후, 정신, 사회적 조건하에서는 당연히 선호해야 하는”<sup>3)</sup> 고딕 양식이 이용되었다. 또 한 건물에 여러 양식이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했다.<sup>4)</sup>

루이 나폴레옹은 쿠데타로 황제가 된 뒤 본격적으로 파리 시내를 개조 작업에 착수한다. 오스만은 파리 시내의 가로로 직선으로 개조하고, 이를 따라 높이와 크기, 파사드의 형태 등을 엄격하게 규정한 건물들이 나란히 들어섰다(도판 4-5). 마치 바로크 양식의 정원을 도시 전체에 도입한 듯한 오스만의 계획은 파리의 가로와 주택

2) Wojciech G. Lesnikowski, *Rationalism and Romanticism in Architecture*, 박순관, 이기민 (공역), 『합리주의와 낭만주의 건축』 (서울: 국제출판공사, 1986), p. 111. 한편 회화에서도 다비드(Jacques-Louis David)나 앵그르(Jean-Auguste-Dominique Ingres)의 신고전주의 화풍의 모방이 유행했다. 이들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들이 쓴 투구의 형태가 당시 프랑스 소방수(pompier)의 머리가리개와 비슷해 보이고, 과장된(pompreux)이라는 말을 연상시키기에 이들의 작품을 ‘퐁피에 회화(peintres pompiers)’라고 부르는 용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Ross King, *The Judgement of Paris: Manet, Meissonier and Artistic Revolution*, 황주영 (역), 『파리의 심판』 (서울: 다빈치, 2008), pp. 391-2.

3) Rabinow(1995), p. 72.

4) Nicole Tuffelli, *L'Art au XIXe siècle*, 김동윤, 손주경 (공역), 『19세기 미술』 (서울: 생각의 나무, 2006), pp. 145-57.





<도판 4-1> 파리 북역(Gare du Nord)의 외관  
자료: 황주영(2013)



<도판 4-2> 파리 북역의 내부  
자료: 황주영(2013)





<도판 4-3> 파리 시청(파리코뮌 때 소실 된 것을 복원)  
자료: 황주영(2013)



<도판 4-4> 파리 20구 구청(제 2제정기 새로 파리에 병합된 지역)  
자료: 황주영(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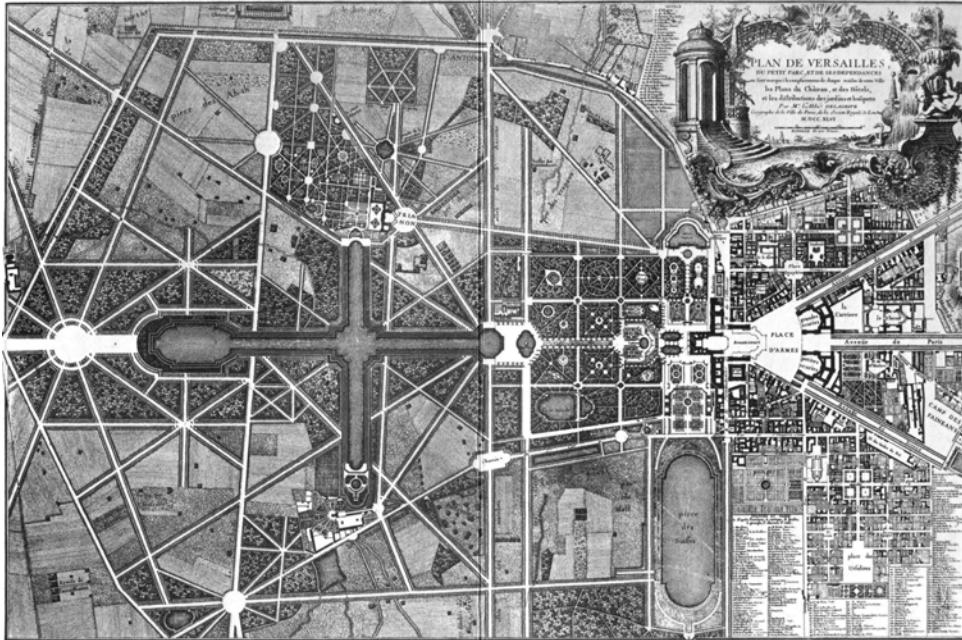
<도판 4-5> 아브뉴 오페라  
자료: 황주영(2013)

을 하나의 장대한 스펙터클로 조직하여, 파리 전체를 제 2제정의 거대한 기념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도판 4-6, 4-7).<sup>5)</sup> 오스만의 계획 하에 진행된 도심 개조 계획 하에 파리는 바로크적 형태로 통일된 개념 하에 재구성되어 근대 도시의 외양을 갖추게 되었다.<sup>6)</sup> 기존의 이 건물과 토지의 주인들은 이러한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었

5) Bernard Marchand, *Paris, histoire d'une ville: XIXe-XXe siècle* (Paris: Seuil, 1993), p. 75-9; Matthew Truesdell, *Spectacular Politics: Louis-Napoleon Bonaparte and the Fête Impériale, 1849-187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 88.

6) 한편 쇼에는 오스만의 파리 도심 정비가 일견 신고전주의적으로 보이지만, 도시 전체를 포괄하는 거대한 규모, 바로크 오더와 상충하는 지나치리만큼 엄격한 규칙성과 통일성, 개별 기





<도판 4-6> 들라그리브, <베르사유 정원의 도면>, 1746.

자료: <http://commons.wikimedia.org>



<도판 4-7> 파리 개선문 일대의 항공사진

자료: Google earth(2013)

고, 건물들은 대부분 임대주택(maison à loyer)이었다. 가로를 따라 나란히 들어선 건물들의 외양은 통일되었고, 이곳은 사회의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한 부르주아들의 거주지가 되었다.

절대왕정 시기 이래 수도 파리를 중심으로 발달한 프랑스와 달리, 영국은 시골과 도시 생활을 모두 중시했다. 영국의 권력층은 시골에 넓은 영지를 보유하고, 이곳에서 지대를 주 수입원으로 삼았다. 영국의 전형적인 귀족 주택인 컨트리 하우스(Country House)는 단순히 시골에 세워진 저택이 아니었고, 자신의 영지가 속한 지역에서의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다.<sup>7)</sup> 중앙에 진출하고자 하는 귀족들은 의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런던에 머물며 사교활동을 해야 했다.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이들은 국회의사당이 있는 웨스트민스터에서 멀지 않은 템즈 강변에 빌라를 짓고, 교외 생활을 누렸다. 혹은 지방에서처럼 커다란 저택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독립적이면서도 신분을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는 주거 양식인 타운하우스(Town House)가 17세기에 런던 시내에 지어졌다. 각기 독립된 수 십호의 집이 모여 있지만 파사드를 단일하게 만들어 마치 하나의 대저택처럼 보인다. 이러한 독특한 주택 양식은 산업혁명을 거치며 중산층과 서민 계급의 주택 양식으로 확산되었고, 테라스 하우스(terraced house)라고 불렸다(도판 4-8). 3장에서 전술되었듯 이런 주택단지는 대개 스퀘어를 공유했고, 이곳은 공공의 장소가 아니라 열쇠가 있는 주민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설계의 물리적 특징은 공간으로의 출입과 내부에서의 활동 등을 제약하고, 일정

---

념물의 강조, 그리고 도시공원을 미적·위생적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 등에서는 신고전주의와 분리된다는 평가를 내렸다. Françoise Choay, “pensées sur la ville, arts de la ville,” in *Histoire de la France urbaine, tome 4. La Ville de l’âge industriel: le cycle haussmannien*, Georges Duby (ed.), (Paris: Seuil, 1980-1985), pp. 197-8.

7) Mark Girouard, *Life in the English Country House: A Social and Architectural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8), pp. 5-8.



<도판 4-8> 내쉬, 런던 <파크 크레센트>, 1819-21.

자료: 황주영(2013)

리젠트 파크에 인접한 곳에 세워진 전형적인 19세기 초반의 테라스 하우스이다. 코니스와 난간, 기둥의 연속성을 통해 각각의 주택은 하나의 단일한 건물처럼 보인다. 건물과 리젠트 파크 사이에 있는 <파크 크레센트 정원(Park Crescent Gardens)>과 <크레센트 정원(Crescent Gardens)>은 건물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개인 정원이다.

한 방향성을 부여한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은 그 안에서의 행태와 관계를 규정했다. 19세기의 도시공원이 양식은 단순한 보기 즐거운 장소로 조성된 것이 아니었고, 이러한 형태는 공원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는 기준이 되었다.

사회적 단위 내지 사람들을 통합하는 형식은 공간적 배치의 특정한 유형으로 특징지어진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언제나 서로 연관된 사람들의 단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의 본질이 오직 공간적 범주에 의해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공간적 범주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공존(being together)’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간적 배치가 있고, 이를 통해 연계되어할 사람들은 실제로 연계되거나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

8) Norbert Elias, *Höfische Gesellschaft*, Edmund Jephcott (trans.), *The Court Society* (Oxford:

공간 배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제약하거나 형성하고 규정한다. 또 이것이 개인의 일상 속에 자리매김함으로써, 개인은 공간 배치가 요구하는 근대인이 된다. 풍경화식 정원을 양식을 주로 취한 19세기 대도시의 도시 공원은 당시 도시에 나타난, 중심축을 기준으로 확장되는 바로크 양식의 웅대함과 대비를 이룬다.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선과 요소마다 발견되는 다양한 요소, 중심 없는 설계는 만민이 평등한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이상을 반영한다. 또한 이 시기 공원의 형태는 18세기의 풍경화식 정원 양식을 계승하는 동시에, 개념에서 분리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일찍이 1816년 랩턴의 글에 나타난다.

나는 풍경(landscape)과 정원술(gardening)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에 응했지만, 이 둘은 마치 그림과 액자처럼 구분되는 대상이다. 풍경이라 불리는 자연의 경치, 그리고 정원의 경치는 그 용도처럼 다른 것이다. 하나는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편안함과 심심풀이를 위한 것이다. 하나는 야생의 것이고, 자연의 가장 거친 상태에 있는 동물에게 순응할 것인데, 다른 하나는 고도로 문명화되고 세련된 사람에게 적합하다.<sup>9)</sup>

경관(풍경)과 정원의 개념이 분리된 것은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근대적 시설로서의 기능 때문이다. 19세기에 발생한 도시문제에 대한 대안, 해결책으로 발명된 도시공원은 ‘녹색의 허파’로서 기능하고, 환경과 위생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되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풍경화+정원에서 시작한 18세기의 경관(landscape) 개념은 해체되었다.

---

Blackwell, 1983), p. 43.

- 9) H. Repton, *Fragments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Landscape Gardening* (1st ed. 1816; reprinted New York and London, 1982), p. 141, Alexandra Ponte, “Public Parks in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From a ‘Spirit of the Place’ to a ‘Spirit of Civilization,’” in *The History of Garden Design: The Western Tradition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Day*, Monique Mosser and Georges Teyssot(eds.) (London: Thames and Hudson, 1991), p. 376에서 재인용.



19세기에 도시공원은 단순한 즐거움의 공간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었다.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며 발생한 대도시와 그 곳에서의 발생한 제 문제와의 관련 속에서 발명된 근대적 시설의 하나이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근대적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도시 내의 자연으로서의 공원, 이를 둘러싼 사회와 문화, 경제 등의 문제와 그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19세기 도시 공원에 내재한 모더니티를 추출할 수 있다.

## 2. 규율의 투영과 여가의 발산

19세기 유럽에서 급격한 속도로 진행된 근대화는 다양한 분야에 자취를 남겼고,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인류의 진보의 속도를 바꾸었고, 근대적 사회를 형성해나갔다. 산업혁명 이후의 급속한 도시화의 후유증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여러 시설 중 하나인 ‘도시공원’은 조경의 방향을 크게 바꾸었다.

공원의 형태와 위치, 시설에 반영된 모더니티는 물리적, 기술적 양상, 공원을 조성한 시스템, 공원을 이용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 공원은 당시 대도시의 실질적 권력을 부상한 부르주아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근대사회의 일반시민을 형성한 부르주아 중산층과 노동자 계급은 모두 도시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sup>10)</sup> 하지만 실제의 이용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여가 이용의 차이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난다.

부르주아 중산층은 19세기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였다. 과거에는

---

10) 산업혁명 초기 공장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평균 12시간에 달했지만, 1830년대 이래 단축되었다. 1847년 10시간 노동법이 통과되었고, 1880년에는 8시간 노동운동(토요일에는 4시간)이 시작되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19세기 노동계층의 여가소비가 가능해졌다.

일부 부르주아 특권층에게만 전유되었던 문화들, 예를 들면 음악이나 회화, 연극 등은 19세기에 중산층 시민들의 소비대상이 되었다. 19세기 도시의 중산층 가정들은 피아노 연주를 교양 필수로 여겼으며, 소인극, 아마추어 연극, 당구, 가든파티, 바자회, 스포츠인 크로켓과 테니스도 이들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다. 또한 이들은 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책과 지식의 소비계층이었고, 철도를 이용해 휴가를 다녀오는 계층이기도 했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자 계급은 19세기 중반까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할 여유가 없었다. 산업혁명을 통한 공장제 기계공업은 이들 계층의 노동시간을 최대한 연장시켰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가정생활이나 건강 자체가 붕괴될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여지는 거의 없었다. 1870년대에 이르면서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과 자본가들의 자각으로 인해 이들에게 능동적인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활동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sup>11)</sup>

산업혁명기의 공장제 생산 체계는 자연의 시간이 아니라 규격화된 인간의 시간에 통제를 받는다. 전근대사회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노동과 여가는 근대사회에서는 분리되기 시작한다. 정해진 시간 동안에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집단 노동에서는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척도로 업적이 평가되었고, 이런 노동에 대한 반명제로서의 여가가 나타난다. 점차 노동일과 휴일이 엄격하게 분리되면서, 휴일의 활동이 논의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한 주일간의 노동 후의 휴식의 장으로서의 공원에서의 활동이 권장되었고, 모든 계층이 신분에 상관없이 어울리는 장으로 예찬 받았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은 이와 달랐다. 계급 구조와 사회적 공간이 복잡하게 뒤얽힌 19세기의 도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역의 구분이 존재했고, 부르주아들은 노동계급이 등의 위험한 “타자”와 만나기를 원치 않았다.<sup>12)</sup> 부르주아가 공원을 이용하는 요일과 시간은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주중의 오후였고, 일요일은 노동자들의 날이었다. 즉, 시간

11) 김문환 외, 『19세기 문화의 상품화와 물신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p. 20-27.

12) Harvey(2005), p. 392.

의 통제를 통해 공간을 지배하는 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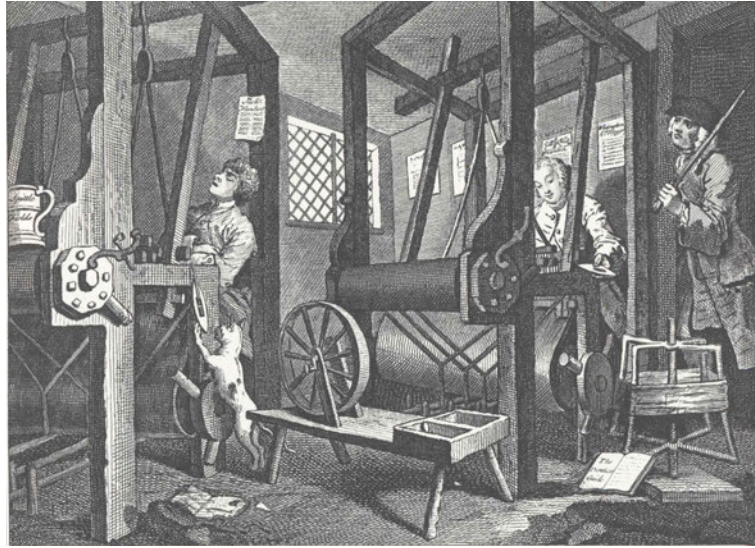
영국에서도 빅토리아조의 유례 없는 번영으로 얻은 물질적 안락과 안전함은 부르주아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했고, 이는 가정생활 뿐 아니라 여가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sup>13)</sup> 스마일즈(Samuel Smiles)의 『자조론(Self-Help, 1859)』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는 부르주아의 덕목으로 자리 잡았다. 중간계급 출신 지식인들은 자기 계급의 부의 축적과 성공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사회 문제가 사회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야 했고, 이를 대표하는 생활 윤리로 자조를 부각했다.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나 “게으른 마음은 악마의 작업장이다(Idle mind is a devil’s workshop)” 등의 속담은 당대 중간계급의 가치관을 반영한다(도판 4-9, 4-10).

또한 이들은 19세기 전반에 주요 산업도시에 설립된 기술강습소(Mechanics Institute)를 통해 장인층과 노동자들에게 과학지식을 전수하고, 도덕적, 정신적 교육을 병행하여 이들의 자조를 후원했다. 시간 엄수, 경건함, 종교적 준수 등도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노동자들의 정신적, 도덕적 진보를 고양한다는 미명 하에 행해진 중간계급의 노력은 대부분 본질적으로는 노동계급이 새로운 산업 사회에 더 완벽하게 동화하고 그 가치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시도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sup>14)</sup>

---

13) 여우사냥 같은 전통적인 스포츠가 여전히 인기를 끌었고, 승마, 사격, 낚시도 널리 유행했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구기종목이 보급되었고, 크리켓과 축구, 골프, 하키, 테니스 등이 빅토리아 시대의 중산층에게 인기 있었다. 반면, 19세기 초까지 유행했던 대중 스포츠인 황소 달리기(bull-running), 곰 사냥(bear-baiting), 닭싸움(cock-fighting) 등의 이른바 ‘블러디 스포츠(bloody sport)’라 불리는 잔인한 노름이 <동물학대금지법>과 <공공도로법>의 제정으로 금지되었고, 권투는 서로를 망가뜨리는 과격함을 과시하는 스포츠에서 기술과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14) 이영석, 『(역사가가 그린) 근대의 풍경』 (서울: 푸른역사, 2003), p. 117.



<도판 4-9> 호가스, <근면과 태만> 연작 중 1번째 <베를 짜는 동료 도제들>, 1747.

자료: <http://en.wikipedia.org>



<도판 4-10> 호가스, <근면과 태만> 연작 중 12번째 <런던 시장이 된 도제>, 1747.

자료: <http://en.wikipedia.org>

근면한 도제와 태만한 도제의 인생행로를 각 6장의 동판화로 묘사했다. 착실히 저축을 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공장 주인의 인정을 받은 근면한 도제는 공장 주인의 딸과 결혼하고, 중산계급으로 올라가고, 자선 사업에 기부금도 내고,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고, 마지막에는 런던 시장으로 추대된다. 반면 기계 앞에서 즐기만 하던 태만한 도제는 술과 노름에 빠져 전당포에 드나들다 결국 범죄를 저질러 섬으로 귀양을 가고, 중범죄자가 되어 교수형을 받는다.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호가스의 동판화에 나타난 근면한 도제의 성공에는 검약과 절제라는 프로테스탄트의 생활윤리가 투영되었고, 이 시기부터 형성되어온 자본주의 노동체제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보잘 것 없는 계급의 즐거움을 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범 하의) 야외 공간이 그들을 저열하고 천박한 쾌락을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술집과 투견, 권투 시합에 대한 항의가 있었지만, 노동자들에게 다른 레크리에이션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 한,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된다. 가끔의 휴식이 주는 근로 의지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만큼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필수적이다 . . . . 쉬는 날 신선한 공기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 고상한 안락함을 누리며 산책을 할 수 있는 것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최우선적으로 중요함은 분명하다. 이런 자원이 없다면, (수많은 보잘 것 없는 계급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좁은 안뜰과 골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술집일 텐데, 그곳에서의 짧은 즐거움으로 노동의 고단함은 잊겠지만, 그들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단을 낭비하고 종종 건강도 망가뜨릴 것이다.<sup>15)</sup>

공원에서 가족이 함께 건전한 여가를 즐기는 모습은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로 예찬 받았다(도판 4-11).<sup>16)</sup> 19세기 영국에서는 멜로드라마나 합창, 시와 문학 등이 권장되는 여가였고, 1870년대에는 공원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이상적인 가족상’을 추구하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부르주아 관습이 영향을 미쳤고, 왕실도 이를 권장했다.<sup>17)</sup> 공원은 “노동자들의 성당”<sup>18)</sup>인 선술집이나 교외의 위락 정원 등지에서 ‘불건전하게’ 휴일을 보내는 것에 대한 대안적인 장소로 권장되었다. 이상적인 가정을 예찬하는 부르주아적 가치가 파급되면서 노동자 계급을 대상

15) 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Walks(1834), p.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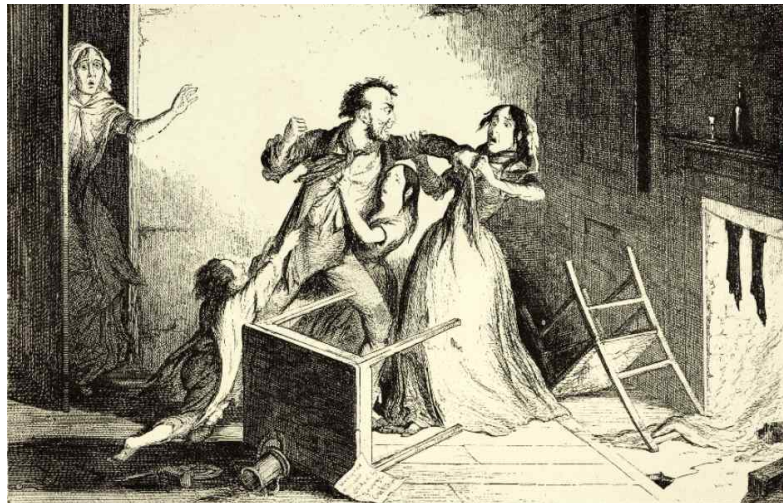
16) 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Walks(1834), p. 501.

17) 빅토리아 여왕은 불과 18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당대의 사회적 관습과 기준을 공유했고, 프로테스탄트 신앙심과 가족 중시 풍조, 빈민에 대한 인류애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여왕은 왕실의 전통과 새롭게 변화하는 세계를 조화시키는데 성공했다. 가족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에서 왕실의 공식행사의 모습뿐 아니라, 일상적인 가족생활의 소탈한 모습(부부의 모습,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모습 등)을 담아 ‘가족적 가치’를 강조하고 (삼대가 사는 대가족, 미혼의 자녀, 다양한 연령대의 미혼 고모와 삼촌이 있는) ‘이상적인 가족(ideal family)’상을 제시한다. 19세기에 가족은 사회적 안전과 책임감, 엔터테인먼트,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18) Jean-Claude Yon, *Le Second Empire: politique, société, culture*, 2<sup>nd</sup> edition (Paris: Armand Colin, 2012), p. 121.



<도판 4-11> 하비, <런던 그린 파크 풍경>, 1830  
 자료: Lawrence, *City Trees*, p. 219.



<도판 4-12> 크뤼크생크, <술병> 연작 중 6번째 <무시무시한 싸움과 거친 폭력은 잦은 음주의 당연한 결과>, 1847-8.  
 자료: George Cruikshank, *The Bottle and the Drunkard's Children*.  
 남편이 아내에게 술을 권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가정이 끔찍하게 몰락하는 모습이 이어진다. 알코올중독자의 불행한 가정과 절제할 줄 아는 노동자의 행복한 가정을 비교하는 것은 금주운동 강연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으로 한 금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도판 4-12). 이미 18세기 초의 ‘진 유행병(Gin Craze)’을 통해 음주에 의한 사회 문제를 경험한 영국에서는 음주를 “현대의 역병(modern plague)”로 규정한 전국금주연합(National Temperance League)이 183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금주 운동을 전개했다.<sup>19)</sup> 하지만 이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는데, 술집은 노동자 등의 일반 민중이 가혹한 노동 조건 하에서 최소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다.<sup>20)</sup> 게다가 안락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는 중산 계급과 달리, 노동자들은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도 좁고 붐비는 누옥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저렴하고 손쉽게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펍은 노동자들의 가장 대중적인 여가였다.<sup>21)</sup>

이 시기 도시공원의 기능 중 중요한 것으로 ‘공중도덕’의 함양을 통해 노동자 계급을 교화하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입장이 배제되었던 노동자 계급 등이 대중에게 개방되는 공원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규칙과 규범이 공중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습적인 것이기는 했지만, 명문화되어 공원의 입구에 게시되기도 했다. 이런 규칙들은 공원을 이용하는 이들이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지시한다(도판 4-13).

공원 입구에 명기된 규칙들은 대개 공원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들의 예를 나열한 것으로서, 교양 있고 계몽된 시민이 공공장소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칙들이었다. 가령 도시공원 내에서는 술을 마신다거나, 정치적인 활동, 매춘, 단정하지 못한

19) 전국금주연합은 런던 시내의 펍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작성했고, 사회개혁자 웹(Sydney Webb)은 지도 위에 밀집한 붉은 점들을 보고 “이는 런던의 성홍열이다!”라고 개탄한바 있다. 1870년대 런던에는 약 7,000개의 펍이 있었고, 대부분 노동자 계층이 밀집한 이스트엔드와 시내 중심부에 밀집했다. Felix Barker and Peter Jackson, *The History of London in Maps*, London: Barrie & Jenkins Ltd, 1990), p. 141.

20) 박재환, 김문겸(1997), pp. 3-4.

21) Karl Ittmann, *Works, Gender and Family in Victorian Englan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p. 127.



<도판 4-13> 파리 시가 관할하는 정원과 공원, 숲의 입구에 설치된 <볼로뉴 숲과 뱅센느 숲을 포함한 파리 시 소유의 정원  
와 숲의 일반적인 규칙> 안내판  
자료: 황주영(2013, 파리 몽수리 공원).

복장 등이 금지되었다.<sup>22)</sup> 일례로 맨체스터에서는 공원위원회(Public Parks Committee)가 제정한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작성되었다.

1. 이 공원은 일출부터 일몰 후 한 시간 이내까지 개장된다. 폐문 시간은 매주 공지될 것이다.

---

22) 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Walks(1834), p. 501.

2. 폐문 15분전에 종이 울리고, 폐문 시 다시 한 번 울릴 것이다.
3. 만취 상태의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
4. 모든 도박과 부적절한 언어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경기와 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5. 일요일 미사 시간 동안에는 다과 판매실의 문을 닫는다.
6. 개는 들어올 수 없다.
7. 남성은 여성들의 놀이터를 침입할 수 없다.

주의: 모든 공원의 직원은 순경이고, 질서를 지키도록 교육받았으며, 상기 규칙을 엄격하게 집행한다.<sup>23)</sup>

도시공원은 근대 도시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절과 덕목을 훈련하는 장으로서 교육과 교화의 장이 되기도 했다. 더욱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 군데에 있게 되면서, 노동자 계급 등의 하층 시민들이 상류층과 부르주아의 품행을 보고 자연스럽게 품위 있는 행동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초기 공원에서 추구한 목표 중 하나였다.

영국인들은 대륙의 사람들보다 [공원에서] 더 파괴적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아마도 대륙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모든 공공장소에서 신뢰받았고, 이러한 특권을 존중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돈으로 입장권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는 어디에서라도 거의 신뢰받지 못했고, 그 결과 사소한 장난을 치고 싶은 충동을 참는, 보다 멋진 기분을 느낄 기회를 얻지 못했다. 보다 큰 특전을 주는 것이 이들이 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훈련시키는 적절한 방법이다 . . . . 다른 계급의 이웃들 사이에서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싶어지고, 그의 아내와 아이도 그래야 한다고 하고 싶어진다.<sup>24)</sup>

23) Manchester Borough Council Proceedings, 18 September 1846, p. 223, Hazel Conway, "The Manchester/Salford Parks: Their design and development," *The Journal of Garden History*, 5(3): 1985, p. 244에서 재인용.

24) 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Walks(1834), pp. 503, 8.

체화된 공중도덕의 사례는 몽소 공원의 개장 시기의 기록을 통해 반증된다. 제 2 제정 당시의 파리의 녹지 공간의 발전을 상찬한 로빈슨은 스퀘어가 노동자 계급을 포함한 일반 대중의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다.

정원을 만든다는 생각이 런던에서나 실현 가능하지, 주민들이 너무나 격렬하고 혁명적이라 곧 나무를 쓰러뜨리고, 꽃을 꺾고, 식물을 뿌리째 뽑아버릴 파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경험상 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이다. 몽소 공원이 개장할 때 모든 문이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산책로를 가득 메운 5만 명의 사람에 대한 감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잔디로 된 경계가 짓밟혀 입은 35실링 정도가 그날의 손실의 전부였다. 이는 결정적인 사실이다. 게다가, 오래전부터 스퀘어는 개방되어 왔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객들은 훌륭하게도 질서 정연하고 품위 있게 행동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네 집에 있음을, 즉 이 정원이 그들을 위해 조성되었고, 꽃을 뽑는 것은 자신들의 재산을 망가뜨리는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유쾌한 휴식 장소를 제공한 이들에게 공손하게 감사를 표했다. 파리의 공공 스퀘어 조성은 탁월한 사회적 방안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체력을 키워 사람을 재생시키고, 야외 운동으로 사람들의 도덕을 개선하고, 노동자가 불결한 술집 대신 유쾌한 산책과 즐거운 휴식처를 찾게 하고, 이웃에게 좋고 유용해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수용하는 우리의 마음을 입증한다.<sup>25)</sup>

이는 공원의 이용자들이 “다수의 복리를 위해 준수하는 도덕”이라는 공중도덕의 사전적 의미를 준수하는 문명사회의 양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서 공원을 찾는 이들은 공간의 주체인 동시에 객체가 된다. 일례로 초기 공원의 중요한 가치 중 하

---

25) Robinson(1878), pp. 119-20.

나인 ‘보고 보이는’ 행위는 사교에서 매우 중요했지만, 시선의 정치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작동했다. 이를 통해 체화된 규범은 근대 사회의 시민들을 규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공원에 있는 동안 준수해야 하는 규칙들은 공원을 찾는 이들을 문명화된 시민으로 훈련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객체가 되는 경험은 이 시기 새로이 나타난다.<sup>26)</sup> 푸코의 지적처럼 19세기에 새로 등장한 수용소와 감옥, 병원 등은 관찰-시선을 통해 주체로서의 인간을 객체로 바꾸는 장치가 되었고,<sup>27)</sup> 도시공원에서의 교화도 이러한 성격을 띤다. 즉 도시공원을 포함한 근대 사회의 제도와 시설은 푸코의 용어를 빌면 ‘규율사회(société disciplinaire)’의 장치이다. 근대 사회의 권력은 정부 뿐 아니라 이런 시설을 통해 사회 전반에 침투하고, 개개인은 이를 내면화하고 지배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정신적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더욱이 감시하는 자와 감시당하는 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수용소나 감옥, 병원 등의 근대적 시설과 달리, 공원은 개방된 공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암묵적으로 감시하는 더욱 복합적이고 미묘한 성격을 띤다. 자유로우나 자유롭지 못한 역설적 상황에서 규율과 공중도덕은 서로를 관찰하고 감시하는 준거가 된다. 권력이 누군가에게 부여된 역량이 아니라 “어느 주어진 사회의 복합적 전략적·상황에 부여된 이름”<sup>28)</sup>이라면, 도시공원은 이러한 상황의 한 면을 구성하는 기제였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도시공원의 조성 및 발달 과정,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일상적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공원으로 대표되는 가공된 자연(engineered nature)은 또한 하나의 스펙터클

26) Tony Bennett, *The Birth of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 (London: Routledge, 1995), pp. 59-63.

27) Michel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서울: 나남, 2004).

28) Michel Foucault, *Histoire de la sexualité Tome 1. La volonté de savoir*,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과주: 나남, 2013), p. 102.

이었다. 19세기 초 산업의 발달과 시민사회의 형성, 그리고 도시화를 통해 도시 인구가 급증했고, 19세기 전반기의 “혁명하는 군중”은 이제 “소비하는 대중”이 되었다.<sup>29)</sup> 급변하는 도시의 환경 속에서 대중이 향유하는 오락거리인 신문, 잡지, 카페, 대규모 공연장, 박물관 등이 생겨났고 대중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상업적 소비의 공간이었고, 쉽게 접근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 공원은 누가 무엇을 소비하는 공간이었는가?

도시의 삶에서 유래하는 욕구를 채우는 문화 산물은 변변치 않은 연료, 절망적인 임시변통에 불과한 무엇일 수밖에 없다. 즉 이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여가에 바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쉽게 구하고 빨리 읽히며 쉽게 향유되는 단조롭지 않은 소규모의 열정을 자극하는 산물들이 필요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집중보다는 오락과 긴장 해소가 요긴하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는 산물이 필요하게 된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정신의 즐거움이 그들의 삶의 주요한 매력을 이룬다고 생각지 않으며, 단지 삶의 진지한 노동의 한복판에서 일시적이며 필요한 기분전환이 필요할 뿐이다.<sup>30)</sup>

대중소비문화의 사회에서의 도시공원은 우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신분과 계급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시공원은 대중문화의 하나이자, 이전 시대의 결핍되었던 노동자 계층의 여가 활용으로 권장할만한 방식이 되었다(도판 4-14). 이는 박람회나 백화점처럼 소비의 대상이자 볼거리는 아니었고, 박물관처럼 교양과 지식을 습득하는 장도 아니었다. 하지만 도시의 공원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19세기의 대도시 속에서 자연의 ‘스펙터클’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도시공원은 ‘잃어버린 낙원’의 이미지를 도심 속에 재현했고, 이는 과거에는

---

29) 요시미 순야(2004), p. 295.

30) 김문환 외(1998), pp. 23-4.





<도판 4-14> 리치, <하이드파크의 어느 여름날>, 1858.  
자료: 런던미술관.



<도판 4-15> 마네, <튀르리 정원의 음악회>, 1862.  
자료: 런던 내셔널 갤러리.

경험할 수 없던 스펙터클이었다. 공원에서 벌어지는 박람회나 음악회 등의 대중문화 행사는 이런 특성을 더욱 강화했고,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지속되었다.

19세기 후반 파리의 공원에서는 대중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취향이 고상한 사교계의 중요한 부분인”<sup>31)</sup> 툴리리 정원의 오후 음악회를 주제로 하는 마네의 <툴리리 정원의 음악회(La musique aux Tuileries, 1862)>에서 볼 수 있듯 “오케스트라가 밤을 뚫고 축제와 승리, 혹은 쾌락의 노래를 발산하는”<sup>32)</sup> 공원 음악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행사였다(그림 4-15).

중중 우리의 정원을 가득 채우는 병사들의  
금관악기의 풍성한 연주를 듣기 위해.  
이는 사람들이 기운이 되살아나는 금빛의 저녁 속에서  
시민들의 마음속에 어떤 영웅심을 부어넣었다.<sup>33)</sup>

기존의 음악 공연이 소수의 귀족과 왕족 등의 지배층들이 개인적인 공간에 모이는 사교행사였다면, 19세기 대중사회에서는 보다 대중화, 보편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보들레르의 작품에서는 공원에 모인 군중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마침내 오후가 되어 멋진 가을 하늘, 회한과 추억이 물려드는 그런 하늘  
아래 그녀[미망인]는 공원 한쪽에 외따로 자리를 잡았다. 대중과는 멀리 떨어져  
저 파리 사람들을 위한 군악대의 자선 음악회를 듣기 위해서.<sup>34)</sup>

---

31) Delvau(1867), pp. 32, 40.

32) Charles Baudelaire, “Les Veuves,” in *Oeuvres Complètes I* (Paris: Gallimard, 1975), p. 293.

33) Baudelaire, “Les Petites Vieilles,” in *Oeuvres Complètes I* (Paris: Gallimard, 1975), p. 91.

34) Baudelaire, “Les Veuves,” in *Oeuvres Complètes I* (Paris: Gallimard, 1975), p. 293.

한편 영국에서 왕실 공원을 일반 대중에 개방한 것을 시민혁명기 이후 왕실의 정치적 권한이 축소되는 현상을 드러내는 사례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근대초기 절대주의 왕정 하에서 유럽의 각 왕실은 웅장한 왕궁과 상징물, 의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엄을 강조했다. 하지만 영국은 명예혁명(1688) 이후 제정된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 왕권의 남용이 견제되었고, 의회정부로 권력이 이동했다. 1832년의 선거법 개혁을 통해 중간계급이 중앙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의민주제가 시작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기존의 전제적 군주가 상징적인 입헌군주가 됨을 말한다. 하지만 19세기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왕실의 전통과 의례가 새롭게 ‘발명’된 시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빅토리아 여왕은 대외적으로는 전 유럽을 관통하던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에 반대했고, 정당정치가 약화된 시기를 틈타 보수주의적인 내각을 성립시키고자 했다. 이 시기 왕실 이미지가 강화되었고, 왕실은 당시 등장한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왕실 의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면서 군주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했다. 특히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황제에 즉위한 1877년 전후로 오래된 의식을 새롭게 각색하거나 새로운 의례가 창출되기 시작했다.

전통이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복고적인 문화로, 기본적으로 특정한 시대 사람들의 이해와 열망에 따라 나타난 것이며, 역사적 과거와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새로운 의례와 상징을 포함한다. 전통은 과거보다 현재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sup>35)</sup>

왕실의 정치적 권력이 축소되던 시기에 오히려 왕실의 권위와 왕실 전통이 발전한 것은 역설적이기도 하지만, 보수당의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 정부는 군주

---

35) 이영석(2003), p. 32.

로서의 여왕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했다. 1887년의 여왕 즉위 50주년(golden jubilee) 기념행사는 왕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기념행사 중 글래스고(Glasgow)나 솔즈버리(Salisbury) 등 각지에 여왕의 이름을 딴 ‘빅토리아 공원(Victoria Park)’이 개장하고 기념비나 교각, 문 등이 세워진 일이 본 논문과 관련해 가장 의미 있다. 이미 1830년대 바스(Bath)의 로열 크레센트(Royal Crescent)에 당시 공주였던 빅토리아의 이름이 붙여진 공원이 최초로 조성되었고, 1842-5년에 런던 동북부의 노동자 밀집 지역에도 왕실 파크를 개방한 빅토리아 공원이 조성되었다. 이는 시민 주권이 성장하던 시기의 대도시에서 군주의 영광을 도시공원에 접목시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입헌 군주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정치적 기술이었다.

## 제 2절 자연의 스펙터클로서의 도시공원

### 1. 가공된 자연

#### (1) 자연의 재현

19세기 대도시에서 공원은 도시라는 인공 환경 속에 ‘자연’을 다시 도입하고자 한 시도였다.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 또 광범위하여 오히려 이것이 그 뜻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서양 철학사에서 ‘자연’이라는 말은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자연은 우주의 조직에 존재하고, 스피노자에 의하면 개별 존재에 존재한다. 이런 자연은 우연을 거부하고, 결정론(determinism)을 낳는다. 다른 한편으로 창세기부터 루소(Jean-Jacques Rousseau)에 이르는 자연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전달되는 난폭한 질료처럼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자연은 문화와도 대비된다. 인간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념을 부여하고, 심지어 자신의 본성(nature)도 바꾸어 낸다.

오늘날 자연은 인간에 의해 변화한 것이든 아니든 생태계의 집합을 지칭하는 총칭적인 용어가 되었다. 이러한 정의에서부터 자연의 두 가지 형태인 ‘야생의 자연(savage nature)’과 ‘순치된 자연(domesticated nature)’이 구분된다. 길들여진 자연은 야생의 자연과는 반대로 인간이 개입한 자연 요소의 집합을 포함한다. 길들여진 자연은 의도적이고 인간화되었다. 이는 경작된 땅이나 공공 정원, 길들여진 동물처럼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든 있다. 르네상스 시기 정원 이론이 발달하면서 길들여진 자연에 대한 논의가 더욱 더 정교해진다. 이들은 정원을 기술과 자연이 결합된 ‘제 3의 자연’으로 불렀고,<sup>36)</sup> 이러한 명칭은 당시의 정원이나 원예 기술과 관련된 문

36) 이에 앞서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는 <신들의 특성에 관하여(De natural deorum)>에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제 2의 자연(alteram naturam)’을 논한 바 있는데 이는 힌트가 ‘문화적 조경(cultural landscape: 농업, 도시 발달, 도로, 다리, 항구 등의 사회 기본시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John Dixon Hunt, *Gardens and the Picturesque: Studies in the*

현에 자주 등장한다. 자연(*natura*)이라는 라틴어는 태어나다(*to be born*)이라는 의미의 동사 *nascor*의 과거 분사 *natus*에서 파생한 말이다. *natura*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나 사물에 내재한 성질을, 두 번째로는 세계의 질서와 구조를 나타내었다. 정원을 말하는 ‘제 3의 자연’을 논할 때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의미의 자연의 개념이 사용되었다. 제 1의 자연에 인간이 개입하여 제 2, 제 3의 자연으로 나아가며 점차 세련되어 간다는 것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연과 기술의 결합이라는 의미로 ‘제 3의 자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인간에 의해 행해진 이 결합을 통해 자연이나 인간이 혼자서는 이루어 낼 수 없는 보다 나은 결과물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sup>37)</sup>

산업화 시대의 도시와 자연의 관계는, 즉 도시 내에 자연이 들어온 것은 공업의 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기계가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이는 하나의 사건이었고, 자연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켰다. 19세기 후반 서유럽의 대도시에 살았던 이들은 풍경 속에 공장의 굴뚝이 올라가고, 철로가 들판을 가로지르고 산을 관통하는 것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보았고, 가스와 전기 등불 아래에서 밤에도 일을 하기 시작했다(도판 4-16).<sup>38)</sup> 이들은 이러한 변화를 보았고, 급격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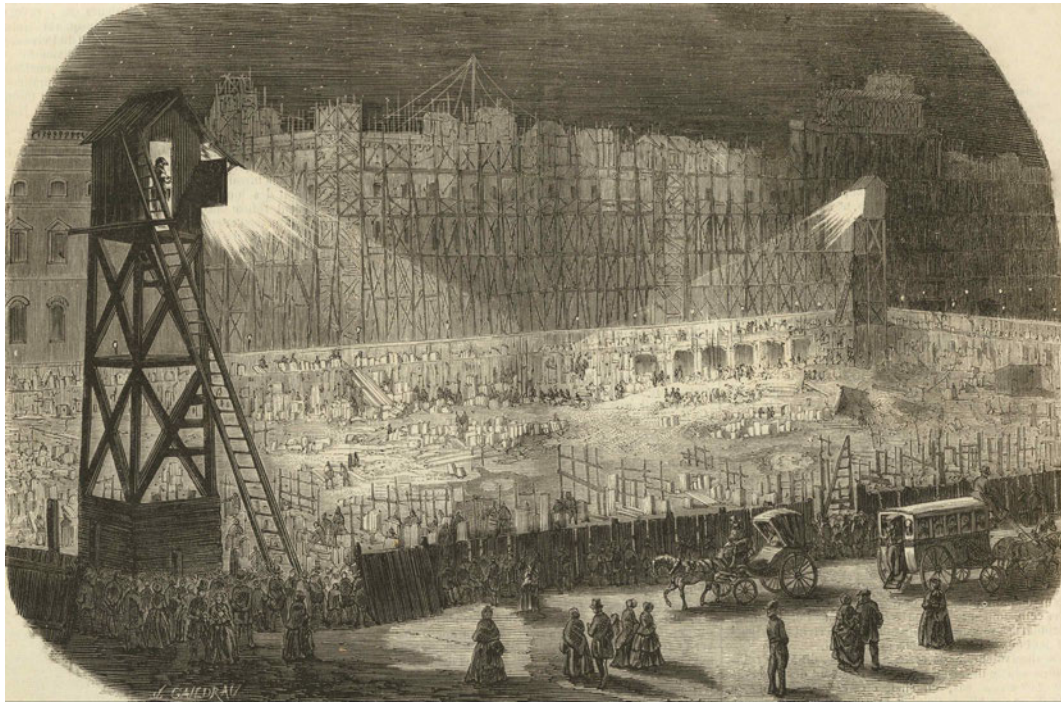
---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2), p. 3. 그리고 비록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제 2의 자연’의 선결 조건으로서 *rerum natura*, 즉 제 1의 자연이 있게 된다. 이 원초 상태의 자연은 르네상스 시기 이래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야생’이라고 부르는 것과 결부되었다.

37) 야코포 본파디오(Jacopo Bonfadio)가 1541년 8월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살로(Salò) 근처의 가자노(Gazano)에 있는 가르다(Garda) 호수의 서쪽 해변에서 쓴 편지의 일부를 보면 “그리고 과일들은 모두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더 맛이 좋았고, 땅에서 난 모든 것들도 더 좋았다. 이 지역에 있는 정원을 말하자면,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이나 알키누스, 아도니스의 정원에서처럼 농부들의 일은 자연과 인공물을 만드는 기술(예술), 예술과 같은 성질의 것과 결합되어 왔다. 그리고 이 둘로부터 제 3의 자연이라고 밖에 부를 명칭을 찾지 못하는 것이 생성되었다”라고 하여 ‘제 3의 자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Thomas E. Beck, “Gardens as a ‘Third Nature’: the Ancient Roots of a Renaissance Idea,”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and Designed Landscape*, 22: 2002, p. 327.

38) Michel Baridon, *Les Jardins. Paysagistes-Jardiniers-Poètes* (Paris: Éditions Robert Laffont, 1998), p. 939.





<도판 4-16> 갈드로, <전기 조명을 밝힌 리볼리 가의 야간 공사>, 1854.

자료: library.brown.edu

상의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기계에 의해 지배되고 구분되기 시작한 세계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다시 부각되었다. 새롭게 인식된 자연은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예찬되고, 이상화되어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된다. 이런 현상에 대해 문화사가 바리동(Michel Baridon)은 “기계가 풍경 속으로 침범했을 때만큼 자연이 아름다워 보인 적은 없었다”<sup>39)</sup>라고 평한 바 있다(도판 4-17, 4-18).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에게는 심리적 ‘고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이들의 최후의 휴식처는 도시 안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원과 공공정원, 그리고 교외의 유원지와 선술집이었다. 협소하고 익명적이라 할지라도 이런 장소는 그들의 오래된 세계, 유년의 세계를 대체했다.<sup>40)</sup>

39) Baridon(1998), pp. 940-1.

40) 한편 자연에 대한 인식은 경작에 대한 욕구, 과거의 농사일에 대한 향수로 이어진다. 이러



<도판 4-17> 모네, <시골의 기차>, 1870.  
자료: 파리 오르세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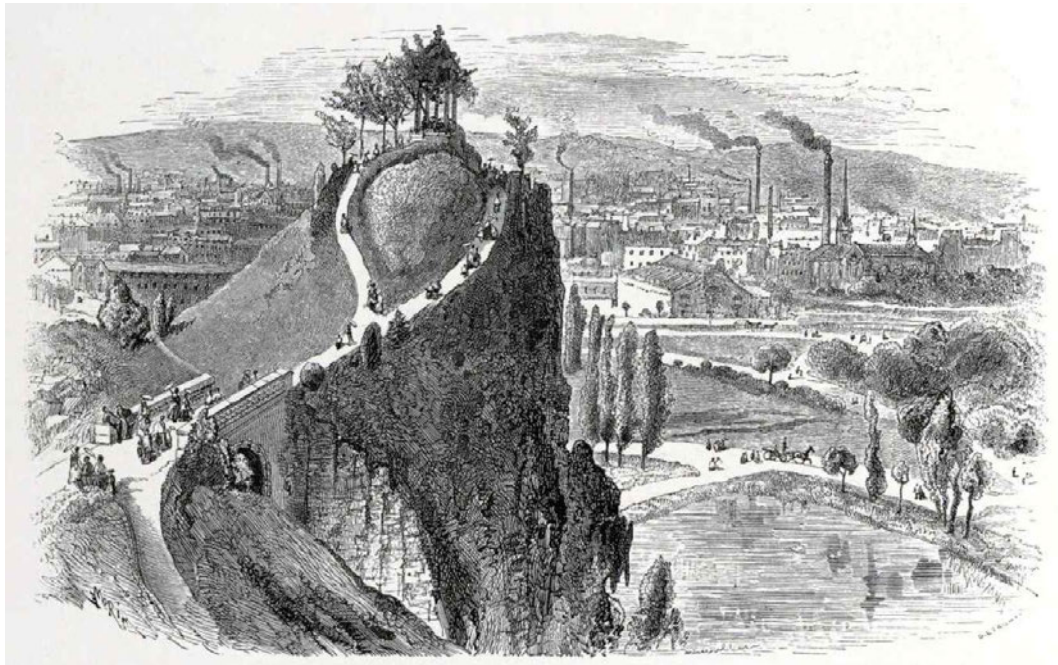
공장으로 온 뿌리 뽑힌 사람들은 그들이 떠나온 들판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다. 보다 부유한 이들은 그들의 파크의 고요함 속에 자신을 격리시킨다. 이들은 모두 땅의 세계와 단절되었다. 이들은 도시나 근교에 있고, 그곳의 매력과 위험을 알고 있다. 이들은 또한 그들이 거리나 공장의 지평선을 떠나 들판과 강가, 숲, 혹은 교외 선술집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안다.<sup>41)</sup>

도시 이주 노동자들뿐 아니라, “옛 파리는 더 이상 없다(도시의 형태는 사람의

---

한 욕구를 바탕으로 19세기 말에는 대도시와 근교에서의 ‘노동자 정원(jardin ouvriers, allotment)’이 발달했다. 경작을 통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 도모와 공동체 질서 회복 등이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

41) Baridon(1998), pp. 941-2.



<도판 4-18> 뷔트 쇼몽 공원

자료: Alphand, *Promenade de Paris (texte)*, fig. 307.

마음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구나)”<sup>42)</sup>라고 한 보들레르의 시구처럼 이전부터 도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이 시기의 급격한 변화는 낯선 것이었다.

정치가와 권력자들은 도시 내에서의 인간과 자연 사이의 접촉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다. 공원과 공공 정원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곳의 길들 여진 자연 공간은 공기와 물, 햇빛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은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음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때 이들이 ‘소비’하는 자연은 원래적 의미에서의 자연과는 거리가 있는 ‘순치된 자연’이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당대에 유행한 풍경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동시대 사람들이 작품에 담고자 했던 이념, 자연과 전원의

42) Baudelaire, “Le Cygne,” in *Oeuvres Complètes I* (Paris: Gallimard, 1975), p. 85.



조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부르주아들이 오염되고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교외에 거주지를 마련하면서 시내보다 교외가 더욱 발전한 런던에서는 도심과 전원적 풍경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었다.<sup>43)</sup>

상품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자연은 당시의 원예 취미와도 관련된다. 리젠트 파크는 19세기에 공원(public park)으로 대중에게 개방되던 초기부터 대중을 위한 원예와 동물원 등을 갖추었다. 시민들의 정원이 된 켄싱턴 정원과 수목원 등의 식물과 화초에는 이름을 알 수 있도록 명패가 붙었고, 이는 교육과 교화의 목적을 모두 만족시켰다. 1843년의 <가드너스 크로니클(Gardener's Chronicle)>에 게재된 논평은 당시의 원예의 대중화 경향을 반영한다.

켄싱턴 정원의 수목과 관목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예상대로 대중의 마음 속에 식물과 원예 취미에 대한 호기심과 취향을 강력하게 일깨우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고, 그로 인해 신사들은 정원에서 종묘장으로 직행하고 있다.<sup>44)</sup>

파리에서도 다채로운 이국 식물이 공원과 공공 정원에 식재에 도입되어 “정원의

---

43) 이 시기에 형성된 영국인들의 정신세계에 깃들어 있는 전원성과 농촌적 노스탤지어에서 ‘영국성(Englishness),’ 또는 영국 문화의 특성을 찾는 연구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한 연구서로는 Stephen Daniels, *Fields of Vision: Landscape Imagery and National Identity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John Taylor, *A Dream of England: Landscape, Photography, and the Tourist's Imagina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Elizabeth K. Helsinger, *Rural Scenes and National Representation: Britain, 1815-1850*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등을, 이를 가부장제 강화와 연관시킨 연구로는 Leonore Davidoff, Jean L'Esperance and Howard Newby, “Landscape with Figures: Home and Community in English Society,” in *The Rights and Wrongs of Women*, Juliet Mitchell and Ann Oakley (eds.), (New York: Penguin, 1976)을, 영국성 천착에 대한 비판으로는 Peter Mandler, “Against Englishness: English Culture and the Limits to Rural Nostalgia, 1850-1940,”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Sixth Series, Vol. 7 (1997), pp. 155-75를 참조하라.

44) Susan Lasdun, *The English Park* (London: André Deutsch, 1991), p. 177.

양상을 바꾸었고, 식물학에 대한 취미를 조장했다.”<sup>45)</sup> 이를 통해 공원과 식물원, 종묘장은 일종의 야외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즉 공공시설로서의 박물관은 18세기 후반에 나타났다.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개인 혹은 가문이 소유한 소장품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일이 시작되었고, 이를 위한 공간이 조성되면서 근대 박물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때 소장품은 예술 작품에 국한되지 않았고, 진귀한 동식물과 광물 등을 수집하는 ‘경이의 방(cabinet de curiosité)’이 유행했다. 19세기에 들어 박물관이 곳곳에 개장했고, 사회의 새로운 권력인 부르주아 중산층이 박물관의 주요 관람객이었다. 체계적 분류와 전시 방식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박물관의 계몽적 성격은 이 시기의 도시공원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공원은 시민 사회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바람직한 시민상을 형성하는 사회적 장치이기도 했다. 공원은 상류 부르주아와 귀족부터 노동자 계급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을 수용했고, 노동자 계급 등을 교육하고 계몽하며 교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전시품을 보고 지식을 습득하듯, 공원에서도 각종 동식물에 붙은 명패를 통해 이름을 익히고 관찰을 하여 지식과 교양을 늘렸다. 또한 통상적인 이름과 학명, 특징 등을 기입한 명패가 붙으면서 공원 내의 식물과 동물원의 동물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구경거리에서 삶의 대상으로 전도된다. 이때 공원은 단순한 휴식의 장소를 벗어나 지식을 담는 배움의 장이 된다.

오스만과 함께 크고 작은 수많은 파리의 공원을 조성한 조경가들은 파리에 완벽하게 다듬어진 자연을 설치했다. 마네의 <1867년의 만국박람회(L'Exposition Universelle 1867)>에 재현된 샤이오 언덕(Butte de Chaillot)의 정원이 일례이다. 이후 에펠탑이 세워질 샹드마르스(Champs-de-Mars)에 세워진 거대하고 박람회장을

---

45) Alphand(1867-1873), p. XXXVII. 도판집에는 채색 석판화로 22종의 식물이 각 페이지에 한 장씩 수록되어 새로운 식물 도입의 중요성을 반증한다.



<도판 4-19> 1867년의 만국박람회  
 자료: <http://commons.wikimedia.org>



<도판 4-20> 마네, <1867년 만국박람회 풍경>, 1867.  
 자료: 오슬로 국립미술관



내려다 볼 수 있는 이곳은 사실 박람회 몇 달 전에야 정비되었다. 기존의 언덕이 ‘불규칙’하고 ‘야생적’이라고 본 박람회 관계자들은 이곳을 4미터 정도 절삭하여 ‘규칙적’으로 만들었다.<sup>46)</sup> 완만한 언덕 위의 정원은 국가적 자부심의 전시장인 웅장한 박람회장을 보기에 안성맞춤이었고, 이곳은 수많은 관광객과 구경꾼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다(도판 4-19, 4-20).

도시공원과 공공 정원의 자연은 매우 다양하기도 하지만 작은 세부까지 규칙에 따라 다듬어져 있어, 전체적으로는 질서정연하다. 이는 변두리의 공터에서 볼 수 있는 멋대로 생겨난 방치되어 있는 자연과 대비된다. 공원 속의 자연은 우아하고 호화로우며 깨끗한, 그래서 인공적인 자연이고, 식물 뿐 아니라 호수, 언덕과 강, 건물 등 공원 속에 있는 대부분의 대상을 포함한다. 이 요소들은 모두 인간이 만든 것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녀야 하고. . . 끊임없이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sup>47)</sup> 진짜 자연보다도 더 진짜 같은, 그래서 진짜라고 여겨지는 새로운 자연이 발명되었다. 당대의 작가 푸르넬(Victor Fournel)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며 도시적 인공의 우위를 강조한다.

우리는 자연 없이도 자연이 만들어낸 모든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가 필요하듯, 꽃과 과일을 얻는데 자연이 필요하  
고 여기는 순진함은 시골에만 있다. 파리에서 우리는 이보다 훨씬 앞서 있  
다.<sup>48)</sup>

---

46) Francis Franciscia *et al.*, *Modernity and Modernism: French Painting in the Nineteenth Centu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pp. 106-7.

47) Édouard André, *L'Art des Jardins: traité général de la composition des parcs et jardins*. Paris: G. Masson, 1879), p. 580,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5440920x> (검색일: 2013년 2월 24일).

48) Victor Fournel, *Paris nouveau et Paris future* (Lyon: Jacques Lecoivre, 1865), p. 85, [ftp://ftp.bnf.fr/010/N0101890\\_PDF\\_1\\_-1DM.pdf](ftp://ftp.bnf.fr/010/N0101890_PDF_1_-1DM.pdf) (검색일: 2013년 10월 19일).

자연과 인공의 구분은 무의미해지고, 이전의 정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감정적이거나 철학적인 기준 없이 단순히 그것의 인공적인 정비만이 강조되었다.<sup>49)</sup> 정원에서 사용되는 꽃과 식물 또한 자연의 리듬을 따르지 않는다. 스퀘어와 정원에는 이미 다 자란 나무가 식재되고, 푸른 잔디가 파종되고, 끊임없이 관리되고 교체되는 꽃은 일 년 내내 피어난다. ‘자연스러운’ 자연(natural nature)을 추구하는 태도는 알팡의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된다.

우리가 이 말쑥한 자연을 버린다면, 이는 곧 버려진 것처럼 보일 것이다. 원기 왕성한 본질 때문에 섬세한 것이 숨 막힐 것이다. 울창한 녹음 사이로는 더 이상 공기가 통하지 않고, 그림자가 드리워져 더 자라지도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이 불쾌한 혼란의 양상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자연을 모델로 취해서는 안 되고, 쾌적하고 인공적으로 배치되어야, 예술이 요구하는 만큼 진실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 . . . 여기에서 자연은 예술의 옷을 입은 것과 같다. 원초적이고 가꾸어지지 않은 자연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치 있게 해야 한다.<sup>50)</sup>

이렇듯 19세기 서유럽 대도시의 도시공원 속의 자연은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는 르네상스 이래의 정원처럼 ‘제 3의 자연’이기도 했지만, 진짜 자연보다도 더 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가공된 자연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모든 세부요소들까지도 섬세하게 계획되고 조정, 관리되는 도시공원에서 재현되는 자연은 어떤 자연인가?

하지만 재현이라는 말 또한 다의적이고, 이런 다양한 의미가 오히려 논의의 요지를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여기에서 벨라스케스(Diego Rodríguez de Silva y

---

49) 기계론적 자연관과 공원 조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Maria Luisa Marceca, “Reservoir, Circulation, Residue: J. C. A. Alphand, Technological Beauty and the Green City,” *Lotus* 30, pp. 59-61을 참조하라.

50) Alphand(1867-1873), p. LIV.

Velázquez)의 <시녀들(Las Meninas, 1656)>에 대한 푸코의 해석을 잠시 참조해보자.<sup>51)</sup> 푸코는 재현에 관한 두 가지 예술원칙이 15-20세기의 서양 회화를 지배해왔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푸코가 말하는 재현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물질적 대상에 대한 모방 뿐 아니라, 예술작품 외부에 실재한다고 여겨지는 도덕 원칙 등과 같은 추상적 원리를 재현하는 것도 포괄한다.<sup>52)</sup> 이를 공원과 정원에 적용해 생각해보자. 공원에 앞서 수 천년동안 조경의 주요 실천영역이었던 정원은 다른 자연들(other natures)의 정수를 되풀이해왔다. 다양한 재료의 활용과 공감각적인 효과를 통해 정원은 그것의 물리적 공간보다 보다 넓고 깊고 오랜 시간의 세계를 재현했다. “세상의 가장 작은 조각이자 세계의 전부”<sup>53)</sup>인 정원은 세상을 축도하고 풍부한 의미를 담음으로써 재현하는 동시에 재현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풍부한 의미는 점차 사라지고, 점차 단순한 재현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간인 도시공원에서는 예전에 정원이 담고 있던 풍부한 의미의 재현보다는,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자연스러운(자연스러워 보이는) 자연’을 이상적으로 재현하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

## (2) 도시 내의 자연-시골로서의 공원

이 시기의 자연관 중 특기할 만한 것 중 하나로 도시민들의 자연관을 들 수 있다. 이들에게 자연은 더 이상 원생자연이 아니었고, 시골(countryside)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sup>54)</sup> 도시와 시골이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6-17세기부

51) Michel Foucault, *Les Mots et les choses*, 이규현 (역), 『말과 사물』 (서울: 민음사, 2012), pp. 25-43.

52) John Dixon Hunt, “Representation,” in *Greater Perfection* (London: Thames & Hudson Ltd, 2000), pp. 76-115.

53) Michel Foucault, *Dits et écrits 1954-1988, IV, 1980-1988*, Daniel Defert and François Ewald (eds.) (Paris: Gallimard, 1994), p. 759.

54) 시골은 ‘반대의, 대조되는’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콘트라(contra)에 어원을 두고, 도시라는

터의 일이고, 고대와 중세에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기는 어렵다.<sup>55)</sup>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는 『시골과 도시(The Country and the City, 1973)』에서 목가적 과거 지향 경향을 19세기 근대 영국사회의 특징으로 파악한 바 있다. 과거의 순수하고 순박한 시골을 이상화시키고, 여기에서 창조의 원천을 찾고자 한 것이 그의 논조이다. 하지만 도시와 시골을 대조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은 자본주의로 전환한 시대의 산물이므로, 이는 근대적인 시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도시화의 자본주의적 형태에만 한정하는 까닭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하에서만 ‘도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다른 사회적 맥락으로 급진적으로 의미가 전환되지 않는 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sup>56)</sup>

도시의 국가의 ‘권력저장소’였으며, 도시와 시골간의 관계는 이들 사회특성의 기본적인 형태였다. 자본주의적 도시화는 단지 시골사회 생활의 회생에 의한 도시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자본주의에 의해 야기된 새로운 총체적 사회형태로서의 구조적 전환과 결부된다. 자본주의적 도시화는 계급분할문명의 구조적 기반이었던 도시와 시골간의 분화를 불식시킨다. 대신 근대적 도시생활의 ‘창출된 공간(created space)’이 발달한다.<sup>57)</sup>

공원은 도시 안에서 ‘자연’을 재현하고 대표하는 공간이었고, 이 자연은 도시와 대척점을 이룬다.<sup>58)</sup> 이때 공원 속의 자연은 시골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1840년대의

---

개념과 반대되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생겼다. 고대 그리스인의 폴리스(polis)는 도시(town)와 시골(country)을 포괄하는 말이었고, 도시와 농촌 개념은 경쟁이나 대립의 대상이 아니었다.

55) Raymond Williams, *The Country and the City*, 이현석 (역)(2013), 『시골과 도시』 (과주: 나남), pp. 55-7.

56) David Harvey, “The Urban Process under Capitalism: a Framework for Analysis,” in *The Urbanization of Capital* (Oxford: Blackwell, 1985), p. 1.

57) Anthony Giddens,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최병두 (역), 『사적유물론의 현대적 비판』 (서울: 나남, 1991), pp. 32-3.

58) Anita Berzbeite, “The Amsterdam Bos: The Modern Public Park and the Construction of Collective Experience,” in *Recovering Landscape: Essays in Contemporary Landscape*

뤽상부르 정원에 대한 시몽(Jules Simon)의 회고는 이런 도시 내의 시골로서의 공원에 대한 인식을 잘 반영한다.

[뤽상부르 정원] 어떤 구석에서는 거의 시골에 있는 것 같다. 힘든 하루를 보낸 뒤, 커다란 나무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파리의 한복판에서 파리를 잊고, 흙과 식물의 생생한 향기를 맡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다.<sup>59)</sup>

이런 회고는 다소 미화되었을지 몰라도, 19세기 초반 뤽상부르 정원은 파리의 몇 안 되는 공공 정원이었다. 1790년대-1800년대에 픽처레스크하게 개조된 이 정원은 근처 대학의 학생과 시인, 연인들의 장소였고 ‘도시 안의 시골’을 대표한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공원과 정원들은 조성 당시에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했다. 도시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내로 편입되었고, 시민혁명기를 거치며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이런 지리적, 내용적 변화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뤽상부르 정원 뿐 아니라 이 시기의 도시공원들의 대부분은 도시 내의 시골로서 목가적(bucolic)인 분위기를 내도록 조성되었다. 도시 내에 공원과 공공 정원을 제공하는 것은 오스만 이전 이미 1820년대에도 논의된 국가적 사업이었고, 왕정복고 시기 쉐ن 지사였던 샤브롤 백작(Compte de Chabrol)의 보고서에서 제안되었다.<sup>60)</sup> 하지만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공원이 조성된 것은 제 2제정 때의 업적이고, 불로뉴 숲에 이어 뱅센느 숲과 몽소 공원, 킬리리와 뤽상부르 정원, 몽수리 숲, 뷔트 쇼몽 공원,

---

*Architecture*, James Corner(ed.)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9), p. 187..

59) Jules Simon, “Souvenirs de jeunesse,” in *Faisons la chine*, P. Audebrand (ed.), (Paris, 1890), pp. 3-4, Nicolas Green, *The Spectacle of Nature: Landscape and Bourgeois Culture in Nineteenth-Century France*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0a), p. 68에서 재인용.

60) Nicolas Green, “Rustic Retreats: Visions of the Countryside in Mid-Nineteenth-Century France,” in *Reading Landscape: Country, City, Capital*, Simon Pugh (e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0b), pp. 166-7.

그리고 수십 개의 스퀘어와 공공 정원이 새로 조성되거나 정비되었다.

“일상생활의 걱정을 즉시 잊게 되는”<sup>61)</sup> 평화롭고 조화로워 보이는 공원은 도시 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목적도 숨어 있었다. 복잡한 도시 속에서의 편안한 자연을 재현하는 공원은 안정된 사회의 모습을 위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sup>62)</sup> 실제로 뷔트 쇼몽 공원에서처럼 과거의 정치적·경제적 과거를 은폐하며 새로 공원이 조성되기도 했다. 과거 왕실의 사냥터였던 곳을 정비하여 공원으로 조성한 불로뉴 숲이나 뱅센느 숲과 달리, 1860년에 파리에 병합된 지역에 위치한 뷔트 쇼몽 공원은 메마른 황무지나 다름없었다.<sup>63)</sup> 몽포콩(Montfaucon)의 쓰레기장과 채석장, 그리고 교수대가 있어 “그곳에서 풍겨 나오는 고약한 냄새는 근처 구역뿐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도시 전체에 퍼졌다.”<sup>64)</sup> 오스만은 이곳을 1864년부터 3년간의 공사를 통해 이곳을 픽처레스크한 공원으로 변모시켜, 1867년 4월 1일 파리 만국박람회 개장에 맞춰 문을 열게 했다. 2년여 간의 토목 공사를 통해 조성된 완만한 구릉지와 이곳을 가로지르는 약 5천 미터의 곡선의 길, 다양한 식물은 야성적인 자연 속에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한편 과거 채석장으로 쓰였던 곳을 활용하여 산악 경관이나 거대한 동굴, 폭포, 시빌 신전 등을 조성했다. 호수 가운데 자리 잡아 방문객들의 시선을 끄는 높이 50미터의 절벽 또한 과거 채석장의 흔적이다(도판 4-21, 4-22, 4-23, 4-24).<sup>65)</sup>

이러한 자연관에는 19세기 전반부터 진행된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데,

---

61) Ernouft and Alphand(1886), p.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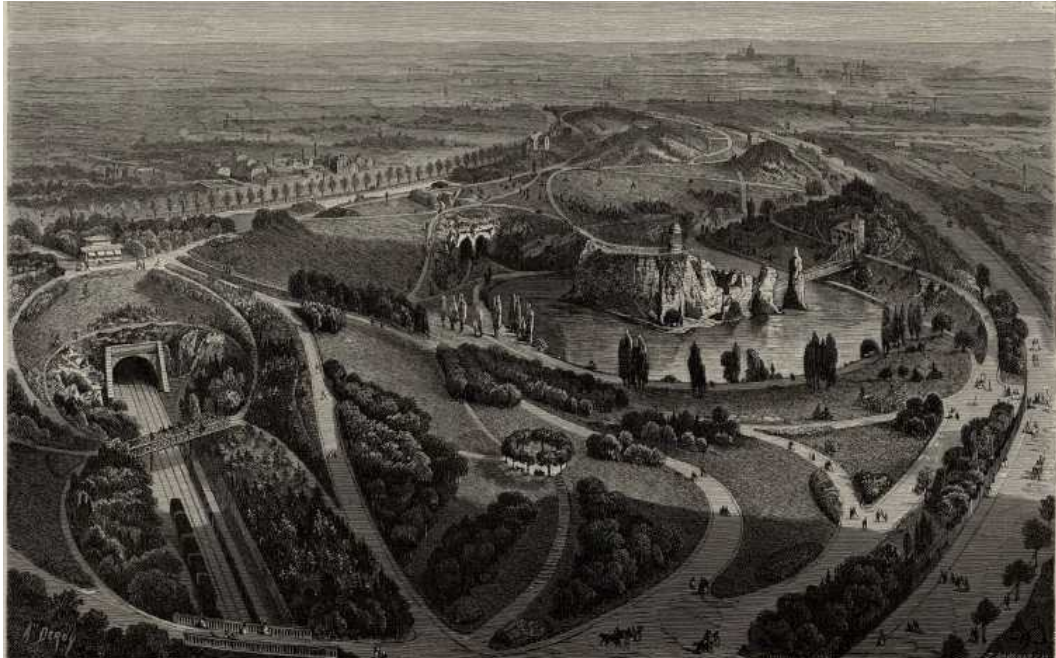
62) 기념물을 통해 과거를 은폐하는 기법은 역사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파리코뮌 이후 몽마르트르에 조성된 사크레 퀴르 바실리카(La basilique du Sacré-Cœur)는 피로 얼룩진 과거를 덮는 웅장한 기념물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vid Harvey,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의 18장 “사크레퀴르 바실리카의 건설”을 참조하라.

63) 알팡은 ‘쇼몽(Chaumont)’이라는 이름조차도 ‘대머리 산(mont chauve)’이라는 뜻의 라틴어 ‘칼부스 몬스(Calvus Mons)’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Alphand(1867-1873), p. 198.

64) Alphand(1867-1873), pp. 201-2.

65) Alphand(1867-1873), p. 203.





<도판 4-21> 뷔트 쇼몽 공원의 조감도  
 자료: Alphand, *Promenade de Paris (planche)*, fig. 306



<그림 4-22> 뷔트 쇼몽 공원의 도면  
 자료: Steenberg and Reh, *Metropolitan Landscape Architecture*, p. 95.



<도판 4-23> 뷔트 쇼몽 공원.  
자료: 황주영(2013)



<도판 4-24> 뷔트 쇼몽 공원.  
자료: 황주영(2013)

우선 풍경화와 사진을 통한 경관의 인식을 들 수 있다. 17세기에 독자적인 장르로 부상한 풍경화는 19세기를 거치며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되었다. 자연을 그림으로 ‘재현’하고, 풍경을 틀에 담는 회화의 제작 방식은 이후 초기 사진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자연의 인식은 순수한 경험이 아니고,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 기대와 해석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다.<sup>66)</sup> 알팡에게 있어 ‘픽처레스크’함은 문자 그대로 ‘그림과 같음(like a picture)’ 혹은 ‘화가에게 적합함’을 의미했고,<sup>67)</sup> 공원은 일련의 풍경이 관람자 앞에 전개되는 듯 설계되었다. 픽처레스크하게 조성된 자연은 “하나의 관념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제조되고, 선전되어 소모되는 일종의 상품”이었다.<sup>68)</sup> 자연/시골에 대한 인식과 체험 방식은 일종의 구경거리로서의 자연, 즉 스펙터클로서의 자연관을 발전시키고, 이는 공원 뿐 아니라 19세기 후반의 다양한 시각 대중문화를 통해 증명된다.<sup>69)</sup>

또한 산업화, 특히 기차의 발달은 자연을 보는 근대적 시각과 지각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up>70)</sup> 직선의 철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기차는 증기기관으로 촉발된 19세기 기계문명을 대표한다. 기차는 대도시를 형성하고, 또 기존의 도시의 조직을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직선의 철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도시 공간 속을 관통했고, 기차역은 근대 도시의 구심점이 되었다. 자연 지형을 따라 형성되는 기존의 교통로와 달리 기차는 다리와 터널을 만들며 직선으로 나아가며 도시와 근교의 경관을 크게 변형시켰다(도판 4-25).

66) Green(1990a), p. 2.

67) Robert L. Herbert, *Impressionism: Art, Leisure and Parisian Socie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 p. 149.

68) Green(1990a), p. 95.

6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chwartz의 『구경꾼의 탄생』을 참조하라.

70) 1851년 3,558킬로미터에 불과하던 프랑스의 철도는 급격히 발전하여 1869년에는 16,994킬로미터에 달했고, 4,822대의 기차가 한 해 동안 1억 1천 3만여 명의 승객과 4천 4백만 톤의 상품을 운송했다. 1851년의 기차 수는 겨우 천여 대였고, 2천만의 승객과 4백 6십만의 상품이 이동했다. Yon(2012), p. 107.





<도판 4-25> 터너, <비, 증기, 속도 -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 1844.  
 자료: 런던 내셔널 갤러리

절개나 굴착, 터널과 구름다리를 이용하여 지형을 가로지르는 철로는 19세기 중반의 유럽 경관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여행객의 인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동력의 기계화로 인해 유도된 살아 있는 자연의 소외 현상은 마치 곧은 자처럼 경관을 가로질러 놓인 철로 선에서 보인다 . . . . 경관이 보여주는 천연의 울퉁불퉁함에 그대로 고착되어 있던 도로가 경관을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선로로 대체된 것은 이들 경관의 손실로 경험되고 있다. 특히 터널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sup>71)</sup>

71) Wolfgang Schivelbusch, *Geschichte der Eisenbahnreise: zur Industrialisierung von Raum und Zeit im 19. Jahrhundert*, 박진희 (역), 『철도여행의 역사: 철도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서울: 궁리, 1999), p. 36.

철도는 자연을 인식하는 방식을 변화시켰고, 이런 변화된 자연 경관은 다시 이런 기계문명을 통해 지각되었다. 또한 인간의 이성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진보적 사고는, 다양한 근대의 실천의 토대가 되었다. 산업화와 급격한 도시화의 결과 생겨난 열악한 도시환경은 개선의 대상이었고, 또 인간의 능력으로 개선 가능한 곳이었다. 이런 직선적 진보의 끝에는 유토피아가 있고, 이는 이상도시 계획을 통해 예시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 또한 개선의 대상이 된다.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착취되고 황폐해진 자연 또한 하나의 이미지화된 자연이 된다. 산업화의 결과인 ‘반(反)자연’은 산업 발전의 결과로서 긍정적으로 수용되기도, 부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19세기의 사람들은 이러한 반자연의 모습을 통해 과거의 자연을 동경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실제로 그들이 경험했는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 이들은 회화나 다색판화 등의 다양한 시각매체를 통해 이미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이미지, 풍요로운 들판과 웅기종기 모인 시골집, 교회, 물레방아, 마차 등을 조합한 것에 익숙해졌고, 이것이 그들이 꿈꾸고 동경하는 시골의 이상적인 이미지로 고착되었다(도판 4-26). 도시에 거주하는 19세기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전(前) 산업시대 자연의 모습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그래서 동경해야 하는 대상, 하나의 이상이었다. 초기 인상주의 화가들이 대도시와 근교에서의 여가 문화를 주제로 삼은 것에 대해 비평가 샹피로(Meyer Schapiro)의 언급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적 목가(urban idylls)는 1860년대와 1870년대 부르주아의 여가에 대한 객관적인 형태를 제시할 뿐 아니라, 주제의 선정과 새로운 미적 방법을 통해 사상이나 동기에 상관없는 개인적 즐거움의 장으로서의 예술의 개념을 반영한다.<sup>72)</sup>



<도판 4-26> 도미에,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명상하는 파리 사람>, 1858.  
자료: 보스턴 미술관

구경거리라는 의미의 스펙터클은 도시의 근대적인 시설(극장, 박물관, 백화점, 박람회 등)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시각적으로 소비되는 스펙터클은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되었고, 이런 경험을 위해 19세기의 사람들은 이러한 시설을 찾았다. 도시공원 또한 ‘자연’의 이미지로 일종의 스펙터클로 소비되었다. 도시의 현실과 대비되는 일종이 이상향, 도시의 오아시스로서의 공원은 유토피아적인 이상<sup>73)</sup>을 담고 있는 동

72) Meyer Schapiro, “Nature of Abstract Art,” *Marxist Quarterly*, 1(1): 1937, p. 83, Francis Francina et al.(1994), pp. 137-8에서 재인용.

73) 전원을 이상향과 연결시키는 태도는 고대 그리스의 아르카디아(Arcadia)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아르카디아는 실제로는 척박한 산악 지대이지만, 신화에서는 판과 님프가 거주하는 전설적인 낙원으로 묘사된다. 이상화된 전원 은둔지,



시에, 헤테로토피아로 작용했다.

## 2. 문화적 자연, 또는 자연의 문화

### (1) 자연과 문화의 경계

근대 철학의 사유체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가 과거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즉 이 시기에 사람들은 인간 이성의 능력으로 자연과 사회를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통해 획득된 결과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 사회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는 자연을 보는 관점에 나타나는데, 자연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공원과 공공 정원에 재현된 일종의 이상 경관으로서의 자연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예측 가능한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 관광과 오락, 구경거리로서의 자연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소비 가능한 대상이 되고, 대도시에서 부르주아 헤게모니를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한편 이는 자연을 일종의 타자로 외부화 시키는 관점과도 연관된다. 풍경이나 경치, 지각적 감각(perceptual sensation)으로서의 외부 세계는 순수한 경관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의 사회적·문화적 구축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19세기 후반의 시골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에서도 발견된다.

알팡의 저서 <파리의 산책로>는 크게 불로뉴 숲과 뱅센느 숲, 그리고 파리 시내의 산책로의 조성 기법과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원예와 조경, 도시공학, 토목공학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는 일종의 이론서임에도 불구하고 알팡은

---

도시와 궁정의 복잡한 삶과 현실로부터의 도피 장소로서의 이미지는 아르카디아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테오크리토스(Theokritos)와 베르길리우스(Publius Vergilius Maro), 호라티우스(Quintus Horatius Flaccus) 등의 고대 시인들은 신화의 황금시대와 평화로운 전원생활의 이상을 아르카디아에 반영하였고, 이후 아르카디아는 서구 문화의 대표적인 낙원관의 원형으로 자리 잡는다.

제목에 ‘산책로’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오스만의 도시 정비에 내재한 자연과 도시의 관계를 암시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산책은 도시공원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있어온 여가 활동이었다. 산책 활동은 이전 세기까지 여전히 시골이나 도시 외곽에 산책을 위해 조성된 산책로에서 행해졌었는데, 오스만과 알팡은 이를 도시의 조직 안으로 끌어들이며 시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만든 것이다. 이보다 한 세기 전에 루소가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Le Rêveries du promeneur solitaire)>을 집필할 때 그가 산책한 곳은 파리의 성곽 경계(faubour) 구역이었다. 이런 도시와 자연의 ‘경계’는 그에게 있어 물리적, 지리적 경계이기도 한 동시에, 도시 안에서와는 달리 자유로운 사유를 가능하게 한 장소였다.<sup>74)</sup> 도시와의 대척점에 있던 산책(로)는 19세기에 들어 도시 내의 활동/공간으로 자리 잡고, 이는 알팡의 책 제목을 통해 반증된다.

오스만이 1850-60년대 파리에 조성한 공원 설계에서는 인공성과 자연스러움, 설계와 환영의 조합이 중요했다. 알팡의 지휘 하에 조성된 불로뉴 숲이나 뱅센느, 뤼트 쇼몽에서는 자연의 재현(re-present)이 중요한 설계 목적이었다. 부드럽게 흐르는 물과 완만한 곡선의 언덕, 여기 저기 심겨진 아름답드리나무, 주의 깊게 만든 언덕, 호수는 일련의 픽처레스크한 비스타를 형성한다. 친밀하면서도 웅장한 공원과 정원은 도시민들에게 보기 좋은 자연을 제공했다. 일련의 재구성 과정을 통해 조성된 공원은 한 사회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의 풍경을 재현했다.<sup>75)</sup>

마차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가을날 오후 숲에 모인 수많은 사륜마차의 긴 행렬이 만들어내는 어두운 점들. . . 계절이 조금 일렀음에도 파리의 모든 이들이 그곳에 있었다 . . . . 오른쪽에는 가느다란 줄기에 잎이

74) Antoine Grumbach, “The Promenade of Paris,” *Oppositions*, 8: 1997, pp. 51-2.

75) Herbert(1988), p. 149.

붉은 잡목 숲이 나지막이 늘어서 있었다. 종종 날씬한 남자들이 승마길을 지나가곤 했다 . . . . 왼쪽으로 원형의 화단과 덩불 다음에 좁은 잔디밭이 있고, 그 아래에는 마치 정원사의 가위로 단정하게 다듬어진 듯 거품 하나 없이 수정처럼 맑은 호수가 잠들어 있었다 . . . . 노란 모래로 된 긴 리본 같은 정원의 소로는 잔디 속을 구불구불하게 지나,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었다. 호수의 가장자리는 시골의 숲을 흉내 내려고 나뭇가지 모양의 구조한 쇠로 장식했다.<sup>76)</sup>

이전 시기까지 좁고 구불구불하던 파리 시내의 도로가 방사선의 교차로에서 뻗어 나가는 직선의 넓은 대로로 바뀌었을 때, 중심의 축을 중심으로 직선을 뻗은 소로들이 이어지던 프랑스의 형식주의 정원들은 곡선의 구불거리는 길이 복잡하게 얽힌 풍경화식 공공 정원으로 개조되었다.<sup>77)</sup> 이런 공원은 본래의 자연보다도 더욱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 인공적인 건조 환경으로서의 도시의 모습과, 한층 더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하는 공원의 성향이 대비되는 역설적인 상황은 19세기 후반의 도시와 도시공원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정교한 엔지니어링과 식재 프로그램에 의해 공원은 ‘자연스러운’ 파크의 시뮬라크르로 변모했다(도 4-27, 4-28, 4-29, 4-30).<sup>78)</sup> 푸르넬은 1852년 전에는 “진정한 숲”이었던 불로뉴 숲이 이곳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의 요구와 취미에 부합하는 “인공 낙원”으로 “제작”되었음을 지적했다.<sup>7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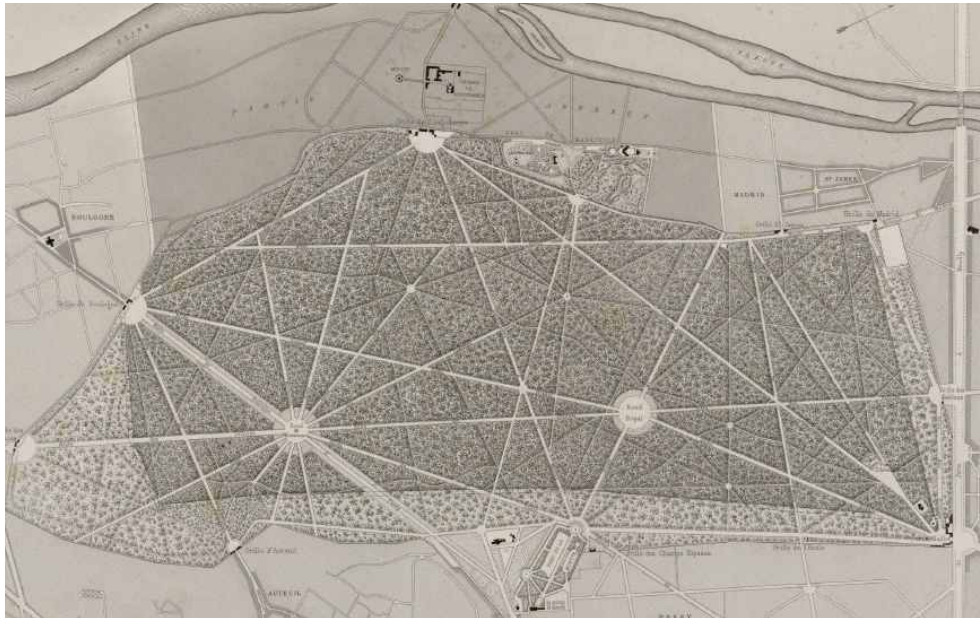
땅과 나무를 제외하면, 새로운 불로뉴 숲에 있는 모든 것은 모조품이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최대한 나무를 공들여 다듬고, 전정하고, 땅을 갈퀴질하

76) Emile Zola, *La Curée*, (Paris: Gallimard, 1981), pp.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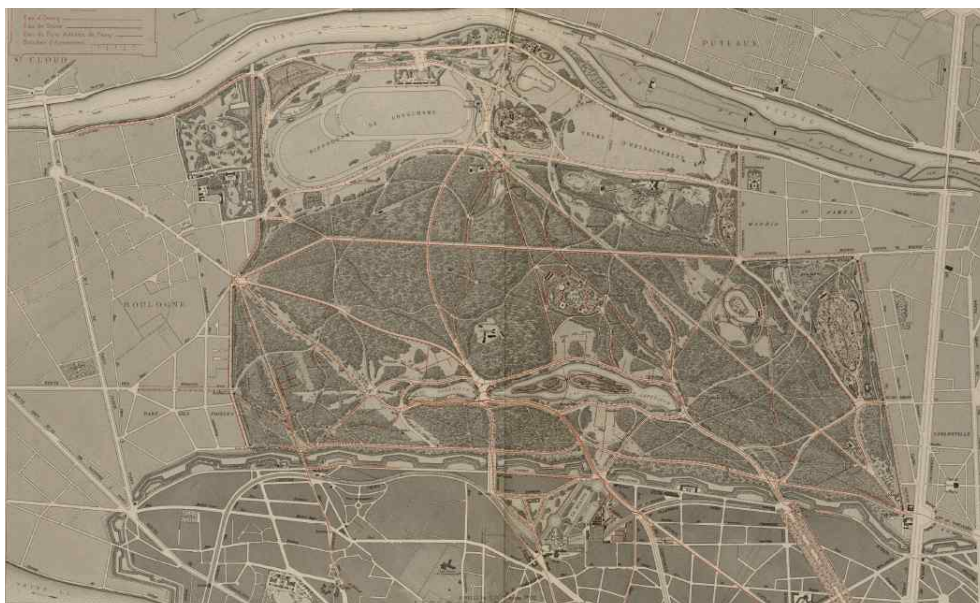
77) 이 시기 이전 프랑스에서의 픽처레스크 양식의 전개에 대해서는 John Dixon Hunt, *The Picturesque Garden in Europe* (London: Thames & Hudson, 2002)의 “Translating from the English”와 “French Picturesque in Practice”를 참조하라.

78) Katheen Adler, “The Suburban, the Modern and ‘une Dame de Passy,’” *The Oxford Art Journal*, 12(1), 1989, 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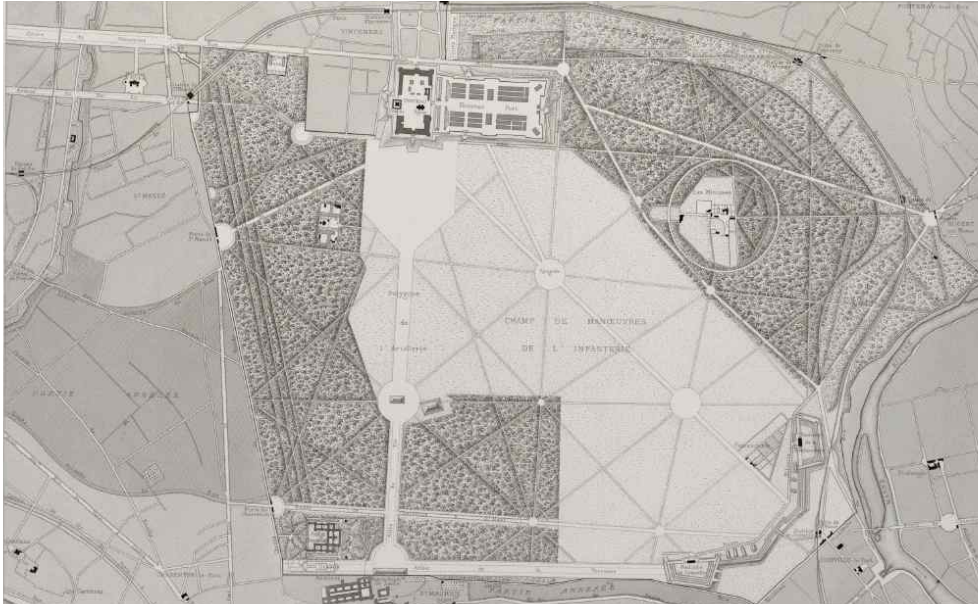
79) Fournel(1865), pp. 113, 119.



<그림 4-27> 제 2제정기 이전의 불로뉴 숲  
 자료: Alphand, *Promenade de Paris (planches)*, p. 8.



<도판 4-28> 정비 이후의 불로뉴 숲  
 자료: Alphand, *Promenade de Paris (planches)*, p. 9.



<도판 4-29> 제 2제정기 이전의 뱅센느 숲  
 자료: Alphand, *Promenade de Paris (planches)*, p. 63.



<도판 4-30> 정비 이후의 뱅센느 숲  
 자료: Alphand, *Promenade de Paris (planches)*, p. 64.

고, 아스팔트를 깔아 정성들여 여기를 개선했다. 나머지는 호수, 섬, 강바닥에서 나온 흙을 다져 만들고 꼭대기에 오래된 측백나무를 옮겨 심은 모르트마르 언덕, 오솔길, 바위, 캐스케이드,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굴과 종유석 장식이 있는 폭포, 호수의 물고기에 이르는 모든 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 . . . 보캉송[Jacques de Vaucanson, 18세기 프랑스의 발명가]이 만든 기계 오리만 빠졌다 . . . . 종종 아주 훌륭하게 자연을 모방하는 예술가에게 경의를 표하자.<sup>8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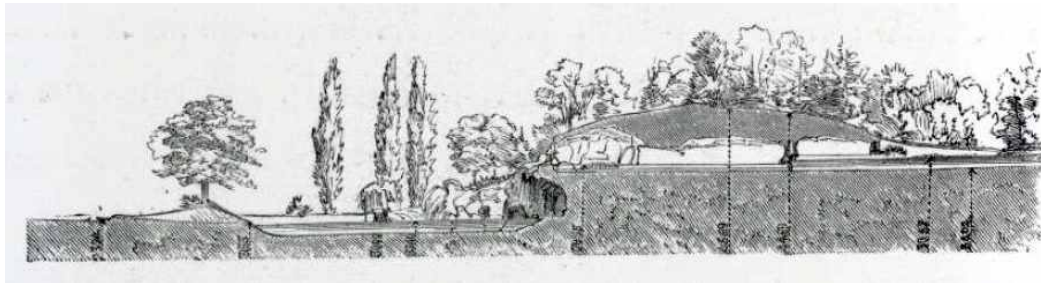
이 시기 조성된 공원에서 담장이나 인공바위, 폭포 등의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만든 시설조차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주의 깊게 ‘가공되어’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19세기 후반 공학 기술의 발달로 철과 시멘트를 함께 사용했을 때의 강력한 내구성에 대한 연구가 널리 알려졌다. 아울러 철과 유리의 생산 가격이 내려갔고, 시멘트의 소성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런던 만국박람회의 수정궁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기술적 혁신은, 파리의 공원에서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콘크리트는 불로뉴 숲의 두 호수와 캐스케이드의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알팡의 전임자인 바레(Louis Varé)가 구상한 거대한 호수는 시공 단계에서 여러 가지 난제를 겪었다. 토목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바레는 부지의 단차를 고려하지 않아 물이 한쪽으로 쏠렸고, 사질의 부지에는 물이 고이지 않았다. 알팡은 호수를 위쪽에 있는 작은 호수(Petit Lac)과 아래쪽에 있는 큰 호수(Grand Lac)의 두 개로 나누고, 중간에 높이 6미터의 캐스케이드를 설치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픽처레스크한 효과를 강조했다(도판 4-31, 4-32). 큰 호수의 바닥에는 두께 10cm의 콘크리트를 층을 조성하고, 그 위 둘이나 시멘트를 덮어 수량을 유지했다.<sup>81)</sup> 또한 캐스케이드의 조성에도 시멘트가 활용되었다. 알팡은 파리 일대에서 바

80) Fournel(1865), pp. 115-6.

81) Haussmann, 앞의 책, pp. 198-202.





<도판 4-31> 볼로뉴 숲의 대 캐스케이드 단면  
 자료: Alphand, *Promenade de Paris (texte)*, fig. 28.



<도판 4-32> 볼로뉴 숲의 대 캐스케이드 상단 난간  
 자료: 황주영(2013).

람직한 효과를 내는 암석으로 사암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암의 성질상 야생적인 자연의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기에, 석재와 모르타르로 원하는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시멘트를 입혀 인공 바위를 조성했다.

인공적이지만 천연 석회암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 방식으로 신속하고도 경제적으로 캐스케이드가 조성되었고, 이 방식은 다른 공원과 스퀘어의 조성에도 활용되었다(도판 4-33, 4-34).<sup>82)</sup>

뷔트 쇼몽 공원이거나 불로뉴 숲 등의 공원과 스퀘어에 설치된 난간과 계단은 모두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멀리서 보면 통나무를 잘라 만든 것처럼 보인다. 나이트와 옹이까지 재현해 만든 이 녹색 콘크리트 조형물은 ‘자연스러워 보임’에 대한 이 시대의 집착에 가까운 태도를 반증한다(도판 4-35). 또한 화단의 경계는 밤나무 가지의 모습으로 주조한 철제 펜스로 교체되었다(도판 4-36). 알팡은 여기에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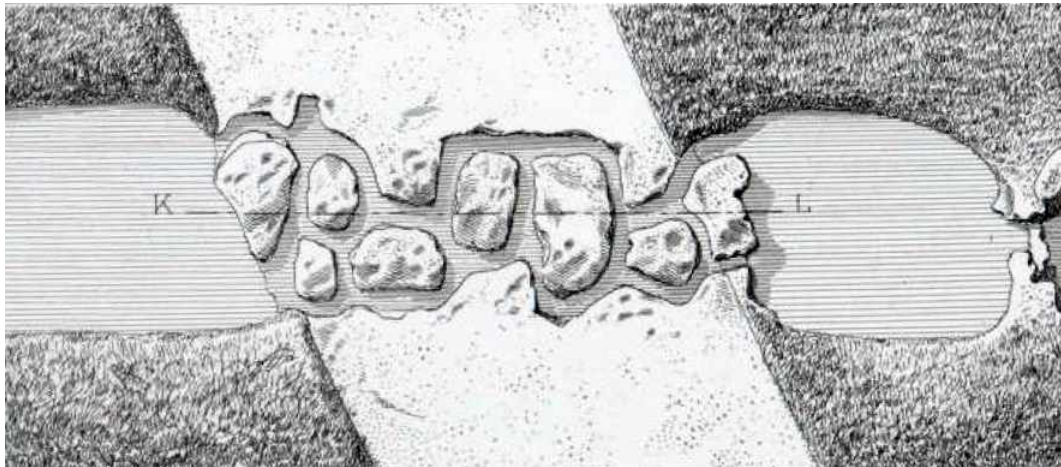
맨 처음 보도를 따라 설치되었던 철로 가장자리를 대고, 초록색 유성 페인트를 세 번 바른 경계에는 미터당 75상탔이 소요되어, 미터당 35상탔밖에 안 드는 밤나무로 만든 격자보다 훨씬 비쌌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고, 우리는 이를 밤나무 가지 모양으로 주조해서 페인트칠을 한 주철 격자로 교체했다. 이는 아주 모양이 비슷했고, 미터당 1프랑 25상탔이 들었다.<sup>83)</sup>

여기에서 자연은 다시 발명되고, 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라, 자연을 가공하여 더욱 더 이상적인 자연에 가깝게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형식주의 전통에서의 자연관과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이는 가장 이상적인 자연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브라운의 픽처레스크한 정원에서의 자연의 재현과도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sup>8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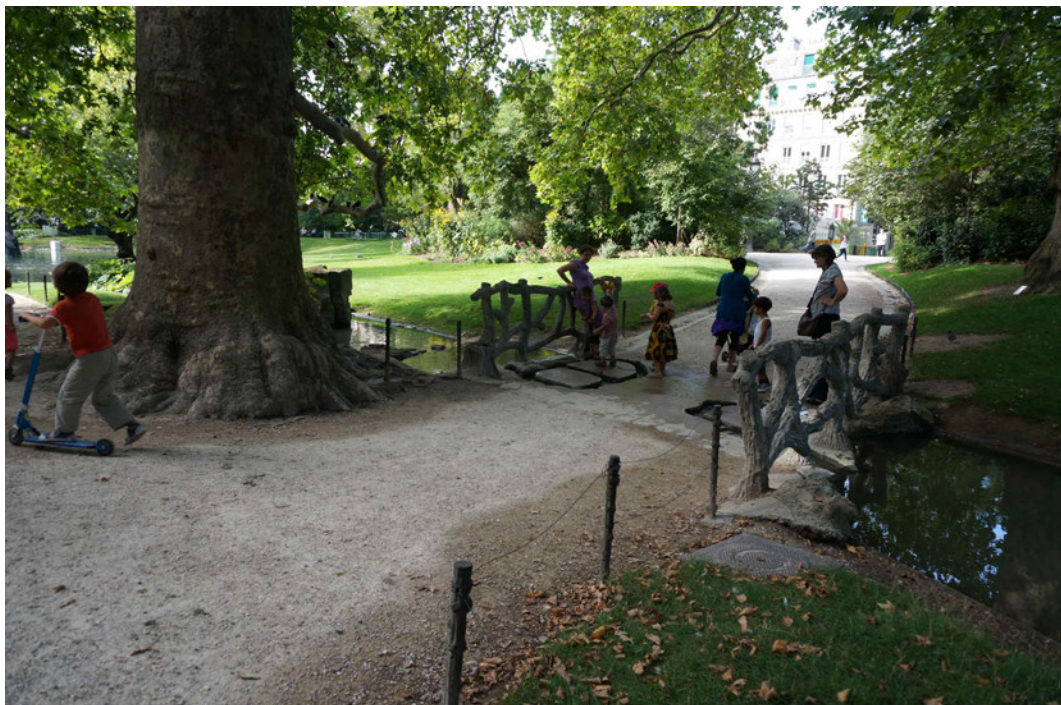
82) Alphand(1867-1873), pp. 35-6.

83) Alphand(1867-1873), p. 10.

84) 본 절의 제목인 “가공된 자연”은 그린(Nicolas Green)의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서, 원초적인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에 맞게 순치되어 ‘자연스럽다’라고 여기게 된 상태를 말한다. 이는 순치된 방식(how)을 강조하고 있고, 19세기 도시공원에 재현된 자연이 당시의 취향에 맞추어 가공된 자연(nature engineered)이었음을 암시한다.



<도판 4-33> 바티놀 스퀘어의 여울에서 웅덩이로의 이행 부분  
 자료: Alphand, *Promenade de Paris (planches)*, p. 116.



<도판 4-34> 바티놀 스퀘어  
 자료: 황주영(2013).





<그림 4-35> 나무를 모방한 뷔트 쇼몽 공원의 콘크리트 난간  
자료: 황주영(2013).



<도판 4-36> 나뭇가지를 모방한 바티볼 스퀘어의 철제 펜스  
자료: 황주영(2013).



<그림 4-37> 베로, <블루바르 카푸생>, 1889.

자료: <http://commons.wikimedia.org>

가로수의 식재 또한 새로운 현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알팡의 부서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새로 뚫린 널찍한 대로를 따라 가로수를 심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오스만의 재위 기간 동안 파리의 가로수는 50,466주에서 95,977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sup>85)</sup> 도시의 가로에 줄지어 심겨진 가로수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의 풍경이지만, 사실은 가장 인공적인 방식으로 도입된 자연물이다(도판 4-37). 다양한 동식물이 어울려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숲과 달리, 도시의 가로수는 몇 종류의 수종으로만 구성되고 규격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되고, 주기적으로 형태를 균일하게 다듬는다. 또한 씨앗이 땅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

85) Haussmann(1890), p. 234.

면서 형성되는 자연의 숲과 달리, 도시의 가로수는 도시계획 과정 중 대부분 종묘장에서 일정한 크기로 자란 나무를 식재하는 일종의 ‘기성품’이다.

수종 또한 오늘날까지도 파리의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마로니에와 플라타너스, 느릅나무가 주로 식재되었다. 파리의 기후에 이 나무들이 가장 적합하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사실 오스만이 선호한 나무였다. 그는 회고록에서 이 나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브뉘와 인도의 식재는 새로워졌고, 물론 여기에는 많은 정성이 들어갔다. 나는 예전에 있던 비실비실한 느릅나무를 마로니에로 교체하게 했다. 마로니에는 아름다운 이파리가 일찍 돌아오고, 봄에 피는 꽃송이도 아름답고, 여러모로 쓸모 있고, 처음에만 몇 번 물을 주면 되는 관리도 쉬운 아주 놀라운 나무이기 때문이다 . . . . 나는 그 이름이 넓적한 이파리에서 온 플라타너스를 선호했음을 인정한다. 나는 미디 지방에서도 저 나무의 훌륭함에 감탄했다. 하지만 이 나무는 가지가 너무 많이 자라 잘 모이지 않고, 퇴비로 마땅치 않은 낙엽은 태워버려야 한다 . . . . 예전에는 우리의 유일한 가로수였던 느릅나무는 좀나무에 약하다고 하여 무시당했지만, 이는 오해이다. 이는 매우 튼튼하고 내성이 강한 나무이고, 넓은 이파리를 높이 평가한다.<sup>86)</sup>

오스만화 이전에는 공원 외의 공간에서 나무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파리 시내에 대규모로 가로를 조성하고 그 길을 따라 가로수를 대량으로 식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다. 알팡과 그의 부서는 이를 획기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우선 도로를 만들고 나서는 그 길을 따라 면적 3미터, 깊이 1미터의 구덩이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판 뒤 나무를 심고 부엽토로 구멍을 메웠다. 도로를 따라 설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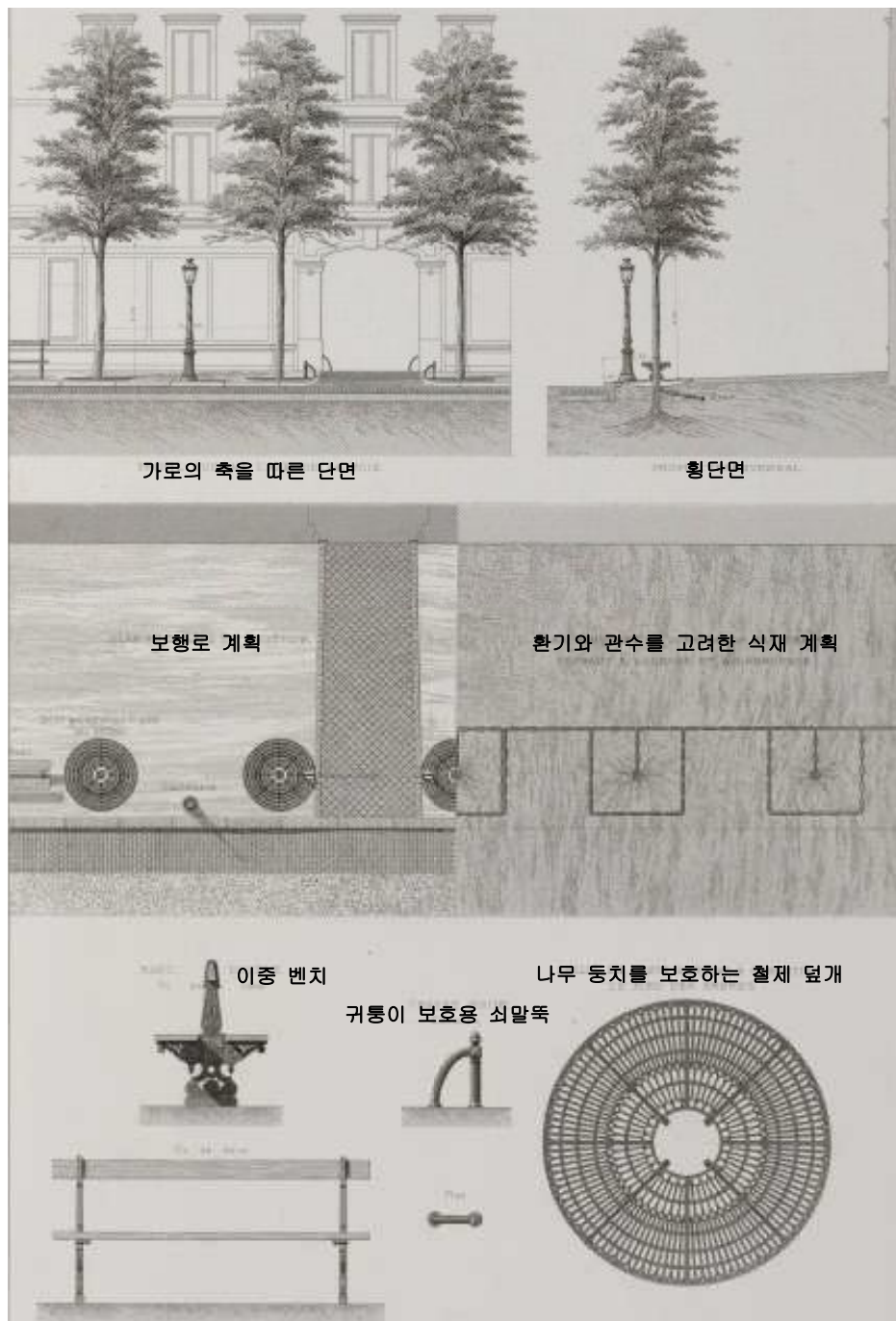
86) Haussmann(1890), pp. 231, 254. 한편 알팡은 플라타너스와 마로니에를 선택한 이유가 성장이 빠르고, 녹음을 드리우며, 병충해에 강하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언급했다. 이어 기타 수종의 장단점을 기록하고 있다. Alphand(1867-1873), pp. 245-6.



된 상하수도를 통해 물이 자동으로 공급되어, 따로 물을 줄 필요가 없었고, 가로수의 밑동, 그리고 필요에 따라 등치에도 규격화된 철제 보호구를 설치하여 손상을 막았다(도판 4-38).<sup>87)</sup> 어느 정도 자란 커다란 나무를 숲이나 양묘장에서 가져와서 도시 한복판에 옮겨 심는 일은 단순한 막노동이 아니었고, 당대의 토목과 식물학, 도시공학, 조경학 등이 모두 집대성 된 고도의 작업이었다(도판 4-39, 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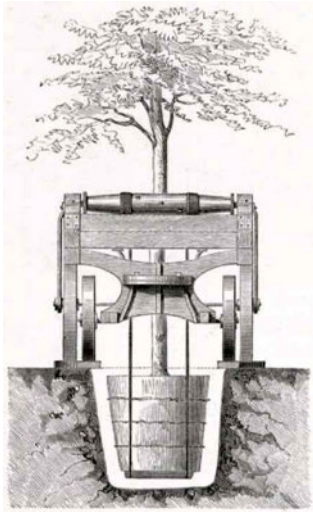
---

87) Alphand(1867-1873), pp. 2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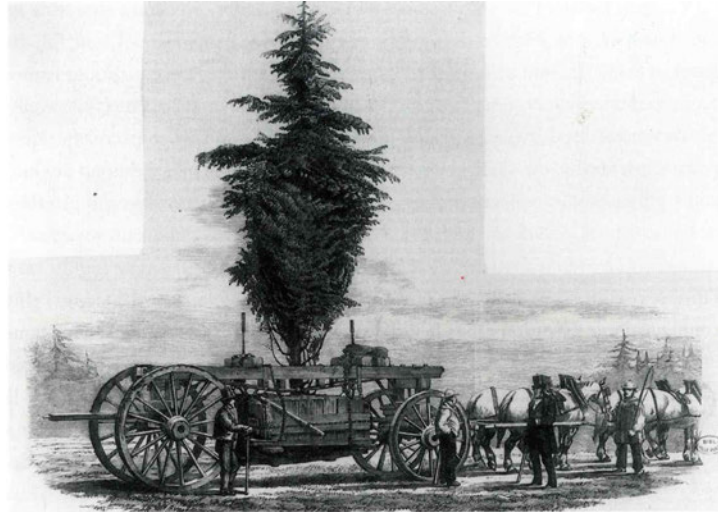
<도판 4-38> 공공도로의 세부

자료: Alphand, *Promenade de Paris (planches)*, p. 138



<도판 4-39> 나무의 이식

자료: Alphand, *Promenade de Paris (texte)*, fig. 50



<도판 4-40> 나무의 운반

자료: Lemoine and Mimram, *Paris d'ingénieurs*, p. 48.

## (2) 사회 질서의 공간화

19세기 도시공간은 산업혁명을 겪으며 자본주의·산업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기존의 도시조직은 산업화를 통한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과밀화, 이로 인해 발생한 제 문제, 그리고 도시 공간 내부의 공간적 분화, 특히 생산과 소비의 공간의 분화를 반영한다. 19세기의 도시계획은 혼란스러운 도시 내에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여겼고, 이는 이후 20세기의 건축과 도시계획의 과제로 이어진다. 이 시기의 질서는 가시적인 질서로 상정되었고, 외관의 질서를 통해 질서를 구현할 수 있다는 신념이 형성된다. 이는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에서 시작되어 로지에를 거쳐 오스만, 그리고 이후 20세기의 도시설계에까지 이어지는 관점이다. 이때 공원 등의 녹지는 도시의 대립항으로서의 자연으로 상정되고,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된다.

특히 18세기의 건축이론은 도시를 자연의 재현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로

지에는 “도시를 숲으로 여겨야 한다. 도시의 길은 숲속의 길을 만들고, 것처럼 뚫려야 한다. 파크의 미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도로, 도로의 폭과 배열에 있어서의 다양성이다”<sup>88)</sup>라고 하며 도시를 자연적 현상으로 환원하고 도시에 픽처레스크 미학을 적용했다. 밀리치아(Francesco Milizia)의 “도시는 숲과 같아서 도시를 분할하는 것은 파크를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 그곳에는 광장, 교차로, 상당수의 넓고 곧은길이 있어야 한다”<sup>89)</sup>는 고전적 정의는 이를 부연한다. 계몽주의적 도시계획에서 자연은 적절한 매개체로 도입되었고,<sup>90)</sup> 도시공원은 자연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드러낸다. 과거의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던 자연은 계몽주의를 거치며 인간의 이성으로 지배,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고, 이제는 어떤 이상으로서의 자연(경관)으로 여겨진다.<sup>91)</sup> 또한 도시공원은 당시 사회의 성별과 계급에 따른 사회 질서의 공간화를 반영한다. 19세기 서유럽의 도시에 나타난 모더니티의 공간은 남성 부르주아의 공간이었고, 시공간을 통제함으로써 정교한 분리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19세기 도시공원은 대개 전 세기의 풍경화식 정원 양식을 토대로 한다. 넓고 완만한 구릉지에 넓은 초지가 펼쳐져 있고, 곳곳에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경관은 일종의 이상적인 경관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서양 문명사에서 넓은 풀밭과 공원은 하나의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의 상징이기도 했다. 베블런(Thorstein Veblen)은 잔디나 잘 다듬어진 뜰, 혹은 파크가 서구인들

88) Marc-Antoine Laugier, *Essai sur l'architecture* (Paris: Duchesne, 1755), p. 222, <https://archive.org/details/surlarchitecture00laug> (검색일 2013년 11월 3일).

89) Francesco Milizia, *Principi di architettura civile* Vol. II (Bassano: A spese Remondini di Venezia, 1785), p. 43, <https://archive.org/details/civilearchitettura02mili> (검색일 2013년 11월 2일).

90) Manfredo Tafuri, *Progetto e Utopia*, Barbara Luigia La Penta (trans.), *Architecture and Utopia: Design and Capitalist Development* (Cambridge: MIT Press, 1976), p. 2.

91) 줄라는 파리의 스퀘어에 대한 에세이에서 파리의 시민들이 자연에 대해 일종의 플라토닉한 애정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이상화된 자연에 대한 관념을 반영한다. Emile Zola, “Les Squares,” in *Oeuvres complètes*, Tome 2: Le feuilletoniste, 1866-1867 (Paris: Nouveau Monde Éditions, 2002), pp. 489-493.

의, 특히 부유층의 취미에 잘 부합되는 까닭을 보편적인 완상적 가치와 유목민족 출신의 유전적 본능에서 찾기도 한다. 미적 목적상, 잔디밭은 소를 키우는 초장이었고, 이는 잔디밭이나 정원에서 비싼 품종의 양이나 소를 장식적인 목적으로 키우는 것의 유래가 되었다. 실용적 생산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을 철저하게 무용하게 사용하는 것, 즉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가축이 풀을 뜯어 먹는 초지가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동원하여 풀밭을 말끔하게 가꾸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 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공원 또한 풀밭과 유사한 일종의 모사품(imitation of pasture)이고, 목가적 시골을 모델로 하는 위락정원(pleasure grounds) 또한 마찬가지이다. 19세기 후반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녹지 공간에 대한 이상에도 영향을 미쳤고, 사회 전반적으로 전원풍 및 자연스러운 것의 가장(假裝)을 선호하고 보다 높은 사회적, 지성적 영역에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베블런의 논지이다.<sup>92)</sup>

19세기 초 공원 내의 풀밭은 입장이 금지된 곳이었고, 사람들은 초지 둘레에 조성된 자갈길을 따라 산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공공보행로선정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자갈길보다는 초지를 걸으며 보다 더 자유롭고 유쾌하고, 풀밭에서 크리켓이나 축구 경기를 한 번 하는 것이 주변의 우울한 산책로를 50번 걷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하며 자유로운 이용을 역설한다. 위원회는 공공 산책로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보다 넓은 공공 부지(public ground)를 촉구했다.<sup>93)</sup>

하지만 한편으로 이 시기의 도시공원과 공공정원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통해 형성된 대도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와 이론에서는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사건과 무관한 듯하다. 이는 이전

92) Thorstein Veblen,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94), pp. 81-4.

93) 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Walks(1833), p. 513.

의 정원이 소유자나 조성자의 철학적, 정치적 사상과 이상 등을 반영하는 개인적인 장소였던 것과 달리, 공원과 공공정원은 물리적 형태를 통해 특정한 이념을 직접적으로 투영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탈정치적인 성향은 <파리의 산책로>에서 알팡이 파리 코뮌의 여파를 다루는 부분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파리 코뮌 이후 티에르는 알팡을 파리 공사 책임자(directeur des travaux de Paris)로 임명하여 파괴된 도시를 보수하는 일을 맡겼다. 알팡은 이전 오스만 하에서의 파리의 재정비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논했던 것에 비해, 이 시기 재건 사업은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그는 파리 코뮌을 단지 파리 시내의 벤치를 망가뜨린 “고통스러운 사건”이라고 우회적으로 언급할 뿐, 이에 대한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는다.

오늘날 파리에 줄지어 서있는 나무의 수는 102,154그루이다. 가로수길에 의무적으로 놓아야 하는 벤치는 파리가 막 겪은 고통스러운 사건 이전에는 8,428개였다. 약 1/3이 파괴되거나 사라졌다. 우리는 여러 볼르바르와 아브뉴 사이에 이를 재배치하며 남아 있는 것들을 부지런히 대체하고 있다. 식재와 벤치의 관리 비용은 해마다 올라 19만 프랑에 달하는데, 나무 한 그루당 1프랑 49상팀, 벤치 한 개당 4프랑이 드는 꼴이다. 여기에는 죽은 나무와 망가진 벤치를 교체하는 것 뿐 아니라, 해마다 새로 페인트를 칠하는 비용이 포함된다.<sup>94)</sup>

도시의 공원과 공공 공원은 이를 조성하고 관리, 감독하는 주체인 정부 혹은 시당국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조성된다. 과거의 개인 정원과 달리 도시 내의 공공 녹지 공간은 일견 정치적 사상의 표현이 배제된 중립적인 공간,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시설처럼 보인다. 하지만 도시공원은 그 공원이 위치한 도시, 더 나아가

94) Alphand(1867-1873), p. 246. <파리의 산책로>의 표지에는 출판연도가 1868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873년까지 순차적으로 출판되었다. 상기 인용 부분은 파리코뮌이 있던 1871년 이후 집필된 부분으로 보이고, 전술된 오스만의 가로수 숫자와 차이를 보인다.



각 사회와 국가가 규정하는 이념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공원은 대중을 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자를 자극하는데 이용되었고 당시 급격한 도시 개발의 부작용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졸라는 <라 클로슈>지에 기고한 글에서 오스만의 도시정비는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어 가구 아래 감추는 청소와 다를 아니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스만 씨의 파리는 거대한 위선, 대규모의 기만이다. 넓고 거침없는 블루바르는 거짓말을 하고, 공모자일 뿐이다 . . . . 퇴비 더미를 감추고. 거기에서 나는 악취가 도시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꽃을 심은 스퀘어와 거대한 정원은 위선적인 미소를 짓는다. 모든 새로운 회반죽, 모든 새로운 도색, 모든 요란한 채색이 끔찍한 균열을 봉합하고, 곧 붕괴될 수리할 수 없이 손상된 집의 부스러기를 감춘다.<sup>95)</sup>

제 2제정기의 ‘자연스러운’ 공원 속에서 사람들은 ‘당국’의 요구와 사회적 갈등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느꼈지만, 사실 그 자유는 매우 제한된 것이었다. 파리라는 부산한 대도시에 자연을 이식한다는 생각이 군주의 오락거리 이상의 사업임을 나폴레옹 3세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일이었다. 공원이 상징하는 것, 그리고 공원이 약속하는 것은 사회적 조화의 환상이었다.

[볼로뉴] 숲의 도면은 나폴레옹 3세의 통치의 완벽한 상징이다. 표본형 수목 사이를 지나는 곡선의 길, 연못과 호수, 매력적인 잔디밭, 마차를 위한 넓은 길, 풍경을 드러내는 완만한 언덕이 곳곳에 있는 기복이 있는 부지, 이 모든 것은 무심하고 느긋하여 어떠한 당국의 개입도 없어 보일 것이다. 이 또한 거대한 속임수이다.<sup>96)</sup>

---

95) Émile Zola, “Le nettoyage de Paris sous Haussmann,” in *Oeuvres complètes*, Tome 5: Thiers au pouvoir, 1871-1873, (Paris: Nouveau Monde Éditions, 2003), p. 767.

현대 도시의 정원 미학의 핵심은 이처럼 에텐으로 대표되는 낙원이라는 주제로 환원된다. 이 주제는 휴식과 기분전환이 도시 생활의 긴장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긴장의 해로운 영향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제 2제정기의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은 반혁명적 전략의 하나였다.

---

96) Herbert(1988), p. 144.

### 제3절 근대적 시설로서의 도시공원

#### 1. 공원과 도시 공간 구조

##### (1) 대도시와 공원

19세기의 도시의 발전은 앞서 살펴본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에 따른 농촌인구의 대량 이주, 자본주의의 심화, 도시 정비를 통한 건조 환경의 변화, 정치적·정책적 도시 운동 등과 관련된다. 이 시기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느리고 부분적인 변형과 차이를 보인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인간과 도시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도시 질서를 회복하고자하는 움직임 또한 등장했다. 환언하면, 근대적 도시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가 등장했고, 근대를 특징짓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역동성이 생겨났다. 이러한 도시적 위기에 대한 반응과 실천, 사고의 과정 또한 모더니티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9세기의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생겨난 도시공원은 기존의 왕실이나 귀족, 종교 권력이 소유하고 있던 파크와 정원을 공공에 개방한 것도 있었고, 도시개발 과정에서 새롭게 조성한 것도 있었다. 기존의 녹지가 공공화된 경우, 공원의 위치와 형태가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미와 성격은 달라진다.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전용되던 공간이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 성격이 바뀌고, 물리적 형태상에 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공간이 지닌 의미는 바뀌고 새로운 역사적 맥락을 얻는다. 즉, 도시 내의 공공시설로서의 공원의 해석에는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이것이 조성된 상황과 이를 이용하는 이들과 이들의 행동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19세기의 도시공원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7세기의 도시설계는 정원을 창조하여 도시 내에 자연을 도입했다. 르 노트르는

기하학과 도시의 건설을 연관시키면서 이러한 자연의 순치를 추구했다. 시골과 달리 도시에서 자연은 전문가가 관할하는 영역이고, 시민들은 도시 공간의 정비와 조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환언하면, 근대 조경에서는 조성 주체와 이용 주체가 달라지고 다원화되었다.<sup>97)</sup> 공원 등의 녹지공간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도시의 허파’로서 중요한 기능을 해왔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도시 구조를 파괴하는 개발을 미화하는 포장재로 전용되기도 했다. 또, 공원은 도시 속의 ‘자연’을 재현하기도 하지만, 한정된 영역 내에 설계된 공원의 디자인과, 공원을 둘러싼 도시와의 연결은 ‘도시성(urbanity)’을 동시에 표현한다.

오스만의 파리 재건 계획은 외관상 혼란스러운 도시를 ‘조정하는(régulariser)’ 일이었다. 그는 과거의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직선의 대로로 바꾸고, 상하수도과 가스 등 등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마련하고, 옴니버스와 기차로 대표되는 대중교통 체계를 세웠다. 파리 근교 지역을 병합하여 오늘날의 20구 체계를 확립했고, 공원과 병원, 학교 등의 근대적 공공 시설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파리는 중세적인 모습을 탈피하여 “새로운 파리(Nouveau Paris)”가 된다.

거리가 날로 아름답게 변신하면서, 사방이 탁 트여 예전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파리의 중심부에서 시작돼 올라오는 마장타 로와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오느라로 로가 예전에 있던 시문을 통과해 나가면서 수많은 집이 사라졌다. 여전히 새하얀 회반죽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두 개의 대로 양 옆으로는 포부르 푸아소니에르 가와 푸아소니에 각각 붙어 있었다 . . . . 이미 오래전에 입시세관의 벽을 무너뜨리면서 확장된 외곽 도로 양 옆으로는 차로를 냈고, 보행자를 위해 조성된 중앙분리대에는 조그만 플라타너스를 네 줄로 심어놓았다. 끝없이 이어진 도로들로 이어진 거대한 교차로는 멀리 지평선까지 닿아 있는 듯했다 . . . . 나날이 더 호화스러워지는 파리의

---

97) 조경진(2010), p. 2.

뒤안길에서 더욱 더 두드러져 보이는 외곽 빈민가의 비참함이 빠르게 변모  
해가는 도시의 건설 현장을 더럽히고 있었다.<sup>98)</sup>

오스만의 도시 정비를 통해 파리는 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에 늪지대에 불과하던  
때 이후 처음으로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파리에게 수치를 안겨주던 어둡  
고 좁고 더러운 길을 없애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술적인 멋진 도로를 조성”하여  
파리를 변모시켰다.<sup>99)</sup> 당대의 비평가 고티에(Théophile Gautier)가 상찬했듯 파리는  
군주의 궁전 뿐 아니라 “도시도 환기가 되고, 깨끗해졌고, 청결해졌으며, 문명의 단  
장을 했다.”<sup>100)</sup> 파리 면적의 1/5이 도로와 식재 공간에 할애되었고, 이 중 1/3은 불  
로뉴와 뱅센느 숲이었다.<sup>101)</sup> 오스만 이전에도 도시를 정비하고자 한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시도들이 파편적이거나 미학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면,  
오스만의 계획은 단순한 위생 개선이 아니라, 거대한 소비시장이 된 대도시에 통일  
성을 부여하고 일정한 체계를 조성한 것이다. 통합된 개체로서의 대都市는 19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오스만의 계획에서 바로크 도시의 스펙터클한 양상과의 유사점  
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념비적인 효과를 중시한 바로크적 도시설계와 달리  
보이드를 위계화된 녹지에 할애했다는 점에서 오스만의 계획은 독창적이다.<sup>102)</sup>

19세기의 도시 정비를 수식하는 개념 중 본고의 내용과 관련 있는 개념 중 하나  
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들 수 있다. 기존의 것을 파괴하지 않으면

98) Émile Zola, *L'Assommoir*, 박명숙 (역), 『목로주점 2』, (과주: 문학동네, 2011), pp. 25-6.

99) Adolphe Alphand(1891), “Discours de M. Alphand sur M. le Baron Haussmann,” Georges Eugène Haussmann, *Mémoires du Baron Haussmann*, tome III. Grands Travaux de Paris (Boston: Elibron Classics, 2006), p. iii.

100) Théophile Gautier, “Préface,” in Édouard Fournier, *Paris démolí* (Paris: E. Dentu, 1883), p. xiv,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201368p>, (검색일: 2013년 7월 5일).

101) Graham Robb, *Parisians, An Adventure History of Paris*, Isabelle D. Taudière (trans.), *Une histoire de Paris par ceux qui l'ont fait* (Paris: Flammarion, 2012), pp. 196-7.

102) Françoise Choay, *The Modern City: Planning in the 19<sup>th</sup> Century*, Marguerite Hugo and George R. Collins (trans.), (New York: George Braziller, 1969), pp. 16-8.



<도판 4-41> <오스만-파샤> 풍자화, 1873.  
 자료: <http://expositions.bnf.fr>

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계란을 깨뜨리지 않으면 오믈렛을 만들 수 없는”<sup>103)</sup> 딜레마는 진보와 관련된 여러 범주의 모더니티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버만은 “개발이 쓸모없는 땅을 변화한 사회적, 물리적 공간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개발자 내부에 그러한 쓸모없는 땅을 재창출해내는 과정과 흡사하다. 이것

103)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 of Cultural Change* (Cambridge, Mass: Basil Blackwell, 1990), p. 16.



은 개발의 비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sup>104)</sup>고 이를 평가한 바 있다. 이는 도시개발을 창조적 파괴의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제 2제정기 오스만의 작업을 연상시킨다(도판 4-41).

벤야민에 의해 “19세기의 수도”라는 명칭을 얻은 파리에서 플라뇌르와 그들의 장소인 파사주(passage)는 사실 오스만의 변화를 통해 생겨난 19세기 말의 도시 환경이다. “산책하며 바라보는 활동”<sup>105)</sup>에 참여하는 사람인 플라뇌르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데, 주로 관찰자와 환경 사이의 관계, 소비 사회와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룬다. 파리의 아케이드는 플라뇌리(flânerie)를 위한 최적의 장소이고, 형태와 기능은 흥미롭다. 아케이드는 사유화된 공공 공간(privatized public spaces)의 초기 형태이고, 현대의 백화점과 쇼핑몰의 원형이다. 공원 또한 플라뇌르를 포함한 부르주아들의 주요 도심 여가 장소였고, 여기에 나타난 양상은 근대성의 또 다른 면을 제시한다.

19세기 후반 대도시에 새로이 조성된 공원과 공공 녹지는 균형 잡힌 도시개발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서유럽은 지리적으로 편서풍대에 위치하여 도시의 오염 물질이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퍼져나간다. 이런 까닭으로 서유럽의 도시에서는 서쪽에는 부유한 사람들의 거주 구역이, 동쪽에는 노동자나 빈곤층의 거주 구역이 위치했다. 런던의 서쪽에는 여러 왕실 파크가 개방되어 주민들을 위한 공원과 공공 산책로의 기능을 했다. 1833년 공공보행로선정위원회의 보고서는 런던의 동쪽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나 공공 산책로가 전혀 없다고 하여 지역에 따른 녹지 공간 편차를 지적한 바 있다.<sup>106)</sup> 1845년 런던 동쪽 이스트엔드에 있는 왕실의 파크가 대중에게 개방

---

104) Harvey(1990), p. 16. 또한 하비는 이런 딜레마의 원형을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의 <파우스트(Faust, 1808, 1832)>에서 찾았다.

105) Keith Tester(ed.), *The Flâneur* (London: Routledge, 1993), p. 1.

106) 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Walks(1833), p. 504

되어 빅토리아 파크라는 이름이 붙었다. 파리에서도 북쪽 노동자 밀집 거주지에 만국박람회에 맞추어 뷔트 쇼몽 공원이 개장했고, 이어 동남쪽에도 과거 왕실의 사냥터를 정비한 뱅센느 숲이 조성되었다.

## (2) 도시 개발의 요소

Ⅲ장에서 살펴보았듯, 19세기 서유럽의 대도시에 생겨난 도시공원의 조성에는 여러 요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이런 요건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함께 연동하여 19세기 서유럽의 대도시라는 특별한 맥락을 만들었다. 이는 19세기 서유럽 대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형성되었고, 그 속에서 작동하며 고유의 의미를 만들었다.

공원과 여러 녹지 공간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녹지축을 형성했다. 런던은 도시 경계가 확장되면서 도시 외곽에 있던 파크들이 도심에 편입되고, 대중에 개방되면서 자연스럽게 녹지축이 형성되었다. 미국의 파크 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오스만의 파리 도심 개조 계획을 보면 도심 어디에서도 쉽게 크고 작은 공원에 갈 수 있도록 녹지를 배치하고 이를 순환도로로 연결하고 있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파리의 녹지 형성에도 녹지축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파리에서는 시내 어느 곳에서라도 500미터 안에 크고 작은 공원이나 공공 정원, 스퀘어 등의 공공 녹지에 접근할 수 있다. 알팡은 <파리의 산책로>에서 파리의 모든 구역(quartier)에 거의 비슷하게 배분되어 있는 정원과 스퀘어 등의 녹지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sup>107)</sup> 이는 이후 오스만의 후임인 포레스티에(J. C. N. Forestier)의 파크 시스템(système de parcs)을 통해 20세기 초에 완성되었다.

---

107) Alphand(1867-1873), pp. 227,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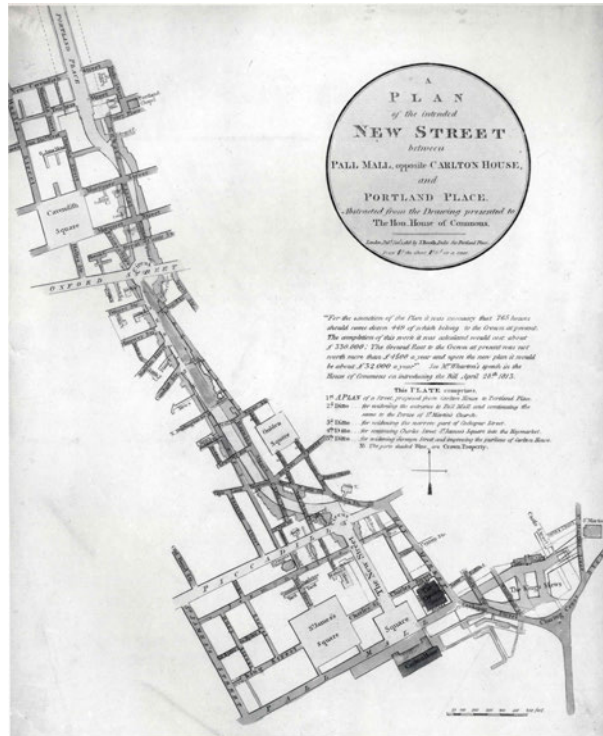
하지만 무엇보다도 19세기 서유럽의 대도시에서 도시공원 조성은 부동산 개발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다. 1811년 런던의 리젠트 파크 개발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고, 이곳의 성공은 이후 여러 도시에서 모방되었다. 런던 북서쪽에 위치한 이곳은 원래 바킹 수녀원장(Abbes of Barking Abbey)의 소유지였지만, 헨리 8세(Henry VIII, 재위 1509-1547)의 수도원해산령(the Dissolution of the Monasteries, 1536) 이후 왕실 소유가 되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매릴본 파크(Marylebone Park)라는 이름의 왕실 사냥터(park)와 임대 초지로 사용되었다.<sup>108)</sup> 런던이 급격하게 발달하던 19세기 초 왕실은 이 ‘교외 지역’의 부동산적 가치를 인식했고, 이곳을 1811년 섭정공(Prince Regent, 후의 조지 4세[Georges IV, 재위 1820-30])은 왕실의 여름 궁전을 포함한 고급 전원 주택단지인 “파크 빌리지(Park Village)”로 개발하고자 건축가 내쉬(John Nash)에게 설계를 명했다.<sup>109)</sup> 리젠트 파크는 1828년 완공되었고, 같은 해 동물원(Menagerie of the Zoological Society)도 개장했다.

내쉬의 목표는 크게 “왕실의 수익을 최대로 확보하고, 대도시에 아름다움을 더하며, 대중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는”<sup>110)</sup> 것이었다. 그는 연못과 운하, 새로운 왕실의 별궁이 있는 리젠트 파크와 왕자의 대저택인 칼튼 하우스(Carlton House)를 연결하는 곧고 웅장한 직선 도로(오늘날의 리젠트 스트리트)를 구상했지만 건설비를 충당할 수 없어 실현되지는 못했다(도판 4-42). 건축사가 크룩(Joseph Mordaunt Crook)이 언급했듯 오늘날 볼 수 있는 리젠트 스트리트의 “구불구불한 길은 호가스(William Hogarth)가 그렸음직한 아름다운 선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자가 그린 최대 이익의 선”<sup>111)</sup>이었고, “전통을 따르는 형식미와 활발한 기회주의가 경이로울 정

108) Clemens Steenbergen and Wouter Reh, *Metropolitan Landscape Architecture: Urban Parks and Landscapes*, (Bussum: THOTH, 2011), p. 116.

10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Robert Fishman, *Bourgeois Utopias*, 박영한, 구동희 (공역), 『부르주아 유토피아: 교외의 사회사』, (서울: 한울, 2000), pp. 90-101을 참조하라.

110) Giedion(1998), p. 676.



<도판 4-42> 부스, <뉴 스트리트 계획>, 1818.

자료: Barker & Jackson, *The History of London in Maps*, p. 90.  
 도면에 기입된 설명에는 “계획의 실행에는 449채의 왕실 소유의 가옥을 포함한 756채의 가옥이 철거되어야 한다. 완공에는 약 33만 파운드가 예상된다. 현재 왕실의 토지 임대료는 1년에 4천5백 파운드에 못 미치지만, 새 계획이 실현되면 수익은 1년에 약 3만2천 파운드가 될 것이다”라고 기입되어 있다.

도로 성공적으로 혼합된 유일무이한 결과물”<sup>112)</sup>이었다. 또한 리젠트 스트리트의 건설로 런던의 “귀족과 젠트리”가 사는 서쪽과, 노동자와 소상인 계급이 거주하는 동쪽이 지리적으로 분리되었다.

렘턴(Humphrey Repton) 식으로 (재)설계된 공원 안에 있는 각각의 빌라는 나무로 둘러 싸여 마치 시골 파크에 있는 개인 영지에 있는 듯했다(도판 4-43). 처음에

111) A. N. Wilson, *London: A History* (New York: Modern Library, 2006), p. 90.

112) John Summerson, *Georgian London* (Cambridge, Mass.: MIT Press, 1978), p. 168.



<도판 4-43> 1826년의 리젠트 파크

자료: Barker & Jackson, *The History of London in Maps*, p. 91.



<도판 4-44> 작가미상, <리젠트 파크 일대의 파노라마 풍경>의 부분, 1828년경.

자료: Longstaffe-Gowan, *The London Square*, p. 117.

는 빌라, 테라스 하우스의 주민들과 마차를 갖춘 부유한 귀족들만이 파크에 들어올 수 있었다. 파크 주변에 늘어선 테라스 하우스들은 스투코로 장식한 기둥과 고전적인 조각으로 장식되어 저택 같은 인상을 준다(도 4-44). 이 테라스 하우스는 신흥 부르주아들에게 인기 있는 주거지가 되었다. 1817년부터 25년 사이 영국에 미국공사로 파견되었던 러시(Richard Rush)는 회고록에서 런던의 급격한 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1829년에 영국을 잠시 다시 방문했다. 4년만이었지만 나는 런던의 확대에 깜짝 놀랐다. 예전에 내가 알기로는 풀밭과 들판밖에 드러나지 않았던 도시의 웨스트엔드에 있던 리젠트 파크는 이제 하나의 도시가 되었다.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길이 보이는데, 외관이 장관이었다 . . . . 1819년에는 폐허였던 핀츨리 커먼(Finchley Common)에는 말쑥한 오두막들이 가득하고, 하나의 마을이 되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조짐은 비슷했다 . . . . 이 새롭고 넓은 거리[리젠트 스트리트]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옛 거리가 파괴되었고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 맨체스터와 리버풀, 버밍엄, 그리고 내가 방문한 다른 지방 도시들도 규모는 작아도 이만큼 확장된 것처럼 보였다.<sup>1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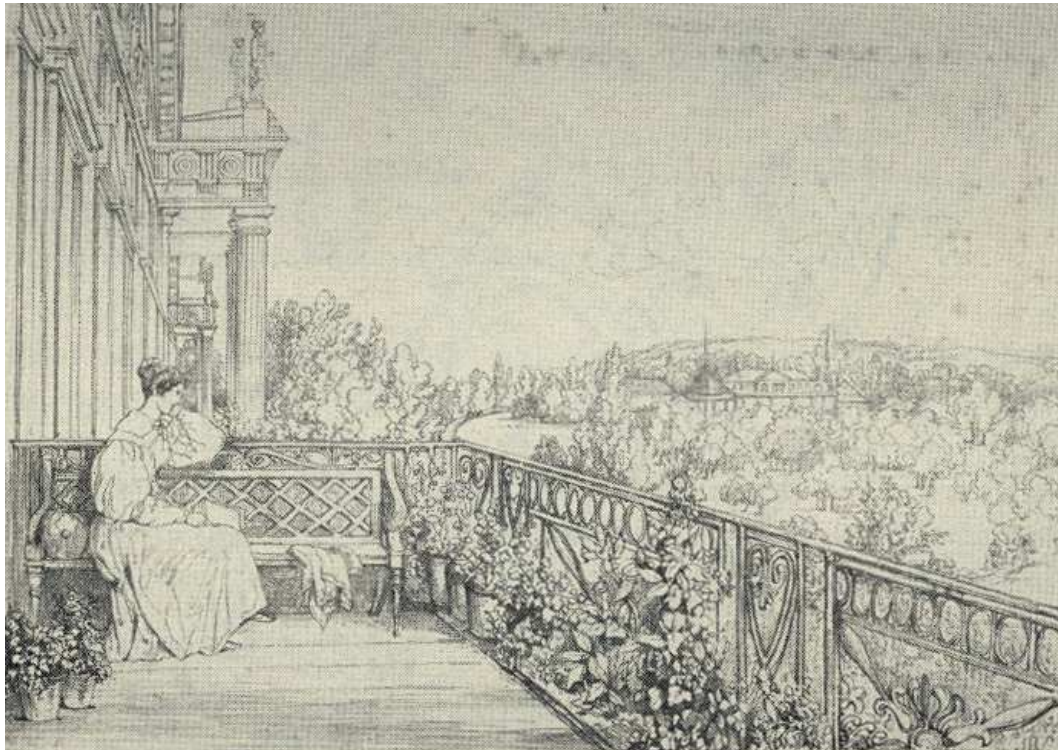
리젠트 파크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된 파크 크레센트(Park Crescent) 주택 단지가 포틀랜드 광장(Portland Place) 끝 부분에 개발되었고, 이 사이에는 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이 조성되었다. 리젠트 파크에 입주한 이들은 대부분 산업혁명과 식민지 개발, 전쟁에서의 영국의 승리 등을 통해 부를 쌓은 신흥 부르주아들이었다(도 판 4-45).<sup>114)</sup>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되었음을 라우던은 다음과 같이 지

---

113) Richard Rush, *A Residence at the Court of London* (London: R. Bentley, 1933), pp. xi-xii, <https://archive.org/details/aresidenceatcou00rushgoog> (검색일: 2013년 11월 22일).

114) Giedion(1998), pp. 6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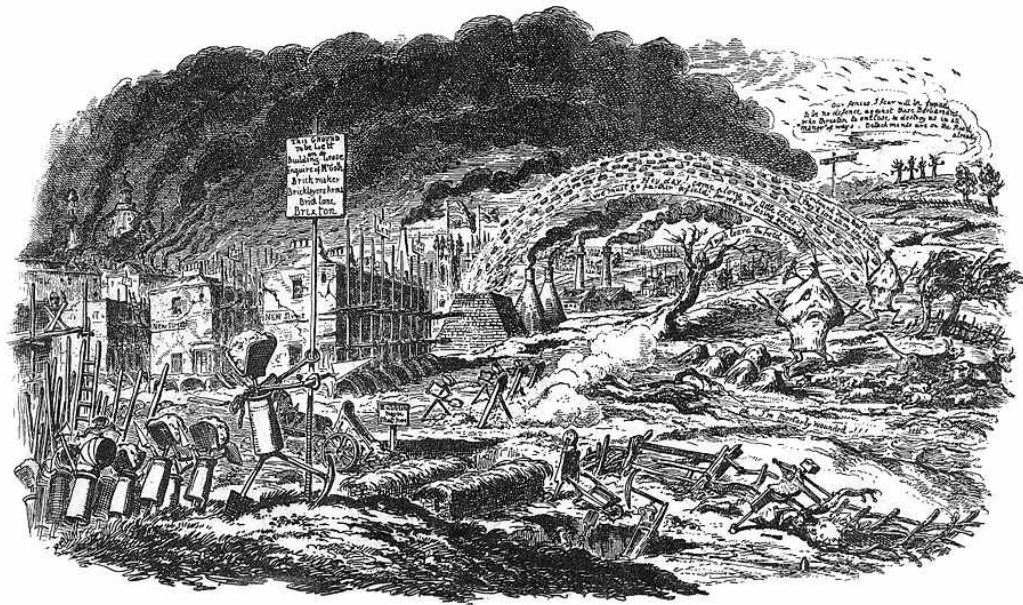
<도판 4-45> 작자미상, <리젠트 파크를 내려다보는 하노버 테라스의 발코니 풍경>, 1830년경.  
 자료: Lawrence, *City Trees*, p. 182.

적했다.

여기저기 있는 빌라와 주변에 줄지어 늘어선 집들과 정원 때문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된 것이 유감스러울 뿐이다. 왜냐하면 말 위에서나 마차에서 풍경을 볼 수 있는 부유한 시민들은 나무 사이로라도 공원의 특징을 알아챌 수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면적이 개인 부동산이 되어버려 보행자와 산책로는 제한되었고, 볼 수 있는 풍경도 한정되었기 때문이다.<sup>115)</sup>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부의 증가와 도시로의 인구 유입으로 리젠트 파크 뿐 아니라 런던 전역에서의 건설이 호황을 맞았다. 1829년 풍자화가 크뤼크생크(George

<sup>115)</sup> Loudon(1825), p. 1028.



<도판 4-46> 크뤼크샹크, <도시를 벗어나는 런던 혹은 벽돌과 모르타르의 행진>, 1829.  
자료: 런던 박물관.

Cruikshank)가 제작한 에칭화 <도시를 벗어나는 런던 혹은 벽돌과 모르타르의 행진!(London Going out of Town or the March of Bricks and Mortar!)>은 1820년대의 급격한 도시 확장을 다루고 있다(도판 4-46). 화면 왼쪽 하단에는 ‘고스 씨(Mr. Goth)’의 지휘 하에 로봇 병사들이 열을 지어 벽돌을 만들거나 시골의 울타리를 철거한다. 얼마 전까지 교외였던 곳이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고, 짚단과 나무는 도망가려 애쓴다. 벽돌을 만드느라 파헤쳐진 땅은 도시의 쓰레기로 채워지고, 그 위로는 다시 길을 따라 집들이 세워지며 도시에 편입된다. 디킨스는 당시의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서 이를 생생하게 묘사했다.

여기에는 부자연스러운 가파른 언덕 기슭에 뒤집힌 수레들이 뒤죽박죽 뒤엉켜 있었고. . . 길이가 짧은 굴뚝들의 바벨탑이 솟아올랐고, 있을 법하지 않은 곳에는 나무로 지은 임시 가옥이 들어섰고, 누추한 공동 주택의 부스러

기, 완성되지 못한 담벼락과 아치, 비계 무더기, 벽돌. . . 즉 아직 완공되지 않아 개통되지 못한 철로가 건설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엄청난 무질서에서 문명과 개선의 강력한 과정이 순조롭게 뻗어나가고 있었다.<sup>116)</sup>

리젠트 공원의 부동산 개발 측면은 팩스톤(Joseph Paxton)이 설계한 버큰헤드 공원(Birkenhead Park)에서 반복되었다. 버큰헤드 공원은 새로 개발되는 시가지의 환경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되었고, 공공자금(publicly funded)을 통해 조성된 최초의 공원으로 알려져 있다. 뮌헨의 영국식 정원(Englischer Garten)이 근대적 의미의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공원으로 여겨지지만, 버큰헤드 공원의 중요성은 물론 올스테드의 방문으로 1850년대 시작된 센트럴 파크의 선례가 되었고, 특히 동선 체계와 공원이 주택 부동산 환경의 가치를 계속해서 인식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올스테드는 저서 『한 미국 농부의 영국 산책과 이야기(Walks and Talks of an American Farmer in England, 1852)』에서 이제 막 개장한 버큰헤드 파크의 여러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며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이와 비길만한 것을 볼 수 없는 “민중의 정원(People’s Garden)”<sup>117)</sup>이라고 상찬한다. 하지만 그는 또한 버큰헤드 공원의 조성을 통해 “몇 년 전에는 거의 가치가 없는 황무지였던 곳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 땅”<sup>118)</sup>이 되었고 조성 단계부터 개발을 염두에 두고 남겨둔 주변 택지에는 이미 저택들이 들어서고 있음을 지적했다(도판 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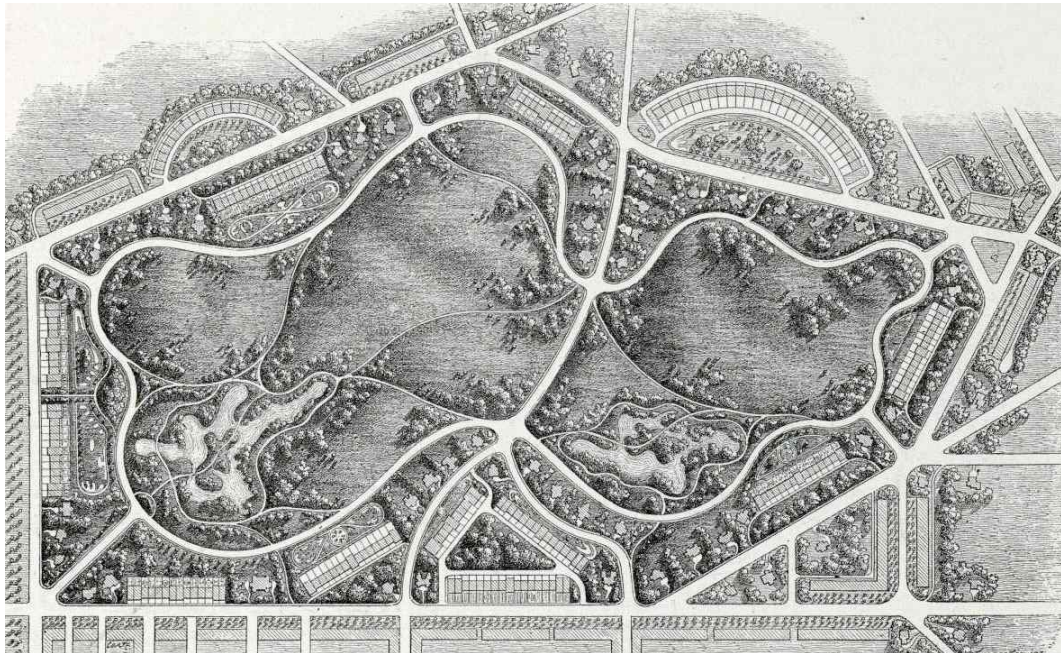
이 새로운 도시가 가장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지로 주목할 만할 뿐 아니라, 곧 대규모의 수익성 있는 상업으로 알려질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

116) Charles Dickens, *Dombey and Son* (London: Bradbury and Evans, 1848), p. 46.

117) Olmsted(1852), p. 79.

118) Olmsted(1852), p. 82.



<도판 4-47> 버큰헤드 공원의 도면, 1846년경.

자료: Alphand, *Promenade de Paris (texte)*, fig. 100.

공원 조성 단계부터 주변 60에이커에 32개의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했다.

없다. 여기는 내가 본 곳 중에서 유일하게 19세기의 특징인 진보된 과학, 취미, 진취적 기상이 조화를 이루며 건설된 곳이다. 일반적인 특징에 예외가 되는 것이 많을 테지만, 나는 이를 묻지 않을 것이고 논평하지도 않았다. 분명, 내가 본 본 것은 하나의 모델이 되는 도시였고, 이는 박애주의자와 취향이 고상한 사람들 뿐 아니라 투기꾼과 사업가들에게도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sup>119)</sup>

유럽과 북미의 도시공원은 사회공학과 도심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개발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앞서 살펴본 리젠트 공원과 버큰헤드 공원은 주거지 개발의 초점으로서의 도시공원의 모델이었다. 버큰헤드 파크는 경제적으로 퇴락한 지역이었고, 움스테드와 보는 부동산 가치 상승의 도구로서의 공원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파리

119) Olmsted(1852), p. 83.

의 공원들도 비슷하게 투자를 활성화 시켰다. 공원을 포함한 파리의 개발 또한 부동산 투기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알팡은 <파리의 산책로>에 각 숲과 공원, 정원, 스퀘어 등의 조성비용을 상세히 기록했고, 투자자들에게 부지를 재판매하여 비용을 충당했다고 했다. 알팡이 불로뉴 숲의 개발에서 강조한 공원 개발을 통한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sup>120)</sup> 그리고 이를 통한 이익 환수는 오늘날에는 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잭슨(John Brinkerhoff Jackson)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여러 도시에서 나타난 대중에게 개방된 픽처레스크한 공원은 . . . . 세 개의 분명한 사회력(social forces)의 효과를 대변한다. 혼잡한 산업 중심부에서의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 모든 계층이 ‘자연스러운’ 환경의 도덕적, 신체적 혜택과 밀접하게 접하게 하고자 하는 욕구, 새로운 공원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sup>121)</sup>

공원과 공공 정원은 19세기의 발명품이지만, 이 시기는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부동산 개발의 물결 속에서 수많은 오래된 개인 정원들이 사라진 시기이기도 하다. 몽소 공원과 일대의 예를 들면, 과거 오를레앙 공의 별장이었던 몽소 공원은 이 시기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오스만의 도시 재건 사업 당시, 크레디 모빌리에 합자은행(Société Générale de Crédit Mibilier)의 소유주인 페레르 형제(Emile and Isaac Péreire)는 철도와 채권,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대형 이권 사업에 뛰어들어 큰 이익을 남겼다. 이들은 개선문과 샹젤리제 주변에 부유층을 위한 고급 주택가를 개

120) 알팡은 개발 전 미터 당 1.5-6프랑이던 주변의 지가가, 20-100프랑으로 상승했고, 1,350헥타르의 부지에 487호의 성과 고급 빌라가 건설되었다고 했다. 불로뉴 숲의 조성비용은 총 14,352,004프랑이고, 이 중 부동산 판매로 8,779,365프랑을 회수했다. 뱅센느 숲의 조성에는 23,742,740프랑이 들었고, 12,000,000프랑을 회수했다. Alphand(1867-1873), pp. 6, 172.

121) John Brinkerhoff Jackson, *A Sense of Place, A Sense of Tim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4), p. 114.



발했고, “새로운 파리에 필요한 화단”<sup>122)</sup>인 몽소 공원을 공원으로 정비하면서, 정원의 면적을 줄이고 그 주변을 최고급 주택가로 개발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윤 추구는 제 2제정기 파리 개발 시기의 투기 열풍과 상류층의 배금주의와 도덕적 타락을 주제로 하는 졸라의 『쟁탈전(La Curée, 1871-2)』<sup>123)</sup>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소설은 사카르의 젊은 두 번째 부인인 르네(Renée)와 첫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인 막심(Maxime)이 불로뉴 숲으로의 마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루이 필립 시기까지 샹젤리제 외곽 지역은 거의 개발되지 않았고, “아무리 좋게 말하려 해도 낮에는 아주 추하고, 밤에는 매우 위험한 곳”<sup>124)</sup>이었다. 하지만 불로뉴 숲 또한 1850년대 파리 교외 지역의 개발과 함께 정비되어, 주변 신흥 부촌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장소가 되었다. 특정한 시간에 “막 물감을 칠한 것처럼 보이는”<sup>125)</sup> 불로뉴 숲에 모여 마차와 새로운 옷, 장신구를 뽐내는 마차 산책은 상류층의 사교 생활에서 중요한 일이었고, 졸라는 이를 정확한 지리적 설명과 함께 생생하게 묘사한다.

부동산 투기로 벼락부자가 된 주인공 사카르(Aristide (Rougon) Saccard)의 저택은 몽소 공원 근처에 개발된 고급 주택가에 위치하고,<sup>126)</sup> “모든 양식을 풍성하게 섞

122) Zola(1993), p. 229.

123) 소설 집필 전, 졸라는 대규모 파리 개발 계획과 관련된 금융/부동산 투기,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이득을 본 벼락부자들의 사치스러운 행각, 제정의 비윤리성과 퇴폐적인 풍토를 비판하는 글들을 공화파 신문에 기고한 바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는 『쟁탈전』을 1871년에 <라 클로슈(La Cloche)>지에 연재했고 이듬해 <루공 마카르 총서>의 두 번째 권으로 출판했다. ‘사냥개들에게 나누어주는 고기덩어리’라는 curée의 본뜻이 의미하듯, 개발 중인 파리를 둘러싼 이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투기꾼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124) Victorien Sardou, “Preface,” in Georges Cain, *The Nooks & Corners of Old Paris*, (London: E. G. Richards, 1907), <https://archive.org/details/nookscornersofol00cain> (검색일 2013년 11월 18일), p. li.

125) Zola(1993), p. 42.

126) 이러한 대저택(palais, hôtel)은 17-8세기에는 귀족들의 전형적인 파리 시내 거주 형태였지만, 이들이 혁명과 왕정복고의 부침을 겪으며 경제적 주도권을 잃었기에 19세기에는 매우 드물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배 계급이 된 부르주아지가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졸라의 소설에 묘사된 것 같은 대저택을 짓기도 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였다. 대부분의





<도판 4-48> 몽소 공원의 입구

자료: 황주영(2013)

건축가 다비우가 설계한 루이 15세 양식의 화려한 철창살 입구는 제 2제정의 절정기를 상징한다.



<도판 4-49> 몽소 공원 주변의 호화 저택(호텔)의 예

자료: 황주영(2013)



<도판 4-50> 봉 마르세 백화점의 대 계단, 1872.  
자료: 프랑스 국립도서관



<도판 4-51> 루브르 백화점의 확장, 1877.  
자료: 프랑스 국립도서관



은 잡종 같은”<sup>127)</sup> 화려한 제 2제정기 양식을 집대성한다. “새로 지은 루브르궁의 축소판”으로 묘사된 사카르의 화려한 저택은 몽소 공원과 연결되고, “현대의 백화점의 유리 같은” 유리창을 통해 소설 속의 줄부들의 “번쩍이는 승리”가 보인다(도판 4-48, 4-49).<sup>128)</sup>

하지만 이러한 번영 뒤로는 개발에 밀려 사라질 운명에 처한 옛 거리의 모습이 함께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백화점 또한 이 시기에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이 등장한 근대적 상업시설이다(도판 4-50, 4-51). 줄라는 소설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 (Aux Bonheur des Dames)> 세계 최초의 백화점인 봉 마르셰(Bon Marché)를 모델로 하여 번성하는 백화점을 묘사했다. “현대 상업의 대성당”인 백화점은 “소상인들을 짓이기는”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증기기관으로 작동하고,”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죽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넓고 햇빛이 잘 쬐이는 새로운 직선의 대로에 위치한 백화점과 마주한, 전통적인 작은 상점들은 이 거대한 “거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들의 상점이 있는 좁고 구불구불한 어두운 골목길도 마찬가지로의 운명이었다. “무너져 내린 구시대의 잔해를 휩쓸고 지나가는, 세기의 광풍에 실린 노동자와 산업 왕국의 승리가 곳곳으로 퍼져나갈” 때, “곰팡이 슬고 악취가 풍기는 구시대의 유해는 이제 새로운 파리의 찬란한 햇빛이 비추는 거리에서는 한낱 수치스러운 흉물”이기 때문이다.<sup>129)</sup>

---

부르주아들은 오스만화로 정비된 파리 시내의 거리를 따라 늘어선 아파트에 살았다.

127) Zola(1993), p. 53.

128) Zola(1993), p. 53. 줄라는 소설에서 특정한 저택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여러 호화로운 저택의 요소들을 선별하여 사카르의 집을 창조해냈다. 이에 대한 정리는 Rodolphe Walter, “Le parc de Monsieur Zola,” *L’œil*, 272, 1978, pp. 20-22를 보라.

129) Emile Zola, *Aux Bonheur des Dames*, 박명숙 (역),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 1』 (서울: 시공사, 2012), pp. 127, 350;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 2』, pp. 8, 210, 239.

## 2. 근대적 인식의 장

### (1) 근대 시민 형성의 공간

19세기의 도시공원은 당시 형성된 근대사회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작동했고, 근대의 복합적인 성격을 내포했다. 19세기의 시민은 유럽을 근대사회로 나아가게 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통해 사회의 전면에 나타난 계급으로, 이전 세기까지 왕과 귀족, 성직자 등의 일부 특권층에게만 한정되었던 파크와 시내 정원 등의 녹지 공간을 공공의 영역으로 이동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들이었다.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근대적 시설의 주요 이용자들도 19세기의 시민들이었다.

새로이 정비된 도시와, 그 안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과 공공 정원은 시민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도구이기도 했다. 합리적 체계 하에 정비된 도시는 이성적 사고를 통한 질서의 확립을, 풍경화식으로 정비된 공원은 민주주의적인 정신을 반영하고 또 도시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작은 오아시스였다. 이는 19세기 대도시에 살면서 도시공원을 이용한 이들은 공원을 조성되어야 했던 직접적인 이유였고, 또 이렇게 조성된 도시공원의 물리적 구조와 그 안에서의 행위에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생각과 가치관이 조성되는 객체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도시공원 내에서의 일상은 도시공원의 모더니티의 핵심적인 요소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당시의 맥락에 따라 도시공원을 보아야 할 것이다.

도시 공간 내 공원의 배치와 이를 이용하는 방식은 계급 간의 (비)가시적 경계를 인식하게 만들고, 이는 부르주아 자본주의로 이행하던 19세기 후반 서유럽 대도시의 근대성을 반영한다.<sup>130)</sup>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형성된 19세기 근대사회에는 변화한 사회의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다. 이는 근대 대도시에서

130) 도로 조성은 이 시기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지만, 도로의 확장, 그리고 도로와 기념비성의 결합이 이 시기의 특징으로 고려할만하다. François Loyer, "A Propos de l'haussmannisme français," *Revue de l'art*, 106, 1994, p. 10.

근대인들의 삶 속에 자리 잡았고, 새로운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변화가 이에 반영되었다. 이런 시설들은 과거부터 있던 시설의 형식과 내용, 이용 방식이 근대적으로 바뀐, 즉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옮겨온 경우도 있고, 과거의 선례 없이 이 시기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경우도 있었다. 근대 사회와 시민의 일상 속에서 19세기의 근대건축시설과 도시공원이 어떻게 생겨났고, 이에 어떠한 원리가 작용했는가를 조망하는 일은 19세기의 공원에 내재한 모더니티 탐색의 기초가 된다.

신분 계급에 따라 입장 자격이 달라지던 과거의 건축물들과 달리 이 시기의 새로운 건축물들은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펄스너는 기념물, 병원, 도서관, 학교, 박물관, 극장, 박람회, 감옥, 수용소, 호텔, 은행, 사무실과 창고, 공장, 백화점, 증권거래소, 기차역, 의사당, 행정관청, 재판소 등이 이 시기에 나타난 새로운 건축물로 분류한다.<sup>131)</sup> 이 중 공원과의 비교가 유의미한 것으로 박람회와 박물관, 디오라마, 상업시설을 들 수 있다. 관공서와 증권거래소, 은행, 사무실 등은 공적인 건물이지만, 일반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건축시설이라는 한계가 있다. 19세기 말에 등장한 공공교육의 장소인 학교 또한 주로 아동의 초등교육을 위한 시설이었고,<sup>132)</sup> 병원과 수용소 등의 시설은 질병이나 범죄를 이

131) Nikolaus Pevsner, *A History of Building Typ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한편 제들마이어는 18세기말 이래로 이전에는 없었거나, 주도적이지 않던 과제들이 등장했다고 하며 조원(造園), 건축적 기념물, 박물관, 극장, 박람회, 공장을 열거했다. Sedlmayr, 앞의 책, p. 49.

132) 수도권과 대학 등 일부 계층이 독점하던 교육은 산업혁명 이후의 노동자 계층의 훈련 필요성과 이들의 교육 욕구에 의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기계의 사용에는 어느 정도 훈련된 노동력이 필요했고,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훈련소 개념의 학교가 등장했고,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자녀들을 돌보며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 등을 가르치고, 또 미래의 노동자들을 훈련시키는 학교가 생겨났다. 또한 시민혁명 이후 대중의 교육권 요구가 거세지면서 공공교육을 위한 시설인 공공학교가 생겨났다. 19세기 유럽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민교육제도가 생겼고, 그 외에도 중등학교와 실업학교, 기술학교 등이 제도화 되었다.

유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설이기에 일상적인 공간은 아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진열한 공간인 상업건축물과 선진 문물을 분류하여 전시하는 박람회와 박물관, 새로운 구경거리인 디오라마 등, 거리, 기차역 등이 도시공원에서의 행태와 비교할 때 의미 있다. 이들은 도시민들의 일상에서 보편적인 장소이지만, 생산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를 하는 공간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런 공간들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 아니었고, 잠시 머무는 한시적인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공간들은 18세기 말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했고, 유럽의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며 형성된 근대 대도시 사회에서 부르주아 중산층이 새로운 중심 세력으로 부상한다. 이들의 가치 체계는 이른바 중산층 문화를 형성하고, 이는 위와 아래쪽 양쪽으로 모두 저변을 확대해 나갔다.<sup>133)</sup> “노동과 자조의 가치, 출신이 아니라 위치에 의한 지위, 결혼의 신성함과 절약, 금주, 자선”<sup>134)</sup> 등의 중산층의 미덕은 이 시기 등장한 공공 서비스와 결합하여 19세기 서유럽 대도시의 사회적 성격을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중류층의 범위 자체가 확대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대중문화가 생겨나 발달한다. 또한 회화와 문학 등의 예술 분야에서 대도시의 ‘대중(mass)’의 이미지가 등장한다. 인구가 집중하며 생겨난 도시적 특성인 대중은 거리와 공원, 박람회 등의 풍경을 차지한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우연히 대도시의 한 장소에 모여드는 현상은 이전의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드문 현상이

---

133) 적어도 1명 이상의 피고용인, 사무직 직원, 점원, 장부담당자를 둔 사업주와 그 이상의 전문직, 관리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산층은 1870년 런던 인구의 35-43%, 파리 인구의 45%를 차지했다. 이들은 수도에 집중되었고, 1867년 영국 인구의 약 23%가 중산층이었다. Sennett(1992), p. 138.

134) Williams(2007), p. 114.



다. 도시공원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만나는 사회적 접촉은 공원이 지닌 장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갈등과 차별, 분리가 존재했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섞일 수 있는(social mix) 장소를 지향했던 공원과 공공 정원은 상류층의 위락 정원이 되었고, 시의 외곽에 위치한 숲은 교통수단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 계급이 접근하기 어려워 계속 부자와 상류층의 영역으로 남았다.<sup>135)</sup>

일요일이나 휴일을 제외하면, 모든 계층의 파리 사람들이 파리 외곽에 위치한 이 두 산책로, 즉 불로뉴 숲과 뱅센느 숲에 갈 수 있도록 한 모든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는 거리와 오가는 이동 시간, 그리고 교통비 때문인데, 아무리 절약해도 여러 번 오가는 데는 비용이 든다. 확장되고, 변모했고, 미화된 우리의 수도의 모든 주민을 위해 마련한 이 두 거대한 창조는 일주일 사이에 부유한 이들의 독점물이 되다시피 했는데, 특히 불로뉴 숲이 그러하다.<sup>136)</sup>

이때의 계층은 신분 질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지위에 의한 것에 더 가까웠다. 사회전복적인 혁명이 없던 영국에서는 기존의 신분제와 자본주의 신분질서가 뒤섞인 상태였고,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신분제가 철폐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흔적은 남아 있었다. 여기에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자본주의 체계로의 이행 속에서 오스만이 주도한 “부르주아적 질서의 확립,” 그리고 그 결과인 신흥부자(nouveaux riches)들까지 섞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지불

---

135) 이는 보다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표방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크란츠는 이와 비슷한 현상이 미국의 도시공원에서도 나타났고, 도시노동자나 여러 인종 그룹(ethnic groups)이 즐기던 놀이와 스포츠 경기의 대부분이 이러한 도시 공간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음을 지적한다. Galen Cranz, *The Politics of Park Design: A History of Urban Parks in America*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89).

136) Haussmann(1890), pp. 224-5.

능력에 따라 위치가 결정되는 다른 시설(기차, 극장, 병원) 등과 달리 이러한 구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공원에서는 더욱 더 미묘한 문제였다. 기존의 독자적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공공에게 개방되자, 기존의 상류층들은 더욱 더 배타적인 공간을 추구한다.<sup>137)</sup>

공원 자체는 무료로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음악회 등의 행사에는 별도로 입장료를 내야 했다. 입장료를 지불하고 음악회에 감으로써, 음악 연주 또한 하나의 상품이 된 것도 변화의 하나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입장료가 아무리 적어도 그만한 돈은 어린 것에게 필요한 물건 하나를, 그리고 또 사치품이나 장난감을 사주기에 충분했을지도 모를”<sup>138)</sup> 것이기에, 입장료는 그만한 여유가 없는 계층을 공공장소에서 소외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부르주아들에게는 공원 야외 음악회가 “무위도식에 싫증난 한가한 사람들이 건성으로 음악을 음미하고,” “사는 것에 대한 기쁨과 무사태평한 분위기만이 숨쉬는” 곳이었지만, “공공 음악회장 울타리 주변으로 모여드는 가난한 군중”은 “철책 밖에 기대어 바람결에 들려오는 음악 파편을 주워들으며 안쪽의 찬란한 용광로를 바라보며” 위안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sup>139)</sup>

오스만의 파리 개조로 파리의 공원은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

137) 이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나 국내외 휴양지의 장거리 여행 등의 유행이 이를 반영한다. 한편 공공 공간 발달의 역사 자체를 이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태도를 취하는 기득권과 이에 포함되고자 하는 신진 세력 간의 끊임없는 분투의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Don Mitchel and Richard van Deusen, “Downsview Park: Open Space or Public Space?” in *CASE-Downsview Park Toronto*, Julia Czerniak (ed.)(2001), (Munich: New York: Prestel, 2001), pp. 104-5를 참조하라.

138) Baudelaire, “Les Veuves,” in *Oeuvres Complètes I*, (Paris: Gallimard, 1975), p. 294.

139) Baudelaire, “Les Veuves,” in *Oeuvres Complètes I*, (Paris: Gallimard, 1975), pp. 293-4. 이런 점에서 파리지 수석 정원사 앙드레가 1867년도 <파리 가이드(Paris-Guide)>에서 파리의 공원을 “부르주아의 에덴(Eden bourgeois)”이라고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Edouard André, “Les Jardins de Paris,” in *Paris-Guide*, Louis Ulbach (ed.), Paris, 1867, rep. (Paris: Corinne Verdet, 1983), p. 60, Christopher Prendergast, *Paris and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Mass.: Blackwell, 1992), p. 167에서 재인용.

공의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나타났다. 공원에서 하는 산책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이용 시간과 복장, 이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더욱 더 정교하게 위계화 된다.<sup>140)</sup> 이는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규정한 상징자본(symbolic capital)과도 맥이 닿아 있다. 에티켓과 매너, 취향과 감식력, 패션은 계급적 소속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대도시의 혼란 속에서 이는 특정한 계급에 소속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문화적 헤게모니로 작동한다.<sup>141)</sup>

오스만화를 전후로 한 시기의 파리의 과도기적 모습이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발자크의 작품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잃어버린 환상(Illusion Perdue, 1837-43)>에 묘사된 툴리리 정원은 귀족과 부르주아, 그리고 이들을 노리는 난봉꾼과 매춘부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도판 4-52). 최신 유행의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행렬하듯 산책을 하는 이들을 보며 시골에서 올라온 야심찬 청년인 주인공 뤼시앙(Lucien Chardon)은 자신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

저녁식사를 하러 갈 때까지 산보나 할 생각을 하며 툴리리 궁전 쪽으로 내  
달렸다. 즐겁게 강충강충 뛰며 행복감으로 가벼워진 뤼시앙은 페이양 테라

140) 당시 델보가 작성한 파리 안내서에는 각 공원과 정원을 찾는 이들의 특징이 잘 묘사되어 있다. 가령 볼로뉴 숲은 주중에는 파리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의 공공 산책로이지만, 주말에는 서민들의 차지이다. 뱅센느 숲은 주중에는 거의 비어 있고, 일요일에는 포부르 생탕투안(Faubourg Saint-Antoine)의 프티 부르주아나 노동자들로 가득 찬다. 몽소 공원은 주변의 금리생활자가, 뤼상부르 정원은 학생과 여공, 어린이, 노인이, 가장 귀족적인 툴리리 정원과 샹젤리제에는 상류층이 오간다. Delvau(1867), pp. 27-45.

141) 계급 사회에서의 자본은 크게 경제자본과 상징자본으로 나뉜다. 이때 상징자본은 다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로 구분되며, 문화자본은 가족 내에서 전수되거나 교육 체제에 의해 생산된다. 이는 세 가지 형태로 세분되는데, 첫 번째는 ‘내재화된’ 코드로서 말투나 매너 같은 지속적인 성향이다. 두 번째는 책이나 미술품 같은 문화 재화 같은 대상화된 형태이고, 세 번째는 제도권 교육의 형태이다. 이는 경제적 자본의 소유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일종의 (문화적, 상징적, 학문적) 자본이 있을 때에만 문화생산의 장에 참여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연줄과 관계망으로 정의되는 자본으로, 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일정한 사교 노동이 필요하다. Pierre Bourdieu,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Essays on Art and Litera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 7-8.



스로 나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산보객이며, 애인들과 함께 있는 멋진 여인들, 쌍쌍으로 팔짱을 끼고 지나가며 서로에게 눈인사를 보내는 우아한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 . . . 뤼시앙은 텔르리에서 괴로운 두 시간을 보냈다. 그는 거기에서 갑작스레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스스로를 판단했다. 우선 그는 이 우아한 젊은이들 중 누구도 연미복을 입은 것을 보지 못했다. 어쩌다 연미복을 입은 이들이 보였지만, 그들은 떠돌이 노인이거나, 어떤 가난뱅이이거나, 마레 동네에서 온 연금 생활자이거나, 어느 사무실의 급사였다. 낮 복장과 저녁 복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격렬한 감정의 소유자이고 눈이 밝은 이 시인은 자기의 헛 옷은 누추하고, 결점이 많은 연미복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자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 . . . 뤼시앙은 이 세계와는 심연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 이 심연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자문했다. 자기도 저 날씬하고 섬세한 파리의 젊은이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sup>142)</sup>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이에 따른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근대적 공간이 생겨났고, 이는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을 모두 바꾸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개개인은 근대 사회가 요구하는 근대적 시민이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동을 통한 경제 생산 방식이나 학교를 통한 교육 방식, 근대적 사회가 제정한 규율을 어겼을 때 감옥 시설에 수감하는 체벌 방식, 환자를 병원에서 돌보는 치료 방식, 규정된 방식에 따라 노동 외의 시간을 보내는 여가 시설 등을 통해 근대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시민으로서의 개인이 형성된다.

교화의 목적은 주민들에게 지배세력의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의도에 합당하게 만드는데 있다. 이는 강압과 무력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정신적, 문화적 체계를 체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보다 완

---

142) Honoré de Balzac, *Illusions perdues*, 이철 (역), 『잃어버린 환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p. 183-6.

벽한 형태의 지배이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형을 만드는데 도시공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계몽주의는 개개인이 특정한 생활 방식을 반복하여 이를 습득하도록 하고, 나아가 체화시킨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근대 사회가 요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생산과 교육, 여가 등의 기능을 하는 여러 시설과 제도들은 근대의 개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일종의 장(場)을 형성한다. 이는 근대 사회에 소속된 이들의 대부분이 경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요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19세기말 서유럽 대도시의 공원은 다른 여러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근대 사회를 구성하는 근대 시민을 교육, 훈련, 훈육하는 장소였다. 이곳에서 새롭게 근대사회의 시민이 된 이들은 바람직한 태도와 행위, 취미를 교육 받았고 이는 개개인을 근대인으로 만드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공원 또한 근대의 규율과 교화가 일상 영역에 침투한 사례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도로서의 근대의 수용 과정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흑인은 흑인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그는 노예가 된다”<sup>143)</sup>는 마르크스의 말을 공간 질서와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르크스의 따르면 인간의 실체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의 ‘특정한 관계’를 통해 작용하고 생산한다. 즉 노동과 생산, 교육, 처벌, 여가의 방식, 그리고 이를 규정하고 제도화하는 장치와의 관계를 통해 개인은 ‘노예’ 나 ‘자본가,’ ‘임노동자’로 불리게 된다. 공간과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공간이 선형적으로 존재하고, 어떤 불변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공간과의 관계와 맥락을 통해 개개인을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한다. 물론 이러한 공간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고, 여

---

143) Karl Marx, *Lohnarbeit und Kapital*, 남상일 (역), 『임노동과 자본』 (서울: 백산서당, 1989), p. 102.



러 가지 변인 중 하나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19세기 후반 대도시에 조성된 도시 공원또한 이러한 특정한 관계 속에서 근대인을 생산하는 근대적 공간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다.<sup>144)</sup>

## (2) 부르주아 근대성 형성의 장

도시공원은 부르주아 중류층 문화가 정착되어 드러나는 곳이기도 했다. 귀족 계급의 허위와 위선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18세기에 계몽주의와 함께 등장한 나타난 부르주아 문화는 19세기 들어 이들의 성장하여 기득권층이 되면서 보수화되는 성향을 보인다. 초기의 비판적인 성격은 사라진 대신에 변화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품위 있는 매너와 생활 방식이 상류층에 가까운 방식으로 나타난다. 귀족은 아니지만, 이들 못지않고,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하고 정교한 이들의 생활 방식은 당대 사회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상류층 귀족 계급과도, 노동자 계급과도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였고, 스스로를 구분 짓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시민사회에서는 부르주아의 가치가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빅토리아 여왕이나 나폴레옹 3세의 궁정에서도 부르주아 문화가 도입되어 도덕성과 가족주의가 정착되었다.

### ①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의 강조

근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가족 이데올로기가 강조되었을 들 수 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사회의 실질적 지배 세력이 된 부르주아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이들 부르주아들은 또한 노동자 계급에게

---

144) 모든 것을 관계적인 것으로 보는 마르크스적 역사유물론에서는 불변하는 본질을 다루는 '무엇(what)'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되는 방식인 '어떻게(how)'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생산 방식이 사물의 본질을 규정하고, 이것이 달라지면 본질 또한 달라지기에,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방식, 혹은 양식을 중시한다. 시기와 장소가 일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역사적 사유와 맥락을 다루는 연구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우회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이 까닭이다.

도 이러한 가족 이데올로기를 주입했는데, 이는 가족을 사회 안정의 토대로 본 당대의 사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가족은 권위주의 체제의 기본 단위이고, 이의 붕괴는 사회의 질서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가족이 기독교 공동체의 기본 단위라는 사고도 반영되어 있다.<sup>145)</sup>

이미 프랑스대혁명 직후부터 이런 보수적인 경향은 나타났고, 왕당파이자 열성적인 가톨릭교도였던 보날드 자작(Louis-Gabriel, vicomte de Bonald)은 『시민 사회에서의 정치·종교 권력 이론(Théorie du pouvoir politique et religieux dans la société civile, 1796)』에서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의 가족의 역할,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 내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역설한다. 가족은 정치적인 사회에서 유일하게 진실한 요소이고, 그러한 가족에서 나온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이다.<sup>146)</sup>

가족 제도 또한 지배 계급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산업혁명 이후의 변화 중 하나는 정해진 시간에 공장으로 출근해 일을 하게 되면서, 작업장과 집이 분리된 것이다. 전근대사회의 수공업 생산체계에서는 이 둘이 단절되지 않았고, 때로는 동일한 장소이기도 했다. 농촌에서는 놀이와 노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개인과 가족, 공동체가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이었다. 집 밖의 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가족은 먹고 자는 일, 그리고 휴일의 여가 활동 때에만 모일 수 있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는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이 분리되었고, 성별에 따른 역할에 분리도 사실상 완성되었다. 또한 성인 남성과 여성, 아이 사이의 현격한 임금 격차는 남성 가장(bread-winner) 중심의 가족 형성을 가

---

145) André Gueslin, *Gens pauvres, pauvres gens dans la France du XIXème siècle* (Paris: Éditions Aubier, 1998), p. 108.

146) Louis-Gabriel-Ambroise Bonald, *Théorie du pouvoir politique & religieux dans la société civile démontrée par le raisonnement et par l'histoire*, tome 2 (Paris: Librairie Bloud et Barral, 1880), pp. 45, 61, <https://archive.org/details/thoriedupouvoir05bonagoog> (검색일: 2013년 12월 12일).

속화했다. 산업 생산은 남성이 지배하는 영역이 되었고, 19세기 후반부터 가정은 노동이 아니라 사교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다.<sup>147)</sup>

부르주아 이상의 계급에서는 다시 가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성은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회 생활에서도 배제되었다. “더 나은 반쪽(better-half)”<sup>148)</sup>인 아내는 “집안의 천사(the angel in the house)”<sup>149)</sup>로 미화되었고, 이를 벗어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형벌과 지탄이 쏟아졌다. 가정은 공적인 삶과 대비되는 개인적인 영역이고 사생활(privacy)의 공간이다.<sup>150)</sup> 하지만 가정은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되는 친족관계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적 단위이기도 하다. 또한 가정은 경제자본 뿐 아니라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관리하고 생산하는 장이다. 부르주아 이상의 계급에서 여성은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이러한 자본을 관리하고, 자녀가 근대 사회의 규율을 준수하여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육하는 역할을 한다(도판 4-53).

19세기의 도시공원은 명목상으로는 모든 계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르주아의, 부르주아 가정의 공간이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를 하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남녀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여성들이 남성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공원은 부르주아들의 거대한

---

147) Linda McDowell,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Gender Division of Urban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 1983, p. 61.

148) Sir Philip Sidney(1638), *The Countess of Pembroke's Arcadia: The New Arcadia*, ed. by Victor Skretkovicz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149) 19세기 영국 시인 팻모어(Coventry Patmore)의 이야기 시(narrative poem) <집안의 천사(The Angel in the House, 1854-1862)>의 제목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총 12개의 노래(canti)로 구성된 이 시에서 그는 아내 에밀리(Emily)를 남편에게 순종적이고, 자녀와 가정에 헌신적인 이상적인 아내로 묘사하고 있다. Coventry Patmore, *The Angel in the House* (London: Cassell & Company, Ltd., 1887), <https://archive.org/details/angelinhouse00patm> (검색일: 2013년 12월 12일).

150) Ittmann(1995), pp. 142-3.



<도판 4-53> 랜시어 경, <현대의 원저 궁>, 1840-4.

자료: 영국 왕실 소장품.

막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앨버트 공을 빅토리아 여왕이 다소곳이 맞이하는 장면은 당대의 이상적인 부부의 상을 반영한다. 여왕은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여성적이고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야외 응접실(salon à ciel ouvert)”<sup>151)</sup>이기도 했다. 보들레르가 <현대 생활의 화가>에서 언급한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는 부르주아 가정의 모습은 “모더니티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설명하는 의무를 띤” 화가 기스의 스케치를 묘사하는 듯하다(도판 4-54).

공원의 오솔길에서 우아한 가족들이 한가하게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51) Pierre Merlin and Françoise Choay (eds.) *Dictionnaire de l'urbanisme et de l'aménagement*, 2<sup>nd</sup> ed. (Paris: PUF, 2009), p. 485.



<도판 4-54> 기스, <상젤리제 산책>.

자료: <http://expositions.bnf.fr>

차분한 태도로 남편의 팔짱을 낀 부인들은 천천히 걸어가고 남편의 확고하고 만족스러워하는 태도는 부유한 재산과 자기만족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부유한 걸모습이 숭고한 품위를 대체한다. 몸짓이나 태도는 작은 숙녀 같은 뻔뻔마른 어린 여자 아이들은. . . 집에서 부모가 가르쳐준 연극을 연습한다.<sup>152)</sup>

알팡의 <파리의 산책로>의 삽화 또한 새로이 조성된 공원을 찾은 파리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대부분 부르주아인 이들은 공원과 가로수길, 스퀘어 등을 산책

152) Baudelaire, "Le Peintre de la vie moderne," in *Oeuvres Complètes*, (Paris: Gallimard, 1961), p. 1163.



<도판 4-55> 르누아르,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 1876.  
자료: 파리 오르세 미술관.

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 아이와 가족이 모두 등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대개 매우 젊  
 짙게 산책하고 있고,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의 그림 속에 등장함직한 떠  
 들썩한 여흥의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도판 4-55). 이들의 행태는 매우 질서 있고 예  
 의 바르며 규범적이다.

부르주아 사회의 등장과 함께 등장한 공공장은 남성의 영역이었다. 여성을 가정  
 과 동일시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은 부르주아 계급을  
 다른 하층 계급과 구분 짓는 방법이 되기도 했다.<sup>153)</sup>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 여성

153) Nancy Fraser,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in *The Phantom Public Sphere*. B.  
 Robbins(ed.)(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p. 6.



은 신분 계급에 상관없이 소외된 존재였다. 한 사회에 존재하는 장소들의 공간적 구성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적이고, 사회적으로 생산된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이다.<sup>154)</sup>

공간 형태는. . . 인간의 행위에 의해 생산될 것이다. 이는 주어진 생산 방식과 특정한 개발 방식에 따라 지배 계급의 이해를 표현하고 수행할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규정된 사회 내에서의 국가의 권력 관계를 표현하고 이행할 것이다. 이는 젠더적 지배 과정과 국가가 강제하는 가족 생활을 통해 실현되고 형성될 것이다.<sup>155)</sup>

## ② 교외의 개발

19세기의 모더니티에 대한 담론의 대부분은 도시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는다. 짐멜(George Simmel)이 <메트로폴리스와 정신적 삶(Die Großstadt und das Geistesleben, 1903)>에서 지적했듯 분절되고, 파편화된 대도시에서 개인이 수용하는 시간과 공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sup>156)</sup> 매 순간 스쳐가는 수많은 자극과 인상은 대도시에서 사는 개인들에게 신경과민을 야기하는데, 이는 “외적·내적 자극들이 급속도로 그리고 끊임없이 바뀌는 데서 기인한다.” 이는 결국 수많은 자극으로 오히려 “사물의 가치들이 지닌 의미와 가치, 나아가 사물 자체를 공허한 것으로 느끼는” 둔감한(blasé) 태도를 야기하고,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화폐 경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도시에서 개인은 점차 고유성을 잃고 평준화, 객관화되어 소모되는

---

154) John Urry, “Localities, Regions and Social Cla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5(4): 1981, p. 458.

155) Manuel Castells, “Crisis, Planning, and the Quality of Life: Managing the New Historical Relationships between Space and Socie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 1983, p. 4.

156) George Simmel, 김덕영, 윤미애 (공역), “대도시와 정신적 삶,”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서울: 새물결, 2005), pp. 35-53.

데, 짐멜은 이에 대항하는 “개인적 가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는 “다른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개인이 되어” 도시 내에서 익명화된 개인이 되는 것에 저항함을 역설한다.

앞서 살펴본 보들레르의 모더니티 논의 또한 19세기의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이러한 대도시는 “다수 속에, 물결치는 것 사이에, 움직임 속에,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 집을 짓는 것을 커다란 즐거움으로 여기는”<sup>157)</sup>하는 플라뇌르의 영역이다. 플라뇌르에게 대도시는 “집 밖에 있으면서도 어디든 자신의 집처럼 느끼는. . . 세계를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는 삶을 사랑하는 이”<sup>158)</sup>의 공간이다.

이제는 고전이 된 이들의 근대 도시에서의 모더니티 논의는 대도시의 도심을 공간적 틀로 삼고 있다.<sup>159)</sup> 대도시는 생산의 장이 되는 공적 영역이고,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다음의 맥도웰(Linda McDowell)의 지적은 이분법적 도시이론의 구분은 이를 적절히 요약한다.

공적(public)인 것과 사적인(private) 것 사이, 도시(city)와 교외(suburbs) 사이, 업무와 가정, 생산(production)과 번식(reproduction) 사이의 관습적이고 거의 생각 없이 행해지는 구분. 후자의 세계와 위치는 대개 여성의 것으로 여겨지고 보통 무시되지만, 그릇되게도 남성의 것으로 간주되는 전자는 이론과 분석의 주제였다.<sup>160)</sup>

---

157) Baudelaire, “Le Peintre de la vie moderne,” in *Oeuvres Complètes*, (Paris: Gallimard, 1961), p. 1160.

158) Baudelaire, “Le Peintre de la vie moderne,” in *Oeuvres Complètes*, (Paris: Gallimard, 1961), p. 1160.

159) 1789년 프랑스대혁명 당시 제정된 법률은 여성을 가부장적 억압에서 해방시켰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법률들은 수정되거나 폐지되었다. 나폴레옹 법전(Code Napoléon)은 여성의 지위를 혁명 이전보다도 더 열등한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여성은 공적인 영역에서 추방되고, 아버지 혹은 남편이 보호 아래 머무는 종속적 위치로 전락했다. 부부 공유 재산제는 여성에게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 제도는 계속 확산되었다. 여성은 미성년 아이들과 매우 유사한 처지로서 자기 임금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이런 상황은 1907년까지 계속되었다. Ariès and Duby(2002), 앞의 책, p. 197.

대도시를 바탕으로 하는 모더니티의 논의에서 교외는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도심 주변의 교외 개발 또한 이 시기에 나타난 근대적 현상임에 주목해야 한다. 런던이나 파리 등의 대도시에서 교외의 성장은 도시 영역 자체의 성장과 연관된다. 도시의 인구 증가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19세기 후반의 도시 확대의 속도는 유래 없는 것이었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의 결과로 생겨난 대도시는 이전까지의 도시와 양적,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도심에서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공중위생과 도시공원이 등장했음은 이미 논의한 바 있다.

다른 한편, 급격한 도시화와 삶의 질의 악화에 대한 반응은 도시 근교 개발의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자본을 소유한 부르주아 이상의 계급에서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이다. 자본과 이동수단을 보유한 부르주아는 자신들의 계급 형성의 기반이 된 혼잡하고 불결한 도시(bourg)를 벗어나 도시 근처의 교외, 피시만의 표현을 빌면 “부르주아 유토피아(bourgeois utopia)”에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그리고 안전한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반면 대중교통이 발달하기 이전 시기 공장 노동자들은 걸어서 직장에 갈 수 있는 곳에 거주해야 했으므로, 도시의 빈민가를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도시 내부의 개발과 맞물리면서, 도시 빈민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졌다. 1847년 악명 높은 슬럼가인 세인트 질 루커리(St. Giles Rookery)를 가로지르는 뉴 옥스퍼드 스트리트(New Oxford Street)가 개통되었을 때의 여파를 일례로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 내의 교통 문제는 개선되었지만, 일터를 떠날 수 없던 약 5천명의 철거민들은 주

---

160) Linda McDowell,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Gender Division of Urban Space,” *Environmental and Planning D: Society & Space*, 1(1): 1983, p. 60.

변으로 분산되어 빈민가의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sup>161)</sup>

“도시 외곽의 주거지”라는 의미의 ‘교외(suburban)’라는 말은 14세기에 등장했고,<sup>162)</sup> 성 안보다 열등하고 평판이 좋지 못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도시 근처에 있지만 이와 구분되는 곳으로서의 의미는 19세기 교외의 발전과 함께 나타났다. 1860년 오스만은 파리 외곽 지역을 병합하고, 총 20개의 구(區, arrondissements)로 파리 시를 정비했는데, 이를 통해 도시 총인구가 50만 명 이상 급증했다(도판 4-56, 4-57). 주변 지역의 병합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는데, 이 중 센 도(Department de Seine)의 행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지역의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과, 파리 시내와 주변 지역 사이의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결정적이었다. 1806년 1만 3천명이었던 파리 외곽 지역의 인구는 1841년에는 11만 4천명으로, 1856년에는 35만 2천명으로 급증했다. 1851년에서 56년 사이 파리 시내의 인구가 11% 증가한 사이에, 외곽 코뮌의 인구는 61% 급증한 것이다. 이들 중에는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민자(폴란드, 독일, 벨기에 등)였고, 오스만의 도시 정비 과정 중 시내의 집이 철거되었거나, 급등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밀려 나온 사람들 이들도 많았다.<sup>163)</sup> 기존에 파리의 교외에 속했던 구역이 파리의 관할 지역에 포함되었지만, 이 구역들은 여전히 기존의 구역적 특성을 유지했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거의 도시 안에 있는”<sup>164)</sup> 교외는 행정적으로는 도시에 속하게 되었지만 구도심의 문제점에서 자유롭고, 시골에 비해서는 도회적이다. 달리는

---

161) Palmer(2009), p. 45.

162) 이는 “도시의 외판 부분”이라는 뜻의 라틴어 *suburbium*(‘아래, 근처’라는 뜻의 접두어 *sub-*와 ‘도시’를 뜻하는 *urbis*의 속격인 *urbs*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고대 프랑스어 *suburbe*에 기원을 둔다. “suburb,” <http://www.etymonline.com> (검색일: 2013년 11월 18일).

163) Chapman and Chapman(1857), pp. 135-6.

164) Émile Littré, *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çaise*, Tome 4 (Paris: Librairie Hachette, 1874), s.v. “sububain,”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54066991.r=.langFR> (검색일: 2013년 11월 18일). ‘교외(suburbain)’라는 단어는 187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프랑스어 사전에 등재되었고, 1878년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이를 정식으로 승인했다.



<도판 4-56> 도미에, <이제 우리도 파리 사람이라고!>, 1860.  
출처: 카르나발레 박물관.



<도판 4-57> 베르니에, <보모 파리 시와 그녀의 새로운 아이들>, 1860  
출처: 파리 카르나발레 박물관.  
주변 코뮌의 파리 병합은 많은 풍자화의 대상이 되었다. 파리를 의인화한 귀부인이 새로 병합된 지역인 베르시(Bercy), 라빌레트(La Villette), 벨빌(Belleville), 바티뇰(Batignolles)이라는 명칭이 붙은 더러운 부랑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달래고 한 명씩 목욕시키고 있고, 그 뒤로도 여러 아이들이 보인다.

교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시, 그리고 시골과 다른, 새로운 것으로 규정했다.

우리의 근대적이고, 산업화되고, 상업적인 사회 체제에서, 도시에는 우아한 임대 주택과 화려한 상점, 넓지는 않아도 편안한 저택이, 시골에는 소박하지만 종종 아름다운 농장 주택과 아주 드물게 있는 성이 어울린다. 이에 더해, 대도시의 외곽(faubourg)과 철로를 따라 새로운 범주의 개인 건축이 생겨났는데, 이를 *교외*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sup>165)</sup>

위에서 논의된 교외는 부유한 이들이 도심의 혼잡을 벗어나 거주하는 구역을 다루고 있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도심의 오염물질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서유럽의 도시에서는 전통적으로 도시의 서쪽에 부촌이 발달했다. 런던의 웨스트엔드(West-End)와 파리의 파시(Passy)와 오퇴유(Auteuil), 너이(Neuilly)는 19세기에 발달한 대표적인 도시 서쪽의 교외 부촌 지역이다. 교외의 주택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계급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르주아들에게 매력적이었다. 이들을 위한 발명품인 교외 건축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달리의 논평은 매우 적절하다.

이집트나 그리스의 사원, 로마의 온천과 원형극장, 혹은 중세의 대성당과 성이 이전 시대의 문명의 정신을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게 해주듯, 이[우리의 교외 건축]는 현대 문명의 정수와 특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sup>166)</sup>

---

165) César Daly (ed.), *Revue générale de l'architecture et des travaux publics* XVIII, (Paris: Paulin & Hetzel, 1860), p. 34, [http://portaildocumentaire.citechaillot.fr/simclient/consultation/binaries/stream.asp?INSTANCE=INCIPIO&EIDMPA=INCIP\\_GED\\_FICJOINT\\_FRAPN02\\_RA\\_1860\\_01\\_pdf](http://portaildocumentaire.citechaillot.fr/simclient/consultation/binaries/stream.asp?INSTANCE=INCIPIO&EIDMPA=INCIP_GED_FICJOINT_FRAPN02_RA_1860_01_pdf) (검색일: 2013년 11월 18일).

166) César Daly, *L'architecture privée au XIXe siècle, sous Napoléon III: nouvelles maisons de Paris et des environs*. Tome 1, p. 20. (Paris: A. Morel, 1864),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866074> (검색일: 2013년 11월 19일).



19세기 후반 대도시 주변 교외의 발달은 특히 철도를 통해 시내로의 통근이 가능해지면서 촉진되었다.

마침내, 자주 왕래하는 열차를 통해 오퇴유와 파시가 생 라자르 역과 연결되었다. 교통수단의 연장과 가속은 도심에서 멀리 있어 생기는 16구의 불편함을 상당히 감소시켰다. . . 대도시 노선이 모두 개발되면 상인들과 사업가들은 더더욱 런던에 있는 동료들을 모방하여, 가족의 집은 공기가 좋은 반(半) 시골에 짓고, 사무실은 도심의 중심에 둘 것이다. 교통수단의 완성(철로의 개발, 기차의 수와 속도의 증가, 요금 인하)은 거리를 좁히고, 16구가 더욱 부유해지는데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sup>16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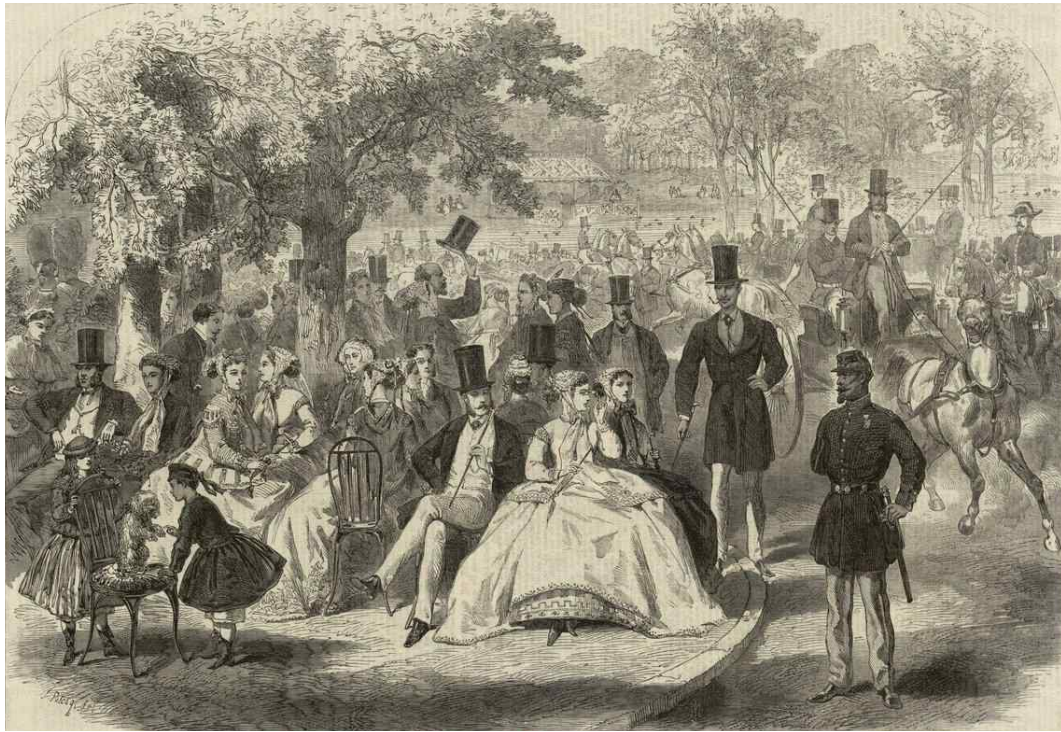
그리고 불로뉴 숲 등의 새롭게 조성된 공원은 이들의 영역이 되었다. 제 2제정 시기 기존의 국유림을 새롭게 조성한 불로뉴 숲은 근처 파시와 오퇴유의 부유한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고, 이들은 노동자 계층이 일을 하는 주중에 숲을 “그들의 정원”<sup>168)</sup>처럼 이용했다. 심지어 황제도 참여한 이러한 불로뉴 숲에서의 사고 행태, 특히 오후에 마차를 타고 호수 주위를 도는 ‘호수 일주(tour de lacs)’는 모리조(Berthe Morisot)의 회화나 졸라의 <쟁탈전>의 도입부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도판 4-58).

네 시였다. 숲은 오후의 무더위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아브뤼 앵페라트리스를 따라 먼지가 일었다. 그리고 저 멀리에 생 클루와 수렌느 언덕의 경계가 드러나면서 회색빛이 도는 발레리앵 산으로 둘러싸인 나무들이 넓게 펼쳐져

---

167) Auguste Doniol, *Histoire du XVIIe arrondissement de Paris*, (Paris: Hachette et cie, 1902), p. 226, <https://archive.org/stream/histoireduxviea00donigoog#page/n244/mode/1up> (검색일: 2013년 11월 18일).

168) Zola(1993), p. 332.



<도판 4-58> 펠코크, <파리의 시즌: 볼로뉴 숲의 두 호수 사이>, 1860년대.

자료: 프랑스 국립도서관.

보였다. 지평선 위로 높게 떠 있는 해는 밝게 빛났고, 나뭇잎들 사이의 움푹한 곳을 무수한 금빛 가루로 가득 채웠다. 높은 가지들은 불타는 듯했고 바다처럼 넓은 나뭇잎들을 빛의 바다로 바꾸고 있었다 . . . 호수 앞은 눈이 부셨다. 저무는 해 아래 둥근 호수는 반짝이는 별들을 반사하는 빛나는 은빛 거울 같았다. 오른쪽에는 날씬하고 줄기가 곧은 침엽수 숲이 작은 기둥처럼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 . . 왼쪽에는 풀밭이 에메랄드 밭처럼 밝게 저 멀리 라뮈에트 문의 가장자리까지 펼쳐져 있었다 . . . 모든 섬들이 햇빛 아래에서 반짝이며 웃고 있었다 . . . 길모퉁이에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빛을 길게 반사시키며 금빛별처럼 돌아가는 바퀴의 행렬이 보였다 . . . 양산들이 둥글게 물결치는 모습은 금속으로 된 달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 . . 굴러가는 바퀴들과 말들이 빠르게 뛰는 소리는 화려한 군악대처럼 울리고 있었다.<sup>169)</sup>

블로뉴 숲 등 새로 조성된 파리의 공원은 제 2제정의 화려함을 과시하는 장이 되었다. 특정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특권 계층임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sup>170)</sup> 공공 장소이지만 특정 계급이 전유하다시피 한 이곳에서 부르주아 여성들은 미술사가 토머스가 연술했듯 마치 자신들의 정원에 있는 듯, 남성이나 보호자 없이도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도판 4-59, 4-60, 4-61).<sup>171)</sup>

도시의 확장의 결과 새롭게 생겨난 상층 부르주아(haut bourgeois)가 주로 거주하는 부유한 교외는 기존의 변두리(banlieue)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이들이 도심의 높은 임대료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밀려난 도시 동쪽의 교외 지역은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클라크가 『근대 생활의 회화』의 3장에서 서술한 “파리의 주변(The Environs of Paris)”은 “프티 부르주아 집단을 참아 낼 수 있는 이들이 모더니티의 어떤 양상을 감지하는 특별한 영역”<sup>172)</sup>인 노동자 계층의 교외를 지칭한다. 제 2제정기 급속하게 팽창한 파리 외곽의 변두리는 시내에서 밀려난 “거대한 파리의 뒤범벅된 구토물”<sup>173)</sup>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이 지역은 위고의 <레 미제라블>에 묘사된 것처럼 “부글부글 피어오

169) Zola(1993), pp. 330-2.

170) 황제를 위시한 파리의 상류층들로 구성된 자키 클럽(Jockey Club)은 블로뉴 숲 내의 룡상 경마장(Hippodrome de Longchamp)을, 스케이터 클럽(Cercle des Patineurs)은 겨울에 공원 내에 조성된 스케이트장을 회원들만의 사교의 장소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나폴레오 3세는 기득권 층의 지지를 확보했고, 블로뉴 숲은 파리의 상류층들이 즐겨 찾는 ‘숲(le Bois)’가 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Alphand(1867-1873), pp. 96-101; Haussmann(1890), pp. 186-90; Richard S. Hopkins, “From *place* to *espace*: Napoleon III’s transformation of the Bois de Boulogne,” *Proceedings of the Western Society for French History* 31: 2003, pp. 203-10을 참조하라.

171) Thomas(2006), pp. 34-6

172) Clark(1984), p. 147.

173) Baudelaire, “Le vin des chiffonniers,” *Oeuvres Complètes I*, (Paris: Gallimard, 1975), p. 106.



<도판 4-59> 카사트, <마차를 모는 여인과 소녀>, 1881.  
자료: 필라델피아 미술관.



<그림 4-60> 모리조, <여름날(블로뉴 숲의 호수)>, 1879.  
자료: 런던 내셔널 갤러리.





<도판 4-61> 베로, <불로뉴 숲에 있는 자전거 오두막>

자료: 파리 카르나발레 미술관

19세기 파리에서 여성들은 자전거나 말을 탈 때만 바지를 입을 수 있었고, 그것도 경찰청에서 발급한 허가증을 소지해야 했다.

르는 술 같은 분노”<sup>174</sup>)로 폭동의 씨앗을 품고 있는 문제 지역이기도 했다(도판 4-62). 아니에르(Asnières)나 샤투(Chatou), 아르장퇴유(Argenteuil) 등 파리와 북쪽과 동쪽에 위치한 이 지역들은 공장 노동자와 점원, 사환 등의 프티 부르주아(petit bourgeois)의 영역이었다. 이런 교외는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닌 지역이라는 점에서는 파리 서쪽의 부유한 교외 지역과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 이외는 아주 다른 성격이었다(도판 4-63).

174) Baudelaire, “Le vin des chiffonniers,” *Oeuvres Complètes I*, (Paris: Gallimard, 1975), p. 106.



<도판 4-62> 마르빌, <알레지아 가의 개통>.  
 자료: Pinon, *Atlas du Paris haussmannien*, p. 53.

파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휴식을 취하고, 자발적이 될 어딘가를 찾고 있다. 사람들은 아르장퇴유에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그곳에서 원하던 것을 하고, 도시를 뒷전에 남겨둔다.<sup>175)</sup>

이때 클라크가 말하는 ‘파리 사람들’은 앞서 살펴본 부유한 교외에 거주하는 부르주아들이 아니라 프티 부르주아이다. 이들은 크게 대규모 산업과 상업의 성장으로 예전에 일을 하며 누릴 수 있던 경제생활의 안정을 빼앗긴 이들과, 서기나 점원 등 새롭게 등장한 노동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의 불안정성은 과거의 신분과는 상관없고, 앞으로 이들의 처지를 결정할 새로운 사회 체제의 불안정성과 관련

175) Clark(1984), p. 198.





<도판 4-63> 발랑탕, <파리 습작> 중 <공공 산책로와 정원: 툴르리와 아스니에르>, 1850.

자료: library.brown.edu

된다.<sup>176)</sup>

### ③ 가톨릭 종교

이 시기 파리의 녹지 조성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는 교회 앞의 광장이 스퀘어로 정비되었다는 점이다. 유럽의 역사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는 오래 전부터 정치, 경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국가를 넘어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초국가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해왔다. 전통 사회에서 일요일에 미사에 참석하는 일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가족과 마을 공동체 내의 사교와 연대를 위한 행위였다. 미사는 만남과 거래, 사교의 장이었고, 미사 후 성당 앞 광장에서의 다

176) Clark(1984), p. 7.

양한 활동은 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바탕이 되었다.<sup>177)</sup>

영국은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 로마 가톨릭과 결별했지만, 성공회(Church of England)를 국교로 범국가적 종교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근대 유럽에서 종교는 단순한 신앙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고, 복지와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을 했다. 필요에 의해서라도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던 농촌 사회의 질서는 공동 작업과 공동 여가를 통해 공고해졌고, 여기에서 종교적 의례는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프랑스대혁명 시기 교회 소유의 토지가 국유화되고, 성직자를 다른 공직자들처럼 시민이 선출하는 <성직자 민사기본법(La 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가톨릭 종교는 “교회의 딸”인 프랑스 국민들의 문화 기저에 깔려 있었다.<sup>178)</sup> 이는 ‘7성사’로 대표되는 가톨릭 종교 의식이 일상생활과 긴밀히 연결되고, 교회에 딸린 학교가 주요한 교육 기관이었기 때문이다.<sup>179)</sup> 나폴레옹 1세는 쿠데타 이후 교황과 화약(Concordat, 1801)을 맺어 가톨릭교회를 공식적으로 부활시키기도 했다. 루이-나폴레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로마에 군대를 파병하여 교황 피우스 9세를 도왔다. 이를 통해 교황청과 루이-나폴레옹의 관계는 돈독해졌고, 결과적으로는 프랑스 내 보수 가톨릭층의 지지를 얻는 기반이 되었다.<sup>180)</sup> 교황은 1851년의 쿠데타와 이은 국민투표를 용인했고, 대부분의 주교

---

177) 전통적인 기독교 사회에서 일요일은 종교 활동을 위한 날이었고, 놀이나 춤, 음주 등의 세속적인 여가는 ‘선한 기독교인(bons chrétiens)’에게 금지되어 있었다. 미사 후의 산책이나 사냥, 낚시, 여행 등은 허용되었지만 무도회나 카바레에는 갈 수 없었다. 신앙심 깊은 여성들은 저녁 예배 후 모여 합창을 하거나 강론을 들어 춤이나 위험한 야간 유흥을 피했고, 미덕의 선례가 되었다. Robert Beck, *Histoire du dimanche: de 1700 à nos jours* (Paris: Les Éditions de l'Atelier/Éditions Ouvrières), pp. 173-5.

178) Ariès and Duby(2002), pp. 67-71.

179) Adeline Daumard, *Les bourgeois de Paris au XIX<sup>e</sup> siècle* (Paris: Flammarion, 1970), pp. 326-7.

180)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가 선언한 ‘원죄 없는 잉태(Immaculate Conception)’ 도그마와 프랑스 각지에서 나타난 마리아 숭배 열풍은 이를 더욱 가중시켰다. 팡테옹(Panthéon)이 다시

들도 그에게 호의적이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관식에 교황이 참석하여 그를 축성했듯, 피우스 9세가 황제 나폴레옹을 직접 축성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황태자의 대부가 되어 그를 지지했다. 제 2제정은 종교 의식 예산을 증액하고, 성당의 신축을 늘렸으며, 성직자들이 그 위험성을 설파한 카바레들을 폐쇄했고, 공권력이 관여한 가톨릭 종교 행렬을 허용했다. 또한 교육 정책에서 가톨릭을 지지했고,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톨릭을 옹호하여 교황의 호의에 보답했다. 이 시기 성직자의 수도 증가하여 1848년 4만 4천명이던 신부의 수는 1870년 5만 6천명이 되었다.<sup>181)</sup>

하지만 “빅토리아 시대의 아버지는 교회에 나갔으나, 에드워드 시대의 아들은 집에 남아있었다”<sup>182)</sup>라는 말처럼 19세기의 유럽은 전반적으로 세속화되었고,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교회 공동체의 결속력 약화는 대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었고, 노동자 계층의 종교 활동은 크게 감소했다(도판 4-64).<sup>183)</sup> 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급격한 대도시화에 오래된 교구 행정제도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탓도 크다.<sup>184)</sup> 또한 교회가 19세기의 격동기에서 교회는 보수(우파, 왕당파)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2월혁명(1848) 이후 교회와 떨어진 노동자들은 종교적으로 무

---

성당이 되고,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을 비롯한 프랑스의 중세 교회건축물이 복원되며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된 것도 19세기 후반의 사건이다. 비올레-르-둡(Viollet-le-Duc)은 나폴레옹 3세의 후원을 받아 프랑스대혁명 이후 방치되어 폐허가 되다시피 한 중세 교회건축물들을 연구, 복원했다.

181) Yon(2012), pp. 21, 159-60.

182) Owen Chadwick, *Secularization of the European Mind in the Nineteenth Century*, 이정식 (역), 『19세기 유럽 정신의 세속화』 (서울: 현대지성사, 1999), p. 14.

183) 이런 추세는 일요일에 일을 하고 그 대신에 월요일에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이들은 부르주아가 대로나 교회 등의 공공장소를 점령하면서 점차 이런 장소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부르주아가 규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따른 복장 규범이 복잡해지면서 더욱 심해졌고(1840년 이전에는 노동자들의 평상복인 작업복을 입고서는 미술관이나 공공 정원에 입장할 수 없었다), 교회 예식도 온전히 참여할 수 없었다. 깨끗한 옷이 없다는 것은 노동자 가족이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핑계가 되었다. Beck(197), pp. 210-1.

184) Ittmann(1995), pp. 106-10.



<도판 4-64> 브르통, <월요일>, 1858.

자료: 세인트루이스 대학 캠퍼 미술관

제 2제정기 많은 노동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동료들끼리 술을 마시며 쉬는 '성 월요일'의 옛 관습을 따랐다.

관심해지거나 반교회적인 성향으로 나아갔다.<sup>185)</sup> 한편 부르주아지들은 점점 종교적 관행으로 복귀하는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sup>186)</sup> 왜냐하면 이들에게 종교는 그들을 받쳐주는 강력한 도덕적 기둥이 될 수 있었고, 사회적 입지를 다지고 성장시키는 도구

185) 유대인이나 아일랜드 인처럼 종교 생활과 민족성이 결부된 경우는 예외적이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 집단에서 성당이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Chadwick(1999), pp. 146-8.

186) 이후 프랑스는 파리 코뮌과 제3공화국, 드레퓔스 사건 등을 겪은 뒤 1905년 브리앙(Aristide Briand)의 '정교분리법'을 통해 종교에 관한 공권력의 엄정한 중립이 보장되었다. 반면 교황권 수호운동(Ultramontane Movement)은 제3공화국 시기 다시 부활했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교황권의 신장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받은 중산층에게 가톨릭적인 삶을 제시하고, 가톨릭을 감동적이고 다채로우며 열렬하게 만드는 경건 운동이었다. 코뮌 이후의 강화된 우파와 좌파 사이의 간극은 종교적인 형태로도 나타났다. 우파-보수층의 가톨릭 순례 열풍이 일레인데, 당시 대중교통의 발달 덕분에 1871-6년 사이 루르드 성지에 5만 명 이상이 성지 순례를 했다.

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3세가 “국가는 종교적 기반 없이는, 즉 사회적 평화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종교 없이는 살 수 없다”<sup>187)</sup>라고 했듯, 보수적인 정부의 입장에서도 또한 종교적 강점과 교회 활동의 장려는 경찰기구나 검열제도와 유사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용했다. 성직자와 경찰관, 검열관은 혁명에 대항하는 반동 보수주의를 지탱하는 세 가지 큰 지주였다.<sup>188)</sup>

제 2제정 시기 교회를 새로 짓고, 보수하고, 교회 앞 광장을 정비하는 일의 이면에는 부르주아 중심의 사회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숨어 있었다. 이 시기 파리에서는 22개의 성당이 새로 건축되거나 계획되었고, 시와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1849년에서 1860년 사이 정부가 발주한 회화 작품의 약 40%가 교회와 관련된 것이었고,<sup>189)</sup> 오스만의 도시 재개발에서도 교회와 관련된 기념물들을 부각시키는 설계가 나타났다. 가령 직선의 도로 축의 끝이나 교차점에 기념비적인 교회가 배치되어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도록 했고, 교회 앞의 공간을 비워내어 파사드를 강조했다. 특히 새로 병합된 구역에 서로 건축된 성당 주변에 공립학교와 경찰서, 소방서, 시장 등이 배치되어 커뮤니티 내에서의 교회의 중심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앞 광장(pavis)에 스퀘어를 조성하여 일상 속의 녹지 공간과 종교 시설물이 밀접히 연관되도록 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도판 4-65, 4-66, 4-67, 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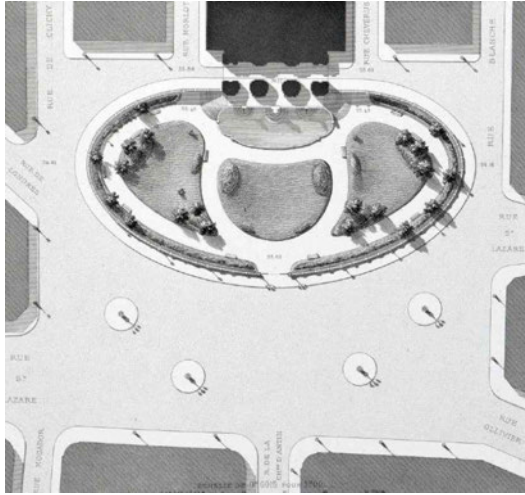
---

187) Yon(2012), p. 164.

188) Hobsbawm(1998), pp. 4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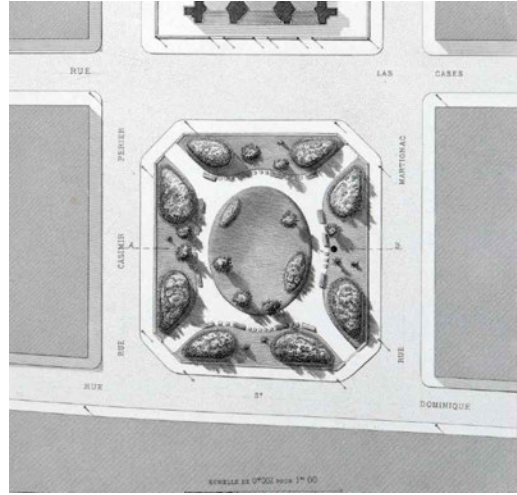
189) Yon(2012), p. 161.





<도판 4-65> 스퀘어 드 라 트리니테

자료: Alphand, *Promenade de Paris (planches)*, p. 113.



<도판 4-66> 스퀘어 생트 클로틸드

자료: Alphand, *Promenade de Paris (planches)*, p. 110.



<도판 4-67> 알팡, 스퀘어 드 라 트리니테, 1865.

자료: 황주영(2013).

제 2제정기 새로 건축된 르네상스 양식의 트리니테 성당 앞에 조성된 스퀘어이다. 타원에 가까운 반원형으로 처리된 파사드/분수 앞 녹지 공간에는 여러 겹의 벤치를 놓아 좁은 면적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다. 이는 성당 쪽으로 시선을 모으고, 후면의 대로로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도판 4-68> 스퀘어 사뮈엘-루소(구 스퀘어 생트 트리니테)  
자료: 황주영(2013).

### (3) 플라뇌르의 영역

19세기 서유럽의 대도시, 특히 파리에서 도시를 점유하는 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플라뇌르(flâneur)’<sup>190)</sup>를 들 수 있다. ‘산책자’라는 뜻의 이 단어는 19세기 후반 오스만에 의해 정비된 파리의 대로를 걷는 플라뇌르를 근대적 대도시의 예술가-시인으로 정의한 보들레르, 보다 정확하게는 보들레르를 통해 19세기의 파리를 연구한 벤야민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당대의 언론인 그랑 카르틀레(Grand-Cartelet)가 말했듯 단순한 이동의 통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현대 문명의 진정한 동맥”으로서의 길은 18세기에 만들어졌다.<sup>191)</sup> 보들레르는 <현대 생활의 화

190) ‘플라뇌르(flâneur)’ 또한 번역어를 통해 원어가 지닌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기 어려운 용어 중 하나이다. ‘산책자,’ ‘산보자’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나, 이 경우 19세기 파리의 대로를 걸으며 현대 도시를 탐색하는 보는 자, “아스팔트 위의 식물 채집자”로서의 뉘앙스가 사라진다. 이를 함축할 수 있는 용어가 나올 때까지 ‘플라뇌르’로 표기한다.

191) John Grand-Cartelet, *XIXe siècle (en France): classes, moeurs, usages, costumes, inventions*, (Paris: Firmin-Didot, 1893), p. 744, <https://archive.org/details/xixeiedixneuvi00g>

가>에서 마치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쳐가듯 군중 속을 누비며 관찰하는 화가 기스(Constantin Guys)를 완벽한 플라뇌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런 플라뇌르는 “다수 속에, 물결치는 것 사이에, 움직임 속에,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 집을 짓는 것을 커다란 즐거움으로 여기고,” 익명성을 즐기면서도 대도시의 군중 속에서 “내가 아닌 것(non-moi)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지닌 나(moi)”이다.<sup>192)</sup> 이런 플라뇌르-예술가의 모습은 <군중(Les foules)>에 영웅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다수 속에 잠기는 재능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다. 군중을 즐기는 것은 하나의 예술이고. . . 다수와 고독, 이는 적극적이고 풍부한 시인에게는 동등하고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자신의 고독을 채울 줄 모르는 이는 부산한 군중 속에서도 홀로 존재할 줄 모른다 . . . . 고독하고 사색적인 산책자는 이런 보편적인 교제 속에서 어떤 도취를 이끌어 낸다. 군중과 쉽게 결합하는 이는 열광적인 환희를 안다.<sup>193)</sup>

<지나가는 여인에게(À une passante)>에 묘사되었듯, 플라뇌르는 지나가는 여인의 “매혹적인 부드러움과 치명적인 쾌락”<sup>194)</sup>에 일순 매혹되기도 하나 이런 대도시 거리에서의 만남은 일회적이고 한순간에 불과하다. 그는 매 순간 관찰하지만, 언제나 거리를 두고 있다. “홀로 즐기는 진정한 영웅”<sup>195)</sup>인 플라뇌르는 “모더니티의 상징적 대표자이자 당대의 도시성의 화신”<sup>196)</sup>으로서 도시적 삶을 대표하는 개념이 된

---

ranuoft, (검색일: 2013년 12월 18일).

192) Baudelaire, “Le Peintre de la vie moderne,” in *Oeuvres Complètes*, (Paris: Gallimard, 1961), pp. 1160-1.

193) Baudelaire, “Les Foules,” *Oeuvres complètes*, (Paris: Gallimard, 1975), p. 291.

194) Baudelaire, “À une passante,” *Oeuvres complètes*, (Paris: Gallimard, 1975), p. 92.

195) Baudelaire, “Mon coeur mis à nu,” in *Oeuvres complètes*, (Paris: Gallimard, 1975), p. 682.

196) Priscilla Ferguson, “The *Flâneur* on and off the Streets of Paris,” in *The Flâneur*, Keith Tester (ed.), (New York: Routledge, 1994), p. 22.

다.

19세기 말 파리의 거리에 나타난 플라뇌르는 대개 상류층이나 부유한 부르주아 남성이다. 노동자와 대부분의 부르주아들이 일을 하러 가는 동안 플라뇌르는 목적 없이 산책을 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 된다. 이 개념을 부각시킨 벤야민 자신도 플라뇌르를 명확히 정의한 적은 없다. 하지만 여가, 관찰, 걷기, 아케이드에서 배회하기 등과 이를 연결한 점을 통해 플라뇌르가 ‘파리를 거니는 예민하고 감수성이 세련되고, 부유하고, 가정생활이 거의 없는 남성’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sup>197)</sup> 이들은 “죽음이 사방에서 전속력으로 달려드는 이 불안정한 혼돈”<sup>198)</sup>인 대도시의 가로를 거닐기도 하지만, 이 시기 새로이 등장한 산책로인 아케이드를 선호하고, 군중을 관찰하고, 카페와 클럽을 배회한다(도판 3-69, 3-70). 이러한 산책하는 기술 자체가 상류층이나 부르주아를 민중과 구분하는 방식이 되었다.

도시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경험과 그 문화적 표현이 상호 교차하는 영역이다. 도시에서의 산책이라는 행위와, 그것이 일어나는 장소 중 하나인 공원과 공공정원은 일상적 영역에 속하는 동시에, 당대의 문화적 가치가 전면에서 부각되는 곳이기도 했다. 앞서 살펴보았듯 19세기 대도시에서 새로 조성된 공원은 이 시기 새로운 사회 세력으로 부상한 부르주아의 장소였다. 마네의 <뒤편 정원에서의 음악회>에서 볼 수 있듯 공원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여가를 즐기는 곳으로 조성되었지만, 실제로는 부르주아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에게 있어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

197) 이 시기 ‘여성 플라뇌르(flâneuse)’의 존재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Griselda Pollock, “Modernity and the Space of Femininity,” in *Visions and Difference: Femininity, Feminism and the Histories of Art* (New York: Routledge, 1984); Janet Wolff, *Feminine Sentences: Essays on Women & Culture* (Cambridge, Mass.: Polity Press, 1990); Greg M. Thomas, “Women in Public: the Display of Femininity in the Parks of Paris,” in *The Invisible Flâneuse?: Gender, Public Space and Visual Culture in Nineteenth-Century Pari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6) 등을 참조하라.

198) Charles Baudelaire, “Perte d’aureole,” in *Oeuvres complètes* (Paris: Gallimard, 1961), p. 352.



<도판 4-69> 카이유보트, <발코니의 남자, 블루바르 오스만>, 1880.  
자료: 개인 소장.



<도판 4-70> 카이유보트, <카페에서>, 1880.  
자료: 루앙 미술관.

서 산책을 하는 일은 중요한 사교적 행위였고, 이러한 산책하는 기술 자체가 계층을 구분하는 방식의 하나가 되었다.

한편 보들레르와 동시대의 작가인 푸르넬은 『우리가 파리의 거리에서 보는 것들(Ce qu'on voit dans les rues de Paris, 1858)』에서 플라너르와 바도(badaud)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sup>199)</sup> “플라너리의 기술(L'art de la flânerie)”라고 제목을 붙인 장에서 그는 플라너리가 게으른 행위가 아니라 도시 전경이 지닌 다양성과 풍부함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도시에서의 경험을 포착하는 “움직이는 사진술”이

199) Victor Fournel, “L'art de la flânerie” in *Ce qu'on voit dans les rues de Paris* (Paris: A. Delahays, 1858), <http://archive.org/details/cequonvoitdansl01fourgoog> (검색일 2013년 10월 18일), pp. 261-4.



<도판 4-71> 모리세, <플라뇌르의 생리학>의 삽화, 1841.

자료: Huart, *Physiologie du flâneur*, p. 8.



<도판 4-72> 도미에, <구경꾼>

자료: commons.wikimedia.org

라고 한다. 긍정적인 의미의 플라뇌르와 달리,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막연히 쫓는 ‘바도’는 부정적으로 묘사된다(도판 4-71, 4-72).<sup>200)</sup>

플라뇌르와 바도를 혼동하지 말자. 이에 정통한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뉘앙스가 있다. 플라뇌르는 적어도 관찰하고 숙고한다. 그에게는 항상 개성이 있다. 반대로 바도의 개성은 그의 뉘를 빼놓아 황홀하게 만들어 외부 세계로 흡수되어 사라진다. 스펙터클의 영향 아래에서 바도는 몰개성적인 존재

200) 다양한 대중문화와 흥밋거리를 추구하던 19세기 후반의 파리의 시각 문화에 대한 보다 풍부한 논의는 Vanessa R. Schwartz, *Spectacular Realities: Early Mass Culture in Fin-de-Siècle Paris*, 노명우, 박성일 (공역), 『구경꾼의 탄생』 (고양: 도서출판 마티, 2006)을 참조하라. 슈워츠는 이 책에서 ‘바도’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군중으로서의 대중이 당시의 시각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의 묘사는 이들이 플라뇌르가 아님을 암시한다.



가 된다.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다. 그는 대중, 군중이다.

플라뇌르가 보들레르가 말하는 시인-예술가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반면, 바도는 그가 스쳐 지나가는 군중, “무리를 지어서만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sup>201)</sup> 사실 보들레르나 벤야민 모두 플라뇌르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저술에서 우리는 이들이 남성 부르주아임을 유추할 수 있다. 플라뇌르가 정신적인 면에서라도 귀족적이었다면, 바도는 노동자 계급이나 프티 부르주아의 특징을 담고 있다. 플라뇌르가 군중 속에 있되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찰하는 입장이라면, 바도는 군중 속에 함몰되어 호기심을 채우는 이들이었다.

이는 산책이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적 소양이 필요한 지적 활동의 일환이므로, 낚품팔이들은 산책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고 본 당대의 여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sup>202)</sup> 노동자들에게 산책은 거리를 어슬렁대며 식사를 소화시키거나, 구경거리를 찾아다니며 지루함을 쫓는 활동에 불과했다. 이들에게 공원을 포함한 도시의 산책로는 19세기에 새로 대두한 노동 후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만족시키는 것이었고, 일정한 규범을 준수하게 하는 사회적 교화의 장치였다.

도시와 관련된 담론은 주로 도시-교외, 도시-시골, 공적인-사적인 것을 대조시키는 경우가 많다. 도시의 공적인 공간에서 거리를 뒹모으며 사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플라뇌르들의 행동 방식은 도시적 시선과 관찰, 도시적 삶의 개념을 포괄하는 핵심 개념이 된다. 19세기의 공원을 산책하며 ‘보고 보이는’ 복잡한 관계망을 유영하던

---

201) Baudelaire, “Mon coeur mis à nu,” in *Oeuvres complètes*, (Paris: Gallimard, 1975), p. 682. 이는 플라뇌르와 바도에 대한 여러 가지 글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플라뇌르가 대개 남성 단수형 명사로 사용되는데 비해, 바도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복수형으로 표현된다. 바도는 구경거리를 보고 모여드는 호기심 많은 군중이다. 보들레르가 <명상(Le Recueillement)>에서 “비열한 다수의 인간들”이라고 부른 이들이 바로 이런 대중이다.

202) Karl-Gottlob Schelle, *L'Art de se promener* (Paris: Payot & Rivages, 1996), p. 31.



이, 댄디의 모습이다. 거리와 공원은 이들이 영역이었고, 이들의 공원을 체험하는 방식은 모더니티의 양상을 반영한다. 플라뇌르는 도시에서의 관찰자를 묘사하는 용어로 빈번하게 사용되어 공허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여전히 소비중심적인 대도시에서의 관찰자의 특정한 조건, 즉 “이 스펙터클을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관자의 위치를 가정하는 도시의 스펙터클을 경험하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방식을 구상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sup>203)</sup>

---

203) Vanessa R. Schwartz, “Walter Benjamin for Historian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6(5), 2001, pp. 1732-3.

## 제 5장 결론

본 논문은 19세기 말 서유럽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성된 도시공원과 여러 녹지 공간이 모더니티를 형성하고 반영하는 장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현대의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여전히 모더니티는 크던 작든 간에 삶의 조건의 일부이고, 보편적인 삶의 경험 방식이다. 모더니티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19세기, 산업주의와 자본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문화 등 일상 전반의 영역에 영향을 미쳤고, 19세기의 유럽 뿐 아니라 이후의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서구가 백여 년에 걸쳐 추진해온 근대화, 그리고 이를 수십 년 동안 압축적으로 겪은 우리나라, 어느 경우이든 간에 속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의 삶은 근대적인 변용을 겪었고, 대도시에서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 시기 조성된 도시공원은 그 크기나 위치, 조성시기, 형태 등에 무방하게 도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오히려 이 시기처럼 대규모의 녹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오늘날 도시내의 중요한 녹지 공간으로 기능한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된 19세기 후반 서유럽의 도시공원은 근대적 장치로서의 대표성을 지닌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도시공원은 분명 당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새로운 ‘발명품’이었다. 도시공원은 대도시 안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일상의 휴식과 여가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그 배치와 구조, 형식, 내용, 규칙의 이면에는 근대적 사회에 적합한 근대적 도시민을 형성하기 위한 장치가 내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공원의 조성에는 도시 개발의 정책적, 경제적 목적이 분명히 관여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19세기 후반 서유럽의 대도시에 등장한 공원에 나타난 모더니티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인식하고 논의를 전개했다.

19세기 후반 대도시에 조성된 도시공원의 공간 배치는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하고, 공원 이용자들의 행태와 관계를 규정했다. 풍경화식 정원의 양식을 주로 채택한 19세기 대도시의 도시공원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확장되는 바로크 정원의 웅대함과 대비된다.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선과 요소마다 발견되는 다양한 요소, 중심이 없는 설계는 만민이 평등한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이상을 반영한다. 양식적으로는 크게 풍경화식 정원 양식을 계승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분리된다. 이러한 도시공원의 형태는 도시 환경이라는 독특한 맥락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19세기 도시공원 조성에 내재한 모더니티를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조성된 도시공원 속의 자연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자연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가공된 이상화된 자연이었다. 파리시 식재와 산책로 부서의 책임자로 임명된 알팡은 엔지니어 출신이었고, 그는 도시 정비의 모든 측면을 수량화하고 이름을 붙이고 측량하고 다듬었다. 가로수의 크기와 식재 간격, 철창살의 높이와 간격, 형태와 색깔, 펜스의 지름, 꽃의 직경과 높이 등 모든 것이 수치로 환원되었다. ‘미’는 에콜 데 보자르(École des Beaux-Arts) 출신 화가와 건축가들이 다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산술적으로 계량 가능한 장식이 된다. 이를 통해 조성된 공원은 설계와 의도에 맞춰 가공되고 조정된, 보기 좋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자연이었다. 환언하면, 도시공원은 일종의 문화적 자연(cultural nature)이자, 자연이라는 형식을 띤 문화(natural culture)였다.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생겨난 도시공원은 도시 내의 배치에서뿐 아니라 그 내부 구성에서도 도시 조직의 성격을 내포한다. 근대 도시의 특성은 도시공원에서도 나타나고, 공원은 이를 재현하는 곳이자, 이를 인식하는 장이기도 했다. 도시공원이 내포

하는 여러 가지 성격은 도시공원이 19세기에 형성된 근대 사회와 시민의 근대적 일상 속에서 구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둘러싼 도시와 시민의 일상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의 안정과 격변, 진보와 개발, 갈등과 긴장, 계급과 젠더의 구분 등은 도시공원이 지닌 다양한 층위를 통해 드러난다. 곧 근대 사회의 다차원적인 삶의 양상이 도시공원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도시공원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 형성된 대도시의 사회와 문화를 실제 공간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급격한 도시화 과정 속에서 발생한, 혹은 이에 앞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와 정부가 개입한 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문제는 국가의 개입을 초래했다. 도시공원 또한 이러한 국가적 개입의 일환이었지만, 단편적으로 볼 수 없는 장소이다. 도시공원은 급격한 도시화의 결과로 발생한 도시의 문제를 합리성과 진보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기능만을 수행하지 않았고, 도시와 시민의 일상이 소거된 예술 작품은 더더욱 아니었다. 19세기의 도시공원은 사회와 문화, 도시와 시민의 일상을 둘러싼 다양한 양상 사이의 긴장 속에서 그 의미를 형성했고, 이러한 입장들 사이에 병립하며 도시공원의 모더니티를 구축해 나갔다.

본 논문의 배경이 된 19세기 후반 서유럽 대도시는 근대 자본주의와 시민 민주주의가 발전하던 시기로서, 소비하는 ‘대중’이 주인공이었다. 이들이 향유한 도시공원 등의 도시 녹지는 발전하는 도시 속 일상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박람회 등 국가적인 자부심을 과시하는 장소의 일부이기도 했다. 혹은 급격한 도시화의 부작용과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도시공원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서 작동하는 기제는 그렇지 않았다. 도시공원이라는 제도와 시설을 통해 근대를 살던 사람들은 ‘바람직한 시민’이 되었고, 여기에는 다양한 권력 기제가 작동했다. 산책, 휴식, 문화 활동, 스포츠, 사교 활동 등 도시

공원에서 행해진 다양한 활동의 이면에는 올바른 시민을 양성하는 제도가 ‘공중위생’과 ‘공중도덕’이라는 이름하에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시공원의 형성과 발전은 결코 양식적, 형태적 분석에 대한 연구에 한정될 단순하고 중립적인 공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도시공원은 대도시 내의 ‘자연’으로서 휴식과 여가의 장이 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함의를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공간이었다.

도시공원이 조성되던 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역사적 맥락의 연구를 통해 도시공원의 모더니티에 대한 일종의 메타 담론의 장을 열었다는 데에서 본 논문의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수많은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고, 동시대 조성된 센트럴 파크로 대표되는 양식으로 발전한 현대의 조경, 그리고 오늘날의 도시공원의 연결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추적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사회 정치적 동기와 미학적 동기, 기술 발전적 동기가 연결되어 발달한 도시공원의 연구는 개별 도시공원 자체만의 연구로는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고, 공시적, 통시적인 맥락 속에서 연결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시공원의 발달을 위주로 진행된 까닭으로 동시대 정원 양식의 발달을 검토하지 못했음은 본 논문의 가장 큰 한계로 남았다. 조경 실천의 축이 정원에서 공원으로 이행되던 과도기적 시점이었다 하더라도, 가드네스크(gardenesque) 양식과 아츠 앤 크래프트(Arts & Crafts) 정원, 빅토리안 코티지 정원(victorian cottage garden), 노동자 정원, 20세기 초반의 프랑스 모더니즘 정원 등으로 이어지는 당대의 정원 실천 또한 모더니티의 또 다른 양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확산된 중산층의 원예 취미와 교외의 발달의 연관성 또한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도시 근교에 조성된 공원의 이용을 논의했다. 하지만 교외 거주자들의 일상 속에서의 정원 가꾸기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요약되는 근대로의

이행에 대한 반응의 또 다른 양상이었다.

도시공원은 19세기 후반 근대 대도시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의 모더니티를 이해하는 중요한 탐침이 될 수 있다. 도시공원을 포함한 근대의 제도와 시설들은 근대 대도시의 공간을 새로운 경제적·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장치로 연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등장했다. 근대, 계몽, 도시, 진보, 합리, 발전, 이성 등의 키워드는 발전을 추동해온 동인이었고, 추구해야 할 지상 과제였다. 공리주의적 효율성과 자본주의 경제체제,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19세기의 근대 사회를 이끌었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근대적 변용을 겪었다. 도시공원의 조성과 발전의 양상을 추적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반영하는 모더니티, 그리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보았다. 대도시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공원은 엄밀한 계획 하에 조성된 ‘근대적 발명품’이고 합리성과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공간이었다.

모더니티는 하나의 단일한 양상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복수의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 논의한 19세기 후반의 서유럽의 대도시에서는 수많은 근대가 ‘발명’되었고, 도시공원도 그 중 하나이다. 이것이 반영하는 ‘모더니티’의 근원과 영향력, 지속성에 대한 담론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폐기되었지만, 또 다른 것은 여전히 통용되고, 적절하고, 시대적 맥락에 따라 형태와 의미의 층위를 덧붙여 나간다. 이는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계속 변화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답‘들’을 찾아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 인용문헌

### 1. 1차 문헌

- Ackermann, Rudolph(1812). *The Repository of Arts, Literature, Commerce, Manufactures, Fashions and Politics*, vol. 8. London: R. Ackerman. [https://ia600407.us.archive.org/13/items/repositoryofarts812acke/repositoryofarts812acke.pdf, 2013-10-25].
- Alphand, Adolphe(1867-1873). *Les Promenades de Paris: histoire, description des embellissements, dépenses de création et d'entretien des Bois de Boulogne et de Vincennes, Champs-Élysées, parcs, squares, boulevards, places plantées: étude sur l'art des jardins et arboretum par A. Alphand*. Paris: J. Rothschild. [텍스트: <http://bibliotheque-numerique.inha.fr/collection/13409-les-promenades-de-paris-texte/>, 도판: <http://bibliotheque-numerique.inha.fr/collection/13410-les-promenades-de-paris-planches/>, 2013-03-24]
- \_\_\_\_\_(1891), “Discours de M. Alphand sur M. le Baron Haussmann,” Georges Eugène Haussmann, *Mémoires du Baron Haussmann*, tome III. Grands Travaux de Paris (Boston: Elibron Classics, 2006).
- Alpheus, Hyatt(1891). “The Next Stage in the Development of Public Parks,” *The Atlantic Monthly*, (Feb. 1891).
- André, Édouard(1879). *L'Art des Jardins: traité général de la composition des parcs et jardins*. Paris: G. Masson.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5440920x, 2013-02-24]
- Baridon, Michel(1998). *Les Jardins*. Paris: Éditions Robert Laffont.
- Bonald, Louis-Gabriel - Ambroise(1880). *Théorie du pouvoir politique & religieux dans la société civile démontrée par le raisonnement et par l'histoire*, tome 2. Paris: Librairie Bloud et Barral. [https://archive.org/details/thoriedupouvoir05bonagoog, 2013-12-12].
- Conrad, Joseph(1899). *Heart of Darkness: A Case Study in Contemporary Criticism*. ed. by Ross C. Murfi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9.
- Conseil d'hygiène publique et de salubrité de Seine(1840). *Rapport général sur les travaux du Conseil de salubrité, pendant des années 1829 à 1839*. Paris: Librairie de Lottin. [http://gallica.bnf.fr/ark:/12148/cb34253921g/date, 2013-12-28]
- Cruikshank, George(1847-8). *The Bottle and the Drunkard's Children*. London: Gowans & Gray, 1906 [https://archive.org/stream/bottledrunkardsc00cruir#page/n27/mode/2up, 2013-12-31]

- Daly, César(1860)(ed.). *Revue générale de l'architecture et des travaux publics* XVIII. Paris: Paulin & Hetzel [[http://portaildocumentaire.citechailot.fr/simclient/consultation/binaries/stream.asp?INSTANCE=INCIPIO&EIDMPA=INCIP\\_GED\\_FICJOINT\\_FRAPN02\\_RA\\_1860\\_01\\_pdf](http://portaildocumentaire.citechailot.fr/simclient/consultation/binaries/stream.asp?INSTANCE=INCIPIO&EIDMPA=INCIP_GED_FICJOINT_FRAPN02_RA_1860_01_pdf), 2013-11-18]
- \_\_\_\_\_. (1864). *L'architecture privée au XIXe siècle, sous Napoléon III: nouvelles maisons de Paris et des environs*. Tome 1. Paris: A. Morel.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866074>, 2013-11-19].
- Dantec, Jean-Pierre Le(1996). *Jardins et Paysages: textes critiques de l'antiquité à nos jours*. Paris: Larousse.
- Delvau, Alfred(1867). *Les plaisirs de Paris: guide pratique et illustré*. Paris: A. Faure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62624b>, 2013-10-04].
- Dickens, Charles(1848). *Dombey and Son*. London: Bradbury and Evans [<https://archive.org/details/dombeyandson02browgoog>, 2014-01-02].
- Doniol, Auguste(1902). *Histoire du XVIe arrondissement de Paris*. Paris: Hachette et Cie. [<https://archive.org/stream/histoireduxviea00donigoog#page/n244/mode/1up>, 2013-11-18].
- Downing, Andrew Jackson and Henry Winthrop Sargent(1859). *A treatise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landscape gardening, adapted to North America: with a view to the improvement of country residences... with remarks on rural architecture 1810-1882*. New York: A.O. Moore & Co., Wynkoop, Hallenbeck & Thomas Printers. [<http://ia700406.us.archive.org/31/items/treatiseonthe00down/treatiseonthe00down.pdf>, 2013-04-14].
- Engels, Friedrich.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박준식, 전병유, 조효래 (공역)(1988).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서울: 도서출판 두리.
- Ernouft, Alfred Auguste and Adolphe Alphand(1886). *L'Art des jardins: Parcs, jardins, promenades*. Paris: J. Rothschild. [<http://www.europeana.eu/portal/record/08701/6708FA3A14CABA0068824C4B064A0E0592222000.html>, 2013-01-21]
- Fournel, Victor(1865). *Paris nouveau et Paris future*. Lyon: Jacques Lecoffre [[ftp://ftp.bnf.fr/010/N0101890\\_PDF\\_1\\_-1DM.pdf](ftp://ftp.bnf.fr/010/N0101890_PDF_1_-1DM.pdf), 2013-10-19]
- Gautier, Théophile(1883). "Préface," in Édouard Fournier, *Paris démolie*. Paris: E. Dentu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201368p>, 2013-07-09]
- Grand-Carteret, John(1893). *XIXe siècle (en France): classes, mœurs, usages, costumes, inventions*. Paris: Firmin-Didot [<https://archive.org/details/xixeiedixneuvi00granuoft>, 2013-12-18]

- Hausmann, Georges Eugène, baron(1854). *Mémore sur les eaux de Paris*. Paris: Vinchon. [http://www.bsb-muenchen-digital.de/~web/web1035/bsb10358150/images/index.html?digID=bsb10358150&pimage=1&v=pdf&nav=0&l=de, 2013-03-18]
- \_\_\_\_\_(1890). *Mémoires du Baron Haussmann*, tome II, Préfecture de la Seine. [http://archive.org/details/mmoiresdubaronh00hausgoog, 2013-10-15]
- \_\_\_\_\_(1890). *Mémoires du Baron Haussmann*, tome III, Grands Travaux de Paris. Paris: Victor-Havard. [https://archive.org/details/mmoiresdubaronh02hausgoog, 2013-10-15]
-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Phänomenologie des Geistes*, 임석진 (역)(1989). 『정신현상학』. 서울: 지식산업사.
- Huart, M. Louis(1841). *Physiologie du flâneur*. Paris: Aubert et Cie. [https://archive.org/details/physiologiedufla00huar, 2014-01-27]
- Illustrations de Les rues de Paris ancien et moderne. 358-1848, origine et histoire. Monuments, costumes, mœurs, chroniques et traditions*, (Paris: G. Kugelman, 1843) [http://gallica.bnf.fr/ark:/12148/btv1b20000797, 2014-01-01]
- Laugier, Marc-Antoine(1755). *Essai sur l'architecture*. Paris: Duchesne. [https://archive.org/details/surlarchitecture00laug, 2013-11-03]
- Loudon, John Claudius(1825). *An Encyclopaedia of Gardening*. London: Longman, Rees, Orme, Brown and Green. [http://ia600300.us.archive.org/7/items/encyclopaediaofg00loudrich/encyclopaediaofg00loudrich.pdf, 2013-10-03]
- \_\_\_\_\_(1829). *The Gardener's Magazine and Register of Rural and Domestic Improvement*. London: Longman, Rees, Orme, Brown and Green. [https://play.google.com/store/books/details?id=h2JJAAAAMAAJ&rdid=book-h2JJAAAAMAAJ&dot=1, 2013-10-03]
- \_\_\_\_\_(1840). *The Landscape Garde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of the Late Humphrey Repton, Esq., Being His Entire Works on These Subjects*. London: Longman & Co. [https://archive.org/details/landscapegarden02loudgoog, 2013-10-03]
- Mairie de Paris, “La restauration du Parc des Buttes-Chaumont,” *Conférences de presse du 05 novembre*. [http://labs.paris.fr/commun/v2asp/FR/La\_Mairie/executif/communiques/ancienne\_mandature/mandature\_1995\_2001/CONF051199.ASP, 2013-02-01]
- Meynadier, Hippolyte(1843). *Paris sous le point de vue pittoresque et monumental, ou Éléments d'un plan général d'ensemble de ses travaux d'art et d'utilité publique*. Paris: Dauvin et Fontaine.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5467967

2, 2013-07-11]

- Milizia, Francesco(1785), *Principi di architettura civile* Vol. II. Bassano: A spese Remondini di Venezia. [https://archive.org/details/civilearchitettu02mili, 2012-11-02]
- Olmsted, Frederick Law(1852). *Walks and Talks of an American Farmer in England*. New York: George. P. Putnam. [http://ia700300.us.archive.org/35/items/walkstalksofamer00olmsuoft/walkstalksofamer00olmsuoft.pdf, 2013-02-19]
- Patmore, Coventry(1887). *The Angel in the House*. London: Cassell & Company, Ltd., [https://archive.org/details/angelinhouse00patm, 2013-12-12].
- Phillips, Samuel(1856). *Guide to the Crystal Palace and Park*. London: Crystal Palace Library and Bradbury and Evans. facsimile edition. London: Euston Grove Press, 2008.
- Raffalovich, Arthur(1887). *Le logement de l'ouvrier et du pauvre*. Paris: Guillaumin. [https://archive.org/details/lelogementdelou00raffgoog, 2013-11-02]
- Thackeray, William Makepeace(1850). *The History of Pendennis*. New York: Harper & Brothers. [ https://archive.org/details/historypendenni05thacgoog, 2014-01-02]
- 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Walks(1833). *Report from 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Walks. The Westminster Review*, Vol. XX. Jan-Apr, London: Robert Heward, 1834. [https://play.google.com/store/books/details?id=HYQVAQAIAAJ, 2013-11-20]
- Repton, Humphrey(1816). *Fragments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Landscape Gardening* (1st ed. 1816; reprinted New York and London, 1982).
- Robinson, William(1878). *The Parks and Gardens of Paris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Wants of Other Cities and of Public and Private Gardens*, 2<sup>nd</sup> ed. London: Macmillan and Co. [https://archive.org/details/parksgardensofpa00robi, 2012-11-11].
- Rush, Richard(1833). *A Residence at the Court of London*. London: R. Bentley [https://archive.org/details/aresidenceatcou00rushgoog, 2013-11-22]
- Sardou, Victorien(1907). "Preface," in Georges Cain, *The Nooks & Corners of Old Paris*. London: E. G. Richards. [https://archive.org/details/nookscornersofol00cain, 2013-11-18].
- Smollett, Tobias Georges(1771), *The Expedition of Humphry Clinker* (New York: The Century Co., 1904), [https://archive.org/details/expeditionofhump00smoliala, 2014-01-03].
- Tennyson, Alfred Lord(1835). "Locksley Hall," in *Poems of Tennyson*, ed. by Jerome

Hamilton Buckley. Boston: Houghton Mifflin, 1958.

Zola, Émile. *La Curée*, 조성애 (역)(2010). 『쟁탈전』.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_\_\_\_\_. “Les Squares,” in *Oeuvres complètes*, Tome 2: Le feuilletoniste, 1866-1867. Paris: Nouveau Monde Éditions(2002).

\_\_\_\_\_. (2003). “Le nettoyage de Paris sous Haussmann,” in *Oeuvres complètes*, Tome 5: Thiers au pouvoir, 1871-1873. Paris: Nouveau Monde Éditions.

\_\_\_\_\_. (1864). *Le ventre de Paris*. Paris: Gallimard.

Émile Zola, *Thérèse Raquin*, 박이문 (역)(2003), 『테레즈 라캥』. 파주: 문학동네.

## 2. 2차 문헌

견진현(2003). “오스만의 파리시 도심녹지시스템: 그 효용성과 녹지정책의 논리,” 『한국조경학회지』, 31(4): 1-12.

김문환 외(1998). 『19세기 문화의 상품화와 물신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병준(2011). 『지방자치론』. 파주: 법문사.

김영철(2005). “산업혁명기의 기술혁신과 대외무역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자본, 제국, 이데올로기』. 서울: 도서출판 해안.

류선정(2008). “19세기 후반 프랑스 문학작품에 나타난 파리의 일상 공간,” 『프랑스학연구』, 46: 609-648.

민유기(2007). 『도시이론과 프랑스 도시사 연구』. 서울: 심산출판사.

박재환·김문겸(1997). 『근대사회의 여가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박진아(2003). “19세기 오스만에 의한 파리개발계획의 구조분석: 재원조달연구를 통한 도시개발 방식 이해,” 『계획계』, 19(12): 227-234.

박찬영, 민경현(2011), “19세기말 영국 중부 산업 도시의 실업과 도시 공간의 주도권 문제,” 『영국 연구』, 26: 153-179.

배정환(2004).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성남: 도서출판 조경.

손세관(1993).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서울: 열화당.

송영섭(2006). “오스만의 파리 개조사업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연구논문집』, 17: 345-361.

양동휴(1994). “서양사에서의 자본주의 성립시기 논의,” 『미국 경제사 탐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양우현(1995). “파괴의 예술가-오스만,” 『국토정보』, 163: 60-65.

오룡(2012). 『상상력의 전시장 엑스포: 인간의 꿈을 현실로 만든 인류문명사 160년』. 서울: 다우.

요시미 순야(吉見俊哉). 『博覽會の政治學』, 이태문 (역)(2004). 『박람회: 근대의 시선』. 서

을: 논형.

윤영애(1998). 『파리의 시인 보들레르』. 서울: 문학과지성사.

이문웅(1998). “서양문명 발전의 빛과 그늘,” 『과학사상』, 24: 116-135.

이시카와 미키코(石川幹子). 『都市と緑地』, 이용태 (역)(2004). 『도시와 녹지』. 서울: 현진 기획.

이영식(2003). 『(역사가가 그린)근대의 풍경』, 서울: 푸른역사.

장경섭(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성 근대서의 미시적 기초』, 파주: 창비.

조경비평 봄(2010). 『공원을 읽다: 도시 공원을 바라보는 열두 가지 시선들』. 고양: 나무도시.

조경진(2010). “조경의 사회적 가치와 실천방향,” 도시조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과 디자인 실천전략 심포지움, 2010년 6월 10일.

조한혜정, “Breathing New Life into Urban Communities Struck Down by the ‘Block Attack’ and Apathetic Individualism,” The 8<sup>th</sup>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Pacific Rim Community Design Network, Green Community Design, Seoul, Korea, August 22-24, 2012.

차하순(3007). “근대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 『대한민국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46(2): 1-33.

황기원(1986). “19세기 구미의 환경설계사 개관,” 『환경논총』, 18: 81-95.

\_\_\_\_\_(1987). “정원의 원형 시론,” 『환경논총』, 20: 85-97.

\_\_\_\_\_(2001). “서울 20세기 공원·녹지의 변천,”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황주영(2013). “파리 산책로의 역사적 연원에 대한 소고,” 『한국프랑스학논집』, 81: 371-92.

Adler, Katheen(1989), “The Suburban, the Modern and ‘une Dame de Passy,’” *The Oxford Art Journal*, 12(1): 3-13.

Ariès, Philippe and Georges Duby (eds.). *Histoire de la vie privée*, tome 4. *De la Révolution à la Grande Guerre*, 전수연 (역)(2002), 『사생활의 역사 4: 프랑스 혁명부터 제1차세계대전까지』. 서울: 새물결.

\_\_\_\_\_. *L'Homme devant la mort*, 고선일 (역)(2004), 『죽음 앞의 인간』. 서울: 새물결.

Armengaud, André et al.(1993). *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de la Franc III: L'avènement de l'ère industriell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Arnold, Dana(2006). *Rural Urbanism: London Landscapes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Babelon, Jean-Pierre(1976). *Le Parisien chez lui au XIXe siècle: 1814-1914*. Paris: Archives nationales.



- Baker, Florence Mary(1994). *Parisians and Their Parks: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the Paris Municipal Park System, 1853-1900*.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 \_\_\_\_\_(2001). "The Paris Municipal Parks from Empire to Republic: The Political Transformation of Public Space, 1871-1900," *Proceedings of the Western Society for French History*, 27: 92-101.
- Felix Barker and Peter Jackson(1990). *The History of London in Maps*. London: Barrie & Jenkins Ltd.
- Baridon, Michel(1998). *Les jardins. Paysagistes-Jardinniers-Poètes*. Paris: Éditions Robert Laffont.
- Baudelaire, Charles(1961). *Oeuvres complètes*. Paris: Gallimard.
- \_\_\_\_\_. *Le Spleen de Paris*, 윤영애 (역)(2008), 『파리의 우울』. 서울: 민음사.
- Bennett, Tony(1995). *The Birth of the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 London: Routledge.
- Beck, Robert(1997). *Histoire du Dimanche: De 1700 à nos jours*. Paris: Les Éditions de l'Atelier/Éditions Ouvrières.
- Beck, Thomas E.(2002). "Gardens as a 'Third Nature': the Ancient Roots of a Renaissance Idea,"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and Designed Landscape*, 22: 327-334.
- Berrizbeita, Anita. "The Amsterdam Bos: The Modern Public Park and the Construction of Collective Experience," in *Recovering Landscape: Essays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James Corner(ed.)(1999).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 Boudon, Françoise(1975). "L'architecture à Paris de 1850 à 1940, Revue des publications récentes," *Revue de l'art*, 29: 107-114.
- Boulton, William Biggs(2011). *The Amusements of Old London: from the 17<sup>th</sup> to the Beginning of the 19<sup>th</sup> Century*, vol.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rdieu, Pierre(1993).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Essays on Art and Litera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raybrooke, Neville(1959). *London Green: The Story of Kensington Gardens, Hyde Park, Green park & St. James' Park*. London: Victor Gollancz Ltd.
- Brunon, Hervé and Monique Mosser(2011). *Le jardin contemporain*. Paris: Nouvelles Éditions Scala.
- Bryson, Bill(2010). "The Garden," in *At Home: A Short History of Private Life*. New

- York: Doubleday.
- Bullock, Nicholas and James Read(1985). *The Movement for Housing Reform in Germany and France, 1840-19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rns, Edward McNall, Robert E. Lerner and Standish Meacham. *Western Civilizations*, 손세호 (역)(1996), 『서양 문명의 역사 III: 근대에서 산업혁명까지』. 서울: 소나무.
- Calinescu, Matei. *Five Faces of Modernity: Modernism, Avant-garde, Decadence, Kitsch, Postmodernism*, 이영욱 외 (공역)(1994),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모더니티, 아방가르드, 데카당스, 키치,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시각과언어.
- Carmona, Michel. *Haussmann: His Life and Times, and the Making of Modern Paris*, Patrick Camiller(trans.)(2002). Chicago: Ivan R. Dee.
- Carroll, Maureen(2003). "Orchards, groves and parks," *Earthly Paradises: Ancient Gardens in History and Archaeology*. Los Angeles: J. Paul Getty Museum.
- Cars, Jean des and Pierre Pinon(eds.)(1991). *Paris-Haussmann, "le pari d'Haussmann,"* 5<sup>th</sup> edition. Paris: Éditions du Pavillon de l'Arsenal and Picard Éditeur.
- Casselle, Pierre(1997). "Les travaux de la Commission des embellissements de Paris en 1853: pouvait-on transformer la capitale sans Haussmann?," *Bibliothèque de l'école des Chartes*, 155(2): 645-689.
- Castells, Manuel(1983). "Crisis, Planning, and the Quality of Life: Managing the New Historical Relationships between Space and Socie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 3-21.
- Chadwick, George F.(1966). *The Park and the Town: Public Landscape in the 19<sup>th</sup> and 20<sup>th</sup> Centuries*. London: The Architectural Press.
- Chadwick, Owen. *Secularization of the European Mind in the Nineteenth Century*, 이정석 (역)(1999), 『19세기 유럽 정신의 세속화』. 서울: 현대지성사, 1999.
- Chapman, J. M. and Brian(1957). *The Life and Times of Baron Haussmann: Paris in the Second Empir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 Choay, Françoise. *The Modern City: Planning in the 19<sup>th</sup> Century*, Marguerite Hugo and George R. Collins (trans.)(1969). New York: George Braziller.
- \_\_\_\_\_(1975). "Haussmann et le système des espaces verts parisiens," *Revue de l'art*, 29: 83-99.
- Christov-Bakargiev, Carolyn(2004). "Radical Visions of Modern Life," *Faces in the Crowd: Picturing Modern Life from Manet to Today*. London: Whitechapel Art Gallery.
- Clark, T. J.(1984). *The Painting of Modern Life: Painting in the Art of Manet and His*

- Followers*, rev. e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lark, Peter(ed.)(2006). *The European City and Green Space: London, Stockholm, Helsinki and St. Peterburg, 1850-2000*. Aldershot: Ashgate.
- Clayton-Payne, Andrew(1988). *Victorian Flower Garden*,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 Cochen, Jean-Louis and Bruno Fortier(eds.)(1992). *Paris, la ville et ses projets*. Paris: Édition Babylone and Pavillon de l'Arsenal.
- Coke, David E.(2012). *Vauxhall Gardens: A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oleman, David and John Salt(1992). *The British Population: Patterns, Trends, and Proces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mpagnon, Antoine. *Les Cinq paradoxes de la modernité*, 이재룡 (역)(2008), 『모더니티의 다섯개 역설』. 서울: 현대문학.
- Costello, Vandra(2007). "Public Spaces for the Recreation in Dublin, 1660-1760," *Garden History*, 35(2): 160-179.
- Conrad, Joseph(1899). *Heart of Darkness*, ed. by Robert Kimbrough. New York: Norton, 1988.
- Conway, Hazel(1985). "The Manchester/Salford Parks: Their Design and Development," *The Journal of Garden History*, 5(3): 231-260.
- \_\_\_\_\_(1991). *People's Parks: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Victorian Parks in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1996). *Public Parks*. Buckinghamshire: Shire Publications Ltd.
- \_\_\_\_\_. "Parks and people: the social function," in *The Regeneration of Public Parks*. Jan Woudstra and Ken Fieldhouse(eds.)(2000). London: New York: Published jointly by the Garden History Society, Landscape Design Trust, and E&FN Spon.
- Cranz, Galen(1989). *The Politics of Park Design: A History of Urban Parks in America*.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Czerniak, Julia and Geroge Harvgreaves. *Large Parks*, 배정환+idla (공역)(2010). 『라지 파크: 공원 디자인의 새로운 경향과 쟁점』. 파주: 도서출판 조경.
- Daumard, Adeline(1965). *Maisons de Paris et propriétaires parisiens au XIXe siècle: 1809-1880*. Paris: Cujas.
- \_\_\_\_\_(1979). *Les bourgeois de Paris au XIX<sup>e</sup> siècle*. Paris: Flammarion.
- Daumier, Honoré(1999). *Daumier, 1808-1979*. Ottawa: National Gallery of Canada.
- Davidoff, Leonore, Jean L'Esperance and Howard Newby. "Landscape with Figures:

- Home and Community in English Society,” in *The Rights and Wrongs of Women*. Juliet Mitchell and Ann Oakley(eds.)(1976). New York: Penguin.
- Dawson, Ian(2001). *Empire & Industry 1700-190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uby, Georges(ed.)(1980-1985). *Histoire de la France urbaine, tome 4. La Ville de l'âge industriel: le cycle haussmannien*. Paris: Seuil.
- Edwards, Steve and Paul Wood(eds.)(2012). *Art & Visual Culture 1850-2010: Modernity to Globalisation*. London: Tate Publishing.
- Elias, Nobert. *Höfische Gesellschaft*, Edmund Jephcott (trans.)(1983), *The Court Society*. Oxford: Blackwell.
- Empson, William(1968). *Some Versions of Pastoral*. New York: New Directions Book.
- Erp-Houtepen, Anne van(1986). “The Etymological Origin of the Garden,” *Journal of Garden History*, 6: 227-231.
- Fishman, Robert, *Bourgeois Utopias*, 박영한, 구동회 (공역)(2000), 『부르주아 유토피아: 교외의 사회사』. 서울: 한울.
- Forestier, Jean Claude Nicoals(1997). *Grandes villes et système de parcs*. Paris: Éditions Norma.
- Foucalut, Michel. *Les Mots et les choses*, 이광래 (역)(1987), 『말과 사물』. 서울: 민음사.
- \_\_\_\_\_. *Histoire de la sexualité*, 이규현 외 (공역)(1990), 『성의 역사 제 1권: 얇의 의 지』. 서울: 나남.
- \_\_\_\_\_. (1994). *Dits et écrits 1954-1988, IV, 1980-1988*, eds., by Daniel Defert and François Ewald. Paris: Gallimard.
- \_\_\_\_\_.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오생근 (역)(2004),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서울: 나남.
- Franscia Francis et al.(1994), *Modernity and Modernism: French Painting in the Nineteenth Centu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raser, Nancy.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in *The Phantom Public Sphere*. B. Robbins(ed.)(1993).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Furet, François and Jacques Ozouf(1997). *Lire et écrire: l'alphabétisation des Français de Calvin à Jules Ferry*. Paris: Éditions de Minuit.
- Garrigues, Jean(2007). *La France du 1848 à 1870*, 2nd ed. Paris: Armand Colin.
- Gauldie, Enid(1974). *Cruel Habitations: A History of Working-Class Housing 1780-1918*. London: Allen & Unwin.
- Georgel, Chantal(2012). *Le paysage depuis le milieu du XIXe siècle*. Paris: NDP.

- Germain, Annick(1985). "Les Parcs selon Haussmann," *Continuité*, 28:34-35.
- Giedion, Sigfried. *Space, Time and Architecture: The Growth of a New Tradition*, 김정준 (역)(1998). 『공간 시간 건축』. 서울: 시공문화사.
- Girouard, Mark(1978). *Life in the English Country House: A Social and Architectural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Cities and People: A Social and Architectural History*, 민유기 (역)(2009). 『도시와 인간: 중세부터 현대까지 서양도시문화사』. 서울: 책과함께.
- Gleason, Kathryn L.(1994). "Porticus Pompeiana: A New Perspective on the First Public Park of Ancient Rome," *Journal of Garden History*, 14(1): 13-27.
- Green, Nicholas(1990a). *The Spectacle of Nature: Landscape and Bourgeois Culture in Nineteenth Century France*. Manchester;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_\_\_\_\_(1990b). "Rustic Retreats: Visions of the Countryside in Mid-Nineteenth-Century France," in *Reading Landscape: Country, City, Capital*. Simon Pugh (e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Grumbach, Antoine(1997). "The Promenades of Paris," *Oppositions*, 8:50-68.
- Gurney, Peter(1997). "The Politics of Public Spaces in Manchester, 1896-1919," *Manchester Region History Review*, 11:12-23.
- Habermas, Jürgen.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이진우 (역)(1995).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서울: 문예출판사.
- \_\_\_\_\_. "Modernity: An Unfinished Project," in *Habermas and the Unfinished Project of Modernity: Critical Essays on The Philosophical Discourse of Modernity*. Maurizio Passerin d'Entreves and Seyla Benhabib (eds.)(1997). Cambridge, Mass.: MIT Press.
- \_\_\_\_\_.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한승환 (역)(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서울: 나남출판.
- Harrison, Robert Pogue. *Gardens: An Essay on the Human Condition*. 조경진, 황주영, 김정은 (공역)(2012). 『정원을 말하다』. 파주: 나무도시.
- Harootunian, Harry D. *History's Disquiet: Modernity, Cultural Practice, and the Question of Everyday Life*. 윤영실, 서정은 (공역)(2006). 『역사의 요동』. 서울: 휴머니스트.
- Harvey, David(1990).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 of Cultural Change*. Cambridge, Mass: Basil Blackwell.

- \_\_\_\_\_. *Paris, Capital of Modernity*, 김병화 (역)(2005).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서울: 생각의 나무.
- \_\_\_\_\_. (2006).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Space," in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Setha Low and Neil Smith(eds.)(2006). New York: Routledge.
- Hauser, Arnold. *Sozialgeschichte der Kunst und Literatur*, 백낙청, 엄무웅 (공역)(1974).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현대편』. 서울: 창작과 비평사.
- Herbert, Robert L.(1988). *Impressionism: Art, Leisure and Parisian Socie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ibbert, Christopher(1980). *London: The Biography of a City*. New York: Penguin Books.
- Higgins, Joan(1980). "Social Control Theories of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al Policy*, 9(1):1-23.
- Hirschfeld, C. C. L. *Theorie der Gartenkunst*, Linda B. Parshall (ed. and trans.)(2001). *Theory of Garden Ar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obsbawm, E. J. *Industry and Empire*, 전철환, 장수산 (공역)(1984). 『산업과 제국: 산업 시대 영국 경제와 사회』. 서울: 한빛.
- \_\_\_\_\_. *The Age of Revolution*, 정도영, 차명수 (공역)(1998). 『혁명의 시대』. 파주: 한길사.
- \_\_\_\_\_. *The Age of Capital 1848-1875*, 정도영 (역)(1998). 『자본의 시대』. 파주: 한길사.
- Hopkins, Richard S.(2003). "From *place* to *espace*: Napoleon III's transformation of the Bois de Boulogne," *Proceedings of the Western Society for French History*, 31: 197-211.
- \_\_\_\_\_. (2008). *Engineering Nature: Public Greenspaces in Nineteenth-Century Pari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 Hoskins, William George. *The Making of the English Landscape*, 이영석 (역)(2007). 『잉글랜드 풍경의 형성』. 파주: 한길사.
- Hunt, John Dixon Hunt(1992). *Gardens and the Picturesque: Studies in the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Boston: MIT Press.
- \_\_\_\_\_. "Reinventing the Parisian park," in *Tradition and Innovation in French Garden Art*. John Dixon Hunt and Michel Conan(eds.)(2002).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_\_\_\_\_. (2002). *The Picturesque Garden in Europe*. London: Thames & Hudson Ltd.
- \_\_\_\_\_. (2006). "Parks, Promenades, and Politics: Tradition and Innovation in Europe and



- North America,” *Die Gartenkunst*, 11-25.
- \_\_\_\_\_(2012). *A World of Gardens*. London: Reaktion Books Ltd.
- Imbert, Dorothee(1993). *The Modernist Garden in Fr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1995). “French Visions of the Modern Garden,” *Die Gartenkunst*, 2: 255-267.
- Ittmann, Karl(1995). *Work, Gender, and Family in Victorian Englan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Jackson, John Brinkerhoff(1994). *A Sense of Place, A Sense of Tim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Jarrassé, Dominique(2002). *L’art des jardins parisiens*. Paris: Parigramme.
- Jauss, Hans Robert. *Literaturgeschichte als Provokation*, 장영태 (역)(1983),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서울: 문학과 지성사.
- Jones, Karen R. and John Wills(2005). *The Invention of the Park: from the Garden of Eden to Disney’s Magic Kingdom*. Cambridge: Polity Press.
- Jordan, David P.(1992). “Baron Haussmann and Modern Paris,” *American Scholar*, 61(1): 99-106.
- \_\_\_\_\_(1995). *Transforming Paris: The Life and Labors of Baron Haussmann*, New York: The Free Press.
- \_\_\_\_\_(2004). “Haussmann and Haussmannisation: The Legacy for Paris,” *French Historical Studies*, 27(1): 87-113.
- Jordan, Harriet(1994). “Public Parks, 1885-1914,” *Garden History*, 22(1): 85-113.
- Keith, W. J.(1974). *The Rural Tradition: a Study of the Non-Fiction Prose Writers of the English Countrysid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King, Ross. *The Judgement of Paris: Manet, Meissonier and Artistic Revolution*, 황주영 (역)(2008), 『파리의 심판』. 서울: 다빈치.
- Komara, Ann E.(2009). “Measure and Map: Alphand’s Contours of Construction at the Parc des Buttes Chaumont, Paris 1867,” *Landscape Journal*, 28(1): 22-39.
- Koselleck, Reinhart. *Vergangene Zukunft*, 한철 (역)(1996). 『지나간 미래』. 서울: 문학동네.
- Kostof, Spiro(1992). *The City Assembled: the Elements of Urban Form through History*. London: Thames and Hudson.
- Langlois, Gilles-Antoine(1991). *Folies, tivilis et attractions: Les premiers parcs de loisirs parisiens*. Paris: Délégation à l’Action Artistique de la Ville de Paris.
- Lasdun, Susan(1991). *The English Park: Royal, Private & Public*. London: Andre

- Deutsch Limited.
- Lavedan, Pierre(1977). *Histoire de Paris*. Paris: PUF.
- \_\_\_\_\_(1993). *Nouvelle histoire de l'urbanisme à Paris*, 2<sup>nd</sup> ed. Paris: Diffusion Hachette.
- Lawrence, Henry W.(2008). *City Trees: A Historical Geography from the Renaissance through the Nineteenth Century*. Charlottesville;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 Lemoine, Bertrand and Marc Mimram(1995). *Paris d'ingénieurs*. Paris: Éditions du Pavillon de l'Arsenal/Picard Editeur.
- Lesnikowski, Wojciech G. *Rationalism and Romanticism in Architecture*, 박순관, 이기민 (공역)(1986), 『합리주의와 낭만주의 건축』. 서울: 국제출판공사, 1986.
- Limido, Luisa(2002). *L'art des jardins sous le Second Empire: Jean-Pierre Barillet-Deschamps(1824-1873)*. Seyssel: Champ Vallon.
- Littré, Émile(1874). *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çaise*, Tome 4. Paris: Librairie Hachette,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54066991.r=.langFR>, 2013-11-18].
- Longstaffe-Gowan, Todd(2012). *The London Square: Gardens in the Midst of Town*.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Lortie, André et al.(1989). *Parcs et promenades de Paris*. Paris: Les Éditions du Demi-Cercle.
- Low, Setha, Dana Taplin and Suzanne Scheld(2005). *Rethinking Urban Parks: Public Space and Cultural Diversity*. Austin,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 Loyer, François(1994). "A Propos de l'haussmannisme français," *Revue de l'art*, 106: 9-10.
- \_\_\_\_\_. "Le regard des historiens sur la transformation de Paris au XIXe siècle," in *La Modernité avant Haussmann: Formes de l'espaces urbain à Paris 1801-1853*. Karen Bowie(ed.)(2001). Paris: Éditions Recherches.
- Lyon-Caen, Judith(2006). *La Lecture et la Vie: Les usages du roman au temps de Balzac*. Paris: Tallandier.
- Maltz, Diana(2006). *British Aestheticism and the Urban Working Classes, 1870-1900: Beauty for the Peopl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arceca, Maria Louisa(1981). "Reservoir, Circulation, Residue: J. C. A. Alphand, Technological Beauty and the Green City," *Lotus* 30: 56-78.
- Marchand Bernard(1993). *Paris, histoire d'une ville: XIXe-XXe siècle*. Paris: Seuil.
- Marcus, Sharon(1999). *Apartment Stories: City and Home in Nineteenth-century Paris and Lond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rshall, Barbara L. "Critical Theory, Feminist Theory, and Technological Studies," in *Modernity and Technology*, Thomas J. Misa, Philip Brey, and Andrew Feenberg (eds.)(2003), Cambridge, Mass.: MIT Press.
- Marshall, Nancy Rose(2012). *City of Gold and Mud: Painting Victorian London*. New Haven, Conn.; London: Published for the Paul Mellon Centre for Studies in British Art by Yale University Press.
- Marx, Karl. *Lohnarbeit und Kapital*, 남상일 (역)(1989), 『임노동과 자본』. 서울: 백산서당.
- \_\_\_\_\_. *Das Kapital*, 강신준 (역)(2008), 『자본 I-2』. 서울: 길.
- Maurois, André. *L'Histoire de la France*, 신용석 (역)(1997). 『프랑스사』. 서울: 기린원.
- McDowell, Linda(1983).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Gender Division of Urban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 59-72.
- Merlin, Pierre and Françoise Choay(eds.)(2009). *Dictionnaire de l'urbanisme et de l'aménagement*, 2<sup>nd</sup> ed. Paris: PUF.
- Meschonnic, Henri. *Modernité Modernité*, 김다운 (역)(1999). 『모테르니테 모테르니테』. 서울: 동문선.
- Milizia, Francesco. "Principles of Civil Architecture," in *The Emergence of Modern Architecture: A Documentary History from 1000 to 1810*, Liane Lefaivre and Alexander Tzonis (eds.)(2003). New York: Routledge.
- Mitchel, Don and Richard van Deusen, "Downsview Park: Open Space or Public Space?" in *CASE-Downsview Park Toronto*, Julia Czerniak (ed.)(2001). Munich; New York: Prestel.
- Morizet, André(1932). *Du vieux Paris au Paris moderne. Haussmann et ses prédécesseurs*. Paris: Hachette.
- Morris, A. E. J.(1979). *History of Urban Form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s*, 2<sup>nd</sup>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Morris, Francis Orpen(1880). *A Series of Picturesque Views of Seats of the Noblemen and Gentlemen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London: William Mackenzie [https://archive.org/details/seriesofpictures01morruoft, 2013-12-22].
- Mosser, Monique and Georges Teyssot(eds.)(1991). *The History of Garden Design: The Western Tradition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Day*. London: Thames and Hudson.
- Newton, Norman T.(1971). *Design on the Land: The Develop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Nicols, Beverley Nichols(1997). *Green Grows the City: the Story of a London Garden*. Woodbridge, Suffolk: the Antique Collectors' Club.
- Novarina, M. Gilles(2003). "Ville diffuse et système du vert," *Revue de géographie alpine*, 91(4): 9-17.
- O'Gorman, Francis(ed.)(2010). *The Cambridge Companion to Victorian Cul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lsen, Donald J.(1986). *The City as a Work of Art: London, Paris, Vienn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Palmer, Susan(2009). "The Changing Face of Scharf's London (1816-1860)," in *George Scharf: from the Regency Street to the Modern Metropolis*. London: Soane Gallery.
- Papayanis, Nicholas(2004). *Planning Paris before Haussmann*. Baltimore;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evsner, Nikolaus(1976). *A History of Building Typ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inkney, David H.(1958). *Napoleon III and the Rebuilding of Pari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inon, Pierre(2002). *Atlas du Paris haussmannien: La ville en héritage du Second Empire à nos jours*. Paris: Parigramme.
- Poisson, Geroges(2002). *Les Grands Travaux des présidents de la V<sup>e</sup> République*, Paris: Parigramme.
- Pollock, Griselda(1984). "Modernity and the Space of Femininity," in *Visions and Difference: Femininity, Feminism and the Histories of Art*. New York: Routledge.
- Poole, Kathy(1998). "Civitas Oecologie: Infrastructure in the Ecological City," *The Harvard Architecture Review*, 10: 126-145.
- Porter, Roy(1994). *London, A Social History*. London: Hamish Hamilton.
- Pregil, Philip and Nancy Volkman(1993). *Landscape in History: Design and Planning in the Western Tradition*.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Prendergast, Christopher(1992). *Paris and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Mass.: Blackwell.
- Queijo, Jon(2010). *Breakthrough!: How the 10 Greatest Discoveries in Medicine Saved Millions and Changed Our View of the World*. Upper Saddle River, N.J.: FT Press Science.

- Rabinow, Paul(1995). *French Modern: Norms and Forms of the Social Environ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ckham, Oliver(1990). *Trees and Woodland in the British Landscape: The Complete History of Britain's Trees, Woods & Hedgerows*, rev. ed. London: Phoenix Press.
- Rasmussen, Steen Eiler(1934). *London: The Unique City*. Cambridge, Masschusetts: the MIT Press.
- Richardson, Joanna(1975). "Emperor of Paris: Baron Haussmann, 1809-91," *History Today*, 25(12): 843-849.
- Robb, Graham. *Parisians, An Adventure History of Paris*, Isabelle D. Taudière (trans)(2012). *Une histoire de Paris par ceux qui l'ont fait*. Paris: Flammarion.
- Rogers, Elizabeth Barlow(2001). *Landscape Design: a History of Cities, Parks, and Gardens*. New York: Harry N. Abrams.
- Roncaylo, Marcel. "La modernité? Approche des conceptions de la ville et de Paris capitale... avant Baudelaire," in *La Modernité avant Haussmann: Formes de l'espaces urbain à Paris 1801-1853*. Karen Bowie(ed.)(2001). Paris: Éditions Recherches.
- Rosenfield, Lawrence W. "Central Park and the Celebration of Civic Virtue," in *American Rhetoric: Context and Criticism*, T. Benson (ed.)(1989).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Press.
- Rostaing, Aurélia. "Les promenade et les jardins publics," in *L'Urbanisme parisien au siècle des Lumières*, Michel Le Moël, (ed.)(1997), Paris: Délégation générale à l'Action artistique de la Ville de Paris.
- Sainte-Marie-Gautier, Vincent. "Pratique et théorie du système," *Les parcs et jardins dans l'urbanisme parisien XIXe-XXe siècles*, Simon Textier (ed.)(2001), Paris: Délégation générale à l'Action artistique de la Ville de Paris.
- Schapiro, Meyer(1937). "Nature of Abstract Art," *Marxist Quarterly*, 1(1): 77-98.
- Schelle, Karl-Gottlob(1996). *L'Art de se promener*. Paris: Payot & Rivages.
- Schenker, Heath(2002). "Why Urban Parks: A Matter of Equity?" *The George Wright Forum*, 19(2): 39-45.
- \_\_\_\_\_(2009). *Melodramatic Landscapes: Urban Parks in the Nineteenth Century*.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 Schivelbusch, Wolfgang. *Geschichte der Eisenbahnreise: zur Industrialisierung von Raum und Zeit im 19. Jahrhundert*, 박진희 (역)(1999), 『철도여행의 역사: 철도는 시간

- 과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서울: 궁리.
- Schorske, Carl E. *Fin-de-siècle*, 김병화 (역)(2006). 『세기말 비엔나』. 서울: 생각의 나무.
- Schumpeter, Joseph Alois.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Redvers Opie (trans.)(1934),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ultz, Stanley K. and Clay McShane(1978). "To Engineer the Metropolis: Sewers, Sanitation, and City Planning in Late-Nineteenth-Century America," *The Journal of American Society*, 65(2): 389-411.
- Schuyler, David(1986). *The New Urban Landsca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chwartz, Vanessa R.(2001). "Walter Benjamin for Historian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6(5): 1721-1743.
- \_\_\_\_\_. *Spectacular Realities: Early Mass Culture in Fin-de-Siècle Paris*, 노명우, 박성일 (공역)(2006). 『구경꾼의 탄생』. 고양: 도서출판 마티.
- Sedlmayr, Hans. *Verlust der Mitt*, 박래경 (역)(2001). 『중심의 상실: 19-20세기 시대 상징과 징후로서의 조형 예술』. 서울: 문예출판사.
- Sennett, Richard(1992). *The Fall of Public Man*. New York; London: W. W. Norton.
- Sheppard, Francis(1998). *London: A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imon, Jules. "Souvenirs de jeunesse," in *Faisons la chène*. P. Audebrand (ed.), Paris, 1890.
- Solnit, Rebecca. *Wanderlust: A History of Walking*, 김정아 (역)(2003). 『걸기의 역사』. 서울: 민음사.
- Soppelsa, Peter(2009). "Finding Fragility in Paris: The Politics of Infrastructure after Haussmann," *Proceedings of the Western Society for French History*, 37: 233-247.
- Steenbergen, Clemens. "Teatro rustico: The Formal Strategy and Grammar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Modern Park Design: Recent Trends*. Martin Knuijt, Hans Ophuis and Peter Saane (eds.)(1995), Amsterdam: THOTH.
- Steenbergen, Clemens and Wouter Reh(2011). *Metropolitan Landscape Architecture: Urban Parks and Landscapes*. Bussum: THOTH.
- Summerson, John(1978). *Georgian London*. Cambridge, Mass.: MIT Press.
- Tafuri, Manfredo. *Progetto e Utopia*, Barbara Luigia La Penta (trans.)(1976), *Architecture and Utopia: Design and Capitalist Development*. Cambridge: MIT



- Press.
- Taigel, Anthea and Tom Williamson(1993). *Parks and Gardens*. London: B. T. Batsford Ltd.
- Tate, Allen(2004). *Great City Parks*. London and New York: Spon Press.
- Taylor, Hilary A.(1995). "Urban Public Parks, 1840-1900: Design and Meaning," *Garden History*, 23(2): 201-221.
- Tester, Keith (ed.)(1993). *The Flâneur*. London: Routledge.
- Textier, Simon(ed.)(2001). *Les parcs et jardins dans l'urbanisme parisien: XIXe-XXe siècles*. Paris: Action Artistique de la Ville de Paris.
- Thomas, Greg M(2006). "Women in Public: the Display of Femininity in the Parks of Paris," in *The Invisible Flâneuse?: Gender, Public Space and Visual Culture in Nineteenth-Century Pari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Thompson, Victoria E.(2000). *The Virtuous Marketplace: Women and Men, Money and Politics in Paris, 1830-1870*.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Thornton, Clifford E.(1975). *The People's Garden: A History of Birkenhead Park*. Wirral: Williamson Art Gallery & Museum.
- Tocqueville, Alexis de(1896). *The Recollections of Alexis de Tocqueville*. New York: Macmillan. [https://archive.org/details/recollectionsal00mattgoog, 2013-12-03]
- Truesdell, Matthew(1997). *Spectacular Politics: Louis-Napoleon Bonaparte and the Fête Impériale, 1849-1870*.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Tuffelli, Nicole. *L'Art au XIXe siècle*, 김동윤, 손주경 (공역)(2006), 『19세기 미술』. 서울: 생각의 나무.
- Tunnard, Christopher(1948). *Gardens: in the Modern Landscape*. London: Architectural Press.
- Turner, Jane Shoaf(ed.)(1996). *The Dictionary of Art*. New York: Grove's Dictionaries.
- Urry, John(1981). "Localities, Regions and Social Cla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5(4): 455 - 473.
- Veblen, Thorstein(1994).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Vernes, Michel(1986). "Genèse et avatars du jardin public," *Monuments Historiques*, 142: 4-10.
- Vesely, Dalibor(2004). *Architecture in the Age of Divided Representation: the Question of Creativity in the Shadow of Produc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 Walker, Peter and Melanie Simo(1994). *Invisible Gardens: The Search for Modernism in*

- the American Landscape*. Cambridge, Mass: MIT Press.
- Walter, Rodolphe(1978). “Le parc de Monsieur Zola,” *L’œil*, 272: 18-25.
- Weber, Max.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김덕영 (역)(2010).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길.
- Williams, Raymond(1980). *Problems in Materialism and Culture*. London: Williams.
- \_\_\_\_\_(1985).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rev.,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The Long Revolution*, 정은애 (역)(2007), 『기나긴 혁명』, 파주: 문학동네.
- \_\_\_\_\_. *The Country and the City*, 이현석 (역)(2013), 『시골과 도시』, 파주: 나남.
- Williamson, Tom(1995). *Polite Landscapes: Gardens & Society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Baltimore: Sutton.
- Wilson, A. N.(2006). *London: A History*. New York: Modern Library.
- Wolff, Janet(1985). “The Invisible *Flâneuse*: Women and the Literature of Modernity,” *Theory, Culture & Society*, 2(3): 37-46.
- \_\_\_\_\_(1990). *Feminine Sentences: Essays on Women & Culture*. Cambridge, Mass.: Polity Press.
- Wyborn, Theresa(1995). “Parks for the People: The Development of Public Parks in Victorian Manchester,” *Manchester Region Study Review*, 9:3-14.
- Yon, Jean-Claude(2012). *Le Second Empire: politique, société, culture*, 2<sup>nd</sup> edition, Paris: Armand Colin.
- Zanten, David Van. “Paris Space: What Might Have Constituted Hassmanization,” in *Manifestoes and Transformation in the Early Modernist City*. Christian Hermansen Cordua(ed.)(2009). Burlington, Vermont: Ashgate Pub. Company.
- Corajoud, Michel, “A propos de 4 projets...,” Conférence organisée au Pavillon d’Arsenal, le 11 juin 2007 <http://www.pavillon-arsenal.com/videosenligne/collection-6-109.php> (검색일: 2013년 4월 13일).

[www.etymonline.com](http://www.etymonline.com)

[www.royalparks.org.uk](http://www.royalparks.org.uk)

<http://www.legislation.gov.uk/ukpga/Vict/14-15/42>

## 도판 목록

- <도판 1-1> 브라운 & 호헨베르크(Braun & Hogenberg), <세계의 도시(Civitates Orbis Terrarum)> 중 <급속도로 성장하는 영국 왕실의 도시, 런던(Londinum Feracissimi Angliae Regni Metropolis)>, 1572-1624, 동판화, 33×48.5cm, <http://www.sanderusmaps.com/detail.cfm?c=2287> ..... 2
- <도판 1-2> 웰러(Edward Weller), <1868년의 런던 지도(Map Of London 1868)>, 동판화, 197×142cm, <http://mapco.net/> ..... 2
- <도판 2-1> 기스(Constantin Guys), <아브뉴 샹젤리제의 랑도 마차와 산책자들(Landaus et les promeneurs sur l'Avenue des Champs-Élysées)>, 1850, 펜과 잉크, 갈색 담채, 세피아, 수채, 24×42cm, 파리 프티 팔레 미술관(Musée du Petit Palais) ..... 37
- <도판 2-2> <파리 만국박람회 도면>, 1867, Alphand, *Promenade de Paris (planches)*, p. 124 ..... 42
- <도판 2-3>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La Liberté guidant les peuple)>, 1830, 캔버스에 유채, 파리 루브르 박물관 ..... 46
- <도판 2-4> 도미에(Honoré Daumier), <가르강튀아(Gargantua)>, 1831년 12월 16일 <라 카리 카튀르(La Caricature)>지 게재, 석판화, 21.4×30.5cm, <http://expositions.bnf.fr/daumier/grand/012.htm> ..... 48
- <도판 2-5> 도미에, <트랑스노냉 가, 1834년 4월 15일(Rue Transnonain, le 15 avril 1834)>, 1834년 7월 <라소시아시옹 망쉬엘(L'Association mensuelle)>지에 게재, 석판화, 29×44.5cm, [http://expositions.bnf.fr/daumier/grand/028\\_1.htm](http://expositions.bnf.fr/daumier/grand/028_1.htm) ..... 48
- <도판 2-6> 크뤼크생크(George Cruikshank), <맨체스터의 영웅들(The Manchester Heroes)>, 1819, 에칭에 채색, 25×35cm, [http://www.britishmuseum.org/research/collection\\_online/collection\\_object\\_details/collection\\_image\\_gallery.aspx?assetId=177507&objectId=1648221&partId=1](http://www.britishmuseum.org/research/collection_online/collection_object_details/collection_image_gallery.aspx?assetId=177507&objectId=1648221&partId=1) ..... 51
- <도판 2-7> 작자 미상, <면직 공장의 하루(A day at a cotton-factory)>, 1843년 6월 <페니 매거진(Penny Magazine of the Society for the Diffusion of Useful Knowledge)>, vol. 12, 동판화, 11×14cm, Edwards & Wood, *Art & Visual Culture 1850-2010*, p. 69 ..... 56
- <도판 2-8> 헨셜(John Henry Henshall), <펍(The Pubic Bar)>, 1883, 캔버스에 유채, 62×111cm, 개인소장, Edwards & Wood, *Art & Visual Culture 1850-2010*, p. 59 ..... 59
- <도판 2-9> 폴라드(Robert Pollard), <하이버리와 캐넌버리 광장의 북쪽 풍경(North View of Highbury and Canonbury Places)>, 1787, 채색 에퀴틴트, 44.5×57cm, 영국 국립 미술품 소장품(Government Art Collection), <http://www.gac.culture.gov.uk/work.aspx?obj=17456> ..... 61
- <도판 2-10> 레드그레이브(Richard Redgrave), <마지막으로 고향을 보는 이민자들(The Emigrant's Last Sight of Home)>, 1858년, 캔버스에 유채, 67.9×98.4cm,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 .....	64
<도판 2-11> 게인즈버리(Thomas Gainsborough), <앤드류스 부부(Mr and Mrs Andrews)>, 1750년경, 캔버스에 유채, 69.8×119.4cm, 런던 내셔널 갤러리(London National Gallery) .....	64
<도판 2-12> 귀스타브 도레(Gustave Doré), <런던: 순례여행(London: A Pilgrimage)> 중 <기차를 타고 보는 런던(Over London by Rail)>, 1872, 동판화, <a href="http://www.cf.ac.uk/encap/skilton/illustr/Dore121.html">http://www.cf.ac.uk/encap/skilton/illustr/Dore121.html</a> .....	65
<도판 2-13> 마르빌(Charles Marville), <트루아 카네트 거리(Rue des trois Cannettes)>, 1865-1869, <a href="http://expositions.bnf.fr/atget/grand/e039.htm">http://expositions.bnf.fr/atget/grand/e039.htm</a> .....	69
<도판 2-14> 작자 미상, <오페라 아브뉴의 연장을 위한 뷔트-데-몰랭 주민 이주 (Déménagement des habitants de la Butte-des-Moulins)>, <a href="http://expositions.bnf.fr/zola/grand/009.htm">http://expositions.bnf.fr/zola/grand/009.htm</a> .....	70
<도판 2-15> 도미에, <지하에 세든 사람들만 누리는 멋진 풍경(Agréable vue dont jouissent exclusivement les locataires des sous-sols)>, 1856년 11월 29일 <르 샤리바리(Le Charivari)>지에 게재, 석판화, 19.5×25.9cm, 파리 카르나발레 미술관(Musée Carnavalet) .....	72
<도판 2-16> 도미에, <치명적인 콜레라의 기억>, 1840, <의학적 네메시스의 삽화(La Némésis médicale illustrée, recueil de satires . . . contenant 30 vignettes dessinées par Daumier, et gravées par les meilleurs artistes, avec un grand nombre de cul-de-lampes, etc.)>의 삽화, Honoré Daumier, <i>Daumier 1808-1879</i> , fig. 62 .....	73
<도판 2-17> 아돌프 이봉(Adolphe Yvon), <1859년 2월 16일 오스만 남작에게 주변 코뮌 병합 칙령을 내리는 나폴레옹 3세(Napoléon III remettant au baron Haussmann le décret d'annexion des communes limitrophes le 16 février 1859)>, 1865, 캔버스에 유채, 327×230cm, 파리 카르나발레 미술관 .....	75
<도판 2-18> 오스만화의 3단계, Pinon, <i>Atlas du Paris haussmannien</i> , p. 63 .....	76
<도판 2-19> 티보(Thibault), <1848년 6월 25일 일요일, 라모시에르 장군 부대의 공격전의 생-모-포팽쿠르 가의 바리케이드(La barricade de la rue Saint-Maur-Popincourt avant l'attaque par les troupes du général Lamoricière, le dimanche 25 juin 1848)>, 1848, 다케레오타입, 12.2×14.5cm, 파리 오르세 미술관(Musée d'Orsay) .....	77
<도판 2-20> 메소니에(Jean-Louis-Ernest Meissonier), <1848년 6월 모르텔리리 가의 바리케이드(La barricade de rue de la Mortellerie, juin 1848)>, 1850, 캔버스에 유채, 29×22cm, 파리 루브르 박물관(Musée du Louvre) .....	77
<도판 3-1> 랭부르 형제(Les Frères de Limbourg), <베리 공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Les Très Riches Heures du Duc de Berry)> 중 <12월>의 부분, 1440년경, 양피지에 템페라, 22.5×13.6cm, 콩테 박물관(Musée Condé) .....	82
<도판 3-2> 작자미상, <남서쪽에서 본 챗윅스 풍경(A view of Chatsworth from the south west)>, 1880년경, Morris, <i>A Series of Picturesque View of Seats</i> , p. 128 .....	83

<도판 3-3> 런던 자치구(London Borough) 내의 왕실 공원(Royal Parks), <a href="http://www.royalparks.org.uk/parks">http://www.royalparks.org.uk/parks</a> , 필자 재작성	85
<도판 3-4> 제 2제정기 조성된 파리 시내의 녹지, Pinon, <i>Atlas du Paris haussmannien</i> , p. 126	90
<도판 3-5> 1847년 3월 5일의 버큰헤드 시립 공원 개장식, Thornton, <i>The People's Park: A History of Birkenhead Park</i> , p. 59	95
<도판 3-6> 버큰헤드 공원 개장식 날의 호숫가 풍경, Shenker, <i>Melodramatic Landscapes</i> , p. 54	96
<도판 3-7> 버큰헤드 시립 공원, 황주영(2013)	96
<도판 3-8> 버큰헤드 시립 공원, 황주영(2013)	98
<도판 3-9> 니콜스(Sutton Nicholls), <코벤트 가든( Covent Garden)>, 1720년경, 동판화, 자료: <a href="http://en.wikipedia.org/wiki/File:Covent_garden_c1720.jpg">http://en.wikipedia.org/wiki/File:Covent_garden_c1720.jpg</a>	102
<도판 3-10> 랑글루아(Nicolas I Langlois), <파리의 왕실 광장(보주 광장)(La Place Royale de Paris(Place des Vosges)>, 17세기, 에칭. 런던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 Todd Longstaffe-Gowan, <i>The London Square: Gardens in the Midst of Town</i> , p. 27	102
<그림 3-11> 라우던이 제시한 스퀘어의 모습, Loudon, <i>An Encyclopaedia of Gardening</i> , fig. 733	103
<도판 3-12> 퀸 스퀘어(Queen Square), Rudolph Ackermann, <i>The Repository of Arts, Literature, Commerce, Manufactures, Fashions and Politics</i> , p. 156	105
<도판 3-13> 이노상 스퀘어(Square des Innocents), Alphand, <i>Promenade de Paris (planches)</i> , p. 110	108
<도판 3-14> 생 자크 스퀘어(Square St. Jacques), Alphand, <i>Promenade de Paris (planches)</i> , p. 106	108
<도판 3-15> 오프보어(F. Hoffbauer), <이노상 스퀘어>, 1878, 채색 석판화, 24×30cm, <a href="http://library.brown.edu/find/Record/dc1145899987818911">http://library.brown.edu/find/Record/dc1145899987818911</a>	108
<도판 3-16> 생 자크 스퀘어, 황주영(2013)	109
<도판 3-17> <스퀘어 몽루즈의 놀이 공간>, Robinson, <i>The Parks and Gardens of Paris</i> , p. 113	110
<도판 3-18> 부알리(Louis-Léopold Boilly), <통행료(Passer Payez)>, 1803, <a href="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Passer-payez-Boilly-ca1803.jpg">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Passer-payez-Boilly-ca1803.jpg</a>	112
<도판 3-19> 펠멜 경기장과 가로수길, Girouard, 『도시와 인간』, p. 277	113
<도판 3-20> 리치(Marco Ricci), <세인트 제임스 공원의 물의 풍경(View of the Mall in Saint James's Park)> 1710년경, 캔버스에 유채, 114.1×195.3cm, 워싱턴 D.C. 내셔널 갤러리	114
<도판 3-21> 아블린(Pierre Alexandre Aveline), <쿠르 라 렌(La Cours-la-Reine)>, 18세기 초. 석판화, 파리 카르나발레 박물관	116
<도판 3-22> 로크(John Rocque), <파리 지도(Plan of Paris)>의 일부, 1754, Lawrence, <i>City Trees</i> , p. 35	116
<도판 3-23> 작자미상, <틸르리를 마주한 샹젤리제의 대로(Camporum Elysiorum majus dea	

	mbulatorium adversus Palatium des Thuilleries Parisiis)>, 1750, 채색판화, 30×43cm, <a href="http://gallica.bnf.fr/ark:/12148/btv1b6949027d">http://gallica.bnf.fr/ark:/12148/btv1b6949027d</a> .....	118
<도판 3-24>	작자미상, <정원 쪽에서 본 팔레 루아얄 투시도(Vue Perspective du Palais Royal du côté du Jardin)>, 1760, 채색판화, 27×46cm, <a href="http://gallica.bnf.fr/ark:/12148/btv1b6949043h">http://gallica.bnf.fr/ark:/12148/btv1b6949043h</a> .....	120
<도판 3-25>	도미에, <팔레 루아얄의 카미유 데몰랭(Camille Desmoulins au Palais-Royal), 1850년경. 종이에 검은 초크, 펜과 잉크, 담채, 수채, 과슈, 55.7×44.8cm, 모스크바 프쉬킨 미술관(Pushkin Museum of Fine Arts) .....	122
<도판 3-26>	공공 도로의 단면, Alphand, <i>Promenade de Paris (planches)</i> , p. 136 .....	124
<도판 3-27>	앵페라트리스 아브뉴, Alphand, <i>Promenade de Paris (planches)</i> , p. 130 ..	126
<도판 3-28>	아브뉴 포취(Avenue Foch)(구 아브뉴 앵페라트리스(Avenue de l'Impératrice), 황주영(2013) .....	127
<도판 3-29>	블로뉴 숲으로 가는 아브뉴(아브뉴 앵페라트리스),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엽서(황주영 소장) .....	127
<도판 3-30>	펠코크(Jules Pelcoq), <파리 불르바르의 어느 여름 저녁(Un soir d'été sur les boulevards de Paris)>, 1869, 목판화, 23.5×34.3cm, 자료: 프랑스 국립도서관. <a href="http://gallica.bnf.fr/ark:/12148/btv1b53026630d">http://gallica.bnf.fr/ark:/12148/btv1b53026630d</a> .....	129
<도판 3-31>	<옴제르바투아르 구역에서 공놀이를 하는 사람들(joueurs de boules dans le quartier de l'Observatoire)>, 『파리의 옛날과 오늘날의 길의 삽화(Illustrations de Les rues de Paris ancien et moderne. 358-1848, origine et histoire. Monuments, costumes, moeurs, chroniques et traditions, 1843)』, p. 86, 동판화, 21×12.5cm, <a href="http://gallica.bnf.fr/ark:/12148/btv1b20000797">http://gallica.bnf.fr/ark:/12148/btv1b20000797</a> .....	129
<도판 3-32>	도미에, <북을 치는 광대(Saltimbanque jouant du tambour)>, 1865-7, 종이에 검정 분필, 펜과 잉크, 담채, 수채, 과슈, 콩테, 33.5×25.5cm, 런던 영국박물관 .....	129
<도판 3-33>	제르벡스(Henri Gervex), <프레 카틀랑에서의 저녁 모임(Une soirée au Pré-Catelan)>, 1909, 캔버스에 유채, 217×318cm, 파리 카르나발레 미술관 .....	130
<도판 3-34>	노우드 공동묘지, Loudon, <i>On the Laying Out, Platning, and Menaging of Cemtries</i> , fig. 42 .....	134
<도판 3-35>	노우드 공동묘지 개선안, Loudon, <i>On the Laying Out, Platning, and Menaging of Cemtries</i> , fig. 43 .....	134
<도판 3-36>	하수도 공사를 위해 이장되는 메로빙거 시대의 묘지, 1868년경, Pinon, <i>Atlas du Paris haussmannien</i> , p. 80 .....	136
<도판 3-37>	루소(J. J. Roussau), <파리 페르 라세즈 공동묘지 도면(Plan du Père Lachaise)>, 1839, 560×394cm, <a href="http://www.appl-lachaise.net/appl/article.php3?id_article=2310">http://www.appl-lachaise.net/appl/article.php3?id_article=2310</a> .....	137
<도판 3-38>	페르 라세즈 공동묘지에 있는 오스만 가족묘, 황주영(2013) .....	137
<도판 3-39>	페르 라세즈 공동묘지, 황주영(2013) .....	137
<도판 3-40>	푸생(Nicolas Poussin), <아르카디아의 목동들(Les Bergers d'Arcadie)>, 1637-8, 캔버스에 유채, 87×120cm, 루브르 박물관 .....	138



<도판 3-41> 데뷔쿠르(Philibert-Louis Debucourt), <팔레 루아얄의 갤러리에서의 산책(Promenade de la Galerie du Palais Royal)>, 1787, 에칭에 채색, 29.2×55.9cm, 파리 장식미술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 .....	140
<도판 3-42> 카르몽텔(Carmontelle), <몽소 공원의 열쇠를 샤르트르 백작에게 선사하는 카르몽텔(Carmontelle présente les clefs du parc Moceau au duc de Chartres)>, 1790년경, 카르나발레 미술관 .....	141
<도판 3-43> 카르몽텔, <몽소 공원의 고리 놀이(Jeu de Bague du Parc Monceau)>, 1779, 카르나발레 미술관, Langlois, p. 105 .....	141
<도판 3-44> 레빈(Phoebus Levin), <크레몬 정원의 무도회장(The Dancing Platform at Cremorne Gardens)>, 1864, 캔버스에 유채, 66.2×107.5cm, 런던 박물관 .....	143
<도판 3-45> 로우랜슨(Thomas Rowlandson), <박스홀 정원(Vauxhall Garden)>, 1810, 자료: <a href="http://commons.wikimedia.org">http://commons.wikimedia.org</a> .....	144
<도판 3-46> 뮐러(J. S. Muller), <박스홀 정원의 조감도(A General Prospect of Vaux Hall Gardens)>, 1751, Coke, <i>Vauxhall Gardens: A History</i> , p. 68 .....	145
<도판 3-47> 카날레토(Canaletto), <런던: 레슬러의 로툰다 실내(London: Interior of the Rotunda at Ranelagh)>, 1754, 캔버스에 유채, 47×75.6cm. 런던 내셔널 갤러리 .....	146
<도판 3-48> 시브통(Christophe Civeton), <보종 정원의 툴리코스터(Montagnes russes, Jardin Beaujon)>, 1829, 펜과 갈색 잉크 담채, 6.5×9.3cm, 프랑스 국립도서관, 자료: <a href="http://gallica.bnf.fr/ark:/12148/btv1b10302479m">http://gallica.bnf.fr/ark:/12148/btv1b10302479m</a> .....	147
<도판 3-49> 호가스(William Hogarth), <서터크 페어(Southwark Fair)>, 1734, 동판화, 영국박물관 .....	148
<도판 3-50> 하딩(James Duffield Harding), <시든햄의 수정궁과 공원 조감도(Bird's-Eye View of the Crystal Palace and Grounds, Sydenham)>, 1854, 수채, 194×89cm, 왕립 건축학교(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Marshall, <i>City of Mud and Gold</i> , p. 234 .....	150
<도판 3-51> 시든햄 파크 일대의 도면, Alphand, <i>Promenade de Paris (textes)</i> , p. XLIX .....	151
<도판 4-1> 파리 북역(Gare du Nord)의 외관, 황주영(2013) .....	155
<도판 4-2> 파리 북역의 내부, 황주영(2013) .....	155
<도판 4-3> 파리 시청(파리코뮌 때 소실 된 것을 복원), 황주영(2013) .....	156
<도판 4-4> 파리 20구 구청(제 2제정기 새로 파리에 병합된 지역), 황주영(2013) .....	156
<도판 4-5> 아브뉴 오페라, 자료: 황주영(2013) .....	157
<도판 4-6> 들라그리브(Jean Delagrive), <베르사유 정원의 도면(Plan de Versailles, du petit parc, et de ses dependances où sont marqués les emplacements de chaque maison de cette ville, les plans du Château, et des hôtels, et les distributions des jardins et bosquets)>, 1746, 자료: <a href="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Plan_de_Versailles_-_Gesamtplan_von_Delagrife_1746.jpg">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Plan_de_Versailles_-_Gesamtplan_von_Delagrife_1746.jpg</a> .....	158
<도판 4-7> 파리 개선문 일대의 항공사진, Google earth(2013) .....	158
<도판 4-8> 내쉬(John Nash), 런던 <파크 크레센트(Park Crescent)>, 1819-21, 황주영(2013)	

.....	160
<도판 4-9> 호가스, <근면과 태만(Industry and Idleness)> 연작 중 1번째 <베틀을 짜는 동료 도제들(The Fellow Prentices at their Looms)>, 1747, 동판화, 자료: <a href="http://en.wikipedia.org/wiki/Industry_and_Idleness">http://en.wi kipedia.org/wiki/Industry_and_Idleness</a> .....	165
<도판 4-10> 호가스, <근면과 태만(Industry and Idleness)> 연작 중 12번째 <런던 시장이 된 도제(The Industrious Prentice Lord-Mayor of London)>, 1747, 동판화, 자료: <a href="http://en.wikipedia.org/wiki/Industry_and_Idleness">http://en.wikipedia.org/wiki/Industry_and_Idleness</a> .....	165
<도판 4-11> 하비(William Harvey), <런던 그린 파크 풍경(View of Green Park in London)>, 1830, Lawrence, <i>City Trees</i> , p. 219 .....	167
<도판 4-12> 크뤼크샹크, <술병> 연작 중 6번째 <무시무시한 싸움과 거친 폭력은 잦은 음주 의 당연한 결과>, 1847-8, George Cruikshank, <i>The Bottle and the Drunkard's Children</i> .....	167
<도판 4-13> 파리 시가 관할하는 정원과 공원, 숲의 입구에 설치된 <블로뉴 숲과 뱅센느 숲을 포함한 파리 시 소유의 정원과 숲의 일반적인 규칙(Règlementation générale des promenades appartenant à la Ville de Paris y compris les bois de Boulogne et Vincennes)> 안내판, 황주영(2013, 파리 뱅센느 숲) .....	169
<도판 4-14> 리치(John Ritchie), <하이드파크의 어느 여름날(A Summer Day in Hyde Par k)>, 1858, 캔버스에 유채, 955×1465cm, 런던미술관 .....	174
<도판 4-15> 마네(Édouard Manet), <틀르리 정원의 음악회(La Musique aux Tuileries)>, 1862, 캔버스에 유채, 76×118cm, 런던 내셔널 갤러리 .....	174
<도판 4-16> 갈드로(Jules Galdrau), <전기 조명을 밝힌 리볼리 가의 야간 공사 (Travaux nocturnes des constructions de la rue de Rivoli, éclairés par la lumière électrique)>, 1854, 동판화, 15.0 x 22.5 cm, <a href="http://library.brown.edu/find/Record/dc1223580988859375">http://library.brown.edu/find/Record/d c1223580988859375</a> .....	180
<도판 4-17> 모네(Claude Monet), <시골의 기차(Train dans la campagne)>, 1870, 캔버스에 유채, 50×65cm, 파리 오르세 미술관 .....	181
<도판 4-18> 뷔트 쇼몽 공원, Alphand, <i>Promenade de Paris (texte)</i> , fig. 307.....	182
<도판 4-19> 1867년 만국박람회(Exposition universelle de 1867), <a href="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Exposition_universelle_de_1867_vue_gen%C3%A9rale_prise_des_Hauteurs_du_Trocadero.jpg">http://commons.wikimedia.or g/wiki/File:Exposition_universelle_de_1867_vue_gen%C3%A9rale_prise_des_Haut eurs_du_Trocadero.jpg</a> .....	185
<자료 4-20> 마네, <1867년 만국박람회 풍경( Vue de l'Exposition Universelle de Paris 186 7)>, 1867, 캔버스에 유채, 108×196cm, 오슬로 국립미술관 .....	185
<도판 4-21> 뷔트 쇼몽 공원의 조감도, Alphand, <i>Promenade de Paris (planches)</i> , fig. 306 .....	192
<도판 4-22> 뷔트 쇼몽 공원의 도면, Steenberg and Reh, <i>Metropolitan Landscape Architecture</i> , p. 95 .....	192
<도판 4-23> 뷔트 쇼몽 공원, 황주영(2013) .....	193
<도판 4-24> 뷔트 쇼몽 공원, 황주영(2013) .....	193
<도판 4-25> 터너(J. M. W. Turner), <비, 증기, 속도 -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Rain, Steam and Speed - The Great Western Railway)>, 1844, 캔버스에 유채, 91×121.8cm,	

런던 내셔널 갤러리 .....	195
<도판 4-26> 도미에,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명상하는 파리 사람(Parisiens en contemplation devant la belle nature), 1858, 석판화, 23.8×35.6cm, 보스턴 미술관 .....	197
<그림 4-27> 제 2제정기 이전의 불로뉴 숲, Alphand, <i>Promenade de Paris (planches)</i> , p. 8 .....	201
<도판 4-28> 정비 이후의 불로뉴 숲, Alphand, <i>Promenade de Paris (planches)</i> , p. 9 .....	201
<도판 4-28> 제 2제정기 이전의 뱅센느 숲, Alphand, <i>Promenade de Paris (planches)</i> , p. 63 .....	202
<도판 4-30> 정비 이후의 뱅센느 숲, Alphand, <i>Promenade de Paris (planches)</i> , p. 64 .....	202
<도판 4-31> 불로뉴 숲의 대 캐스케이드 단면, Alphand, <i>Promenade de Paris (texte)</i> , fig. 28 .....	204
<도판 4-32> 불로뉴 숲의 대 캐스케이드 상단 난간, 황주영(2013) .....	204
<도판 4-33> 바티볼 스퀘어의 여울에서 웅덩이로 이행 부분, Alphand, <i>Promenade de Paris (planches)</i> , p. 116 .....	206
<도판 4-34> 바티볼 스퀘어, 황주영(2013) .....	206
<그림 4-35> 나무를 모방한 뷔트 쇼몽 공원의 콘크리트 난간, 황주영(2013) .....	207
<도판 4-36> 나뭇가지를 모방한 바티볼 스퀘어의 철제 펜스, 황주영(2013) .....	207
<도판 4-37> 베로(Jean Béraud), <볼르바르 카푸생(Boulevard des capucines), 캔버스에 유채, 50.8×73cm, 개인 소장, <a href="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Jean_B%C3%A9raud_Boulevard_des_capucines.jpg">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Jean_B%C3%A9raud_Boulevard_des_capucines.jpg</a> .....	208
<도판 4-38> 공공도로의 세부, Alphand, <i>Promenade de Paris (planches)</i> , p. 138 .....	211
<도판 4-39> 나무의 이식, Alphand, <i>Promenade de Paris (texte)</i> , fig. 50 .....	212
<도판 4-40> 나무의 운반, Lemoine and Mimram, <i>Paris d'ingénieurs</i> , p. 48 .....	212
<도판 4-41> <오스만-파샤(Haussmann-Pacha, président du conseil d'administration du Crédit mobilier)> 풍자화, <코믹-피낭스(Comic-Finance)>, 1873년 6월 20일, <a href="http://expositions.bnf.fr/zola/grand/024.htm">http://expositions.bnf.fr/zola/grand/024.htm</a> .....	221
<도판 4-42> 부스(John Booth), <뉴 스트리트 계획(A Plan of the Intended New Street between Pall Mall, opposite Carlton House, and Portland Place)>, 1818, 하원에 제출된 도면에서 발췌, Barker & Jackson, <i>The History of London in Maps</i> , p. 90 .....	225
<도판 4-43> 1826년의 리젠트 파크, Barker & Jackson, <i>The History of London in Maps</i> , p. 91 .....	226
<도판 4-44> 작가미상, <리젠트 파크 일대의 파노라마 풍경(Panoramic View around Regent's Park)>의 부분, 1828년경, 에칭, 아쿠아틴트, 런던 영국박물관, Longstaffe-Gowan, <i>London Square</i> , p. 117 .....	226
<도판 4-45> 작가미상, <리젠트 파크를 내려다보는 하노버 테라스의 발코니 풍경(View of a balcony in Hanover Terrace overlooking Regent's Park)>, 1830년경, Lawrence, <i>City Trees</i> , p. 182 .....	228

<도판 4-46> 크뤼크생크(George Cruikshank), <도시를 벗어나는 런던 혹은 벽돌과 모르타르의 행진(London Going Out of Town or the March of Bricks and Mortar)>, 1829, 런던 박물관 .....	229
<도판 4-47> 버큰헤드 공원의 도면, 1846년경, Alphand, <i>Promenade de Paris (texte)</i> , fig. 100 .....	231
<도판 4-48> 몽소 공원의 입구, 황주영(2013) .....	234
<도판 4-49> 몽소 공원 주변의 호화 저택(호텔)의 예, 황주영(2013) .....	234
<도판 4-50> 봉 마르세 백화점의 대 계단(Le grand escalier des magasins du Bon Marché), 1872년, <a href="http://expositions.bnf.fr/zola/grand/096.htm">http://expositions.bnf.fr/zola/grand/096.htm</a> .....	235
<도판 4-51> 루브르 백화점의 확장(Nouveaux agrandissement des grands magasins du Louvre), 1877, <a href="http://expositions.bnf.fr/zola/grand/108.htm">http://expositions.bnf.fr/zola/grand/108.htm</a> .....	235
<도판 4-52> 마르슬랭(Marcelin), <튀일리 산책(Une Promenade aux Tuileries)>, 1854, <a href="http://library.brown.edu">http://library.brown.edu</a> .....	243
<도판 4-53> 랜시어(Sir Edwin Landseer), <현대의 윈저 궁(Windsor Castle in Modern Times)>, 1840-4. 캔버스에 유채, 113.3x144.5cm, 영국 왕실 소장품(The Royal Collection) .....	249
<도판 4-54> 기스, <샹젤리제 산책(Promenade aux Champs-Élysées)>, 양피지 위에 잉크와 먹, 17.8x23.5cm, <a href="http://expositions.bnf.fr/zola/grand/z016.htm">http://expositions.bnf.fr/zola/grand/z016.htm</a> .....	250
<도판 4-55>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물랑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Bal du moulin de la Galette)>, 1876, 캔버스에 유채, 31x175cm, 파리 오르세 미술관 .....	251
<도판 4-56> 도미에, <이제 우리도 파리 사람이라고!(Dire que nous v'la parisiens !)>, 1860년 1월 23일 <르 샤리바리(Le Charivari)>, 석판화, 카르나발레 미술관, 자료: <a href="http://www.parismetropolitaine.fr/naissancedes20arrondissementparisiens/diapo3-2.html">http://www.parismetropolitaine.fr/naissancedes20arrondissementparisiens/diapo3-2.html</a> .....	256
<도판 4-57> 베르니에(Charles Vernier), <보모 파리 시와 그녀의 새로운 아이들(La bonne ville de Paris et ses nouveaux enfants)>, 1860년 1월 31일, <악튀알리테(Actualités)>, 석판화, Musée Carnavalet-Histoire de Paris <a href="http://www.parismetropolitaine.fr/naissancedes20arrondissementparisiens/diapo3-2.html">http://www.parismetropolitaine.fr/naissancedes20arrondissementparisiens/diapo3-2.html</a> .....	256
<도판 4-58> 펠코크(Pelcoq), <파리의 시즌: 불로뉴 숲의 두 호수 사이(The season in Paris: Entre les lacs, Bois de Boulogne)>, 1860년대, 목판화, 23.8x34.2cm, 자료: 프랑스 국립도서관, <a href="http://gallica.bnf.fr/ark:/12148/btv1b530266096">http://gallica.bnf.fr/ark:/12148/btv1b530266096</a> .....	259
<도판 4-59> 카사트(Mary Stevenson Cassatt), <마차를 모는 여인과 소녀(A Woman and a Girl Driving)>, 1881, 캔버스에 유채, 89.7x130.5cm, 필라델피아 미술관(Philadelphia Museum of Art) .....	261
<도판 4-60> 모리조(Berthe Morisot), <여름날(Summer's Day)>, 1879, 캔버스에 유채, 45.7x75.2cm, 런던 내셔널 갤러리 .....	261
<도판 4-61> 베로(Jean Béraud), <불로뉴 숲에 있는 자전거 오두막(Le Chalet du cycle au bois de Boulogne)>, 1900년경, 캔버스에 유채, 53.5x65cm, 카르나발레 미술관 .....	262
<도판 4-62> 마르빌, <알레시아 가의 개통(Percement de la rue de Alésia)>, Pinon, <i>Atlas du</i>	

	<i>Paris haussmannien</i> , p. 53 .....	263
<도판 4-63>	발랑탕(Henri Valentin), <파리 습작(Études parisiennes)> 중 <공공 산책로와 정원: 퐁르리와 아스니에르(Promenades et jardins publics: Tuileries et Asnières)>, 1850, 동판화, , 32 x 23 cm, <a href="http://library.brown.edu/find/Record/dc1233676033916660">http://library.brown.edu/find/Record/dc1233676033916660</a> .....	264
<도판 4-64>	브르통(Jules Breton), <월요일(Le lundi)>, 1858, 캔버스에 유채, 62.5×92.8cm, 켐퍼 미술관(Kemper Art Museum) .....	267
<도판 4-65>	스퀘어 드 라 트리니테(Square de la Trinité), Alphand, <i>Promenade de Paris (planches)</i> , p. 113 .....	269
<도판 4-66>	스퀘어 생트 클로틸드(Square Sainte-Clotilde), Alphand, <i>Promenade de Paris (planches)</i> , p. 110 .....	269
<도판 4-67>	알팡, 스퀘어 드 라 트리니테, 1865, 황주영(2013) .....	269
<도판 4-68>	스퀘어 사뮈엘-루소(구 스퀘어 생트 트리니테), 황주영(2013) .....	270
<도판 4-69>	카이유보트(Gustave Caillebotte), <발코니의 남자, 블루바르 오스만(Man on a Balcony, Boulevard Haussmann)>, 1880, 캔버스에 유채, 개인 소장 .....	273
<도판 4-70>	카이유보트, <카페에서(At the Cafe)>, 1880, 캔버스에 유채, 루앙 미술관 .....	273
<도판 4-71>	모리세(Maurisset), <플라뇌르의 생리학(Physiologie du flâneur)>의 삽화, 1841, Huart, <i>Physiologie du flâneur</i> , p. 8 .....	274
<도판 4-72>	도미에, <구경꾼(Badauds)>, <a href="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Daumier,_Badauds.jpg">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Daumier,_Badauds.jpg</a> .....	274

## 표목록

<표 3-1>	제2제정 시기 새로 조성된 파리의 녹지, Sainte-Marie-Gauthier, Les parcs et jardins dans l'urbanisme parisien XIXe-XXe siècles, p. 83: 필자 재작성 .....	88
---------	--	----

# Abstract

## Urban Parks as Modern Invention of London and Paris in the Nineteenth Century

Ph.D. Dissertation

Juyoung Hwang

Advised by Prof. Kyung-Jin Zoh

February 2014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Landscape Architecture Major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rban parks are an integral part of daily life. However, they are a sort of “modern invention,” recently created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estern Europe metropolis. Drastic urbanization and population growth after the civil revolution and Industrial Revolution caused urban problems including low quality of life, housing problems, rich-poor gap, and epidemics. Urban parks were introduced in order to face these problems, and became the key elements of urban structure. Urban parks are planned and created so as to improve degenerated urban environment, and to improv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citizens. Based on such understanding, this dissertation seeks to review the social, political, and urban context of the urban park creation, to examine how



citizens of the modern times used the urban parks, and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urban parks.

This study presents the modernity of the urban parks as the keyword which includes various discussions concerning the creation, characteristics, and use of the urban parks. The second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was the time when the doctrine of Enlightenment, which depends on the advancement by human reason, was confirmed by political revolution, industrial revolution and urbanization. It exercised influence over every aspect of western civilization, and such characteristics constituted modernity. Bourgeois modernity clearly defines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the modernity, while aesthetic modernity shows anti-bourgeois attitudes.

Park, which was once enclosed game preserve of the royal court, changed its meaning as it was open to public in the nineteenth century. Change or creation of meaning of a word reflects the ideological and cultural changes of the society. Square, promenade, cemeteries, pleasure grounds, which were used as the public green space before the creation of public parks also experienced changes. Modernity in the cities like London and Paris in the second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Western Europe reflects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of the invention of urban parks.

Urban parks introduced nature into the city in order to solve the urban problems and to guarantee the advancement. However, it conceals economic objective regarding urban development, social control by invisible surveillance, and indoctrination of bourgeois ideology. Modernity was convinced of progress of humanity based on reason, and invented urban park as a healthy infrastructure to cushion the impact of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Urban parks were the 'lung of the city,' and they should promote the health as well as the culture and morality of the citizen.

Urban parks were created in the process of urbanization, and their location and structure connoted urban fabric. Urban parks reflected, represented, and realize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city. Manifold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parks shows that the urban parks are constructed in the modern society and in the everyday life of the modern citizen. Strata of the urban parks revealed the various aspects of urban everyday life, such as environmental changes, advancement and development, conflicts and tension, division of social class and gender. Urban parks connoted multi-dimensional aspects of the modern society.

Urban parks represented cultural nature, and they influenced our ways of seeing nature. Nature in the urban parks was not the original nature, but manufactured, controlled, idealized, and 'natural' nature. Urban parks were both cultural nature and natural culture.

Modern capitalism and democracy developed in the metropolis in the second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Western Europe, and consuming 'mass' take the leading role. Their urban parks were the everyday life space where flâneurs revealed cultural values. And they were a part of the world exposition venue to boast national pride. Or they conceal the side effects of the drastic urbanization and unfortunate past. As an institution, urban parks produced 'desirable citizens,' and implied various mechanism. Activities in the urban parks including promenading, relaxation, cultural activities, sports, social activities contained 'public health' and 'public order' policies to cultivate good citizen.

These studies showed that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urban parks is not simple nor neutral. Urban parks were the 'nature' in the metropolis, and place for relaxation and leisure, but they were ideological space reflecting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onnotations. Urban parks claimed to be egalitarian place for everybody, but its location, design, and contents were thoroughly bourgeois. Urban parks embodied the values of the modern society

including enlightenment, city, advancement, rationality, development, and reason, and these were the values of the bourgeois society. Utilitarianism, capitalism, and democracy were the key of the nineteenth century modern society, and they changed our way of life. Urban parks controlled hygiene and social order, while reflected aesthetic taste of the times. Both creation and experience of the urban parks reflected the modernity of the second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Study on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urban parks showed the modernity and its implications. Urban parks were a ‘modern invention,’ created by precise planning, and reflected both rationality and political purposes of the society. Metropolis in the second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western Europe witnessed many ‘inventions’ of the modernities including urban parks. Discourses on the origin, influence, and continuity of the ‘modernity’ have been developed in many ways. It changes following the times and cultural context, so its study should be continued.

*Keywords : urban park, modernity, nineteenth century, idealized nature,  
modern city, bourgeois, Paris, London*

*Student Number : 2008-30687*

## 감사의 글

이 연구를 진행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영역 사이를 서성거렸습니다. 조경학적 훈련을 학부 때부터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과학적 소양도 갖추지 못한 채, 조경사와 도시계획, 사회과학과 문화사, 예술이론을 아우르는 넘나드는 논문을 계획한 것부터가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지적 호기심과 욕심,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이 뒤섞인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 이후로는 한계를 넘기 위한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 의심과 설득의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이는 온전히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우선 지도교수님이신 조경진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교수님은 부족한 학생을 거두어 학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수년간의 따뜻한 격려와 엄격한 지도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용기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수님은 연구가 진행되는 내내 고유의 ‘무관심’과 ‘관심’으로 진행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관심’은 자유로이 여러 분야를 가로지르며 연구주제를 탐색할 기회를 주었고, ‘관심’은 주제를 정한 이후의 연구의 방향과 초점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공해주신 소중한 자료는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밑거름이 되었으니, 교수님의 ‘무관심’은 사실 넓고 깊은 ‘관심’과 배려의 일부라 해야겠습니다. 또한 거시적 통찰과 미시적 관점을 동시에 오가는 교수님의 탁월한 균형 감각은 연구자가 지엽적인 문제에 침착하여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답사에서 해주신 여러 귀중한 말씀은 공원을 당대의 맥락, 일상의 측면에서 보고 체험하는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너리 제자에 게 베풀어 주신 학은은 평생을 두고 갚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또한 본 논문의 심사를 맡아 세심하고 정확한 논평을 해주신 배정한 교수님, 이석정 교수님, 전상인 교수님, 윤상준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아 주신 배정한 교수님은 언제나 심사자의 입장과 마음을 배려해주시고, 따뜻한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연구자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해결책과 숨어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꼼꼼한 첨삭과 다양한 메모를 통해 글 자체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신 가르침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석정 교수님의 방대한 지식과 조언에 힘입어 논문의 완성도를 보다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분야의 선부른 인용의 위험에 대한 말씀은 연구자로서의 태도를 가다듬는 각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상인 교수님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 주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 주셨고, 비사회과학도로서 간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도움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섬세한 조언은 연구자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윤상준 박사는 연구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국과 관련된 내용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고, 논문의 구성과 형식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조언을 논문에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부족한 능력 탓이지만, 한편으로 이 정도로 정돈된 글로 다듬을 수 있던 것은 심사위원분들 덕분입니다.

수업과 세미나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주신 유병림 교수님, 양병이 교수님, 박종화 교수님, 손용훈 교수님, 이유미 교수님, 김세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단에 서는 기회를 주신 박성은 은사님, 안승홍 교수님, 권진욱 교수님, 신지훈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의는

미술사, 조경사, 도시이론, 조경미학의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배움의 기회였고, 이는 본 논문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수년간 동고동락한 선후배와 동기들의 도움은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우선 논문의 진행 과정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김연진 박사님과 박희성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실질적이면서도 힘이 나는 격려를 해주신 두 선배님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낯선 학문의 세계에서 헤매던 학점이수과정 동안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의지가 되어준 길지혜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협동과정의 동학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서영애 소장님과 김정은, 윤서연, 채진해, 김용국, 조혜령, 이명준... 이들과의 대화는 시야를 넓히는 학문적 자극제이자,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논문 진행 과정동안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 김도훈 조교와 박윤미 조교, 심사 과정을 도와준 김정화, 양희은에게도 고마움의 말을 전합니다.

바탕을 만들어주신 이화여대 미술사학과와 박성은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석사과정동안 교수님께 배우고 익힌 지식과 학문적 태도가 없었다면 이 논문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결같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정은진 박사님과 이화진, 이가은, 박영진, 강은주, 곽혜영 선배, 바쁜 유학생할 중에도 자료 입수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장유리와 한경지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연구자로서의 태도를 가다듬고, 다시금 의지를 다지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답사 때 다방면에서 큰 도움을 주신 파리의 박지은, 윤정민 선배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의 모든 부분에는 가족들의 사랑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대선배이자 은사이신 부모님은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적 호기심의 장을 넓혀주셨고, 몸소 길을 걸어가며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연구라는 외롭고 때로는 고단한 과정을 이해하고, 자료의 수집을 포함한 연구 과정에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으며, 언제라도 대화의 장을 기꺼이 열어 학문과 일상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들의 평생에 걸친 희생과 수고에 이 논문이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한 동생을 이해하고 응원해준 오빠와 새언니, 수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워킹 맘의 생활 속에서도 귀찮은 내색 없이 도판 작업을 도와주고, 때때로 식사까지도 챙겨주며 지원해준 동생 진영과, 수많은 고민과 불안의 시기를 잘 넘기도록 든직하게 응원해준 제부 이은석 동학, 천진한 미소와 재롱으로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고 웃을 수 있도록 해준 첫 조카 선균에게 감사합니다.

미처 언급하지 못한 고마운 분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직도 부족하기만 한 논문을 세상에 내어 놓는 것이 부끄럽고 송구하지만,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1월  
관악에서  
황주영 올림